

기본연구
2024-01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실태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책임 | **이선영**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 | **김민철**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전북여성가족재단
JEONBUK WOMEN & FAMILY FOUNDATION



통계청(2024)에서 발표한 ‘2023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는 20,431건으로 전년 대비 17.2% 증가하였으며, 전체 혼인의 10.6%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0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지역별 다문화 혼인 건수는 모든 시도에서 증가하였으며, 전북(12.4%)은 제주(13.6%), 충남(12.9%), 전남(12.5%)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한, 도내 다문화 출생아 수는 436명으로 전년도 대비 13.0% 증가하였으며, 다문화 출생아 비중(6.6%)은 충남(6.8%)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과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북 다문화가족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포용적 사회 환경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설문조사와 면접 조사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삶과 정체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의 어려움과 사회적 요구를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지원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관 종사자의 정책 실행 과정과 사업 운영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 정책의 현황과 한계를 파악해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본 연구보고서가 완성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자문에 응해주신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공무원, 가족센터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협조해주신 시·군 가족센터 종사자와 연구진의 노고에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본 보고서가 전북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마련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2024년 12월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전정희

목 차 Contents

I.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내용	3
2. 연구방법 및 절차	5
3. 선행연구 고찰	8
II. 전북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분석	17
1. 다문화가족 현황	19
2. 다문화가족 정책 분석	24
3. 소결	34
III. 전북 다문화가족 실태 및 정책수요	35
1. 설문조사	37
2. 면접조사	171
3. 소결	191
IV. 전북 다문화가족 정책 개선방안	199
1. 정책 추진 방향	201
2. 주요 추진 과제	204
참고문헌	212
부록	214

표 목차 Table Contents

Ⅰ 표 I-1 Ⅰ 연구절차	8
Ⅰ 표 I-2 Ⅰ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선행연구	11
Ⅱ 표 II-1 Ⅱ 연도별 다문화 가구 현황	19
Ⅱ 표 II-2 Ⅱ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 현황	20
Ⅱ 표 II-3 Ⅱ 시·군 다문화가구 현황	21
Ⅱ 표 II-4 Ⅱ 다문화가구의 출신국가	23
Ⅱ 표 II-5 Ⅱ 다문화가족 관련 법령	24
Ⅱ 표 II-6 Ⅱ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26
Ⅱ 표 II-7 Ⅱ 다문화가족 기본계획별 특징	27
Ⅱ 표 II-8 Ⅱ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근거	28
Ⅱ 표 II-9 Ⅱ 전북 다문화가족 기본계획	29
Ⅱ 표 II-10 Ⅱ 전북 시·군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사업 현황	31
Ⅱ 표 II-11 Ⅱ 전북 시·군 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체 사업 운영 현황	32
Ⅲ 표 III-1 Ⅲ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할당방법 비교표	38
Ⅲ 표 III-2 Ⅲ 전북 시·군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최종할당표	39
Ⅲ 표 III-3 Ⅲ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조사표	40
Ⅲ 표 III-4 Ⅲ 성별	44
Ⅲ 표 III-5 Ⅲ 거주 시·군	45
Ⅲ 표 III-6 Ⅲ 출생국적	46
Ⅲ 표 III-7 Ⅲ 한국국적 보유여부	47
Ⅲ 표 III-8 Ⅲ 체류자격(2012-2024)	48
Ⅲ 표 III-9 Ⅲ 외국인 국적 시 체류자격	49
Ⅲ 표 III-10 Ⅲ 전북거주기간	50
Ⅲ 표 III-11 Ⅲ 전북거주계기	51
Ⅲ 표 III-12 Ⅲ 결혼이민자 연령	52
Ⅲ 표 III-13 Ⅲ 결혼이민자의 연령대(2009-2024)	53

Ⅱ 표 Ⅲ-14 Ⅱ 결혼이민자 교육수준	53
Ⅱ 표 Ⅲ-15 Ⅱ 본인 한국어 실력	55
Ⅱ 표 Ⅲ-16 Ⅱ 거주 주택 유형	56
Ⅱ 표 Ⅲ-17 Ⅱ 주택 소유 형태	57
Ⅱ 표 Ⅲ-18 Ⅱ 월 평균 가구 소득	58
Ⅱ 표 Ⅲ-19 Ⅱ 주관적 경제적 지위	59
Ⅱ 표 Ⅲ-20 Ⅱ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60
Ⅱ 표 Ⅲ-21 Ⅱ 기초생활수급자 유형	61
Ⅱ 표 Ⅲ-22 Ⅱ 가구 유형(2015-2024)	62
Ⅱ 표 Ⅲ-23 Ⅱ 가구 유형	63
Ⅱ 표 Ⅲ-24 Ⅱ 가구원 수	64
Ⅱ 표 Ⅲ-25 Ⅱ 배우자 유무	65
Ⅱ 표 Ⅲ-26 Ⅱ 배우자 연령	66
Ⅱ 표 Ⅲ-27 Ⅱ 배우자 최종학력	68
Ⅱ 표 Ⅲ-28 Ⅱ 자녀 여부	69
Ⅱ 표 Ⅲ-29 Ⅱ 자녀 수 비교	70
Ⅱ 표 Ⅲ-30 Ⅱ 자녀 수	71
Ⅱ 표 Ⅲ-31 Ⅱ 자녀 연령	72
Ⅱ 표 Ⅲ-32 Ⅱ 중도입국 자녀 여부(2020-2024)	73
Ⅱ 표 Ⅲ-33 Ⅱ 중도입국 자녀 여부	73
Ⅱ 표 Ⅲ-34 Ⅱ 자녀 장애 여부	74
Ⅱ 표 Ⅲ-35 Ⅱ 혼인 상태(2021-2024)	75
Ⅱ 표 Ⅲ-36 Ⅱ 혼인 상태	76
Ⅱ 표 Ⅲ-37 Ⅱ 재혼여부, 2015-2024년	77
Ⅱ 표 Ⅲ-38 Ⅱ 재혼여부	78
Ⅱ 표 Ⅲ-39 Ⅱ 배우자 만남 경로	79
Ⅱ 표 Ⅲ-40 Ⅱ 혼인 유지기간	80
Ⅱ 표 Ⅲ-41 Ⅱ 혼인 유지기간(2015-2024)	81
Ⅱ 표 Ⅲ-42 Ⅱ 배우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	82
Ⅱ 표 Ⅲ-43 Ⅱ 가정관리	83
Ⅱ 표 Ⅲ-44 Ⅱ 부부갈등 경험	85
Ⅱ 표 Ⅲ-45 Ⅱ 부부갈등 이유	86
Ⅱ 표 Ⅲ-46 Ⅱ 부부갈등 해결방안	87
Ⅱ 표 Ⅲ-47 Ⅱ 가정폭력 경험 비율(여성, 2020-2024)	88
Ⅱ 표 Ⅲ-48 Ⅱ 가정폭력 경험 여부	88

Ⅱ 표 Ⅲ-49 Ⅱ 가정폭력 유형	89
Ⅱ 표 Ⅲ-50 Ⅱ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람	89
Ⅱ 표 Ⅲ-51 Ⅱ 가정폭력 경험 시 대처방안	90
Ⅱ 표 Ⅲ-52 Ⅱ 가정폭력 대처기관 인지도	90
Ⅱ 표 Ⅲ-53 Ⅱ 가족관계 만족	91
Ⅱ 표 Ⅲ-54 Ⅱ 이혼·별거 후 경과 시간	92
Ⅱ 표 Ⅲ-55 Ⅱ 이혼·별거 사유	93
Ⅱ 표 Ⅲ-56 Ⅱ 이혼·별거 후 자녀양육	93
Ⅱ 표 Ⅲ-57 Ⅱ 양육비 이행	94
Ⅱ 표 Ⅲ-58 Ⅱ 면접교섭	95
Ⅱ 표 Ⅲ-59 Ⅱ 양육효능감	95
Ⅱ 표 Ⅲ-60 Ⅱ 영유아 자녀 양육 어려움	97
Ⅱ 표 Ⅲ-61 Ⅱ 영유아 자녀 돌봄 분담	98
Ⅱ 표 Ⅲ-62 Ⅱ 초등 자녀 양육 어려움	99
Ⅱ 표 Ⅲ-63 Ⅱ 초등 자녀 학교 적응	100
Ⅱ 표 Ⅲ-64 Ⅱ 초등 자녀와 하루평균 대화시간	101
Ⅱ 표 Ⅲ-65 Ⅱ 초등 자녀와 의사소통 어려움	102
Ⅱ 표 Ⅲ-66 Ⅱ 초등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시간(한달평균)	103
Ⅱ 표 Ⅲ-67 Ⅱ 초등 자녀 학부모 참여 활동	104
Ⅱ 표 Ⅲ-68 Ⅱ 초등 자녀 한국어 실력	105
Ⅱ 표 Ⅲ-69 Ⅱ 초등 자녀 외국어 실력	106
Ⅱ 표 Ⅲ-70 Ⅱ 중·고등 자녀 양육 어려움	107
Ⅱ 표 Ⅲ-71 Ⅱ 중·고등 자녀 학교 적응	108
Ⅱ 표 Ⅲ-72 Ⅱ 중·고등생 자녀와 하루평균 대화시간	109
Ⅱ 표 Ⅲ-73 Ⅱ 중·고등 자녀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110
Ⅱ 표 Ⅲ-74 Ⅱ 중·고등 자녀 한국어 실력	111
Ⅱ 표 Ⅲ-75 Ⅱ 중·고등 자녀 외국어 실력	112
Ⅱ 표 Ⅲ-76 Ⅱ 성인 자녀(만19~23세) 양육 어려움	113
Ⅱ 표 Ⅲ-77 Ⅱ 성인 자녀(만19~23세)의 학교/사회 적응	114
Ⅱ 표 Ⅲ-78 Ⅱ 성인자녀(만19~23세)에게 필요한 지원	115
Ⅱ 표 Ⅲ-79 Ⅱ 성인자녀(만19~23세)와 하루평균 대화시간	116
Ⅱ 표 Ⅲ-80 Ⅱ 성인자녀(만19~23세)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116
Ⅱ 표 Ⅲ-81 Ⅱ 지역사회 참여활동	117
Ⅱ 표 Ⅲ-82 Ⅱ 한국 선거 참여 경험	118
Ⅱ 표 Ⅲ-83 Ⅱ 전북 거주 만족	119

표 III-84	전북 거주 불만족 이유	120
표 III-85	전북 거주 의향	121
표 III-86	한국 생활 어려움	122
표 III-87	차별 경험	123
표 III-88	차별받은 장소	124
표 III-89	차별시 대처방안	125
표 III-90	지원서비스 인식 및 필요도: 센터 교육	126
표 III-91	지원서비스 인식 및 필요도: 가정 방문 교육	127
표 III-92	지원서비스 인식 및 필요도: 통·번역 지원	128
표 III-93	지원서비스 인식 및 필요도: 가족 상담	129
표 III-94	지원서비스 인식 및 필요도: 위기 사례 지원	130
표 III-95	지원서비스 인식 및 필요도: 사회 활동 지원	131
표 III-96	지원서비스 인식 및 필요도: 아이 돌봄 지원	132
표 III-97	지원서비스 인식 및 필요도: 주거 지원	133
표 III-98	지원서비스 인식 및 필요도: 다문화 인식 개선	134
표 III-99	지원서비스 인식 및 필요도: 자립 지원	135
표 III-100	지원서비스 인식 및 필요도: 국적취득 비용 지원	136
표 III-101	지원서비스 인식 및 필요도: 고향방문 지원	137
표 III-102	지원서비스 인식 및 필요도: 이중언어 학습 지원	138
표 III-103	지원서비스 인식 및 필요도: 자녀 언어발달 지원	139
표 III-104	지원서비스 인식 및 필요도: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140
표 III-105	현재 근로 여부	141
표 III-106	근로 이유	142
표 III-107	근로 어려움	143
표 III-108	주 평균 근로시간	144
표 III-109	고용 형태	145
표 III-110	여성 근로 직업군(2020-2024)	146
표 III-111	근로 직업군	146
표 III-112	월평균 수입(2015~2024)	148
표 III-113	월평균 수입	149
표 III-114	근로 만족도	150
표 III-115	구직 경험	151
표 III-116	구직 시 어려움	152
표 III-117	직업교육훈련 참여 의향	153
표 III-118	선호 직업교육훈련: 1순위	154

Ⅲ-119	선호 직업교육훈련: 1+2순위	155
Ⅲ-120	선호 취/창업 지원정책: 1순위	156
Ⅲ-121	선호 취/창업 지원정책: 1+2순위	157
Ⅲ-122	노후준비 여부	158
Ⅲ-123	노후준비 종류: 1순위	160
Ⅲ-124	노후준비 종류: 1+2순위	161
Ⅲ-125	노후 걱정	162
Ⅲ-126	주관적 신체적 건강	163
Ⅲ-127	주관적 정신 건강	164
Ⅲ-128	병원 이용 시 어려움	165
Ⅲ-129	임신/출산시 어려움	166
Ⅲ-130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167
Ⅲ-131	경제환경 변화	168
Ⅲ-132	삶의 만족 변화	169
Ⅲ-133	한국어 실력 변화	170
Ⅲ-134	다문화가족 참여자 특성	172
Ⅲ-135	다문화가족 면접조사 결과	173
Ⅲ-136	기관종사자 및 현장전문가 FGI 참여자 특성	183
Ⅲ-137	기관종사자 및 현장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184
Ⅲ-138	지원서비스 인식 및 필요도	194

그림 목차 Picture Contents

Ⅰ 그림 II-1 Ⅰ 전북 다문화가구 구성원	20
Ⅰ 그림 III-1 Ⅰ 결혼이민자 한국어 실력	54
Ⅰ 그림 III-2 Ⅰ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여성과 배우자의 연령 비교	67
Ⅰ 그림 III-3 Ⅰ 가정관리_가사노동	84
Ⅰ 그림 III-4 Ⅰ 가정관리_자녀돌봄	84
Ⅰ 그림 III-5 Ⅰ 가정관리_재산관리	84
Ⅰ 그림 III-6 Ⅰ 가정관리_기타관리	84
Ⅰ 그림 III-7 Ⅰ 가족관계 만족도	92
Ⅰ 그림 III-8 Ⅰ 양육비 수령여부 비교	94
Ⅰ 그림 III-9 Ⅰ 노후 준비(2021, 2024)	159

연구요약

I. 서론

□ 연구배경

- 우리나라 외국인과의 혼인 비율은 약 2만 건으로 전년 대비 17.2% 증가하였으며 전북의 경우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694건으로 전체 혼인비중의 12.4%를 차지하였음 (통계청, 2024)
- 결혼이민자의 국내거주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초기의 문화 적응 및 의사소통의 문제보다는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과 교육 등의 새로운 어려움이 나타나며 다문화가족 규모 증가와 자녀의 성장,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고 있음(최윤정 외, 2021)
- 이에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시계열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전북 다문화가족의 표본 비율이 약 4.0%에 불과하여 지역의 대표성 확보 및 오차의 한계로 전북의 다문화가족 실태를 세밀하게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5조에 의하면 3년마다 다문화가족 및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전북 다문화가족의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고 집단별 다문화가족, 기관 종사자 및 현장전문가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변화하는 다문화가족의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 연구목적

- 전북 다문화가족의 실태조사
- 집단별 다문화가족, 기관종사자 및 현장전문가 면접조사
-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개선방안 모색

□ 연구내용 및 방법

- 문헌연구 및 통계분석
 - 다문화가족 관련 연구과제, 논문, 자료집 등 검토
 -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한 전북 다문화가족 자료 재분석

○ 전북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조사대상: 전북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605명
- 조사내용: 일반사항 및 가구특성, 부부관계, 자녀양육, 경제활동, 지역사회관계, 건강 및 삶의 만족 등

○ 면접조사

〈표 1〉 면접조사 개요

조사방법	조사대상	표본수	조사내용
심층면접 또는 초점집단면접 (FGI)	집단별 다문화가족	16	· 한국인의 아내, 엄마로서 삶의 이야기, 현재 어려운 점, 자녀양육 등 · 국제결혼의 시작과 가족변화, 가족 해체 후 생활, 자녀양육 등
	기관종사자 및 현장전문가	6	다문화가족을 바라보는 관점, 다문화가족 정책 평가 및 문제점 등

II. 전북 다문화가족 정책 분석

□ 정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별 특성

〈표 2〉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별 특성

	제1차 기본계획	제2차 기본계획	제3차 기본계획	제4차 기본계획
국제결혼	증가	비율 안정화	감소 추세	코로나19로 인한 감소
다문화가족	증가	지속 증가	안정화 및 장기정착 비율 증가	장기 거주자와 고령층 비율 지속 증가
결혼이민자	초기적응	사회진출	사회진출 욕구증대 및 경제 사회적 참여 강화	정착주기별 지원 강화
자녀	출생 및 초기발달	자녀세대 성장	학령기(청소년) 비율 상승	학령기 자녀의 학교생활 부적응 학력 격차 등의 어려움 심화
가족유형	결혼 및 가족생활 갈등 발생	가족 해체 증대 가능	한부모 등 가족 형태 다양화	이혼(재혼), 사별 등 가구 구성 다양화
사회적 수용성	사회적 관심 형성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 태도 확산 및 갈등 우려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지속적 개선 노력 필요	차별경험은 감소하였으나 다문화 수용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

□ 전북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표 3〉 전북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대과제	전북도 정책	대상	지원내용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평가·진단, 언어교육, 부모교육 및 상담
	이중언어 학습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부모교육 및 자녀 직접교육·온라인 학습지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 서비스 제공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이주배경 청소년 지역자원 연계사업	이주배경 청소년	협업체 운영, 한국어교육, 진로·직업교육, 상담 등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등	한국어교육 시행
	결혼이민자 자립지원 통합사업	결혼이민자	학력취득 지원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입국초기 결혼이민자	입국 초기 상담, 국적·체류 정보제공, 가족 간 의사소통 지원, 위기 상황 시 긴급지원 통·번역 등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비용 지원	도내 국적 미취득자	국적취득자에게 국적취득 수수료 30만원 지원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왕복 항공료, 여행자 보험 등 지원
	다문화이주민 플러스센터 운영 지원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체류관리, 고용허가, 통·번역 상담, 한국어교육 등 통합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원스톱 통·번역서비스 실시
	글로벌마을 학당 운영	다문화 가족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가족 행복교육, 문화교육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멘토단 운영
	다문화가족 위기지원 전문서비스	다문화가족	위기 다문화가정에게 전문가 자문을 통한 갈등해결(전북다문화거점센터)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다문화주간 어울림 축제	다문화가족 및 도민	다문화주간 부대행사 개최, 다문화 어울림축제 개최
	다문화가족 정보공유 프로그램 제작 지원	다문화가족	다문화 정보공유 프로그램 『다정다감』 제작 지원 (전주 MBC)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전북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다문화가족 및 구성원	전북 다문화가족 실태 및 정책 개선방안

Ⅲ. 전북 다문화가족 실태 및 면접조사 결과

□ 설문조사 결과

○ 일반적 특성

- 성별은 여성이 92.6%, 남성이 7.4%이고, 전주시(13.4%)가 가장 많은 응답자가 분포하였으며 익산시(9.9%), 군산시(9.6%), 정읍시(7.1%), 김제시(6.9%), 완주군(6.9%) 순으로 나타남
- 결혼이민자의 60.8%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79.7%는 결혼이민(F-6), 국민의 배우자(F-2-1)로 나타남
- 전북 거주기간은 평균 12.1년으로 나타났으며 전북 거주계기는 결혼(86.0%)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결혼이민자의 평균연령은 40.3세이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38.3%)이 가장 많았고 한국어 수준은 3.16점(5점척도)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49.9%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소유 형태는 배우자 명의 소유(44.1%)가 가장 높음
- 가구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300만원 미만(31.1%)이 가장 많았고 주관적 경제적 지위는 '중하'라고 인식하는 경우(48.4%)가 가장 높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10.1%로 나타남

○ 가구특성

- 가구유형은 부부와 자녀가 6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부모, 부부, 자녀가 17.0%, 부부만 사는 경우가 10.2%로 나타남
- 배우자의 연령은 50대(47.9%)가 가장 많으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52.8%)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자녀수는 평균 1.9명으로, 2021년 전국(1.5명)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자녀연령은 초등학교생이 47.2%, 중고등학생이 35.2%로 나타남. 중도입국자녀가 있는 경우는 12.6%, 장애자녀가 있는 경우는 3.1%로 나타남

○ 결혼생활

- 배우자와의 만남 경로를 살펴보면 여성은 주로 결혼중개업체(30.6%), 가족 또는 친척의 소개로(26.8%), 남성은 스스로(52.3%)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결혼이민자의 혼인상태는 대부분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가 있다(88.3%)고 응답하였으며 혼인 유지 기간은 평균 12.1년으로 나타남
- 다문화부부의 과반 이상은 하루 평균 대화시간이 1시간 미만(54.4%)이었으며가사 노동과 자녀돌봄에서 여성은 내가, 남성은 배우자가 한다고 응답한 반면 재산관리 및 기타관리는 부부가 같이 하거나 배우자(남편)가 담당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다문화 부부의 갈등 경험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73.4%이며 부부 갈등 이유는 배우자의 성격 가치관(44.9%), 자녀양육 교육(22.2%)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갈등해결 방법으로는 그냥 참거나(23.5%) 혼자서 해결하는 경우(18.1%)가 높게 나타났으며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중 6.4%가 가정폭력을 경험함
- 이혼·별거 후 경과 기간은 평균 4.7년으로 나타났으며 성격차이(42.9%)가 이혼·별거의 가장 큰 이유임. 이혼·별거 후 자녀양육은 본인(81.0%)이 하였으며 양육비 수령은 응답자의 61.8%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함

○ 자녀양육

- 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은 평균 3.6점(5점척도)으로 나타남
- 영유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자녀에게 한국어를 직접 가르치기가 어렵다(38.2%), 자녀양육에 대한 의견차이(25.3%)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자녀 돌봄 분담은 주로 여성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초등자녀 양육 어려움은 초등자녀의 학습지도 및 관리(33.3%)로 나타났으며 교육 정보부족(17.3%), 교육비용 부담(16.5%), 스마트폰 갈등(11.4%) 순으로 나타남. 초등자녀의 학교적응은 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과반이상(52.5%)이 초등 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 약간의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함
- 중·고생 자녀 양육 어려움은 교육정보부족(24.2%)과 교육비 부담(23.2%)으로 나타남. 중고생 자녀와의 하루평균 대화시간은 1시간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자녀와의 대화에서 약간의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경우도 41.6%로 나타남
- 성인자녀 양육 어려움은 과반이 교육비 부담(50.0%)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가장 필요한 지원은 학업 관련 지원(53.3%)이라고 응답함

○ 지역사회관계

- 지역사회 참여활동 연구결과를 보면 과반 정도가 이주민 모임(49.9%)을 하고 있었으며 읍/면 지역이 동 지역보다 참여활동이 높게 나타남

- 전북 거주 만족도는 4.05점(5점척도)으로 나타났으며 만족하지 않은 이유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45.7%)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사회생활의 어려운 점으로는 언어(27.1%)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응답자 중 22.3%가 차별경험이 있음
- 지역서비스 인식 및 필요도는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4> 지원서비스 인식 및 필요도

지원서비스	모른다	안다	필요도(5점척도)
센터교육	0.0	100.0	4.32
가정방문교육	9.4	90.6	4.14
통번역지원	10.4	89.6	4.09
가족상담	14.7	85.3	4.00
위기사례지원	20.0	80.0	4.00
사회활동지원	16.2	83.8	3.94
아이돌봄 지원	19.8	80.2	3.94
주거지원	31.1	68.9	3.95
다문화인식 개선	16.5	83.5	4.06
자립지원	23.8	76.2	4.05
국적취득비용	23.6	76.4	4.06
고향방문 지원	14.9	85.1	4.32
이중언어 학습지원	17.4	82.6	4.11
자녀 언어발달 지원	16.8	83.2	4.17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29.1	70.9	3.94

○ 경제활동

- 결혼이민자의 58.7%는 현재 일을 하고 있었으며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 교육비 충당(39.7%)과 생활비 마련(38.3%)으로 나타남. 근로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 및 집안일과의 병행(23.7%)이었으며 남성은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37.5%)을, 여성은 양육 및 집안일과의 병행(25.1%)과 낮은 임금(14.2%)이라고 응답함
- 결혼이민자의 직업군은 서비스 종사자(32.1%)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월평균 수입은 100만~200만원 미만(49.0%)이 가장 많았고 근로 만족도는 평균 3.20점(5점척도)으로 나타남

- 현재 근로 중이지 않는 응답자의 37.2%는 구직경험이 있으며 구직시 가장 어려운 점은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것(40.9%)으로 나타남
- 직업교육 훈련은 55.9%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선호하는 직업교육 훈련은 식품가공 관련분야(21.3%)로 나타남
- 취·창업 지원 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어 교육(24.0%)으로 나타났으며 노후 준비는 47.8%가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노후에 대한 걱정은 3.25점(5점척도)으로 나타남

○ 건강 및 삶의 만족

- 주관적 신체 건강은 3.41점(5점척도)으로 보통 이상의 건강상태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난 1년 동안 슬프거나 절망감을 2주 이상 지속적으로 느낀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9.3%로 나타남
- 병원이용시 어려운 점은 한국어를 잘하지 못함(34.2%)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였으나 장기 거주자는 한국어 소통보다 치료비 부담(21.5%),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음(16.5%)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임신/출산시 어려운 점은 의사소통 어려움(14.7%)이었으나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 없다(15.2%)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를 대상으로 경제환경(77.5%), 삶의 만족(80.1%), 한국어 실력(93.2%) 변화에 대한 질문에 모두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응답함

□ 면접조사 결과

○ 집단별 다문화가족 면접조사

- 결혼이주민 여성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문화와 언어로 나타났으며 특히 한국어 습득이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나타남. 또한 다문화가족이라는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낙인감을 경험함
- 다문화가족 부부문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의사소통과 자녀교육 방식 차이로 나타났으며 배우자 참여 부부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함
- 자녀문제는 다문화가족 유형별 차이가 나타남. 다문화 한부모 가족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받는 사례가 한 건도 없었으며 자녀돌봄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남

-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영유아기에는 언어발달이, 청소년기에는 진로 및 학업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남
- 교통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센터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가 쉽지 않았으며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가족센터 이용 횟수가 감소함. 또한 가족센터 및 관련 기관의 홍보가 부족하다고 언급함
- 기관종사자 및 현장전문가 다문화가족 면접조사
 - 다문화가족은 더 이상 취약계층이 아니며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인식하고 있음. 다문화가족만을 위한 사업보다는 1인가구, 한부모가구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사업 운영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모집으로 나타남. 또한 현금성, 체험형 프로그램은 모집이 용이하지만 다문화가족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나 상담은 모집이 매우 어려움
 - 또한 효과성이 낮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지원정책, 기관 간 중복사업, 다문화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한계, 평가체계 한계, 외국인 가족 지원 부족에 대한 한계 등을 언급함

IV. 전북 다문화가족 정책 개선방안

- 전북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성 재고
-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실효성 향상
- 다문화가족 유형별 맞춤 지원
- 가족센터 홍보 강화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성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내용
2. 연구방법 및 절차
3. 선행연구 고찰

1. 연구 필요성 및 내용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외국인과의 혼인 비율은 약 2만 건으로 전년 대비 17.2% 증가하였으며 전북의 경우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약 694건으로 전체 혼인비중의 12.4%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24). 이러한 수치는 코로나 이전의 혼인건수와 비교하더라도 증가하는 추세¹⁾이며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4). 또한 현재 전국 다문화 가구는 415,584가구로 전년 대비 4.1% 증가하였으며, 전북은 14,693가구로 전년 대비 4.5% 증가하였다(통계청, 2024). 이처럼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외국인과의 결혼이 보편적인 형태임을 보여주며 다인종·다문화 국가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혼인감소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측면에서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

결혼이민자의 국내거주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초기의 문화 적응 및 의사소통의 문제 보다는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과 교육 등의 새로운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거주 기간 장기화는 다문화가족 규모 증가와 자녀의 성장, 다양한 형태의 가족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최윤정 외, 2021). 우선 다문화가족 규모 증가와 자녀의 성장에 대해 살펴보면 결혼이민자의 자녀 규모는 2007년에 비해 약 6배 증가하였으며 연령분포에 있어 미취학 연령보다는 학령기아동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최윤정 외,

1) 외국인과의 혼인비중(통계청, 2020, 2023): 10.3%(2019) → 7.2%(2021) → 10.6%(2023)

2021).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가족 증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는 약 6천 건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하였으며 전북의 이혼건수는 227건으로 전년 대비 26.1% 증가하였다(통계청, 2024).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2021)에 의하면 한부모 가족의 비율은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10.3%, 기타귀화자의 경우에는 13.4%로 나타났으며 1인가구의 비율은 기타귀화자(22.2%)가 결혼이민자(5.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다문화가족은 생애주기, 형태, 생활양식 등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과 변화를 반영한 정책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중앙정부는 2009년부터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시계열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인구비례에 따라 표본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전북 다문화가족의 표본은 약 4.0%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전북 다문화가족 실태를 일부 확인할 수는 있으나, 지역의 대표성 확보 및 오차의 한계로 세밀한 분석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각 시·도·군에서 다문화 가족 또는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북에서도 전북형 다문화가족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설동훈 외, 2015),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 사회통합 증진을 중심으로(이주연 외, 2019), 다문화가족 복지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대책 연구(설동훈 외, 2020) 등이 연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현재 다문화가족의 통계적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전북 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5조에 의하면 3년마다 다문화가족 및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변화되는 다문화가족의 정책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집단별 다문화가족, 기관 종사자 및 현장전문가를 면접조사하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본 연구는 전북 다문화가족의 실태 및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표를 구성하여 전북 다문화가족의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고, 집단별 다문화 가족, 기관 종사자 및 현장전문가를 면접조사하여 정책 개선 방안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전북 다문화가족의 현황, 시계열적 변화, 변화에 따른 정책 요구도, 집단별 다문화가족 정책 요구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전북 다문화 가족의 향후 정책 추진의 방향과 개선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전북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지원을 위한 시사점과 향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였으며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하여 전북 다문화가족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전북 다문화가족의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여 시사점 및 향후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진행을 위한 연구방법 및 연구절차를 제시하였으며 정책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최근 3년 이내의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제2장에서는 전북 다문화가족의 현황을 전국과 비교하여 제시하고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하여 전북 시군의 다문화가구 규모와 구성원의 현황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와 전북의 다문화가족 정책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다문화가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결혼이민자(귀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경험 및 정책 수요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집단별 다문화가족, 기관종사자 및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다문화가족 설문조사와 면접조사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북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방법

전북 다문화가족 실태와 지원정책을 파악하고자 다문화가족 관련 문헌과 통계자료를 검토하였으며 전북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지를 구성하여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북 다문화가족의 대상자별 정책요구도와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심층면접 또는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문헌연구 및 통계분석

- 다문화가족 관련 연구과제, 논문, 자료집 등 검토
- 여성가족부 및 전북행정자료 수집 및 검토를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현황 파악
-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하여 전북 다문화가족 자료 재분석

(2) 전북 다문화가족 설문조사

- 전북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표 구성
- 총 605부의 설문조사 실시
- 표집방법: 비례할당
- 조사내용: 일반사항 및 가구특성, 부부관계, 자녀양육, 경제활동, 지역사회관계, 건강 및 삶의 만족 등

(3) 전북 다문화가족 면접조사

- 조사대상: 집단별 다문화 가족, 기관종사자 및 현장전문가(결혼이민자, 이중언어, 방문지도사 등 관련 종사자) 총 22명
- 조사내용

가. 다문화 한부모 가족

- 국제결혼의 시작과 가족변화 기간 및 이유, 가족해체 시 걱정되거나 힘든 점
- 가족 해체 후 생활(삶의 만족 비교, 가족 내 역할 수행, 자기돌봄, 사회관계 등)
- 자녀 관련 질문(양육권, 면접교섭, 자녀돌봄) 등

나. 결혼기간별 결혼이주여성

- 한국인의 아내, 엄마로서 삶의 이야기
- 현재 가장 어려운 점(한국생활 및 결혼생활 적응)
- (유자녀)자녀양육 걱정되는 점(이중언어교육, 진로 고민 등)
- 취업 및 경제활동
- 사회관계(활동하는 모임), 차별경험
- (장기거주) 삶의 질 향상 여부, 전북 거주방향 등

다. 기관종사자 및 현장전문가

- 다문화가족을 바라보는 관점
- 다문화가족의 서비스 참여 수준 및 평가(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 다문화가족 정책 평가 및 문제점
- 사업 지원시 어려운 점
- 향후 꼭 필요한 사업 등

(4) 전문가 자문

- 연구 진행을 위하여 학계, 담당공무원, 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회의 진행. 착수자문회의에서는 연구의 방향 및 내용, 연구방법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설문지 자문회의에서는 표본설계, 조사방법, 설문문항을 검토받아 반영
- 전북 다문화가족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토대로 제안된 정책방안 및 지원 사업의 실효성에 관한 의견수렴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에 따라 도식화하면 <표 I -1 >과 같다. 연구설계, 선행연구 고찰 및 통계자료 검토,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보고서 완성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표 I-1 연구절차

연구영역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설계	착수보고	연구계획 수립
현황분석	선행연구 고찰 및 통계자료 검토	-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주요특징 - 중앙정부 및 지자체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고찰 - 통계청 자료,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등을 활용하여 재분석 -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분석
조사 및 분석	다문화가족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 전북 다문화가족 실태분석 - 전북 결혼이민자, 다문화 한부모가족, 기관종사자 FGI 실시 - 다문화가족 양육자로서, 기관종사자로서의 경험 및 정책욕구 분석 - 기존사업 평가 및 문제점, 중장기 방안 마련을 위한 개선안 모색
정책제언	전문가 자문회의	- 전북 다문화가족 지원방향 - 정책과제 발굴
보고서 완성	최종심의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최종심의 결과 반영 - 보고서 완성

3. 선행연구 고찰

1)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선행연구-정책연구보고서 중심으로

최근 3년간 시행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중앙정부와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된 연구들이 있다(표 I-2 참조). 중앙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가 진행되었다. 최초로 시행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2009년 보건복지부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그 이후로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였다.

최근 조사된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2022)는 전체 표본수 32,000가구 중 15,578가구가 응답하였고,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15,421명, 배우자 13,336명, 만9~24세 자녀 8,296명이 참여하였으며 약 48.7%의 응답률을 보였다.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조사표는 총 4종으로, 가구의 일반적인 특성과 가구구성원을 살펴볼 수 있는 가구구성표, 결혼이민자·귀화자, 배우자, 만 9~24세 청소년 자녀 조사표로

구성되었다. 이 중 결혼이민자·귀화자 조사표는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사회생활 및 지원서비스, 경제활동, 기타 일반사항으로 구성하였다.

서울특별시(박민정 외, 2022)는 서울시 이민자 체류자격별 행정통계에 기반하여 25개 지역구로부터 층화비례추출한 서울시 외국인주민 2500명과 다문화가족 1000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및 고용환경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별 정책 방안을 제시하여 ‘제3차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결혼이민자·귀화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항목은 일반사항, 서울에서의 삶, 행복지수, 문화, 건강, 지역사회 소속감, 사회적 교류, 사회적 배제, 일상생활, 교육, 정치, 주거, 노동, 소득과 소비, 가족 영역 등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경기도(김영혜 외, 2023)는 경기도 다문화가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구축을 위하여 2023년 경기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문화가구 731가구, 결혼이민자·귀화자 700명, 배우자 7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항목은 가구구성, 부부생활 및 가족생활, 자녀양육, 경제활동, 사회활동, 건강과 노후, 정책 인식과 수요 등으로 구성하였다.

인천광역시(최정호 외, 2022)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귀화자 437명, 배우자 176명, 자녀 140명 총 753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혼이민자·귀화자 12명, 배우자 4명, 다문화가정 자녀 4명을 대상으로 표적집단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조사표를 살펴보면 가구구성원 및 가구특성, 본인의 배경정보, 가족 내 성평등, 경제활동, 자녀돌봄, 사회적 자본, 기타로 구성하였다. 또한 결혼이민자·귀화자와 배우자에게는 성평등, 경제활동, 자녀돌봄, 사회자본과 관련된 내용을, 자녀에게는 진로, 정체성, 생활, 학업, 다문화가정 수용성에 대한 내용을 면접조사하였다.

광주광역시(정인경 외, 2022)는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 및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외국인주민(결혼이민자 30명 포함) 4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 조사 내용은 일반적 특성, 주거환경, 근로환경, 사회적 관계, 정책수요 관련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면접 조사는 외국인 주민 당사자와 지원기관 종사자 총 29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주과정, 생활실태, 정책 수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해응 외, 2022)는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생활실태와 정책 수요를 조사하였다. 결혼이민자·귀화자 710명을 대상으로 일반사항 및 가구특성,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및 교육, 경제활동, 사회활동 및 지원 서비스, 정책 수요, 기타 일반사항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 관련 당사자, 활동가, 기관종사자, 전문가, 공무원 등 25명을 대상으로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초점집단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 참여자에게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작성하여 FGI 실시 전에 배포하고 FGI 회의를 통해 현장 실태 파악 및 해당 영역에서의 정책 수요와 과제를 발굴하였다.

최근 지자체 연구는 화성시와 평택시에서 수행되었는데 화성시(최영미 외, 2022)는 결혼이민자 84명(14%)을 포함한 외국인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한국입국과 정착, 경제상황과 경제활동, 가족관계,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생활, 건강과 안전, 외국인·다문화 정책 및 프로그램,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면접조사는 2020년에 조사된 외국인 주민 40명의 인터뷰 결과를 재분석하고 고려인동포 7명 및 외국인노동자 6명을 추가적으로 인터뷰하였다. 외국인 주민의 면접조사 내용은 개인적 사항, 이주배경 및 과정, 노동시장 참여실태, 주거 및 생활실태, 지역사회 참여, 정책 수요 및 개선 방안으로 구성하였다. 추가적으로 화성시 선주민(한국인) 40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 20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평택시(송진영 외, 2023)는 다문화가족 결혼이주민 482명, 자녀 420명, 한국인 배우자 209명, 총 1,111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사항, 사회생활(학교생활) 경제활동, 결혼 및 가정 생활, 자녀양육, 지원서비스 등을 조사하였다. 면접조사는 결혼이주민 여성 18명, 한국인 배우자 11명, 자녀 16명으로 총 45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 질문 문항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개인특성 요인, 사회환경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대상별 질문 문항을 다르게 구성하였다.

【표 I-2】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선행연구

구분			연구대상자 및 방법	조사영역 및 내용	정책제안
중앙정부	2021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	여성 가족부 (최윤정 외, 2022)	- 설문조사 - 다문화가구 (15,578가구) - 결혼이민자·귀화자 (15,421명) - 배우자 (13,336명) - 자녀 (8,296명)	- 가구구성표: 가구구성, 가구 특성 - 결혼이민자·귀화자: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경제활동, 사회생활, 기타 - 배우자: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경제활동, 기타 - 자녀: 가정생활, 학교생활, 정서 및 사회생활, 진로, 경제활동	- 다문화가족 자녀의 다양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마련 - 학교밖 청소년의 욕구 파악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노력 - 효과적 학습지원 방안 모색 - 효과적인 이중언어 환경조성 방안 모색 -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배경 및 가족 특성에 따른 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 다문화가족 자녀의 진로체험 기회 확대
	서울시 외국인 주민·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 연구 ²⁾	서울시 이민정책 연구원 (박민정 외, 2022)	- 설문조사 - 결혼이민자·귀화자 (1000명)	일반사항, 서울에서의 삶, 행복지수, 문화, 건강, 지역사회 소속감, 사회적 교류, 사회적 배제, 일상생활, 교육, 정치, 주거, 노동, 소득과 소비, 가족	- 지역중심 사회통합 강화 - 문화다양성으로 소통하는 도시 - 글로벌 인재를 통한 지속적 성장 - 외국인주민 친화적 환경 조성 - 외국인주민 참여 촉진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광역시·도	2023년 경기도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	경기도 여성 가족 재단 (김영혜 외, 2023)	- 설문조사 - 다문화가구 (731가구) - 결혼이민자·귀화자 (700명) - 배우자 (700명)	- 가구용: 가구 구성, 자녀 양육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혼인상태와 부부 및 가족생활, 자녀양육, 경제활동, 사회생활, 건강과 노후, 정책 인식과 수요, 기타 - 배우자: 혼인상태와 부부 및 가족생활, 자녀양육, 경제활동, 건강과 노후, 정책 인식과 수요, 기타	- 부부갈등 해결을 위한 지원 필요 - 부모효능감 강화를 위한 정책필요 - 배우자 자녀 양육 참여 지원 - 경기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필요 - 직업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육 강화 및 취업정보 제공 필요 - 다문화수용성 제고 노력 - 병의원 의사소통문제 해소를 의료접근성 강화 - 노후준비 교육 및 상담

2) 서울시에서는 외국인 주민 2500명과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1000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및 고용 환경을 조사하였음. 이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를 대상으로 한 부분만 정리함

구분		연구대상자 및 방법	조사영역 및 내용	정책제안
인천광역시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 및 중장기 발전 방안	인천 여성 가족 재단 (최정호 외, 2022)	- 설문조사 - 총 753명 - 결혼이민자·귀화자 (437명), 배우자 (176명) - 자녀 (140명) - 면접조사 - 결혼이민자·귀화자 (12명) - 배우자 (4명) - 다문화가정자녀 (4명)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경특성, 가족내 성평등(성역할 인식), 경제활동, 자녀 돌봄, 사회 자본 - 배우자: 가족내 성평등(성역할 인식),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건강 - 자녀: 개인특성, 부모 배경정보, 이중 문화경험, 가정생활 및 성역할 인지, 학교생활 및 진로, 개인요인 - 면접조사: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수요	-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 결혼이민자 사회 경제적 참여확대 정책 - 다문화가족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강화 정책 -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정책 -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광주광역시 외국인 실태 조사	- 설문조사 - 외국인 주민 (427명*) * 결혼이민자 30명 포함 - 면접조사 - 외국인 주민, 외국인 주민 지원기관 담당자 (29명)	- 설문조사: 일반적 특성, 주거환경, 의료환경, 사회적 관계, 근로환경, 가족관계, 교육환경 정책 수요 - 면접조사: 외국인주민의 이주동기, 전반적인 생활실태, 불편사항, 기관 및 센터 이용 등 사업에 대한 개선 방향 및 의견 등	- 광주광역시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일자리 지원 방안 - 외국인주민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 -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지원사업 방안 - 외국인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지원 방안(건강검진 무료진료사업 확대) - 외국인주민 자녀를 위한 지원 방안 - 외국인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다문화감수성 제고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 가족 실태	- 설문조사 - 결혼이민자·귀화자 (710명)	설문조사: 일반사항 및 가구특성,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및 교육, 경제활동, 사회생활 및 지원 서비스	- 초중장기 정착 주기별 다문화가족 지원 체계화 필요 - 다양한 다문화가족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 강화 필요

구분			연구대상자 및 방법	조사영역 및 내용	정책제안
기 초 차 치 단 체	조사및 기본 계획		◦ 면접조사 - 당사자, 활동가, 기관종사자, 전문가, 공무원 등 5명씩 총 25명	기타 일반사항 ◦ 면접조사: 정책 수요 파악	• 다문화가족 자녀의 생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내실화 필요 • 다문화가족 이민자의 취·창업 지원 내실화 필요 • 지역사회 다문화 감수성 제고 강화 필요 •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 대응 대비 정책과제 발굴 필요
	화성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	경기도 여성 가족 재단 (최영미 외, 2022)	◦ 설문조사 - 외국인 주민(600명*) * 결혼이민자 84명 포함 - 화성시 선주민 (한국인:400명) ◦ 면접조사 - 심층면접(40명) 결과 재분석, 고려인동포 7명, 외국인노동자 6명 - 화성시 선주민 (20명)	◦ 설문조사: 한국 입국과 정착, 경제 상황과 경제활동, 가족관계,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생활, 건강과 안전, 외국인 · 다문화 정책 및 프로그램, 사회 인구학적 배경 ◦ 면접조사: 개인적 사항, 이주배경 및 과정, 노동시장 참여실태, 주거 및 생활실태, 지역사회 참여, 정책 수요 및 개선방안	• 다양한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역사회 통합 강화 • 재난·위기상황에서의 선제적 대응 • 공존을 위한 공감대 형성 • 추진체계 재정비 및 실효적인 거버넌스 구축
	평택시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 연구	평택 복지 재단 (송진영 외, 2023)	◦ 설문조사 - 총 1,111명 - 결혼이주민여성 (482명) - 자녀(420명) - 한국인배우자 (209명) ◦ 면접조사 - 총 45명 - 결혼이주민여성 (18명) - 자녀(16명) - 한국인 배우자 (11명)	◦ 설문조사: 일반적 사항, 사회생활 (학교생활) 경제활동, 결혼 및 가정 생활, 자녀양육, 지원서비스 등 ◦ 면접조사: 인구·사회학적 특성, 개인특성 요인, 사회환경 요인	• 실천적 제언: 사회통합 촉진, 인권문제 해결, 경제적 어려움, 다문화 인식, 중도입국자녀, 한국어교육, 갈등해소방안 • 정책적 제언: 인권 보호 강화, 경제적 어려움, 중도입국자녀, 다문화수용성

2) 전북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선행연구

가장 최근에 실시되었던 전북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연구 용역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복지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대책 연구(설동훈 외, 2020)이다. 연구내용은 광역단위 실태조사 방향 수립,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다문화가족 조사 시행과 분석, 전북형 다문화가족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대책 개발로 구성되었다. 조사모집단은 전북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결혼이민자·귀화자 회원명부를 활용하여 구성하였으며 집락표집을 통해 해당 집락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귀화자 1,2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항목은 개인과 가구 특성, 가족생활, 경제활동, 가정폭력, 사회생활, 차별경험과 권리의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 조사연구는 2015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사용된 문항을 포함하여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생활 실태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하였으며 한국어를 포함한 10개의 언어로 제작하여 면접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한 정책을 살펴보면 첫째, 인구변동에 따른 이민 정책과 다문화가족 정책의 체계화가 필요하며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도래된 비대면 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둘째, 결혼이민자의 정착과 중도 입국자녀 적응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수준별 한국어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의 균형, 한국 사회정착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며 대면 수업이외의 온라인 및 전화 한국어 교육 등 교육 형태의 다양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취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한부모 다문화가족 지원 대책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넷째, 가족과 사회생활지원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 제안하면서 가족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의사소통 및 상담관리 강화, 자녀의 학습습득 지원을 통한 부모역할 강화, 결혼이주민 여성의 리더 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 발굴 및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다섯째, 폭력피해자의 보호 등 인권 대책을 마련하고 폭력피해이주여성의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직 정비와 종사자 처우개선을 제안하였다.

3) 선행연구 분석 결과 및 연구의 한계점

최근에 실시된 중앙정부, 광역시·도, 기초지자체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를 종합해보면 크게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우선,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대상자가 연구마다 상이하고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지만 서울특별시는 외국인 주민과 결혼이민자·귀화자를 대상으로 각각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광주광역시와 화성시에서는 결혼이민자를 외국인 주민으로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결혼이주여성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지만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한 조사대상을 선정하기도 하였다.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북도는 결혼이민자·귀화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경기도는 배우자까지 포함하였으며 중앙정부, 인천광역시, 평택시는 배우자와 자녀까지 포함하였다. 또한 화성시에는 선주민까지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여 다양하게 접근하였다.

두 번째, 조사방법에 따른 차이가 있다. 조사대상자는 상이하지만 중앙정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북도는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시사점 및 정책 제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귀화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현장 전문가, 기관 종사자, 선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방법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인 만큼 외국인주민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기간과 예산을 고려하여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2020년에 실시한 전북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명부를 가지고 확률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결혼이주여성 또는 혼인귀화자(여성)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지만 전북의 다문화가족의 남성 비율이 8.1%(행정안전부, 2023)³⁾이므로 성별, 국적별, 지역별 비례할당을 사용하여 남성을 포함한 결혼이민자·귀화자를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대상별,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고 정책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 한부모 다문화가족(아버지, 어머니), 거주기간에 따른 결혼이민자, 기관종사자 등을 면접조사하여 심층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3) 결혼이민자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주민 중 남성 비율

본 연구는 전북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비례할당하여 조사집단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연구에서 배우자, 자녀 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심도있는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비확률 표집방법을 사용하고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보다 과학적이고 오차를 감소할 수 있는 표본 설정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전북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분석

1. 다문화가족 현황
2. 다문화가족 정책 분석
3. 소결



전북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분석

1. 다문화가족 현황

1)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 현황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총조사(2024)에 따르면, <표Ⅱ-1>과 같이 다문화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전국 다문화가구 수는 334,856가구 (2018년)에서 415,584가구로 증가하였으며 전북은 2018년 대비 21.4% 증가한 14,693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표 Ⅱ-1 연도별 다문화 가구 현황

(단위: 가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18년 대비	
							증감	증감률
전국	334,856	353,803	367,775	385,219	399,396	415,584	80,728	24.1
전북	12,103	12,554	13,207	13,661	14,056	14,693	2,590	21.4

자료: 통계청(2024) 인구총조사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 현황은 <표Ⅱ-2>과 같으며 전북의 다문화가구는 14,693가구, 총 가구원수는 45,895명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총 다문화 가구원 중 자녀와 한국인 배우자로 구성된 내국인(출생)이 69.16%로 가장 많았으며 귀화한 내국인 15.44%, 결혼이민자 외국인은 12.76%를 차지하고 있다.(그림Ⅱ-1 참고)

표 II-2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 현황

(단위: 가구, 명, %)

구분	다문화 가구	총 가구원	내국인 (출생)	내국인 (귀화)	외국인 (결혼이민자)	외국인 (기타)
전국	415,584	1,191,768	730,263	233,098	179,525	48,882
전북	14,693 (3.54)	45,895 (3.85)	31,740 (4.35)	7,087 (3.04)	5,856 (3.26)	1,212 (2.48)

자료: 통계청(2024) 인구총조사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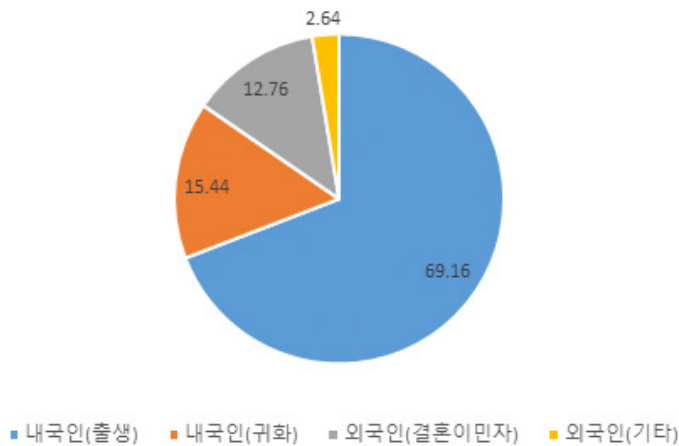


그림 II-1 전북 다문화가구 구성원

2) 시·군별, 국적별 다문화가구 현황

(1) 시·군별 다문화가구 현황

전북 14개 시·군의 다문화가구 현황은 <표II-3>과 같다. 다문화가구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주시로 3,497가구(23.80%)이며, 익산시 2,362가구(16.08%), 군산시 2,247가구(15.29%)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 가장 인구 규모가 큰 전주시, 익산시, 군산

4) 다문화가구원 구분

- 내국인(출생) : 출생·현재국적 한국(자녀 또는 한국인배우자 등)
- 내국인(귀화) : 국적법상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자(국적회복자 제외)
- 외국인(결혼이민자) : 체류자격이 국민의 배우자(F-2-1, F-5-2), 결혼이민(F-6-1~3)인 자, 내국인(귀화자 포함)과 결혼한 외국인
- 외국인(기타) : 그 외 가구 내 외국인

시를 합하면 8,106가구(55.2%)로, 과반이 넘는 수치이다. 세 지역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정읍시는 1,171가구(7.97%), 완주군은 1,010가구(6.87%), 고창군은 603가구(4.1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문화가구 수가 가장 적은 곳은 무주군으로 259가구(1.76%)이며, 장수군은 288가구(1.96%), 진안군은 323가구(2.20%), 임실군은 330가구(2.25%)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구의 가구원 수, 내국인(출생, 귀화), 외국인(결혼이민자, 기타)에서도 다문화 가구 수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결혼이민자, 기타) 비율은 군산시가 익산시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II-3 시·군 다문화가구 현황

(단위: 가구, 명, %)

구분	다문화 가구	총 가구원	내국인 (출생)	내국인 (귀화)	외국인 (결혼이민자)	외국인 (기타)
전북	14,693 (100.0)	45,895 (100.0)	31,740 (100.0)	7,087 (100.0)	5,856 (100.0)	1,212 (100.0)
전주시	3,497 (23.80)	10,322 (22.49)	7,132 (22.47)	1,551 (21.89)	1,398 (23.87)	241 (19.88)
군산시	2,247 (15.29)	6,560 (14.29)	4,297 (13.54)	1,023 (14.43)	1,035 (17.67)	205 (16.91)
익산시	2,362 (16.08)	7,130 (15.54)	4,822 (15.19)	1,183 (16.69)	942 (16.09)	183 (15.10)
정읍시	1,171 (7.97)	3,672 (8.00)	2,495 (7.86)	634 (8.95)	423 (7.22)	120 (9.90)
남원시	845 (5.75)	2,711 (5.91)	1,916 (6.04)	382 (5.39)	342 (5.84)	71 (5.86)
김제시	871 (5.93)	2,908 (6.34)	2,043 (6.44)	440 (6.21)	342 (5.84)	83 (6.85)
완주군	1,010 (6.87)	3,332 (7.26)	2,305 (7.26)	509 (7.18)	402 (6.86)	116 (9.57)
진안군	323 (2.20)	1,127 (2.46)	822 (2.59)	156 (2.20)	125 (2.13)	24 (1.98)
무주군	259 (1.76)	867 (1.89)	638 (2.01)	126 (1.78)	88 (1.50)	15 (1.24)

구분	다문화 가구	총 가구원	내국인 (출생)	내국인 (귀화)	외국인 (결혼이민자)	외국인 (기타)
장수군	288 (1.96)	1,044 (2.27)	761 (2.40)	166 (2.34)	98 (1.67)	19 (1.57)
임실군	330 (2.25)	1,167 (2.54)	856 (2.70)	176 (2.48)	108 (1.84)	27 (2.23)
순창군	354 (2.41)	1,203 (2.62)	888 (2.80)	177 (2.50)	116 (1.98)	22 (1.82)
고창군	603 (4.10)	2,075 (4.52)	1,531 (4.82)	281 (3.97)	221 (3.77)	42 (3.47)
부안군	533 (3.63)	1,777 (3.87)	1,234 (3.89)	283 (3.99)	216 (3.69)	44 (3.63)

자료: 통계청(2024) 인구총조사

(2) 다문화가구의 출신 국가 현황

다문화 대상자(내국인, 외국인)의 출신 국가 현황은 <표Ⅱ-4> 과 같다. 전국의 경우 전체적으로 한국계 중국인(32.0%)이 가장 많으며 베트남(22.2%), 중국(18.6%), 필리핀(5.3%), 북미(3.7%)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은 한국계 중국인(46.3%)이 다른 국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중국(17.3%), 북미(9.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한국계 중국인(28.1%)과 베트남(26.5%)의 비율이 유사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19.0%)이 높게 나타났다.

전북은 전체적으로 베트남(38.3%)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우리나라 다문화 대상자 3명 중 1명은 베트남 출신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18.0%), 중국계 한국인(12.3%), 캄보디아(5.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은 한국계 중국인(20.4%)이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19.5%), 중국(17.7%), 북미(8.4%), 대만(7.3%)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은 베트남(40.0%) 출신이 가장 많아, 전북 결혼이주민 여성 10명 중 4명은 베트남 출신임을 알 수 있다. 이어 중국(18.0%), 한국계 중국인(11.6%), 필리핀(10.4%), 캄보디아(5.3%), 일본(5.1%) 순으로 나타났다.

Ⅰ 표 Ⅱ-4 Ⅰ 다문화가구의 출신국가

(단위: 명, %)

구분	전국						전북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계	412,623	(100.0)	87,756	(100.0)	324,867	(100.0)	12,943	(100.0)	1,092	(100.0)	11,851	(100.0)
중국	76,798	(18.6)	15,138	(17.3)	61,660	(19.0)	2,329	(18.0)	193	(17.7)	2,136	(18.0)
중국 (한국계)	131,923	(32.0)	40,621	(46.3)	91,302	(28.1)	1,597	(12.3)	223	(20.4)	1,374	(11.6)
대만	7,883	(1.9)	3,530	(4.0)	4,353	(1.3)	167	(1.3)	80	(7.3)	87	(0.7)
일본	14,626	(3.5)	1,433	(1.6)	13,193	(4.1)	616	(4.8)	15	(1.4)	601	(5.1)
몽골	4,434	(1.2)	463	(0.5)	3,971	(1.2)	133	(1.0)	8	(0.7)	125	(1.1)
베트남	91,561	(22.2)	5,600	(6.4)	85,961	(26.5)	4,956	(38.3)	213	(19.5)	4,743	(40.0)
필리핀	21,891	(5.3)	1,283	(1.5)	20,608	(6.3)	1,283	(9.9)	55	(5.0)	1,228	(10.4)
태국	9,233	(2.2)	330	(0.4)	8,903	(2.7)	328	(2.5)	9	(0.8)	319	(2.7)
캄보디아	9,868	(2.4)	885	(1.0)	8,983	(2.8)	670	(5.2)	44	(4.0)	626	(5.3)
우즈베키 스탄	3,832	(0.9)	469	(0.5)	3,363	(1.0)	133	(1.0)	15	(1.4)	118	(1.0)
네팔	1,505	(0.4)	328	(0.4)	1,177	(0.4)	60	(0.5)	7	(0.6)	53	(0.4)
기타 아시아	5,527	(1.4)	2,596	(3.0)	2,931	(0.9)	132	(1.0)	52	(4.8)	80	(0.7)
러시아	3,078	(0.7)	340	(0.4)	2,738	(0.8)	66	(0.5)	1	(0.1)	65	(0.5)
북미	15,430	(3.7)	8,218	(9.3)	7,212	(2.3)	176	(1.4)	91	(8.4)	85	(0.7)
기타	15,034	(3.6)	6,522	(7.4)	8,512	(2.6)	297	(2.3)	86	(7.9)	211	(1.8)

자료: 통계청(2024) 인구총조사

※ 기타아시아는 인도네시아, 미얀마,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이 포함되며, 북미는 미국과 캐나다가 포함됨

2. 다문화가족 정책 분석

1) 중앙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

(1) 법적 근거

다문화가족정책은 2006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와 여성부·법무부 등 12개 부처가 공동으로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 대책’을 마련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6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구, 결혼이민자지원센터)가 설치되었으며 2008년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 외 다문화가족 정책은 건강가정기본법, 여성농업인 육성법, 결혼중개 관리법 등에 의해서도 지원을 받고 있다.

표 II-5 다문화가족 관련 법령

관련법령	내용	소관부서
여성농업인 육성법 (2001 제정)	다문화가족 여성의 농어촌 정착 지원 및 전문인력화 지원 사업 추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	농림축산 식품부, 해양수산부
건강가정기본법 (2004 제정)	다문화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사회통합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과 사업등에 대해 규정	여성가족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2004 제정)	국가와 지자체가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안정적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을 규정	농림축산 식품부, 해양수산부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 제정)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 가족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여성가족부
결혼중개의 관리에 관한 법률 (2008 제정)	국제결혼중개와 관련해 이용자의 피해 예방 및 보호와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여성가족부

(2) 중앙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 주요 내용

가. 다문화가족 기본계획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수립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4차례의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제1, 2차 기본계획(2010~2017)은 국제결혼 및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인한 초기적응, 자녀출생 및 성장, 결혼 및 가족생활 갈등 발생 및 해소,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 태도 및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과 세부과제를 시행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2018~2022)은 초기 적응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난 장기정착화에 따른 정책으로 재편하였다. 장기거주에 따른 학령기 및 청소년 비율 증가, 다양한 가족의 형태 증가(한부모가족, 중도입국자녀 등), 가족폭력의 증가 등에 따라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저조한 상황으로 나타나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 조성 등을 시행하였다.

제4차 기본계획(2023~2027)은 <표 II-6>과 같이 다문화가족의 수요를 반영하고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 및 학력차이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영유아기부터 후기 청소년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변화된 다문화가족을 반영한 정착기간별, 가구형태별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수용성 제고방안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II-6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비전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	
목표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	
대과제	중과제	소과제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영유아 자녀양육지원	부모의 영유아 자녀 양육역량 강화 영유아 자녀의 성장 발달 지원
	학령기 다문화 아동 학습역량 제고	학령기 다문화 아동 학교 적응 지원 학령기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 지원 이주배경 청소년지원
	다문화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	다문화 청소년 진로 직업 프로그램 확대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역량강화 및 인재 양성 다문화 후기 청소년(만 19세 이상) 지원
	다문화 아동 청소년의 정서안정 기반조성	다문화 아동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 차별 없는 학교 환경 조성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	건강한 국제결혼 환경 조성	국제결혼중개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감독 강화 및 교육 확대
	다문화가족 가구 상황별 맞춤형 지원	결혼이민자 초기 적응 지원 강화 장기 안착기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취약 다문화가족의 생활지원
	결혼이민자 경제활동 참여확대	결혼이민자 자립 취업역량 강화지원 결혼이민자 취·창업 지원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입국 전, 입국 초기의 폭력 피해 예방 프로그램 내실화 폭력피해 대응체계 내실화 폭력피해자 보호자립 지원강화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다문화 이해 교육 확대	대상별 맞춤형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다문화 이해교육의 부처 간 연계 강화
	다양성 존중 인식	공공부문 등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 미디어 환경 및 사회적 인식개선
	다문화가족 사회참여 활성화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간 교류 소통 기반 확대 다문화가족 사회참여 기회 확대
다문화 가족 정책 추진기반 강화	다문화가족 정책 환류시스템 구축 운영	정책환경과 수요에 기반한 지원체계 내실화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안내를 위한 기관간 연계강화 정책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다문화가족 정책 협력 체계강화	범부처 다문화가족정책 조정과 협력 강화
		중앙 지방간 다문화가족정책 협력체계 구축 주요 결혼상대국과의 국제협력 강화

나. 다문화가족 기본계획 특징

중앙정부의 다문화가족 기본계획별 특징을 살펴보면 <표 II-7>과 같다. 제1차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 정책 도입기로 결혼이민자의 초기정착을 위한 한국생활의 적응에 초점을 두었으며 제2차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 정책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전달체계를 강화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은 학령기 자녀의 증가와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타나면서 안정된 가정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제4차 기본계획은 장기 거주자와 고령층 및 청소년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아동 청소년 지원과 가구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다.

표 II-7 다문화가족 기본계획별 특징

	제1차 기본계획	제2차 기본계획	제3차 기본계획	제4차 기본계획
국제결혼	증가	비율 안정화	감소 추세	코로나19로 인한 감소
다문화가족	증가	지속 증가	안정화 및 장기정착 비율 증가	장기 거주자와 고령층 비율 지속 증가
결혼이민자	초기적응	사회진출	사회진출 욕구증대 및 경제 사회적 참여 강화	정착주기별 지원 강화
자녀	출생 및 초기발달	자녀세대 성장	학령기(청소년) 비율 상승	학령기 자녀의 학교생활 부적응 학력 격차 등의 어려움 심화
가족유형	결혼 및 가족생활 갈등 발생	가족 해체 증대 가능	한부모 등 가족 형태 다양화	이혼(재혼), 사별 등 가구 구성 다양화
사회적 수용성	사회적 관심 형성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 태도 확산 및 갈등 우려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지속적 개선 노력 필요	차별경험은 감소하였으나 다문화 수용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

2) 전북 다문화가족 정책

(1) 다문화가족 관련 조례

전북은 「전라북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2023년 3월 31일 제정하였다. 도지사는 매년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제4조) 3년마다 다문화가족 및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의 정책 및 시책에 반영해야 한다(제5조). 이 외에

전북은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농업인 지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정책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였다. 전북지역 14개 시·군 대부분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전주시, 김제시, 부안군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표 II-8】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근거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23. 3. 31제정, ‘24. 1. 18. 시행)	
목적 (제1조)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 적응 등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제4조)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다.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라.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바.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 사.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 (제5조)	① 도지사는 3년마다 도내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 가족의 정책 및 지원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출연기관 또는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2) 전북 다문화가족 정책 주요내용

2024년 전북 다문화가족 정책은 <표 II-9>와 같이 중앙정부의 네 가지 대과제인 다문화아동 청소년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북도는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해 다문화자녀 언어발달, 이중언어 지원, 방문 교육 서비스, 이주배경청소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학력취득 및 직업교육, 통번역서비스, 국적취득비용 지원, 고향나들이 사업,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위기지원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어울림 축제 및 정보공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정책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표 II-9 전북 다문화가족 기본계획

대과제	전북도 정책	대상	지원내용	예산(백만원)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평가·진단, 언어교육, 부모교육 및 상담	974 (기금 50%, 도비 15%, 시군비 35%)
	이중언어 학습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부모교육 및 자녀 직접교육·온라인 학습지원	591 (기금 50%, 도비 15%, 시군비 35%)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 서비스 제공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1,842 (기금 50%, 도비 15%, 시군비 35%)
	이주배경 청소년 지역자원 연계사업	이주배경 청소년	협업체 운영, 한국어교육, 진로·직업교육, 상담 등 지원	227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등	한국어교육 시행	267 (기금 50%, 도비 15%, 시군비 35%)
	결혼이민자 자립지원 통합사업	결혼이민자	학력취득 지원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243 (도비 40%, 시군비 60%)

대과제	전북도 정책	대상	지원내용	예산(백만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입국초기 결혼이민자	입국 초기 상담, 국적·체류 정보제공, 가족 간 의사소통 지원, 위기 상황 시 긴급지원 통·번역 등	1,057 (기금 50%, 도비 15%, 시군비 35%)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비용 지원	도내 국적 미취득자	국적취득자에게 국적취득 수수료 30만원 지원	60 (도비 30%, 시군비 70%)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왕복 항공료, 여행자 보험 등 지원	236 (도비 30%, 시군비 70%)
	다문화이주민 플러스센터 운영 지원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체류관리, 고용허가, 통·번역 상담, 한국어교육 등 통합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원스톱 통·번역서비스 실시	232 (도비 30%, 시군비 70%)
	글로벌마을 학당 운영	다문화 가족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가족 행복교육, 문화교육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멘토단 운영	1,622 (도비 35%, 시군비 65%)
	다문화가족 위기지원 전문서비스	다문화가족	위기 다문화가정에게 전문가 자문을 통한 갈등해결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전북다문화거점센터)	14 (도비 100%)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다문화주간 어울림 축제 및 도민	다문화주간 부대행사 개최, 다문화 어울림축제 개최	51 (도비 100%)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전북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다문화 정보공유 프로그램 『다정다감』 제작 지원 (전주 MBC)	180 (도비 90%, 자부담 10%)
		다문화가족 및 구성원	전북 다문화가족 실태 및 정책 개선방안	

전북 시·군 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추진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마다 예산과 대상은 조금씩 상이하나 큰 틀에서는 정부의 네 가지 정책방향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각 시·군 기관별 추진사업 현황을 영역별 과제수로 정리해보면 <표 II-10>과 같다. 전주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 다문화가족 추진사업이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사업 운영을 많이 하고 있으며, 특히 김제시, 순창군, 부안군은 타 시·군보다 결혼 이민자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10】전북 시·군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사업 현황

기관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 사업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수용성 제고	다문화가족 정책추진 기반 강화	기타사업
전주시	17	12	2	-	32
군산시	10	7	3	9	-
익산시	7	18	3	-	-
정읍시	6	6	5	-	10
남원시	3	14	3	1	-
김제시	7	27	1	-	-
완주군	8	13	1	-	-
진안군	3	5	1	1	-
무주군	1	10	3	1	-
장수군	3	6	-	-	-
임실군	6	14	7	-	-
순창군	8	22	1	5	-
고창군	5	18	-	1	-
부안군	8	23	12	9	-

전북 시·군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양과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과제만 운영하는 지역도 있고 각 지자체 예산으로 지역 특색에 맞게 추가적으로 지원사업을 하는 지역도 있다. 14개 시·군 중 자체사업을 많이 하는 지역은 순창군, 익산시, 임실군, 남원시로 나타났다. 순창군은 다문화 자녀 인성 정체성 교육 및 스피치 아카데미를 비롯하여 결혼이주민 여성의 원어민 강사 지원, 모국방문 지원,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익산시는 다문화가정자녀를 위한 심리정서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축구 교실과 결혼이민자 자조모임활성화지원사업, 국제운송비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고향 나들이 지원사업(시비지원), 다문화가족 자녀돌봄 부모초청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임실군은 임실 다문화가족 문화 체험 프로그램 및 한국사회활동적응지원 등이 있으며 남원시는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지원, 다문화가족 장학금지원, 다문화가족 고향 나들이 지원(자체) 사업 등이 있다. 이 외 전주시, 김제시, 정읍시, 진안군, 부안군, 완주군, 고창군도 자체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시·군의 자체 사업 운영 현황은 <표 II-11>과 같다.

【표 II-11】전북 시·군 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체 사업 운영 현황

기관	사업명	사업내용
전주시	다문화청소년 자립지원	심리정서교육, 문화체험, 직업체험, 1:1멘토 매칭 등 지원
	다문화 강사 양성과정(실습)	결혼이민자의 언어·문화적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여 다문화를 널리 알릴수 있는 다문화 활동가를 양성하여 학교, 기관 등 무료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실습)
	국적취득반-우리함께! 한국국적의 문을 열다	국적취득이 필요한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주민 대상 국적취득 기본소양교육 및 면접대비 실전연습 교육지원
	다문화가정자녀 심리정서지원사업	음악, 놀이, 미술 등 전문상담 기관연계
익산시	다문화가족 축구교실	축구강습 및 친선경기 개최 등
	결혼이민자 자조모임활성화 지원사업	출산국별(8개국) 결혼이민자, 외국인주민의 정보공유, 활동지원 등
	국제운송비 지원사업	국제운송비 1인 연 5만원 이내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 익산거주)
	다문화가족 화합 한마당	다문화가족 명랑 운동회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 기회 제공
정읍시	다문화가족 자녀돌봄 부모초청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부모초청을 통한 출산 및 양육 등 지원
	정읍시가족대축제	정읍시 시민 대상 가족 한마당, 명랑운동회, 체험부스, 인식개선 활동 등
	세계나라이해교육	정읍시 관내 초등학교 대상 다양한 문화 이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향상
남원시	다문화가족 화합 한마당	매년 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화합행사 (체육대회, 다문화체험, 노래자랑 등)
	결혼이민자 정착을 위한 운전면허 취득지원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실기교육비 70% 지원 (인당 500,000원)
	다문화가족 장학금지원	결혼이민자의 언어능력 향상 및 지속적인 학력신장 독려를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검정고시합격자장학금지원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자체)	고향방문 지원(양북항공료, 여행자보험료, 공항왕복 교통비)
김제시	다문화어울림한마당	매년 다문화가족과 시민이 함께하는 나라별체험 및 화합활동
	친정언니 맺어주기사업	선배언니-동생, 마을언니-동생이 함께 배우는 한국생활교육 및 음식나눔 활동을 통한 인식개선
완주군	국제운송비지원	한국 명절을 맞이하여 명절선물을 결혼이민자 친정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해외발송물류비 1인당 72,000원 지원
진안군	어울림한마당	국가별 전통의상 체험 및 가족 화합 한마당

기관	사업명	사업내용
임실군	우리함께 만드는 임실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문화여행 프로그램
	세상을 배우고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이색 문화체험	세상을 배우고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이색 문화체험(군산근대 역사박물관 일원), 임실군 청소년문화의 집 초청 공연
	다문화가족 나들이 세상을 배우고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이색 가족여행	청와대 관람, 푸치니 서거 100주년 기념 오페라 갈라콘서트 관람, 가족과 함께 다양한 어트랙션 즐기(에버랜드)
	부부역할지원 중년기아버지 요리교실	가정내 성역할 고정관념의 인식변화를 위한 중년기 아버지 대상 요리교육 프로그램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결혼이민자의 정착지원을 위한 요리교육 및 한국예절 교육 실시
	한국사회 활동적응지원	멘토(선주민)-멘티(결혼이주민)가 함께하는 문화체험을 통한 상호 이해도 증진 프로그램
순창군	다문화자녀 인성·정체성교육 및 스피치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대상 마음인성교육, 스피치교육, 특강 등
	결혼이주여성 원어민강사 지원	어린이집 등에 결혼이주여성을 원어민강사로 양성, 파견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 경비지원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연1회)
	다문화가족 식생활개선 요리교육	다문화가족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요리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지원	1가정당 5백만원, 여행자보험등 준비금(왕복항공료, 공항왕복)
	다문화가족 국제우편요금 지원	1가정당 5만원 한도 국제우편요금 지원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운전학원 기본교습비의 50%,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1회에 한함) ※ 필기응시료, 검정비용, 추가교육비 등은 제외
	다문화가족 희망찾기사업	(북흥)다문화의 집 운영 인건비 등 지원사업
고창군	안정적 정착지원 (어울림, 운전면허, 자조모임)	매년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 개최, 각 나라별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모임, 운전면허취득 등을 지원
	다문화가족 행복나들이 지원	다문화가족의 가족별 국내여행 지원
부안군	다문화가정 밑반찬 만들기	밑반찬 조리 및 나눔봉사
	외국인근로자 초청 위안의 밤	저녁식사 및 외국인 장기자랑

3. 소결

이상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중앙정부는 다문화가족의 증가 및 다양화에 따라 정착주기와 가구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교육 격차 해소 및 정서 심리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거주 기간 장기화에 따른 가족생애별, 가족 유형별 지원은 미흡하며 특히 후기 청소년기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마련되었으나 실질적 취업 연계와 정착 지원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과 서비스가 지방 및 농어촌 지역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전북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농촌은 도시보다 다문화 자녀의 비율이 높으므로 이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결혼이민자가 전문농업인으로, 농촌의 리더로 거듭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전북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자녀 중심 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문화가족 비율에 비해 예산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중앙과 지방 간 정책 연계와 부처 간 협력은 강조되었지만 여전히 각 기관별 정책의 중복과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전북의 시·군 사업을 비교한 결과, 지원예산에 따라 시·군별 사업운영은 상이하나 중앙정부와 전북도의 기본사업 및 지자체의 특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의 사업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해 보인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평가 및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타지역에 확산·적용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전북 다문화가족 실태 및 면접조사 결과

1. 설문조사
2. 면접조사
3. 소결



전북 다문화가족 실태 및 면접조사 결과

1. 설문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대상 및 표본설계

본 조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실태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전북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로 구성하였으며 총 605명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선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가. 표본크기

모집단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12,499명이며, 이를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pm 4\%$ 로 가정했을 때의 샘플사이즈는 573명으로 나타났다. 통계청(2019)에 의하면 전국 자료 목표 허용오차는 2~3%, 지역 단위 조사에서는 5~10%로 제시한 바 있으며 예산 및 소요시간을 고려했을 때 4% 수준의 오차는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표본추출

표본추출틀로 활용할 수 있는 모집단 명부를 확보하는 것은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 등의 한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 외국인현황을 참고하여 시군, 성별, 인구수에 따라 표본을 배분하였다. 최종 배분은 비례배분법, 제곱근비례배분법, 우선할당비례배분법

등을 비교하여 결정하였다. 표본이 모집단의 대표성을 갖고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비례할당배분법을 채택하였다.

표 Ⅲ-1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할당방법 비교표

(단위: 명)

구분	모집단			인구비례할당			제곱근비례할당			우선비례할당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전주시	2,910	285	2,625	140	14	126	88	22	66	73	7	66
군산시	1,987	201	1,786	96	10	86	72	18	54	59	6	53
익산시	2,045	213	1,832	98	10	88	75	19	56	59	6	53
정읍시	1,023	94	929	50	5	45	52	13	39	44	4	40
남원시	687	35	652	33	2	31	42	8	34	39	3	36
김제시	736	53	683	36	3	33	43	9	34	41	3	38
완주군	838	52	786	41	3	38	45	9	36	42	3	39
진안군	259	7	252	12	0	12	25	4	21	33	1	32
무주군	212	0	212	10	0	10	19	0	19	32	0	32
장수군	264	6	258	12	0	12	24	3	21	35	1	34
임실군	262	7	255	12	0	12	25	4	21	34	1	33
순창군	286	5	281	14	0	14	25	3	22	34	1	33
고창군	500	19	481	24	1	23	33	5	28	37	1	36
부안군	471	27	444	22	1	21	33	6	27	36	2	34
총계	12,480	1,004	11,476	600	49	551	601	123	478	598	39	559

우선비례할당시 14개 시·군에 배분되는 표본의 수가 최소 30명이 되도록 우선조정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현황’의 국적과 성별 비율을 고려해 표본을 배분하였다. 이 과정에서 5명 미만의 결혼이민자(귀화자)인 남성 주민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확인되나 국적을 파악할 수 없어, 해당하는 지역(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은 국적에 무관하게 배분된 표본 수만큼 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남성의 경우 배분된 표본의 수가 적은 관계로 모든 국적을 고려할 수는 없어 10% 이상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국적에 우선적으로 표본을 할당하고, 실제조사가 어려운 경우 국적에 무관하게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으로 배분된 할당표는 다음과 같다.

Ⅰ 표 Ⅲ-2 Ⅰ 전복 시·군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최종합당표

(단위: 명)

구분	합계		국적 무관		중국		중국 한국계		대만		베트남		필리핀		캄보 디아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태국		기타		
	남	녀	합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전북	42	562	604	5	0	8	93	10	65	3	0	8	244	1	70	1	31	3	1	2	0	1	0	0	37	0	14	0	7
전주시	8	66	74	0	0	2	15	1	9	1	0	1	25	0	6	0	3	1	1	1	0	1	0	4	0	1	0	2	
군산시	6	52	58	0	0	1	16	3	8	0	0	1	17	0	5	0	2	1	0	0	0	0	0	1	0	1	0	2	
익산시	7	52	59	0	0	1	10	1	6	1	0	1	23	0	5	1	3	1	0	1	0	0	0	3	0	1	0	1	
정읍시	4	40	44	0	0	1	7	1	6	1	0	1	16	0	6	0	2	0	0	0	0	0	0	2	0	1	0	0	
남원시	3	37	40	0	0	0	5	3	5	0	0	0	15	0	5	0	2	0	0	0	0	0	0	3	0	1	0	1	
김제시	3	39	42	0	0	0	5	0	4	0	0	2	17	1	7	0	3	0	0	0	0	0	0	2	0	1	0	0	
완주군	4	38	42	0	0	1	6	1	4	0	0	2	21	0	3	0	2	0	0	0	0	0	0	1	0	1	0	0	
진안군	1	33	34	1	0	0	3	0	3	0	0	0	18	0	5	0	0	0	0	0	0	0	0	4	0	0	0	0	
무주군	0	32	32	0	0	0	4	0	3	0	0	0	17	0	4	0	0	0	0	0	0	0	0	2	0	2	0	0	
장수군	1	35	36	1	0	0	4	0	2	0	0	0	14	0	8	0	3	0	0	0	0	0	0	3	0	1	0	0	
임실군	1	34	35	1	0	0	5	0	3	0	0	0	17	0	3	0	4	0	0	0	0	0	0	1	0	1	0	0	
순창군	1	34	35	1	0	0	4	0	3	0	0	0	14	0	5	0	3	0	0	0	0	0	0	5	0	0	0	0	
고창군	1	36	37	1	0	0	4	0	4	0	0	0	15	0	4	0	3	0	0	0	0	0	0	4	0	2	0	0	
부안군	2	34	36	0	0	2	5	0	5	0	0	0	15	0	4	0	1	0	0	0	0	0	0	2	0	1	0	1	

(2) 조사내용

조사표는 선행연구와 2020년에 시행된 전북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개발하였으며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응답자의 일반사항 및 가구특성, 결혼생활, 자녀양육, 지역사회 관계, 경제활동, 건강 및 삶의 만족으로 구성하였다. 질문지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8개의 언어로 제작되었다. 시계열로 변화추이를 살펴본 경우, 전북 데이터는 기수행된 전북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참고하였고 전국 데이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한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이외 기타 별도 자료를 활용한 경우에는 표 하단에 표기하였다.

표 Ⅲ-3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조사표

영역	하위영역	조사항목
일반사항 및 가구특성	-	성별
		연령(본인, 배우자)
		교육수준(본인, 배우자)
		한국어 실력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출생시 국가
		현재 국적 ↳ 체류자격
		전북 거주기간 ↳ 전북 거주 계기
		현재 거주지역 ↳ 읍면, 동 거주 선택
		가구형태, 가구원 수
		자녀수, 자녀연령 ↳ 중도입국자녀, 장애자녀
		주택유형, 주택소유형태
		월평균소득
		주관적 경제적 지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 수급 유형

영역	하위영역	조사항목	
결혼생활	혼인 유지 상태	혼인상태	
		혼인유지기간	
		재혼여부(본인, 배우자)	
		배우자 만남 경로	
		부부의사소통(하루 평균 대화시간)	
		가정관리	집안일·가사노동
			자녀 돌봄
			저축, 대출 등 재산 관리
			기타
		배우자와의 갈등	배우자와의 갈등 경험
			배우자 갈등 이유
			배우자 갈등시 대처방안
		가정폭력	가정폭력 유무
			가정폭력 종류(복수응답)
			가정폭력 행사자(복수응답)
			가정폭력 대처방법(복수응답)
			가정폭력발생시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복수응답)
	가족관계 만족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배우자와 나의 부모와의 관계
이혼 및 별거	이혼 및 별거	이혼별거 기간	
		이혼별거 사유	
		자녀돌봄 여부	(양육자) 양육비 지급 여부
			(비양육자) 면접교섭 여부

영역	하위영역	조사항목	
자녀 양육	-	자녀양육 효능감(3문항)	
	영유아 자녀	자녀양육 어려움	
		자녀 돌봄 부담	의식주 활동(밥먹이기, 옷 입히기, 재우기, 씻기 등)
			놀이활동(놀아주기, 책읽기 등)
			훈육
	초등 자녀	자녀양육 어려움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자녀와의 의사소통(하루 평균 대화시간)	
		자녀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자녀와 함께 활동하는 시간(한달 평균)	
		학부모 활동 참여(복수응답)	
		자녀의 한국어 실력	
		자녀의 외국어 실력	
	중고등 자녀	자녀양육 어려움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자녀와의 의사소통(하루 평균 대화시간)	
		자녀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자녀의 한국어 실력	
		자녀의 외국어 실력	
	성인 자녀 (만24세 미만)	자녀양육 어려움	
		자녀의 학교/사회생활 적응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	
		자녀와의 의사소통(하루 평균 대화시간)	
		자녀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역사회 관계	-	지역사회참여 활동(복수응답)	
		한국 선거참여 경험	
		전북 거주 만족 ↳ 전북 거주 불만족 이유	
		전북거주의향	
		한국생활 어려움	
		차별 경험 ↳ 차별받은 장소 ↳ 차별시 대처방안(복수응답)	
		지원서비스	인지도
			이용경험
			필요도

영역	하위영역	조사항목
경제활동	-	현재 근로 여부 ↳ 근로 이유 ↳ 근로 어려움
		주평균근로시간
		고용형태, 직업군
		월평균 수입
		근로만족도
		근로시간
		수입(돈)
		일의 강도(고된정도)
		복리후생(경조사비, 건강진단비 등)
		구직 경험 ↳ 구직의 어려움
건강 및 삶의 만족	-	직업교육
		직업교육훈련 요구 여부
		선호하는 직업교육훈련
		취,창업 지원 정책 요구도
		노후준비
		노후준비 종류
		노후 걱정
		주관적 신체 건강상태
		주관적 정신 건강상태
		병원이용시 어려움
	장기거주자 변화 (10년 이상 거주자만 응답)	임신출산시 어려움
		전반적인 삶의 만족
		변화된 경제수준
		변화된 삶의 질
		변화된 한국어 실력

(3) 조사방법

전북 14개 시·군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선발된 전문조사원이 대면으로 조사대상자를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24년 7월 22일 (월)부터 8월 16일(금)까지 진행되었으며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총 605명이 응답하였다. 최종자료는 로직 확인 및 데이터 이상치, 결측 처리를 위한 클리닝 단계를 거쳐 최종 데이터를 산출하였다. 분석방법은 다문화가족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2) 결과분석

(1) 일반사항 및 가구 특성

가. 일반적 특성

① 성별

전체 응답자의 성별을 보면 여성은 92.6%, 남성은 7.4%로 나타났으며 대체적으로 지역별 할당에 맞게 모집되었다. 남성 응답자는 '군산시(13.8%), 완주군(11.9%), 익산시(11.7%), 전주시(11.1%)에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다. 반면, 남성 할당이 없는 지역을 제외하고, 진안군과 고창군에서는 남성 응답자가 없었으며, 장수군(2.8%)과 임실군(3.0%)은 남성 응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III-4 성별

(단위: N, %)

		사례수	여성	남성
전체		(605)	92.6	7.4
거주 시군	전주시	(81)	88.9	11.1
	익산시	(60)	88.3	11.7
	군산시	(58)	86.2	13.8
	정읍시	(43)	90.7	9.3
	김제시	(42)	92.9	7.1
	남원시	(40)	92.5	7.5
	완주군	(42)	88.1	11.9
	고창군	(37)	100.0	0.0
	부안군	(35)	94.3	5.7
	임실군	(33)	97.0	3.0
	순창군	(34)	94.1	5.9
	진안군	(33)	100.0	0.0
	무주군	(31)	100.0	0.0
	장수군	(36)	97.2	2.8
행정 구역	읍/면	(362)	95.9	4.1
	동	(243)	87.7	12.3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86.4	13.6
	5년~10년 미만	(149)	92.6	7.4
	10년~20년 미만	(289)	93.4	6.6
	20년 이상	(79)	96.2	3.8

② 거주 시·군

전체 응답자의 거주 시·군별 분포를 보면 전주시가 1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익산시(9.9%), 군산시(9.6%), 정읍시(7.1%), 김제시(6.9%), 완주군(6.9%), 남원시(6.6%), 고창군(6.1%), 장수군(6.0%), 부안군(5.8%), 순창군(5.6%), 임실군(5.5%), 진안군(5.5%), 무주군(5.1%) 순으로 응답자가 분포하였다. 전북 거주기간별로 보면 5년 미만의 응답자는 전주시(22.7%)와 군산시(20.5%)에 주로 거주하였다.

Ⅰ표 Ⅲ-5 Ⅰ 거주 시·군

(단위: N, %)

		사례수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남원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임실군	순창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체		(605)	13.4	9.9	9.6	7.1	6.9	6.6	6.9	6.1	5.8	5.5	5.6	5.5	5.1	6.0
성별	여성	(560)	12.9	9.5	8.9	7.0	7.0	6.6	6.6	6.6	5.9	5.7	5.7	5.9	5.5	6.3
	남성	(45)	20.0	15.6	17.8	8.9	6.7	6.7	11.1	0.0	4.4	2.2	4.4	0.0	0.0	2.2
행정 구역	읍/면	(362)	0.0	6.6	1.1	6.4	5.2	3.0	11.6	10.2	9.7	9.1	9.4	9.1	8.6	9.9
	동	(243)	33.3	14.8	22.2	8.2	9.5	11.9	0.0	0.0	0.0	0.0	0.0	0.0	0.0	0.0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22.7	6.8	20.5	2.3	3.4	2.3	5.7	3.4	6.8	6.8	0.0	5.7	3.4	10.2
	5년~10년 미만	(149)	17.4	10.7	10.7	9.4	2.7	8.7	2.7	4.7	4.7	6.0	4.7	6.0	6.7	4.7
	10년~20년 미만	(289)	10.0	11.4	6.9	8.0	9.7	6.9	10.0	7.3	6.2	4.5	7.3	5.5	3.8	2.4
	20년 이상	(79)	7.6	6.3	5.1	5.1	8.9	6.3	5.1	7.6	5.1	6.3	7.6	3.8	8.9	16.5

③ 출생국가

전체 응답자의 출생국적을 보면 베트남이 41.7%로 가장 높았으며 중국(20.5%), 필리핀(12.2%), 중국-한국계(8.3%), 일본(6.4%), 캄보디아(5.6%), 태국(2.5%), 몽골(1.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베트남(43.0%)이, 남성은 중국(26.7%)이 가장 높았다. 또한 전북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베트남 응답자의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필리핀 출신 비율(25.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Ⅲ-6 출생국적

(단위: N, %)

		사례수	중국	중국 (한국계)	대만	일본	몽골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우즈 벡스탄	네팔	미국	캐나다	기타
전체		(605)	20.5	8.3	0.3	6.4	1.0	41.7	12.2	2.5	5.6	0.2	0.2	0.5	0.3	0.3
성별	여성	(560)	20.0	8.0	0.0	6.6	1.1	43.0	12.3	2.7	5.7	0.2	0.0	0.2	0.0	0.2
	남성	(45)	26.7	11.1	4.4	4.4	0.0	24.4	11.1	0.0	4.4	0.0	2.2	4.4	4.4	2.2
거주 시군	전주시	(81)	30.9	2.5	0.0	7.4	0.0	35.8	11.1	2.5	3.7	0.0	1.2	2.5	1.2	1.2
	익산시	(60)	21.7	10.0	1.7	5.0	1.7	40.0	8.3	1.7	6.7	0.0	0.0	1.7	1.7	0.0
	군산시	(58)	22.4	25.9	0.0	1.7	0.0	31.0	8.6	1.7	5.2	1.7	0.0	0.0	0.0	1.7
	정읍시	(43)	18.6	14.0	2.3	4.7	0.0	39.5	14.0	2.3	4.7	0.0	0.0	0.0	0.0	0.0
	김제시	(42)	14.3	9.5	0.0	2.4	2.4	42.9	19.0	2.4	7.1	0.0	0.0	0.0	0.0	0.0
	남원시	(40)	17.5	15.0	0.0	10.0	2.5	37.5	10.0	2.5	5.0	0.0	0.0	0.0	0.0	0.0
	완주군	(42)	26.2	2.4	0.0	2.4	0.0	52.4	7.1	4.8	4.8	0.0	0.0	0.0	0.0	0.0
	고창군	(37)	10.8	10.8	0.0	10.8	0.0	40.5	10.8	5.4	10.8	0.0	0.0	0.0	0.0	0.0
	부안군	(35)	28.6	2.9	0.0	5.7	5.7	40.0	11.4	2.9	2.9	0.0	0.0	0.0	0.0	0.0
	임실군	(33)	15.2	3.0	0.0	3.0	0.0	54.5	9.1	3.0	12.1	0.0	0.0	0.0	0.0	0.0
	순창군	(34)	8.8	11.8	0.0	11.8	0.0	41.2	17.6	0.0	8.8	0.0	0.0	0.0	0.0	0.0
	진안군	(33)	15.2	0.0	0.0	15.2	0.0	54.5	15.2	0.0	0.0	0.0	0.0	0.0	0.0	0.0
	무주군	(31)	22.6	0.0	0.0	6.5	0.0	54.8	12.9	3.2	0.0	0.0	0.0	0.0	0.0	0.0
	장수군	(36)	19.4	0.0	0.0	8.3	2.8	36.1	22.2	2.8	8.3	0.0	0.0	0.0	0.0	0.0
행정 구역	읍/면	(362)	16.6	3.9	0.0	7.2	0.8	49.2	13.5	2.8	6.1	0.0	0.0	0.0	0.0	0.0
	동	(243)	26.3	14.8	0.8	5.3	1.2	30.5	10.3	2.1	4.9	0.4	0.4	1.2	0.8	0.8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13.6	4.5	0.0	3.4	0.0	58.0	4.5	4.5	9.1	1.1	0.0	0.0	0.0	1.1
	5년~10년 미만	(149)	18.1	3.4	0.0	4.0	0.7	57.0	6.0	4.0	5.4	0.0	0.0	0.7	0.0	0.7
	10년~20년 미만	(289)	22.8	9.0	0.0	5.2	1.7	39.1	14.2	0.7	5.9	0.0	0.3	0.3	0.7	0.0
	20년 이상	(79)	24.1	19.0	2.5	19.0	0.0	3.8	25.3	3.8	1.3	0.0	0.0	1.3	0.0	0.0

④ 한국국적 보유여부

전체 응답자의 60.8%가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과반 이상의 응답자(63.6%)가 한국 국적을 보유한 반면에, 남성은 한국 국적 보유자가 26.7% 밖에 되지 않았다.

거주 시·군별로 보면 순창군(79.4%), 임실군(72.7%), 부안군 및 김제시(각 71.4%) 순으로 한국 국적 보유 비율이 높았으며, 한국 국적자가 가장 낮은 곳은 전주시(44.4%)로 나타났다. 행정구역별로 보면 읍/면 지역(66.3%)이 동 지역(52.7%)보다 한국 국적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기간 별로 보면 거주 기간이 길수록 한국 국적 보유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7 한국국적 보유여부

(단위: N, %)

		사례수	한국 국적	외국 국적
전체		(605)	60.8	39.2
성별	여성	(560)	63.6	36.4
	남성	(45)	26.7	73.3
거주 시·군	전주시	(81)	44.4	55.6
	익산시	(60)	58.3	41.7
	군산시	(58)	48.3	51.7
	정읍시	(43)	60.5	39.5
	김제시	(42)	71.4	28.6
	남원시	(40)	62.5	37.5
	완주군	(42)	66.7	33.3
	고창군	(37)	70.3	29.7
	부안군	(35)	71.4	28.6
	임실군	(33)	72.7	27.3
	순창군	(34)	79.4	20.6
	진안군	(33)	54.5	45.5
	무주군	(31)	67.7	32.3
	장수군	(36)	52.8	47.2
행정 구역	읍/면	(362)	66.3	33.7
	동	(243)	52.7	47.3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20.5	79.5
	5년~10년 미만	(149)	53.0	47.0
	10년~20년 미만	(289)	71.6	28.4
	20년 이상	(79)	81.0	19.0

⑤ 외국 국적시 체류자격

외국 국적 응답자(n=237)의 체류자격을 분석한 결과 ‘결혼이민(F-6) 및 국민의 배우자(F-2-1)’가 7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주(F-5)’(16.0%), ‘외국국적동포(F-4)’(3.4%), ‘거주(F-2) 및 방문동거(F-1)’(0.8%)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별로 보면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 82.8%가, 동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 76.5%가 결혼이민(F-6), 국민의 배우자(F-2-1)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이 길수록 ‘결혼이민(F-6) 및 국민의 배우자(F-2-1)’ 보다는 ‘영주(F-5)’권자의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체류자격의 변화를 살펴보면 2020년 전북 다문화 실태조사보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은 13.5%가, ‘결혼이민, 국민의 배우자 비율’은 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Ⅱ 표 III-8 Ⅱ 체류자격(2012-2024)

(단위: %)

	대한민국 국적	외국 국적 유지			
		결혼이민(F-6), 국민의 배우자 (F-2-1)	영주(F-5)	거주(F-2), 방문동거(F-1) ⁵⁾	기타 ⁶⁾
2024년 전북	60.8	79.7	16.0	0.8	3.4
2020년 전북	47.3	73.7	23.9	0.7	1.7
2015년 전북	42.6	77.2	18.3	3.7	0.8
2012년 전국	47.4	64.0	13.6	18.5	3.9

5) 2012-2020년 조사는 방문동거(F-1)를 포함하지 않음

6) 2012-2020년 조사에서 ‘기타’는 방문동거(F-1),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를 포함하고, 2024년 조사는 재외동포(F-4)만을 나타냄

Ⅲ 표 Ⅲ-9 Ⅲ 외국인 국적 시 체류자격

(단위: N, %)

		사례수	결혼이민(F-6), 국민의 배우자 (F-2-1)	영주(F-5)	외국국적동포 (F-4)	거주(F-2), 방문동거(F-1)
전체		(237)	79.7	16.0	3.4	0.8
성별	여성	(204)	79.4	17.2	2.5	1.0
	남성	(33)	81.8	9.1	9.1	0.0
거주 시군	전주시	(45)	88.9	11.1	0.0	0.0
	익산시	(25)	56.0	24.0	16.0	4.0
	군산시	(30)	86.7	3.3	10.0	0.0
	정읍시	(17)	76.5	23.5	0.0	0.0
	김제시	(12)	66.7	33.3	0.0	0.0
	남원시	(15)	80.0	20.0	0.0	0.0
	완주군	(14)	85.7	14.3	0.0	0.0
	고창군	(11)	81.8	18.2	0.0	0.0
	부안군	(10)	90.0	10.0	0.0	0.0
	임실군	(9)	100.0	0.0	0.0	0.0
	순창군	(7)	42.9	42.9	14.3	0.0
	진안군	(15)	73.3	20.0	0.0	6.7
	무주군	(10)	80.0	20.0	0.0	0.0
	장수군	(17)	88.2	11.8	0.0	0.0
행정 구역	읍/면	(122)	82.8	15.6	0.8	0.8
	동	(115)	76.5	16.5	6.1	0.9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70)	94.3	1.4	2.9	1.4
	5년~10년 미만	(70)	88.6	8.6	1.4	1.4
	10년~20년 미만	(82)	69.5	24.4	6.1	0.0
	20년 이상	(15)	26.7	73.3	0.0	0.0

⑥ 전북거주기간

전북 거주 기간을 보면 전체 응답자의 평균 거주 기간은 12.1년으로 나타났다. 거주 기간이 가장 높은 곳은 순창군(15.1년)이었으며 김제시(14.9년), 고창군(13.4년)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거주 기간 평균이 가장 짧은 시·군은 전주시와 군산시로, 각 9.2년으로 나타났다.

읍/면 지역에 거주할 때의 전북거주기간은 '10~15년 미만'(25.1%), 동 지역은 '5~10년 미만'(28.8%)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읍/면 지역에 거주한 응답자가 전북거주 기간이 더 긴 경향이 있다.

표 Ⅲ-10 전북거주기간

(단위: N, %, 년 수)

		사례수	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년 이상	평균 (년 수)
전체		(605)	14.5	24.6	25.0	22.8	13.1	12.1
성별	여성	(560)	13.6	24.6	25.2	23.0	13.6	12.1
	남성	(45)	26.7	24.4	22.2	20.0	6.7	12.1
거주 시군	전주시	(81)	24.7	32.1	21.0	14.8	7.4	9.2
	익산시	(60)	10.0	26.7	31.7	23.3	8.3	12.8
	군산시	(58)	31.0	27.6	15.5	19.0	6.9	9.2
	정읍시	(43)	4.7	32.6	34.9	18.6	9.3	12.9
	김제시	(42)	7.1	9.5	28.6	38.1	16.7	14.9
	남원시	(40)	5.0	32.5	30.0	20.0	12.5	12.3
	완주군	(42)	11.9	9.5	31.0	38.1	9.5	13.2
	고창군	(37)	8.1	18.9	35.1	21.6	16.2	13.4
	부안군	(35)	17.1	20.0	22.9	28.6	11.4	11.7
	임실군	(33)	18.2	27.3	21.2	18.2	15.2	11.7
	순창군	(34)	0.0	20.6	29.4	32.4	17.6	15.1
	진안군	(33)	15.2	27.3	18.2	30.3	9.1	11.4
	무주군	(31)	9.7	32.3	16.1	19.4	22.6	13.1
	장수군	(36)	25.0	19.4	13.9	5.6	36.1	13.2
행정 구역	읍/면	(362)	13.0	21.8	25.1	24.9	15.2	12.7
	동	(243)	16.9	28.8	24.7	19.8	9.9	11.3

⑦ 전북거주계기

전북에서의 거주 계기를 보면 ‘결혼’이 8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 직장 이동’(4.8%), ‘배우자 직장 이동’(4.6%), ‘자녀 교육’(3.5%), ‘기타’(1.2%)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의 내용으로는 ‘귀촌’, ‘유학’, ‘고향사람들이 있어서’ 등이 있다.

전북거주계기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88.4%가, 남성은 55.6%가 ‘결혼’이라고 응답하여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Ⅲ-11 전북거주계기

(단위: N, %)

		사례수	결혼	본인 직장 이동	배우자 직장 이동	자녀 교육	기타
전체		(605)	86.0	4.8	4.6	3.5	1.2
성별	여성	(560)	88.4	2.3	5.0	3.4	0.9
	남성	(45)	55.6	35.6	0.0	4.4	4.4
거주 시군	전주시	(81)	81.5	6.2	3.7	8.6	0.0
	익산시	(60)	81.7	11.7	5.0	0.0	1.7
	군산시	(58)	87.9	6.9	1.7	1.7	1.7
	정읍시	(43)	81.4	4.7	7.0	7.0	0.0
	김제시	(42)	90.5	2.4	4.8	2.4	0.0
	남원시	(40)	72.5	7.5	12.5	5.0	2.5
	완주군	(42)	85.7	4.8	2.4	2.4	4.8
	고창군	(37)	83.8	2.7	13.5	0.0	0.0
	부안군	(35)	88.6	2.9	2.9	2.9	2.9
	임실군	(33)	93.9	0.0	0.0	3.0	3.0
	순창군	(34)	94.1	2.9	2.9	0.0	0.0
	진안군	(33)	84.8	6.1	0.0	9.1	0.0
	무주군	(31)	90.3	0.0	6.5	3.2	0.0
	장수군	(36)	97.2	0.0	2.8	0.0	0.0
행정 구역	읍/면	(362)	89.8	2.5	4.1	2.2	1.4
	동	(243)	80.2	8.2	5.3	5.3	0.8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84.1	8.0	4.5	1.1	2.3
	5년~10년 미만	(149)	81.9	4.0	6.0	7.4	0.7
	10년~20년 미만	(289)	87.9	4.8	3.5	2.4	1.4
	20년 이상	(79)	88.6	2.5	6.3	2.5	0.0

⑧ 결혼이민자 연령

전체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40.3세이며 남성이 평균 43.3세, 여성이 40.0세로 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군별로 보면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곳은 김제시(43.4세)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가장 연령이 낮은 곳은 진안군(37.5세)이었다. 행정구역별로 보면 읍/면 지역(39.5세)의 평균 연령이 읍/면 지역(39.5세) 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연령을 2020년 전복과 비교해보면 20대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40대 이상은 10.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이 3.6%를 차지하고 있어 노년기를 준비하는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2 결혼이민자 연령

(단위: N, %, 세)

		사례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평균(세)
전체		(605)	10.2	41.3	33.6	11.2	3.6	40.3
성별	여성	(560)	10.7	40.7	34.3	11.3	3.0	40.0
	남성	(45)	4.4	48.9	24.4	11.1	11.1	43.3
거주 시군	전주시	(81)	13.6	40.7	37.0	4.9	3.7	39.2
	익산시	(60)	13.3	41.7	28.3	8.3	8.3	41.0
	군산시	(58)	10.3	34.5	32.8	15.5	6.9	41.8
	정읍시	(43)	7.0	46.5	41.9	2.3	2.3	39.5
	김제시	(42)	0.0	35.7	40.5	21.4	2.4	43.4
	남원시	(40)	5.0	42.5	32.5	17.5	2.5	41.6
	완주군	(42)	7.1	45.2	35.7	11.9	0.0	40.0
	고창군	(37)	10.8	48.6	32.4	5.4	2.7	38.2
	부안군	(35)	11.4	51.4	28.6	5.7	2.9	39.0
	임실군	(33)	15.2	42.4	30.3	9.1	3.0	38.1
	순창군	(34)	5.9	47.1	26.5	17.6	2.9	40.8
	진안군	(33)	24.2	30.3	33.3	12.1	0.0	37.5
	무주군	(31)	12.9	25.8	41.9	16.1	3.2	41.5
	장수군	(36)	5.6	47.2	25.0	16.7	5.6	41.7
행정 구역	읍/면	(362)	10.5	44.8	31.5	11.0	2.2	39.5
	동	(243)	9.9	36.2	36.6	11.5	5.8	41.4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28.4	45.5	18.2	5.7	2.3	35.2
	5년~10년 미만	(149)	23.5	46.3	27.5	2.7	0.0	35.3
	10년~20년 미만	(289)	0.7	48.1	40.8	7.6	2.8	41.2
	20년 이상	(79)	0.0	2.5	35.4	46.8	15.2	52.1

표 Ⅲ-13 결혼이민자의 연령대(2009-2024)

(단위: %, 세)

	20대	30대	40대 이상			평균 연령
			40대	50대	60대 이상	
2024년 전북 ⁷⁾	10.7	40.7	34.3	11.3	3.0	40.0
2020년 전북	18.0	44.0	38.0			35.3
2015년 전북	30.0	40.7	29.3			35.3
2012년 전국	31.2	31.5	37.2			33.0
2009년 전국	41.3	34.3	24.5			33.4

⑨ 결혼이민자 교육수준

결혼이민자 교육수준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이 38.3%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 졸업’(26.6%), ‘중학교 졸업’(24.8%), ‘초등학교 졸업’(6.8%), ‘대학원 졸업(석사 이상)’(2.8%), ‘학력 없음(미취학 포함)’(0.7%)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별 결혼이민자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5년 미만 거주자의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비율이 20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이 과거에 비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Ⅲ-14 결혼이민자 교육수준

(단위: N, %)

		사례수	학력 없음 (미취학 포함)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 이상)
전체		(605)	0.7	6.8	24.8	38.3	26.6	2.8
성별	여성	(560)	0.5	7.1	25.0	38.4	26.4	2.5
	남성	(45)	2.2	2.2	22.2	37.8	28.9	6.7
거주 시군	전주시	(81)	0.0	2.5	21.0	39.5	32.1	4.9
	익산시	(60)	0.0	3.3	13.3	36.7	36.7	10.0
	군산시	(58)	0.0	6.9	31.0	37.9	24.1	0.0
	정읍시	(43)	2.3	7.0	14.0	37.2	34.9	4.7
	김제시	(42)	0.0	16.7	40.5	28.6	14.3	0.0
	남원시	(40)	2.5	2.5	20.0	42.5	30.0	2.5
	완주군	(42)	2.4	7.1	26.2	33.3	23.8	7.1

7)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여성의 연령 만을 제시하였음. 세부사항은 <표 Ⅲ-13>참조

		사례수	학력 없음 (미취학 포함)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 이상)
	고창군	(37)	2.7	13.5	35.1	32.4	16.2	0.0
	부안군	(35)	0.0	8.6	25.7	40.0	25.7	0.0
	임실군	(33)	0.0	0.0	33.3	45.5	18.2	3.0
	순창군	(34)	0.0	5.9	32.4	38.2	23.5	0.0
	진안군	(33)	0.0	6.1	15.2	57.6	21.2	0.0
	무주군	(31)	0.0	6.5	32.3	35.5	25.8	0.0
	장수군	(36)	0.0	13.9	16.7	36.1	33.3	0.0
행정 구역	읍/면	(362)	0.8	8.0	26.8	38.7	24.0	1.7
	동	(243)	0.4	4.9	21.8	37.9	30.5	4.5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0.0	5.7	29.5	39.8	25.0	0.0
	5년~10년 미만	(149)	0.0	4.7	23.5	45.6	24.8	1.3
	10년~20년 미만	(289)	1.0	8.7	27.0	35.6	23.9	3.8
	20년 이상	(79)	1.3	5.1	13.9	32.9	41.8	5.1

⑩ 한국어 실력

본인이 평가한 한국어 실력(5점척도)을 보면 ‘한국어 읽기’가 3.23점으로 가장 높으며 ‘한국어 듣기’(3.21점), ‘한국어 말하기’(3.16점), ‘한국어 쓰기’(3.04점)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본인의 한국어 실력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읍/면 지역 보다는 동 지역 거주자가 본인의 한국어 실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한 전북 거주기간이 길수록 본인의 한국어 실력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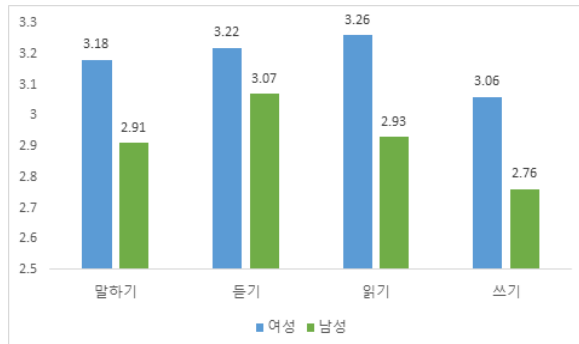


그림 Ⅲ-1 결혼이민자 한국어 실력

Ⅰ 표 Ⅲ-15 Ⅰ 본인 한국어 실력

(단위: N, 5점척도 평균)

		사례수	한국어 말하기	한국어 듣기	한국어 읽기	한국어 쓰기
전체		(605)	3.16	3.21	3.23	3.04
성별	여성	(560)	3.18	3.22	3.26	3.06
	남성	(45)	2.91	3.07	2.93	2.76
거주 시군	전주시	(81)	2.99	3.06	3.11	2.90
	익산시	(60)	3.45	3.52	3.48	3.28
	군산시	(58)	3.12	3.22	3.14	2.95
	정읍시	(43)	3.28	3.30	3.37	3.19
	김제시	(42)	3.02	3.07	3.07	2.88
	남원시	(40)	3.08	3.08	3.23	3.08
	완주군	(42)	3.17	3.14	3.12	2.93
	고창군	(37)	3.57	3.54	3.70	3.41
	부안군	(35)	3.14	3.17	3.17	2.89
	임실군	(33)	3.03	3.03	3.06	2.88
	순창군	(34)	3.38	3.38	3.35	3.24
	진안군	(33)	2.88	2.97	2.85	2.73
	무주군	(31)	3.16	3.29	3.39	3.19
	장수군	(36)	3.03	3.11	3.22	3.03
행정 구역	읍/면	(362)	3.14	3.17	3.20	3.01
	동	(243)	3.19	3.27	3.28	3.08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2.55	2.61	2.70	2.60
	5년~10년 미만	(149)	2.91	2.97	2.99	2.85
	10년~20년 미만	(289)	3.29	3.34	3.33	3.10
	20년 이상	(79)	3.87	3.84	3.91	3.63

⑪ 주택유형

주택 유형을 보면 ‘아파트’가 49.9%로 가장 높았으며 ‘단독주택’(37.4%), ‘다세대주택’(9.3%), ‘연립주택(맨션)’(3.5%) 순으로 나타났다. 읍/면 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이 5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 지역에서는 ‘아파트’가 6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III-16 거주 주택 유형

(단위: N, %)

		사례수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맨션)
전체		(605)	49.9	37.4	9.3	3.5
성별	여성	(560)	48.9	39.3	8.6	3.2
	남성	(45)	62.2	13.3	17.8	6.7
거주 시군	전주시	(81)	67.9	17.3	14.8	0.0
	익산시	(60)	66.7	16.7	13.3	3.3
	군산시	(58)	67.2	19.0	8.6	5.2
	정읍시	(43)	55.8	27.9	14.0	2.3
	김제시	(42)	38.1	54.8	7.1	0.0
	남원시	(40)	50.0	37.5	2.5	10.0
	완주군	(42)	57.1	33.3	4.8	4.8
	고창군	(37)	29.7	45.9	16.2	8.1
	부안군	(35)	37.1	51.4	8.6	2.9
	임실군	(33)	51.5	45.5	3.0	0.0
	순창군	(34)	44.1	47.1	5.9	2.9
	진안군	(33)	21.2	66.7	6.1	6.1
	무주군	(31)	29.0	54.8	12.9	3.2
	장수군	(36)	33.3	61.1	2.8	2.8
행정 구역	읍/면	(362)	37.3	52.5	6.9	3.3
	동	(243)	68.7	14.8	12.8	3.7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43.2	43.2	11.4	2.3
	5년~10년 미만	(149)	62.4	26.8	8.1	2.7
	10년~20년 미만	(289)	48.4	38.1	10.0	3.5
	20년 이상	(79)	39.2	48.1	6.3	6.3

⑫ 주택 소유

주택 소유 형태를 보면, ‘배우자 명의 소유’가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월세’(18.8%), ‘본인 명의 소유’(13.2%), ‘(배우자) 부모 소유’(11.4%), ‘전세’(7.6%), ‘무상’(1.0%), ‘기타’(1.2%)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응답자의 경우 다른 친인척이나 부부 공동 명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배우자 명의 소유’(45.0%)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반면 남성은 ‘월세’(35.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세 및 전세는 읍/면 지역(15.5%)보다는 동 지역(23.9%)에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전북 거주기간이 길수록 ‘본인 명의 소유’의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Ⅰ 표 Ⅲ-17 Ⅰ 주택 소유 형태

(단위: N, %)

		사례수	배우자 명의 소유	월세	본인 명의 소유	(배우자) 부모 소유	전세	모름/ 무응답	무상	기타
전체		(605)	44.1	18.8	13.2	11.4	7.6	2.6	1.0	1.2
성별	여성	(560)	45.0	17.5	13.2	12.1	7.1	2.9	1.1	1.1
	남성	(45)	33.3	35.6	13.3	2.2	13.3	0.0	0.0	2.2
거주 시군	전주시	(81)	45.7	18.5	9.9	8.6	16.0	1.2	0.0	0.0
	익산시	(60)	36.7	23.3	21.7	5.0	8.3	1.7	1.7	1.7
	군산시	(58)	48.3	19.0	12.1	10.3	5.2	3.4	0.0	1.7
	정읍시	(43)	46.5	20.9	14.0	7.0	4.7	7.0	0.0	0.0
	김제시	(42)	57.1	7.1	9.5	16.7	4.8	0.0	2.4	2.4
	남원시	(40)	17.5	35.0	12.5	12.5	20.0	0.0	0.0	2.5
	완주군	(42)	42.9	9.5	26.2	14.3	2.4	4.8	0.0	0.0
	고창군	(37)	64.9	8.1	10.8	13.5	0.0	2.7	0.0	0.0
	부안군	(35)	37.1	40.0	17.1	2.9	0.0	2.9	0.0	0.0
	임실군	(33)	42.4	27.3	15.2	3.0	6.1	3.0	0.0	3.0
	순창군	(34)	38.2	20.6	5.9	8.8	14.7	2.9	2.9	5.9
	진안군	(33)	51.5	9.1	9.1	21.2	3.0	3.0	3.0	0.0
행정 구역	읍/면	(362)	47.0	15.5	13.0	15.2	4.1	3.0	1.4	0.8
	동	(243)	39.9	23.9	13.6	5.8	12.8	2.1	0.4	1.6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52.3	15.9	1.1	17.0	8.0	5.7	0.0	0.0
	5년~10년 미만	(149)	46.3	24.2	6.7	9.4	9.4	3.4	0.0	0.7
	10년~20년 미만	(289)	38.4	20.1	17.3	11.1	8.0	2.1	1.4	1.7
	20년 이상	(79)	51.9	7.6	24.1	10.1	2.5	0.0	2.5	1.3

⑬ 월 평균 가구 소득

월 평균 가구 소득을 보면 ‘200만원~300만원 미만’이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만원~200만원 미만’(20.0%), ‘300만원~400만원 미만’(18.0%), ‘400만원~500만원 미만’(14.5%), ‘500만원 이상’(8.4%), ‘100만원 미만’(7.9%)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400만원~500만원 미만’(24.4%), ‘500만원 이상’(15.6%)의 고소득 구간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전북거주기간이 20년 이상일 때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8 월 평균 가구 소득

(단위: N, %)

		사례수	100만원 미만	100만원 ~200만원 미만	200만원 ~300만원 미만	300만원 ~400만원 미만	400만원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전체		(605)	7.9	20.0	31.1	18.0	14.5	8.4
성별	여성	(560)	8.2	20.5	31.6	18.0	13.8	7.9
	남성	(45)	4.4	13.3	24.4	17.8	24.4	15.6
거주 시군	전주시	(81)	4.9	17.3	28.4	19.8	17.3	12.3
	익산시	(60)	5.0	15.0	23.3	18.3	25.0	13.3
	군산시	(58)	8.6	15.5	37.9	15.5	12.1	10.3
	정읍시	(43)	23.3	23.3	14.0	16.3	16.3	7.0
	김제시	(42)	11.9	19.0	33.3	26.2	4.8	4.8
	남원시	(40)	5.0	25.0	32.5	20.0	15.0	2.5
	완주군	(42)	2.4	23.8	35.7	14.3	11.9	11.9
	고창군	(37)	5.4	13.5	18.9	21.6	24.3	16.2
	부안군	(35)	5.7	14.3	37.1	22.9	17.1	2.9
	임실군	(33)	6.1	18.2	27.3	24.2	15.2	9.1
	순창군	(34)	14.7	26.5	29.4	20.6	2.9	5.9
	진안군	(33)	6.1	27.3	42.4	12.1	12.1	0.0
	무주군	(31)	9.7	19.4	45.2	9.7	6.5	9.7
	장수군	(36)	5.6	30.6	38.9	8.3	13.9	2.8
행정 구역	읍/면	(362)	6.6	21.0	33.4	18.0	13.3	7.7
	동	(243)	9.9	18.5	27.6	18.1	16.5	9.5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8.0	17.0	30.7	18.2	13.6	12.5
	5년~10년 미만	(149)	4.7	16.1	34.2	15.4	21.5	8.1
	10년~20년 미만	(289)	8.0	20.8	31.1	19.0	13.1	8.0
	20년 이상	(79)	13.9	27.8	25.3	19.0	7.6	6.3

⑭ 주관적 경제적 지위

주관적 경제적 지위는 ‘중하’가 4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하상’(22.8%), ‘중상’(19.7%), ‘하하’(6.8%), ‘상하’(1.8%), ‘상상’(0.5%)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거주기간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모든 기간에서 ‘중하’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중상’과 ‘상하’ 응답 비율은 5년 미만 거주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Ⅲ-19 주관적 경제적 지위

(단위: N, %)

		사례수	하하(下下)	하상(下上)	중하(中下)	중상(中上)	상하(上下)	상상(上上)
전체		(605)	6.8	22.8	48.4	19.7	1.8	0.5
성별	여성	(560)	7.0	22.7	49.1	19.3	1.6	0.4
	남성	(45)	4.4	24.4	40.0	24.4	4.4	2.2
거주 시군	전주시	(81)	6.2	18.5	49.4	22.2	3.7	0.0
	익산시	(60)	5.0	20.0	48.3	25.0	1.7	0.0
	군산시	(58)	8.6	37.9	27.6	24.1	0.0	1.7
	정읍시	(43)	9.3	32.6	48.8	4.7	4.7	0.0
	김제시	(42)	4.8	33.3	50.0	11.9	0.0	0.0
	남원시	(40)	12.5	20.0	50.0	12.5	2.5	2.5
	완주군	(42)	4.8	19.0	50.0	21.4	4.8	0.0
	고창군	(37)	5.4	2.7	59.5	32.4	0.0	0.0
	부안군	(35)	5.7	25.7	40.0	20.0	5.7	2.9
	임실군	(33)	6.1	6.1	63.6	24.2	0.0	0.0
	순창군	(34)	2.9	17.6	61.8	17.6	0.0	0.0
	진안군	(33)	12.1	45.5	27.3	15.2	0.0	0.0
	무주군	(31)	0.0	3.2	67.7	29.0	0.0	0.0
	장수군	(36)	11.1	30.6	47.2	11.1	0.0	0.0
행정 구역	읍/면	(362)	6.1	20.2	52.8	19.1	1.7	0.3
	동	(243)	7.8	26.7	42.0	20.6	2.1	0.8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6.8	21.6	37.5	28.4	5.7	0.0
	5년~10년 미만	(149)	6.0	20.1	45.6	25.5	2.0	0.7
	10년~20년 미만	(289)	6.6	23.5	54.3	13.8	1.0	0.7
	20년 이상	(79)	8.9	26.6	44.3	20.3	0.0	0.0

⑮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응답자 중 10.1%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10.2%, 남성은 8.9%로 나타났다. 기초수급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정읍시(23.3%)로 나타난 반면 완주군과 무주군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 지역은 8.3%, 동 지역은 12.8%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나타났으며 거주 기간이 길수록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Ⅲ-20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단위: N, %)

		사례수	기초생활수급자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님
전체		(605)	10.1	89.9
성별	여성	(560)	10.2	89.8
	남성	(45)	8.9	91.1
거주 시군	전주시	(81)	9.9	90.1
	익산시	(60)	13.3	86.7
	군산시	(58)	5.2	94.8
	정읍시	(43)	23.3	76.7
	김제시	(42)	7.1	92.9
	남원시	(40)	15.0	85.0
	완주군	(42)	0.0	100.0
	고창군	(37)	5.4	94.6
	부안군	(35)	14.3	85.7
	임실군	(33)	15.2	84.8
	순창군	(34)	5.9	94.1
	진안군	(33)	15.2	84.8
	무주군	(31)	0.0	100.0
	장수군	(36)	11.1	88.9
행정 구역	읍/면	(362)	8.3	91.7
	동	(243)	12.8	87.2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8.0	92.0
	5년~10년 미만	(149)	8.7	91.3
	10년~20년 미만	(289)	10.0	90.0
	20년 이상	(79)	15.2	84.8

⑩ 기초생활수급자 유형

기초생활수급자(n=61)의 수급 유형은 ‘생계급여’가 4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급여’(37.7%), ‘의료급여’(34.4%), ‘주거급여’(24.6%) 순으로 나타났다. 읍·면 지역에서는 ‘교육급여’가 5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동 지역에서는 ‘생계급여’가 6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거주 기간이 길수록 교육급여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생계급여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Ⅰ 표 Ⅲ-21 Ⅰ 기초생활수급자 유형

(단위: N, 중복응답 %)

		사례수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전체		(61)	45.9	37.7	34.4	24.6
성별	여성	(57)	43.9	40.4	35.1	26.3
	남성	(4)	75.0	0.0	25.0	0.0
거주 시군	전주시	(8)	50.0	37.5	25.0	25.0
	익산시	(8)	62.5	12.5	25.0	0.0
	군산시	(3)	66.7	0.0	66.7	33.3
	정읍시	(10)	60.0	20.0	20.0	20.0
	김제시	(3)	33.3	0.0	33.3	33.3
	남원시	(6)	66.7	66.7	16.7	50.0
	완주군	(0)	-	-	-	-
	고창군	(2)	0.0	100.0	0.0	0.0
	부안군	(5)	0.0	100.0	20.0	20.0
	임실군	(5)	40.0	60.0	80.0	60.0
	순창군	(2)	50.0	0.0	0.0	50.0
	진안군	(5)	20.0	60.0	60.0	20.0
	무주군	(0)	-	-	-	-
	장수군	(4)	50.0	0.0	75.0	0.0
행정 구역	읍/면	(30)	30.0	56.7	43.3	26.7
	동	(31)	61.3	19.4	25.8	22.6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7)	14.3	42.9	28.6	28.6
	5년~10년 미만	(13)	38.5	30.8	30.8	23.1
	10년~20년 미만	(29)	55.2	44.8	41.4	27.6
	20년 이상	(12)	50.0	25.0	25.0	16.7

나. 가구특성

① 가구유형

가구유형에서는 ‘부부+자녀’가 60.7%로 가장 높으며 ‘부모+부부+자녀’(17.0%), ‘부부만’(10.2%), ‘한부모 가구’(8.6%), ‘1인 가구’(2.0%) 순으로 나타났다. 읍/면 지역에서는 ‘부모+부부+자녀’(20.7%) 비율이 ‘부부만’(7.2%) 비율보다 높은 반면, 동 지역에서는 ‘부부만’(14.8%) 비율이 ‘부모+부부+자녀’(7.2%)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주 기간이 5년 미만 응답자에서는 ‘부부만’ 비율이 35.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북의 부부+자녀 비율(60.7%)과 부모+부부+자녀(17.0%) 비율은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북 다문화가족은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가족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부만 사는 가족(10.2%), 한부모가구(8.6%), 1인가구(2.0%) 비율은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전북 다문화가족 내에서도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표 III-22 | 가구 유형(2015-2024)

(단위: N, %)

	부부 +자녀	부모+부부 +자녀 ⁸⁾	부부만	한부모가구	1인 가구	기타
2024년 전북	60.7	17.0	10.2	8.6	2.0	1.5
2021년 전국	35.5	6.6	30.0	10.9	8.3	8.9 ⁹⁾
2018년 전국	34.0	10.6	17.0	12.2	10.6	12.0
2015년 전국	46.0	12.6	21.8	4.8	12.6	8.2

8) 전국 조사는 3대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를, ‘부부+자녀+배우자 부모형제’와 ‘부부+자녀+본인 부모형제’로 구분하여 파악했고, 전북 조사는 ‘부모+부부+자녀’로 파악했음. 본 연구에서는 전국과 전북 조사결과의 비교를 전국조사의 ‘부부+자녀+배우자 부모형제’와 ‘부부+자녀+본인 부모형제’ 수치를 합산해 ‘부모+부부+자녀’로 제시하였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9) 전국조사의 경우, ‘부부+본인 부모형제’, ‘부부+배우자 부모형제’, ‘기타’를 합산해 제시하였음

Ⅰ 표 Ⅲ-23 Ⅰ 가구 유형

(단위: N, %)

		사례수	부부 +자녀	부모+부부 +자녀	부부만	한부모가구	1인 가구	기타
전체		(605)	60.7	17.0	10.2	8.6	2.0	1.5
성별	여성	(560)	60.5	18.0	8.6	9.1	2.1	1.6
	남성	(45)	62.2	4.4	31.1	2.2	0.0	0.0
거주 시군	전주시	(81)	54.3	14.8	19.8	9.9	0.0	1.2
	익산시	(60)	61.7	15.0	6.7	13.3	3.3	0.0
	군산시	(58)	55.2	10.3	24.1	3.4	1.7	5.2
	정읍시	(43)	67.4	11.6	2.3	16.3	2.3	0.0
	김제시	(42)	71.4	14.3	7.1	4.8	2.4	0.0
	남원시	(40)	62.5	10.0	5.0	15.0	2.5	5.0
	완주군	(42)	64.3	19.0	9.5	4.8	0.0	2.4
	고창군	(37)	56.8	35.1	2.7	2.7	2.7	0.0
	부안군	(35)	68.6	17.1	5.7	5.7	2.9	0.0
	임실군	(33)	66.7	18.2	6.1	6.1	0.0	3.0
	순창군	(34)	64.7	17.6	2.9	11.8	2.9	0.0
	진안군	(33)	57.6	12.1	12.1	15.2	3.0	0.0
	무주군	(31)	61.3	25.8	9.7	3.2	0.0	0.0
	장수군	(36)	44.4	27.8	13.9	5.6	5.6	2.8
행정 구역	읍/면	(362)	61.9	20.7	7.2	6.9	1.7	1.7
	동	(243)	58.8	11.5	14.8	11.1	2.5	1.2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42.0	11.4	35.2	2.3	2.3	6.8
	5년~10년 미만	(149)	66.4	19.5	8.1	4.0	0.7	1.3
	10년~20년 미만	(289)	64.0	17.3	4.5	12.1	1.7	0.3
	20년 이상	(79)	58.2	17.7	7.6	11.4	5.1	0.0

② 가구원 수

평균 가구원 수는 3.8명이며 여성(3.8명)이 남성(3.2명)보다 가구원 수가 높게 나타났다. 거주시군별로 보면 고창군이 4.7명으로 평균 가구원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가장 낮은 곳은 군산시(3.2명)였다. 행정구역별로 보면 읍/면 지역(4.0명)이 동 지역(3.4명) 보다 평균 가구원 수가 높게 나타났다. 거주기간에 따라 가구원 수 분포를 살펴보면, 5년 미만 거주자는 2명(36.4%)인 가구가 가장 많았고, 5년~10년 미만 거주자는 3명(34.2%)과 4명(34.9%)이 유사한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10년 이상 거주자의 경우 4명인 가구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Ⅲ-24 가구원 수

(단위: N, %, 명)

		사례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이상	평균 (명)
전체		(605)	2.0	13.2	28.9	31.4	14.4	7.1	3.0	3.8
성별	여성	(560)	2.1	11.8	28.6	32.1	15.0	7.1	3.2	3.8
	남성	(45)	0.0	31.1	33.3	22.2	6.7	6.7	0.0	3.2
거주 시군	전주시	(81)	0.0	23.5	25.9	29.6	18.5	1.2	1.2	3.5
	익산시	(60)	3.3	8.3	35.0	28.3	18.3	5.0	1.7	3.7
	군산시	(58)	1.7	25.9	41.4	17.2	6.9	5.2	1.7	3.2
	정읍시	(43)	2.3	11.6	39.5	23.3	14.0	9.3	0.0	3.6
	김제시	(42)	2.4	9.5	35.7	38.1	7.1	7.1	0.0	3.6
	남원시	(40)	2.5	12.5	42.5	12.5	17.5	10.0	2.5	3.7
	완주군	(42)	0.0	9.5	28.6	40.5	7.1	2.4	11.9	4.0
	고창군	(37)	2.7	2.7	5.4	37.8	24.3	21.6	5.4	4.7
	부안군	(35)	2.9	5.7	25.7	37.1	8.6	14.3	5.7	4.1
	임실군	(33)	0.0	6.1	21.2	54.5	9.1	6.1	3.0	4.0
	순창군	(34)	2.9	11.8	17.6	41.2	17.6	5.9	2.9	3.9
	진안군	(33)	3.0	18.2	21.2	42.4	12.1	3.0	0.0	3.5
	무주군	(31)	0.0	9.7	22.6	38.7	22.6	3.2	3.2	4.0
	장수군	(36)	5.6	13.9	27.8	16.7	16.7	13.9	5.6	3.9
행정 구역	읍/면	(362)	1.7	9.4	22.9	37.3	14.6	9.7	4.4	4.0
	동	(243)	2.5	18.9	37.9	22.6	14.0	3.3	0.8	3.4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2.3	36.4	33.0	18.2	8.0	1.1	1.1	3.0
	5년~10년 미만	(149)	0.7	11.4	34.2	34.9	11.4	6.0	1.3	3.7
	10년~20년 미만	(289)	1.7	7.3	27.7	33.2	17.0	9.7	3.5	4.0
	20년 이상	(79)	5.1	12.7	19.0	32.9	17.7	6.3	6.3	3.9

③ 배우자 유무

전체 참여자 중 88.3%가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여성(87.5%)보다는 남성(97.%)이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행정구역별로 보면 읍/면 지역(90.6%)이 동 지역(84.8%)보다 배우자가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북 거주 기간이 길수록 배우자가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Ⅲ-25 배우자 유무

(단위: N, %)

		사례수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전체		(605)	88.3	11.7
성별	여성	(560)	87.5	12.5
	남성	(45)	97.8	2.2
거주 시군	전주시	(81)	88.9	11.1
	익산시	(60)	83.3	16.7
	군산시	(58)	91.4	8.6
	정읍시	(43)	81.4	18.6
	김제시	(42)	92.9	7.1
	남원시	(40)	80.0	20.0
	완주군	(42)	95.2	4.8
	고창군	(37)	94.6	5.4
	부안군	(35)	91.4	8.6
	임실군	(33)	93.9	6.1
	순창군	(34)	82.4	17.6
	진안군	(33)	81.8	18.2
	무주군	(31)	93.5	6.5
	장수군	(36)	86.1	13.9
행정 구역	읍/면	(362)	90.6	9.4
	동	(243)	84.8	15.2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94.3	5.7
	5년~10년 미만	(149)	94.0	6.0
	10년~20년 미만	(289)	84.8	15.2
	20년 이상	(79)	83.5	16.5

④ 배우자 연령

배우자 연령은 평균 51.4세로 나타났으며 '50대'의 비율이 47.9%로 가장 높으며 '40대'(27.5%), '60대 이상'(15.0%), '30대'(9.0%), '20대'(0.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결혼이민자 여성 배우자의 평균 연령(52.2세)이 남성 배우자의 평균 연령(43.5세)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배우자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무주군은 배우자의 평균 연령이 54.4세로 가장 높았고, 익산시는 49.8세로 가장 낮은 평균 연령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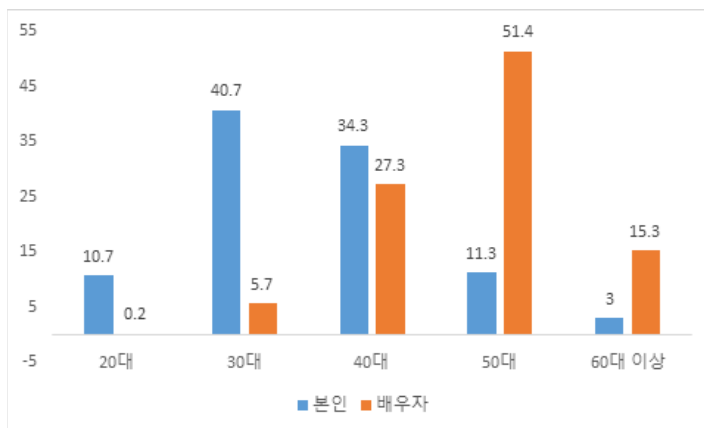
표 III-26 배우자 연령

(단위: N, %, 세)

		사례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평균(세)
전체		(534)	0.6	9.0	27.5	47.9	15.0	51.4
성별	여성	(490)	0.2	5.7	27.3	51.4	15.3	52.2
	남성	(44)	4.5	45.5	29.5	9.1	11.4	43.5
거주 시군	전주시	(72)	0.0	8.3	30.6	48.6	12.5	50.6
	익산시	(50)	2.0	12.0	24.0	54.0	8.0	49.8
	군산시	(53)	0.0	9.4	28.3	41.5	20.8	52.7
	정읍시	(35)	0.0	17.1	20.0	57.1	5.7	50.2
	김제시	(39)	0.0	10.3	12.8	48.7	28.2	54.1
	남원시	(32)	0.0	15.6	21.9	53.1	9.4	50.1
	완주군	(40)	2.5	7.5	37.5	42.5	10.0	50.0
	고창군	(35)	0.0	5.7	37.1	42.9	14.3	50.8
	부안군	(32)	3.1	12.5	28.1	46.9	9.4	50.0
	임실군	(31)	0.0	6.5	25.8	54.8	12.9	52.0
	순창군	(28)	0.0	7.1	21.4	46.4	25.0	53.1
	진안군	(27)	0.0	3.7	55.6	29.6	11.1	50.0
	무주군	(29)	0.0	3.4	17.2	55.2	24.1	54.4
	장수군	(31)	0.0	3.2	25.8	48.4	22.6	53.9
행정 구역	읍/면	(328)	0.6	7.6	28.0	48.2	15.5	51.8
	동	(206)	0.5	11.2	26.7	47.6	14.1	50.9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3)	1.2	14.5	37.3	34.9	12.0	49.0
	5년~10년 미만	(140)	0.7	10.0	40.0	45.7	3.6	48.5
	10년~20년 미만	(245)	0.4	8.6	23.7	54.7	12.7	51.9
	20년 이상	(66)	0.0	1.5	3.0	43.9	51.5	59.1

결혼이주민(귀화자) 여성과 배우자의 연령 분포를 비교해 보면, 결혼이주민 여성은 30대(40.7%)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배우자는 50대(51.4%)가 가장 많아 부부 간 연령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령 차이는 결혼이주민 여성과 배우자 간 세대 차이뿐만 아니라, 결혼 이주 과정에서의 연령적 특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세대와 연령을 고려한 문화적 이해와 조화가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 그림 III-2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여성과 배우자의 연령 비교

⑤ 배우자 교육수준

배우자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2.8%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 졸업’(32.0%), ‘중학교 졸업’(10.1%), ‘초등학교 졸업’(2.6%), ‘대학원 졸업(석사 이상)’(1.7%), ‘학력 없음(미취학 포함)’(0.7%) 순으로 나타났다. 읍/면 지역(28.9%)보다는 동 지역(41.2%) 거주자의 배우자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동 지역 거주자의 배우자가 더 높은 학력을 가진 경우가 많다는 점을 시사하며 최근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표 Ⅲ-27 배우자 최종학력

(단위: N, %)

		사례수	학력 없음 (미취학 포함)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 이상)
전체		(534)	0.7	2.6	10.1	52.8	32.0	1.7
성별	여성	(490)	0.6	2.9	9.2	53.5	32.4	1.4
	남성	(44)	2.3	0.0	20.5	45.5	27.3	4.5
거주 시군	전주시	(72)	0.0	1.4	2.8	45.8	45.8	4.2
	익산시	(50)	0.0	0.0	2.0	56.0	40.0	2.0
	군산시	(53)	0.0	0.0	15.1	54.7	28.3	1.9
	정읍시	(35)	2.9	2.9	14.3	25.7	51.4	2.9
	김제시	(39)	0.0	2.6	15.4	59.0	23.1	0.0
	남원시	(32)	0.0	0.0	18.8	53.1	25.0	3.1
	완주군	(40)	2.5	2.5	5.0	50.0	35.0	5.0
	고창군	(35)	0.0	2.9	17.1	57.1	22.9	0.0
	부안군	(32)	0.0	0.0	3.1	65.6	31.3	0.0
	임실군	(31)	0.0	0.0	12.9	58.1	29.0	0.0
	순창군	(28)	3.6	7.1	14.3	50.0	25.0	0.0
	진안군	(27)	0.0	3.7	11.1	55.6	29.6	0.0
	무주군	(29)	0.0	6.9	17.2	58.6	17.2	0.0
	장수군	(31)	3.2	12.9	3.2	58.1	22.6	0.0
행정 구역	읍/면	(328)	0.9	3.7	11.6	54.9	27.4	1.5
	동	(206)	0.5	1.0	7.8	49.5	39.3	1.9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3)	1.2	1.2	8.4	48.2	37.3	3.6
	5년~10년 미만	(140)	0.7	0.0	8.6	52.9	36.4	1.4
	10년~20년 미만	(245)	0.0	2.4	12.2	52.7	31.4	1.2
	20년 이상	(66)	3.0	10.6	7.6	59.1	18.2	1.5

⑥ 자녀 여부

전체 응답자의 89.3%가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89.8%)이 남성(82.2%)에 비해 유자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시·군별로 보면 정읍시가 97.7%로 유자녀 비율이 가장 높았고, 군산시는 70.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읍·면 지역(91.7%)이 동 지역(85.6%)보다 유자녀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 응답자의 경우 유자녀 비율이 모두 90%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표 Ⅲ-28 자녀 여부

(단위: N, %)

		사례수	자녀 있음	자녀 없음
전체		(605)	89.3	10.7
성별	여성	(560)	89.8	10.2
	남성	(45)	82.2	17.8
거주 시·군	전주시	(81)	84.0	16.0
	익산시	(60)	95.0	5.0
	군산시	(58)	70.7	29.3
	정읍시	(43)	97.7	2.3
	김제시	(42)	95.2	4.8
	남원시	(40)	90.0	10.0
	완주군	(42)	90.5	9.5
	고창군	(37)	97.3	2.7
	부안군	(35)	94.3	5.7
	임실군	(33)	90.9	9.1
	순창군	(34)	97.1	2.9
	진안군	(33)	84.8	15.2
	무주군	(31)	90.3	9.7
	장수군	(36)	83.3	16.7
행정 구역	읍/면	(362)	91.7	8.3
	동	(243)	85.6	14.4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61.4	38.6
	5년~10년 미만	(149)	91.3	8.7
	10년~20년 미만	(289)	94.8	5.2
	20년 이상	(79)	96.2	3.8

⑦ 자녀 수

유자녀 응답자(n=540)의 자녀 수는 평균 1.9명으로 조사되었다. 자녀 수가 가장 많은 시·군은 고창군(2.3명)으로 나타났으며, 순창군과 장수군은 각각 2.2명, 완주군과 임실군은 각각 2.0명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자녀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군산시(1.6명)이며, 정읍시와 김제시가 각각 1.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읍·면 지역(2.0명)이 동 지역(1.7명)보다 평균 자녀 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전북 거주 기간이 길수록 자녀 수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20년 이상 거주자의 경우 3명의 자녀를 둔 비율이 19.7%로, 다른 거주 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 비교했을 때, 전북은 다문화 자녀 수가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자녀 수는 1.5명이었지만, 전북은 1.9명으로 더 높았다. 특히,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문화가구 비율은 전북이 전국 평균보다 12.1%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전북 다문화가구의 자녀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향을 보여준다.

표 Ⅲ-29 자녀 수 비교

(단위: %, 명)

	1명	2명	3명 이상	유자녀 평균(명)
2024년 전북	37.6	43.0	19.5	1.9
2021년 전국	56.1	36.5	7.4	1.5

* 여성가족부,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재분석하였음

표 Ⅲ-30 자녀 수

(단위: N, %, 명)

		사례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평균(명)
전체		(540)	37.6	43.0	14.1	4.1	1.1	0.2	1.9
성별	여성	(503)	36.4	43.9	14.3	4.2	1.0	0.2	1.9
	남성	(37)	54.1	29.7	10.8	2.7	2.7	0.0	1.7
거주 시군	전주시	(68)	39.7	45.6	14.7	0.0	0.0	0.0	1.8
	익산시	(57)	42.1	40.4	14.0	0.0	3.5	0.0	1.8
	군산시	(41)	56.1	31.7	12.2	0.0	0.0	0.0	1.6
	정읍시	(42)	47.6	35.7	16.7	0.0	0.0	0.0	1.7
	김제시	(40)	47.5	42.5	5.0	5.0	0.0	0.0	1.7
	남원시	(36)	47.2	27.8	19.4	5.6	0.0	0.0	1.8
	완주군	(38)	31.6	50.0	7.9	7.9	2.6	0.0	2.0
	고창군	(36)	8.3	63.9	16.7	8.3	2.8	0.0	2.3
	부안군	(33)	30.3	42.4	12.1	15.2	0.0	0.0	2.1
	임실군	(30)	23.3	60.0	13.3	0.0	3.3	0.0	2.0
	순창군	(33)	24.2	48.5	15.2	9.1	0.0	3.0	2.2
	진안군	(28)	35.7	50.0	14.3	0.0	0.0	0.0	1.8
	무주군	(28)	42.9	39.3	17.9	0.0	0.0	0.0	1.8
	장수군	(30)	36.7	26.7	20.0	13.3	3.3	0.0	2.2
행정 구역	읍/면	(332)	30.1	46.7	15.1	6.3	1.5	0.3	2.0
	동	(208)	49.5	37.0	12.5	0.5	0.5	0.0	1.7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54)	68.5	24.1	7.4	0.0	0.0	0.0	1.4
	5년~10년 미만	(136)	50.7	42.6	5.9	0.7	0.0	0.0	1.6
	10년~20년 미만	(274)	28.1	47.4	17.9	5.5	0.7	0.4	2.0
	20년 이상	(76)	26.3	40.8	19.7	7.9	5.3	0.0	2.3

⑧ 자녀 연령

유자녀 응답자(n=540)의 자녀 연령대는 ‘초등학생’이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고등학생’(35.2%), ‘미취학 자녀’(33.0%), ‘만19세~23세 성인자녀’(11.1%), ‘만 24세 이상’(9.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북거주기간이 길수록 자녀의 연령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녀가 성장하기 때문에 성인 연령대에 속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Ⅲ-31 자녀 연령

(단위: N, 중복응답 %)

		사례수	미취학 자녀 (만5세 이하)	초등학생 (만6~12세)	중고등학생 (만13~18세)	만19세~23세 성인자녀	만 24세 이상
전체		(540)	33.0	47.2	35.2	11.1	9.1
성별	여성	(503)	32.0	47.7	36.2	11.7	8.5
	남성	(37)	45.9	40.5	21.6	2.7	16.2
거주 시군	전주시	(68)	38.2	44.1	26.5	8.8	8.8
	익산시	(57)	33.3	47.4	33.3	10.5	12.3
	군산시	(41)	39.0	43.9	24.4	7.3	19.5
	정읍시	(42)	26.2	61.9	35.7	0.0	2.4
	김제시	(40)	22.5	32.5	47.5	17.5	10.0
	남원시	(36)	27.8	55.6	33.3	11.1	11.1
	완주군	(38)	31.6	47.4	44.7	7.9	2.6
	고창군	(36)	36.1	66.7	38.9	11.1	5.6
	부안군	(33)	36.4	54.5	39.4	12.1	6.1
	임실군	(30)	46.7	46.7	33.3	10.0	6.7
	순창군	(33)	24.2	48.5	48.5	9.1	12.1
	진안군	(28)	35.7	42.9	32.1	10.7	3.6
	무주군	(28)	28.6	28.6	28.6	17.9	10.7
	장수군	(30)	33.3	36.7	33.3	30.0	13.3
행정 구역	읍/면	(332)	34.3	48.2	37.0	12.3	7.5
	동	(208)	30.8	45.7	32.2	9.1	11.5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54)	64.8	24.1	13.0	5.6	7.4
	5년~10년 미만	(136)	65.4	43.4	8.1	2.2	2.9
	10년~20년 미만	(274)	18.6	62.4	52.2	4.4	5.1
	20년 이상	(76)	3.9	15.8	38.2	55.3	35.5

⑨ 중도입국 자녀 여부

중도입국한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12.6%로 나타났으며 중도입국한 자녀가 있는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익산시(22.8%)이고 순창군과 무주군에는 중도입국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읍/면 지역(8.1%)보다는 동 지역(19.7%)에서 중도입국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Ⅲ-32 중도입국 자녀 여부(2020~2024)

(단위: %)

	중도입국한 자녀 있음	중도입국한 자녀 없음
2024년 전북	12.6	87.4
2021년 전국	6.0	94.0

표 Ⅲ-33 중도입국 자녀 여부

(단위: N, %)

	사례수	중도입국한 자녀 있음	중도입국한 자녀 없음
전체	(540)	12.6	87.4
거주 시군	전주시	(68) 20.6	79.4
	익산시	(57) 22.8	77.2
	군산시	(41) 19.5	80.5
	정읍시	(42) 9.5	90.5
	김제시	(40) 7.5	92.5
	남원시	(36) 16.7	83.3
	완주군	(38) 15.8	84.2
	고창군	(36) 8.3	91.7
	부안군	(33) 12.1	87.9
	임실군	(30) 3.3	96.7
	순창군	(33) 0.0	100.0
	진안군	(28) 3.6	96.4
	무주군	(28) 0.0	100.0
	장수군	(30) 16.7	83.3
행정 구역	읍/면	(332) 8.1	91.9
	동	(208) 19.7	80.3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54) 31.5	68.5
	5년~10년 미만	(136) 11.0	89.0
	10년~20년 미만	(274) 10.9	89.1
	20년 이상	(76) 7.9	92.1

⑩ 자녀 장애 여부

다문화가족 중 장애인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3.1%로 나타났다. 거주 기간 별로는 10년~20년 미만일 때 4.7%로 가장 높았으며, 20년 이상일 때는 3.9%로 조사되었다.

표 Ⅲ-34 자녀 장애 여부

(단위: N, %)

		사례수	장애있는 자녀 있음	장애있는 자녀 없음
전체		(540)	3.1	96.9
성별	여성	(503)	3.4	96.6
	남성	(37)	0.0	100.0
거주 시군	전주시	(68)	0.0	100.0
	익산시	(57)	3.5	96.5
	군산시	(41)	0.0	100.0
	정읍시	(42)	4.8	95.2
	김제시	(40)	7.5	92.5
	남원시	(36)	2.8	97.2
	완주군	(38)	2.6	97.4
	고창군	(36)	5.6	94.4
	부안군	(33)	6.1	93.9
	임실군	(30)	0.0	100.0
	순창군	(33)	0.0	100.0
	진안군	(28)	7.1	92.9
	무주군	(28)	0.0	100.0
	장수군	(30)	6.7	93.3
행정 구역	읍/면	(332)	3.6	96.4
	동	(208)	2.4	97.6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54)	0.0	100.0
	5년~10년 미만	(136)	0.7	99.3
	10년~20년 미만	(274)	4.7	95.3
	20년 이상	(76)	3.9	96.1

(2) 결혼생활

가. 결혼상태

① 혼인상태

혼인 상태를 살펴보면, 사실혼을 포함하여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88.3%로 나타났으며,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는 ‘이혼·별거’(6.9%), ‘사별’(4.5%), ‘비혼(미혼)’(0.3%) 순으로 나타났다. 읍·면 지역에서는 배우자가 있다는 응답이 90.6%로, 동 지역(84.8%)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거주기간이 길수록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사례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여성 응답자의 7.5%가 이혼·별거 상태인 반면, 남성 응답자 중에서는 이혼·별거 중인 응답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별거 중인 응답자는 읍/면 지역(5.2%) 보다는 동 지역(9.5%)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배우자와 사별한 비율은 20년 이상의 거주자(11.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거주 기간 증가에 따라 배우자와의 관계 변화나 가족 구성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전북의 배우자가 있는 비율(88.3%)은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비율(84.8%)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대로, 이혼·별거, 사별, 비혼 비율은 전북이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 전북 지역의 다문화가족은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특징을 보였다.

표 Ⅲ-35 혼인 상태(2021-2024)

(단위: %)

	배우자 있음 (사실혼 포함)	이혼·별거	사별	비혼(미혼)
2024년 전북	88.3	6.9	4.5	0.3
2021년 전국	84.8	8.6	3.2	3.4

표 Ⅲ-36 혼인 상태

(단위: N, %)

		사례수	배우자 있음 (사실혼 포함)	이혼·별거	사별	비혼(미혼)
전체		(605)	88.3	6.9	4.5	0.3
성별	여성	(560)	87.5	7.5	4.6	0.4
	남성	(45)	97.8	0.0	2.2	0.0
거주 시군	전주시	(81)	88.9	7.4	3.7	0.0
	익산시	(60)	83.3	8.3	6.7	1.7
	군산시	(58)	91.4	8.6	0.0	0.0
	정읍시	(43)	81.4	9.3	9.3	0.0
	김제시	(42)	92.9	4.8	2.4	0.0
	남원시	(40)	80.0	10.0	10.0	0.0
	완주군	(42)	95.2	0.0	4.8	0.0
	고창군	(37)	94.6	2.7	2.7	0.0
	부안군	(35)	91.4	5.7	2.9	0.0
	임실군	(33)	93.9	3.0	3.0	0.0
	순창군	(34)	82.4	14.7	2.9	0.0
	진안군	(33)	81.8	9.1	6.1	3.0
	무주군	(31)	93.5	3.2	3.2	0.0
	장수군	(36)	86.1	8.3	5.6	0.0
행정 구역	읍/면	(362)	90.6	5.2	3.9	0.3
	동	(243)	84.8	9.5	5.3	0.4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94.3	2.3	2.3	1.1
	5년~10년 미만	(149)	94.0	4.7	0.7	0.7
	10년~20년 미만	(289)	84.8	10.0	5.2	0.0
	20년 이상	(79)	83.5	5.1	11.4	0.0

② 재혼여부

재혼 여부 조사 결과, 응답자 중 본인이 재혼한 비율은 18.5%, 배우자가 재혼한 비율은 21.3%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의 경우 본인은 초혼(77.3%)이지만 배우자는 재혼(43.2%)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본인(29.1%)과 배우자(25.2%) 모두 동 지역에서 재혼 비율이 더 높았으며, 전북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재혼 비율이 높게 나타나 다문화 재혼가족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재혼 여부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면,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 비교했을 때는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2015년과 2020년 전북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재혼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전북 지역의 다문화 재혼가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Ⅲ 표 Ⅲ-37 Ⅲ 재혼여부, 2015-2024년

(단위: %)

	본인	
	초혼	재혼
2024년 전북	81.5	18.5
2021년 전국	78.1	21.9
2020년 전북	84.0	16.0
2015년 전북	84.5	15.5

표 Ⅲ-38 재혼여부

(단위: N, %)

		사례수	본인		배우자	
			초혼	재혼	초혼	재혼
전체		(534)	81.5	18.5	78.7	21.3
성별	여성	(490)	81.8	18.2	80.6	19.4
	남성	(44)	77.3	22.7	56.8	43.2
거주 시군	전주시	(72)	73.6	26.4	75.0	25.0
	익산시	(50)	80.0	20.0	72.0	28.0
	군산시	(53)	64.2	35.8	73.6	26.4
	정읍시	(35)	85.7	14.3	77.1	22.9
	김제시	(39)	76.9	23.1	82.1	17.9
	남원시	(32)	78.1	21.9	78.1	21.9
	완주군	(40)	80.0	20.0	77.5	22.5
	고창군	(35)	94.3	5.7	88.6	11.4
	부안군	(32)	87.5	12.5	90.6	9.4
	임실군	(31)	87.1	12.9	74.2	25.8
	순창군	(28)	92.9	7.1	75.0	25.0
	진안군	(27)	96.3	3.7	88.9	11.1
	무주군	(29)	79.3	20.7	75.9	24.1
	장수군	(31)	90.3	9.7	83.9	16.1
행정 구역	읍/면	(328)	88.1	11.9	81.1	18.9
	동	(206)	70.9	29.1	74.8	25.2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3)	68.7	31.3	66.3	33.7
	5년~10년 미만	(140)	82.9	17.1	76.4	23.6
	10년~20년 미만	(245)	82.0	18.0	81.6	18.4
	20년 이상	(66)	92.4	7.6	87.9	12.1

③ 배우자 만남 경로

배우자와의 만남 경로는 ‘결혼 중개업체’가 28.5%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 또는 친척의 소개로’(26.8%), ‘친구 또는 동료의 소개로’(20.8%), ‘스스로’(14.2%), ‘종교 기관을 통해’(9.2%), ‘기타’(0.6%)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결혼 경로에 대해 스스로(52.3%)에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결혼 중개업체’(30.6%)를 통한 만남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읍·면 지역에서는 ‘결혼 중개업체’(34.5%)를 통한 만남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동 지역에서는 ‘가족 또는 친척의 소개’(29.1%)와 ‘친구 또는 동료의 소개’(26.2%)가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Ⅱ 표 Ⅲ-39 Ⅱ 배우자 만남 경로

(단위: N, %)

		사례수	결혼 중개업체	가족 또는 친척의 소개로	친구 또는 동료의 소개로	스스로	종교 기관을 통해	기타
전체		(534)	28.5	26.8	20.8	14.2	9.2	0.6
성별	여성	(490)	30.6	28.4	19.8	10.8	9.8	0.6
	남성	(44)	4.5	9.1	31.8	52.3	2.3	0.0
거주 시군	전주시	(72)	19.4	31.9	25.0	22.2	1.4	0.0
	익산시	(50)	18.0	26.0	28.0	22.0	4.0	2.0
	군산시	(53)	30.2	30.2	24.5	15.1	0.0	0.0
	정읍시	(35)	31.4	28.6	20.0	11.4	8.6	0.0
	김제시	(39)	15.4	25.6	33.3	12.8	10.3	2.6
	남원시	(32)	25.0	15.6	18.8	25.0	15.6	0.0
	완주군	(40)	27.5	27.5	15.0	25.0	2.5	2.5
	고창군	(35)	45.7	25.7	8.6	2.9	17.1	0.0
	부안군	(32)	34.4	25.0	25.0	12.5	3.1	0.0
	임실군	(31)	45.2	22.6	12.9	6.5	12.9	0.0
	순창군	(28)	39.3	25.0	10.7	7.1	17.9	0.0
	진안군	(27)	37.0	25.9	11.1	7.4	18.5	0.0
	무주군	(29)	27.6	31.0	27.6	0.0	13.8	0.0
	장수군	(31)	22.6	25.8	16.1	9.7	25.8	0.0
행정 구역	읍/면	(328)	34.5	25.3	17.4	9.8	12.8	0.3
	동	(206)	18.9	29.1	26.2	21.4	3.4	1.0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3)	31.3	26.5	30.1	12.0	0.0	0.0
	5년~10년 미만	(140)	28.6	33.6	15.7	15.7	5.7	0.7
	10년~20년 미만	(245)	32.2	22.4	22.4	15.1	6.9	0.8
	20년 이상	(66)	10.6	28.8	13.6	10.6	36.4	0.0

나. 부부관계

① 혼인 유지기간

혼인 유지기간은 평균 12.1년으로, '5~10년 미만'(25.0%)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10~15년 미만'(22.6%), '15~20년 미만'(19.3%) 순으로 나타났다. 읍·면 지역의 평균 혼인 유지 기간은 12.5년으로, 동 지역의 11.5년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미만인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은 25.0%로 여성의 11.8%보다 높은 비율을 보여, 남성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결혼생활을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40 혼인 유지기간

(단위: N, %, 년)

		사례수	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년 이상	모름/ 무응답	평균 (년)
전체		(576)	12.8	25.0	22.6	19.3	13.0	7.3	12.1
성별	여성	(532)	11.8	24.8	22.6	20.1	12.8	7.9	12.1
	남성	(44)	25.0	27.3	22.7	9.1	15.9	0.0	12.6
거주 시군	전주시	(78)	21.8	33.3	16.7	10.3	10.3	7.7	9.8
	익산시	(55)	9.1	20.0	25.5	23.6	12.7	9.1	13.6
	군산시	(58)	24.1	24.1	20.7	13.8	8.6	8.6	10.1
	정읍시	(39)	5.1	28.2	30.8	17.9	7.7	10.3	13.1
	김제시	(41)	7.3	17.1	19.5	29.3	22.0	4.9	14.8
	남원시	(36)	11.1	22.2	27.8	19.4	8.3	11.1	11.7
	완주군	(40)	17.5	10.0	27.5	32.5	12.5	0.0	12.8
	고창군	(36)	5.6	22.2	30.6	25.0	13.9	2.8	13.3
	부안군	(34)	8.8	23.5	26.5	23.5	11.8	5.9	11.9
	임실군	(32)	15.6	34.4	21.9	12.5	12.5	3.1	11.0
	순창군	(33)	0.0	27.3	24.2	21.2	12.1	15.2	13.8
	진안군	(30)	10.0	30.0	16.7	23.3	10.0	10.0	11.4
	무주군	(30)	6.7	36.7	13.3	16.7	23.3	3.3	13.1
	장수군	(34)	20.6	20.6	17.6	8.8	23.5	8.8	12.3
행정 구역	읍·면	(347)	10.7	25.1	23.6	20.5	14.7	5.5	12.5
	동	(229)	16.2	24.9	21.0	17.5	10.5	10.0	11.5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5)	70.6	15.3	7.1	1.2	3.5	2.4	4.6
	5년~10년 미만	(147)	4.1	78.9	7.5	4.1	0.7	4.8	7.9
	10년~20년 미만	(274)	2.9	4.7	41.2	37.6	2.9	10.6	14.0
	20년 이상	(70)	0.0	2.9	0.0	1.4	90.0	5.7	24.0

2020년 전북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 비교해보면,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미만과 5~10년 미만인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년 이상 혼인 비율은 2015년 대비 증가했으며, 20년 이상 혼인 유지 비율은 13.0%로 조사되어 장기 혼인 유지 가구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Ⅰ 표 Ⅲ-41 Ⅰ 혼인 유지기간(2015-2024)

(단위: %)

	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년 이상	모름/ 무응답
	3년 미만	3~4년	5~6년	7~9년	10년 이상			
2024년 전북	12.8		25.0		22.6	19.3	13.0	7.3
2020년 전북	5.0	11.4	10.0	16.9	56.8			-
2015년 전북	18.8	21.0	24.1	27.7	8.5			-

② 배우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

배우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은 '30분 미만'(28.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시간 이상'(26.0%), '30분 이상-1시간 미만'(25.7%), '1시간 이상-2시간 미만'(18.4%), '전혀하지 않는다'(1.3%)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보다 남성이 배우자와의 평균 대화 시간이 더 긴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북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대화 시간이 더 긴 경향이 확인되었다. 특히,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 다문화 부부의 경우 2시간 이상 대화하는 비율(39.8%)이 다른 거주 기간의 부부보다 높았다. 이는 결혼 초기, 결혼이주민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애정을 기반으로 서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Ⅲ-42 배우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

(단위: N, %)

		사례수	전혀하지 않는다	30분 미만	30분 이상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전체		(534)	1.3	28.7	25.7	18.4	26.0
성별	여성	(490)	1.4	30.2	25.9	18.0	24.5
	남성	(44)	0.0	11.4	22.7	22.7	43.2
거주 시군	전주시	(72)	0.0	23.6	16.7	20.8	38.9
	익산시	(50)	0.0	30.0	24.0	20.0	26.0
	군산시	(53)	3.8	32.1	39.6	3.8	20.8
	정읍시	(35)	2.9	31.4	20.0	11.4	34.3
	김제시	(39)	5.1	17.9	15.4	35.9	25.6
	남원시	(32)	0.0	25.0	25.0	21.9	28.1
	완주군	(40)	0.0	32.5	27.5	15.0	25.0
	고창군	(35)	0.0	31.4	25.7	20.0	22.9
	부안군	(32)	0.0	34.4	21.9	21.9	21.9
	임실군	(31)	0.0	29.0	22.6	16.1	32.3
	순창군	(28)	3.6	50.0	28.6	7.1	10.7
	진안군	(27)	0.0	22.2	40.7	14.8	22.2
	무주군	(29)	3.4	27.6	24.1	20.7	24.1
	장수군	(31)	0.0	19.4	35.5	29.0	16.1
행정 구역	읍/면	(328)	0.9	30.2	26.5	18.3	24.1
	동	(206)	1.9	26.2	24.3	18.4	29.1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3)	1.2	16.9	20.5	21.7	39.8
	5년~10년 미만	(140)	0.7	24.3	28.6	16.4	30.0
	10년~20년 미만	(245)	2.0	33.1	24.9	18.4	21.6
	20년 이상	(66)	0.0	36.4	28.8	18.2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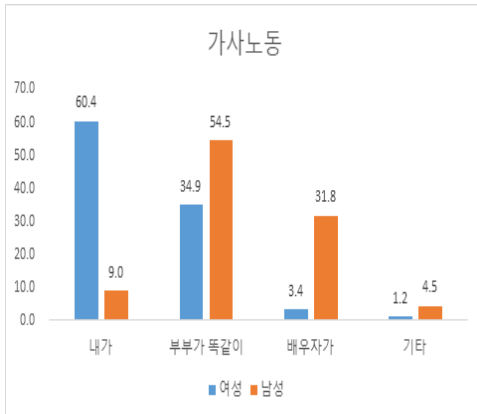
③ 가정관리

가정관리 전체 비율을 살펴보면 가사노동(36.5%), 자녀돌봄(40.5%), 재산관리(39.9%), 기타관리(59.4%) 모두 ‘부부가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가사노동과 자녀돌봄의 경우 여성은 ‘주로 본인이 담당한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주로 배우자가 담당한다’고 응답하였다. 재산관리와 기타관리는 ‘부부가 똑같이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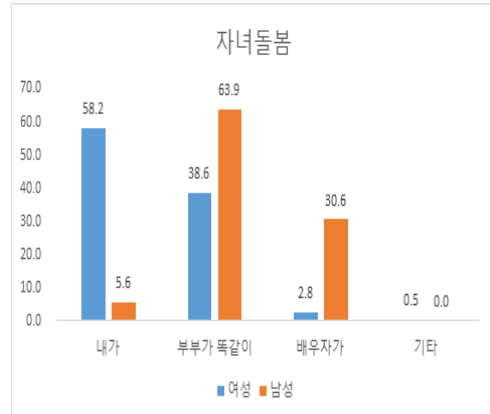
Ⅲ 표 Ⅲ-43 Ⅲ 가정관리

(단위: 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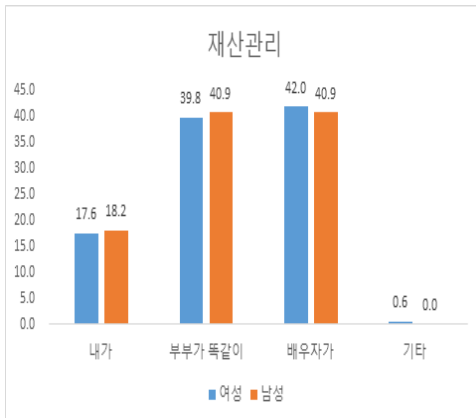
		사례수	항상 내가	대체로 내가	부부가 똑같이	대체로 배우자가	항상 배우자가	가족 중 다른 사람
가사 노동	전체	(534)	24.3	31.8	36.5	4.3	1.5	1.5
	여성	(490)	26.1	34.3	34.9	2.4	1.0	1.2
	남성	(44)	4.5	4.5	54.5	25.0	6.8	4.5
자녀 돌봄	전체	(474)	19.2	35.0	40.5	3.8	1.1	0.4
	여성	(438)	20.5	37.7	38.6	2.1	0.7	0.5
	남성	(36)	2.8	2.8	63.9	25.0	5.6	0.0
재산 관리	전체	(534)	8.1	9.6	39.9	26.0	15.9	0.6
	여성	(490)	8.2	9.4	39.8	26.7	15.3	0.6
	남성	(44)	6.8	11.4	40.9	18.2	22.7	0.0
기타 관리	전체	(534)	9.7	13.3	59.4	13.1	3.9	0.6
	여성	(490)	10.4	14.5	57.6	13.1	4.1	0.4
	남성	(44)	2.3	0.0	79.5	13.6	2.3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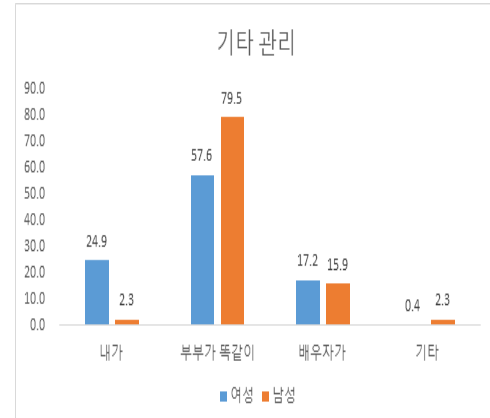
■ 그림 III-3 ■ 가정관리_가사노동



■ 그림 III-4 ■ 가정관리_자녀돌봄



■ 그림 III-5 ■ 가정관리_재산관리



■ 그림 III-6 ■ 가정관리_기타관리

④ 부부갈등

가) 부부갈등 경험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n=534) 중 73.4%가 부부 갈등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여성(74.9%)이 남성(56.8%)보다 갈등 경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 거주자의 부부 갈등 경험 비율이 76.2%로, 동 지역(68.9%)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거주 기간이 길수록 부부 갈등 경험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 되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한 부부에서 갈등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을 의미한다.

표 Ⅲ-44 부부갈등 경험

(단위: N, %)

		사례수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전체		(534)	73.4	26.6
성별	여성	(490)	74.9	25.1
	남성	(44)	56.8	43.2
거주 시군	전주시	(72)	69.4	30.6
	익산시	(50)	82.0	18.0
	군산시	(53)	41.5	58.5
	정읍시	(35)	77.1	22.9
	김제시	(39)	71.8	28.2
	남원시	(32)	81.3	18.8
	완주군	(40)	72.5	27.5
	고창군	(35)	82.9	17.1
	부안군	(32)	81.3	18.8
	임실군	(31)	77.4	22.6
	순창군	(28)	67.9	32.1
	진안군	(27)	88.9	11.1
	무주군	(29)	89.7	10.3
	장수군	(31)	67.7	32.3
행정 구역	읍/면	(328)	76.2	23.8
	동	(206)	68.9	31.1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3)	59.0	41.0
	5년~10년 미만	(140)	75.7	24.3
	10년~20년 미만	(245)	77.6	22.4
	20년 이상	(66)	71.2	28.8

나) 부부갈등 이유

부부 갈등 경험에 있는 응답자(n=392)에게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배우자 성격·가치관’(44.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 양육·교육’(22.2%), ‘경제문제’ 및 ‘언어소통의 어려움’(각 9.4%), ‘문화·종교 차이’(6.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정읍시(40.7%)는 ‘혼자서 해결 방법을 찾아본다’가, 김제시(57.1%), 고창군(44.8%), 진안군(41.7%)은 ‘그냥 참는다’가 다른 이유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배우자 성격·가치관’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졌고, ‘문화종교차이’나 ‘언어소통의 어려움’의 응답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Ⅲ-45 부부갈등 이유

(단위: N, %)

		사례수	배우자 성격 가치관	자녀 양육 교육	경제 문제	언어 소통의 어려움	문화 종교 차이	배우자 가족과 관련된 문제	배우자 생활 습관	본인 가족과 관련된 문제	배우자 폭언 폭력
전체		(392)	44.9	22.2	9.4	9.4	6.4	3.6	3.3	0.5	0.3
성별	여성	(367)	43.9	22.6	9.5	9.8	6.0	3.8	3.5	0.5	0.3
	남성	(25)	60.0	16.0	8.0	4.0	12.0	0.0	0.0	0.0	0.0
거주 시군	전주시	(50)	60.0	18.0	2.0	6.0	10.0	4.0	0.0	0.0	0.0
	익산시	(41)	46.3	29.3	12.2	4.9	4.9	0.0	2.4	0.0	0.0
	군산시	(22)	27.3	4.5	13.6	31.8	18.2	4.5	0.0	0.0	0.0
	정읍시	(27)	59.3	22.2	3.7	3.7	0.0	0.0	3.7	3.7	3.7
	김제시	(28)	50.0	17.9	7.1	10.7	3.6	7.1	3.6	0.0	0.0
	남원시	(26)	53.8	26.9	0.0	15.4	3.8	0.0	0.0	0.0	0.0
	완주군	(29)	44.8	31.0	10.3	3.4	6.9	0.0	3.4	0.0	0.0
	고창군	(29)	27.6	27.6	27.6	6.9	3.4	6.9	0.0	0.0	0.0
	부안군	(26)	26.9	15.4	11.5	15.4	11.5	3.8	11.5	3.8	0.0
	임실군	(24)	37.5	25.0	8.3	4.2	8.3	8.3	8.3	0.0	0.0
	순창군	(19)	68.4	15.8	10.5	5.3	0.0	0.0	0.0	0.0	0.0
	진안군	(24)	37.5	25.0	16.7	4.2	0.0	4.2	12.5	0.0	0.0
행정 구역	읍/면	(250)	41.6	24.0	10.8	8.8	6.0	3.6	4.4	0.4	0.4
	동	(142)	50.7	19.0	7.0	10.6	7.0	3.5	1.4	0.7	0.0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49)	36.7	10.2	8.2	22.4	16.3	2.0	2.0	0.0	2.0
	5년~10년 미만	(106)	43.4	30.2	7.5	3.8	6.6	6.6	1.9	0.0	0.0
	10년~20년 미만	(190)	44.2	22.1	11.6	10.5	4.7	1.6	4.2	1.1	0.0
	20년 이상	(47)	59.6	17.0	6.4	4.3	2.1	6.4	4.3	0.0	0.0

다) 부부갈등 해결방안

부부갈등 해결방안을 살펴보면 ‘배우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가 3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냥 참는다’(23.5%), ‘혼자서 해결 방법을 찾아본다’(18.1%),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 한다’(13.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배우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그냥 참는다’(24.3%)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남성은 ‘혼자서 해결 방법을 찾아본다’(20.0%)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46 부부갈등 해결방안

(단위: N, %)

		사례수	배우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냥 참는다	혼자서 해결 방법을 찾아본다	주위 사람에게 이야기 한다	다른 일을 하면서 잊으려고 한다	전문가와 상담한다
전체		(392)	37.0	23.5	18.1	13.0	7.9	0.5
성별	여성	(367)	36.2	24.3	18.0	13.6	7.4	0.5
	남성	(25)	48.0	12.0	20.0	4.0	16.0	0.0
거주 시군	전주시	(50)	48.0	14.0	14.0	16.0	8.0	0.0
	익산시	(41)	56.1	14.6	12.2	7.3	9.8	0.0
	군산시	(22)	50.0	13.6	18.2	9.1	4.5	4.5
	정읍시	(27)	29.6	7.4	40.7	18.5	3.7	0.0
	김제시	(28)	21.4	57.1	17.9	0.0	3.6	0.0
	남원시	(26)	50.0	19.2	7.7	15.4	3.8	3.8
	완주군	(29)	34.5	13.8	24.1	20.7	6.9	0.0
	고창군	(29)	17.2	44.8	13.8	17.2	6.9	0.0
	부안군	(26)	26.9	23.1	23.1	15.4	11.5	0.0
	임실군	(24)	41.7	16.7	12.5	16.7	12.5	0.0
	순창군	(19)	36.8	31.6	26.3	5.3	0.0	0.0
	진안군	(24)	16.7	41.7	20.8	16.7	4.2	0.0
	무주군	(26)	38.5	26.9	7.7	15.4	11.5	0.0
	장수군	(21)	33.3	14.3	23.8	4.8	23.8	0.0
행정 구역	읍/면	(250)	32.8	24.8	18.8	14.0	9.6	0.0
	동	(142)	44.4	21.1	16.9	11.3	4.9	1.4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49)	44.9	10.2	18.4	18.4	6.1	2.0
	5년~10년 미만	(106)	39.6	19.8	15.1	16.0	8.5	0.9
	10년~20년 미만	(190)	34.2	28.4	19.5	11.6	6.3	0.0
	20년 이상	(47)	34.0	25.5	19.1	6.4	14.9	0.0

⑤ 가정폭력

가) 가정폭력 경험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n=534) 중 6.4%가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에게만 가정폭력 경험이 나타났다. 결혼이주민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2022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와 2020년 전북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 비교했을 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7 가정폭력 경험 비율(여성, 2020-2024)

(단위: %)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비율	
2024년 전북	6.9
2022년 전국 ¹⁰⁾	9.4
2020년 전북	19.3

표 III-48 가정폭력 경험 여부

(단위: N, %)

		사례수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전체		(534)	6.4	93.6
성별	여성	(490)	6.9	93.1
	남성	(44)	0.0	100.0
거주 시군	전주시	(72)	6.9	93.1
	익산시	(50)	8.0	92.0
	군산시	(53)	3.8	96.2
	정읍시	(35)	11.4	88.6
	김제시	(39)	5.1	94.9
	남원시	(32)	6.3	93.8
	완주군	(40)	5.0	95.0
	고창군	(35)	2.9	97.1
	부안군	(32)	6.3	93.8
	임실군	(31)	3.2	96.8
	순창군	(28)	0.0	100.0
	진안군	(27)	14.8	85.2
	무주군	(29)	10.3	89.7
	장수군	(31)	6.5	93.5

10)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조사임

나) 가정폭력 유형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응답자(n=34) 중 경험한 가정폭력 유형을 살펴보면, ‘정서적 폭력’(58.8%), ‘신체적 폭력’(35.3%), ‘경제적 폭력’(26.5%) 순으로 나타났다.

【 표 III-49 】 가정폭력 유형

(단위: N, 중복응답 %)

	사례수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전체	(34)	58.8	35.3	26.5

다) 가정폭력 가해자

가정폭력(n=34) 가해자는 ‘배우자’(97.1%)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배우자의 부모’(5.9%)로 나타났다.

【 표 III-50 】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람

(단위: N, 중복응답 %)

	사례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전체	(34)	97.1	5.9
행정 구역	읍/면	(21) 95.2	4.8
	동	(13) 100.0	7.7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6) 83.3	16.7
	5년~10년 미만	(9) 100.0	11.1
	10년~20년 미만	(15) 100.0	0.0
	20년 이상	(4) 100.0	0.0

라) 가정폭력 대처방안

가정폭력 경험 시 대처방안은 ‘그냥 참았다’(52.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피했다’(29.4%),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23.5%),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20.6%)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51 가정폭력 경험 시 대처방안

(단위: N, 중복응답 %)

		사례수	그냥 참았다	자리를 피하거나 집밖으로 피했다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대항하여 함께 폭력을 행사했다
전체		(34)	52.9	29.4	23.5	20.6	14.7	11.8
행정 구역	읍/면	(21)	52.4	38.1	28.6	14.3	4.8	14.3
	동	(13)	53.8	15.4	15.4	30.8	30.8	7.7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6)	33.3	0.0	50.0	16.7	16.7	0.0
	5년~10년 미만	(9)	33.3	33.3	33.3	55.6	44.4	0.0
	10년~20년 미만	(15)	73.3	26.7	13.3	0.0	0.0	26.7
	20년 이상	(4)	50.0	75.0	0.0	25.0	0.0	0.0

마) 가정폭력 대처기관 인지도

인지하고 있는 가정폭력 대처기관은 ‘경찰서(112)’가 8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폭력 상담소’(35.3%), ‘가정폭력피해 여성쉼터’(29.4%), ‘1366 여성긴급전화’(29.4%)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52 가정폭력 대처기관 인지도

(단위: N, 중복응답 %)

		사례수	경찰서(112)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 여성쉼터	1366 여성긴급 전화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전체		(34)	85.3	35.3	29.4	29.4	17.6
행정 구역	읍/면	(21)	90.5	42.9	28.6	33.3	19.0
	동	(13)	76.9	23.1	30.8	23.1	15.4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6)	66.7	50.0	16.7	33.3	16.7
	5년~10년 미만	(9)	88.9	44.4	55.6	44.4	33.3
	10년~20년 미만	(15)	86.7	33.3	20.0	13.3	6.7
	20년 이상	(4)	100.0	0.0	25.0	50.0	25.0

다. 가족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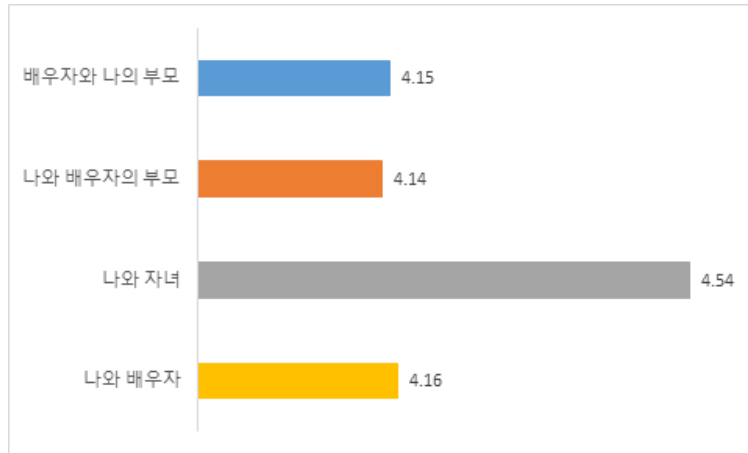
① 가족관계 만족

가족관계 만족(5점척도)은 ‘나와 자녀’의 관계 만족도가 4.5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와 배우자’(4.16점), ‘배우자와 나의 부모’(4.15점), ‘나와 배우자의 부모’(4.14점) 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가족관계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보다 모든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가족관계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지역 거주자가 읍·면 지역 거주자보다 전반적으로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Ⅲ-53 가족관계 만족

(단위: N, 5점척도 평균)

		나와 배우자		나와 자녀		나와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와 나의 부모	
		사례수	만족도	사례수	만족도	사례수	만족도	사례수	만족도
전체		(534)	4.16	(474)	4.54	(436)	4.14	(467)	4.15
성별	여성	(490)	4.11	(438)	4.53	(399)	4.09	(430)	4.11
	남성	(44)	4.73	(36)	4.75	(37)	4.68	(37)	4.68
거주 시군	전주시	(72)	4.26	(59)	4.73	(62)	4.27	(67)	4.34
	익산시	(50)	4.34	(48)	4.73	(42)	4.38	(47)	4.23
	군산시	(53)	3.96	(37)	4.08	(38)	3.68	(38)	3.74
	정읍시	(35)	3.97	(35)	4.37	(31)	4.06	(32)	4.06
	김제시	(39)	4.31	(37)	4.49	(33)	4.06	(37)	4.19
	남원시	(32)	4.31	(29)	4.83	(28)	4.50	(29)	4.48
	완주군	(40)	4.03	(36)	4.53	(33)	4.21	(35)	4.03
	고창군	(35)	4.23	(34)	4.53	(29)	4.34	(30)	4.27
	부안군	(32)	4.06	(30)	4.60	(24)	4.08	(27)	4.30
	임실군	(31)	4.35	(28)	4.64	(25)	4.28	(26)	4.31
	순창군	(28)	4.29	(27)	4.48	(19)	4.26	(22)	4.00
	진안군	(27)	3.52	(23)	4.26	(25)	3.52	(26)	3.65
	무주군	(29)	4.21	(26)	4.31	(21)	3.95	(22)	4.18
	장수군	(31)	4.19	(25)	4.84	(26)	4.12	(29)	4.14
행정 구역	읍/면	(328)	4.13	(299)	4.52	(268)	4.13	(290)	4.12
	동	(206)	4.20	(175)	4.59	(168)	4.15	(177)	4.20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3)	4.23	(50)	4.70	(68)	4.25	(70)	4.26
	5년~10년 미만	(140)	4.25	(128)	4.65	(119)	4.19	(129)	4.29
	10년~20년 미만	(245)	4.09	(233)	4.46	(204)	4.07	(216)	4.04
	20년 이상	(66)	4.12	(63)	4.49	(45)	4.13	(52)	4.12



■ 그림 Ⅲ-7 ■ 가족관계 만족도

라. 이혼·별거 가정생활

① 이혼·별거 후 기간

이혼·별거한 응답자(n=42)의 이혼·별거 후 경과 기간은 4~5년(26.2%)이 가장 많았으며 6~9년(21.4%), 1년 이하(21.4%)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이혼 별거 기간은 4.7년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이주민 여성만 이혼·별거를 경험하였다.

■ 표 Ⅲ-54 ■ 이혼·별거 후 경과 시간

(단위: N, %, 년 수)

		사례수	1년 이하	2~3년	4~5년	6~9년	10년 이상	모름/무응답	평균 (년 수)
전체		(42)	21.4	11.9	26.2	21.4	7.1	11.9	4.65
성별	여성	(42)	21.4	11.9	26.2	21.4	7.1	11.9	4.65
	남성	(0)	-	-	-	-	-	-	-
행정 구역	읍/면	(19)	10.5	15.8	15.8	36.8	0.0	21.1	4.80
	동	(23)	30.4	8.7	34.8	8.7	13.0	4.3	4.55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2)	50.0	0.0	0.0	0.0	0.0	50.0	1.00
	5년~10년 미만	(7)	42.9	14.3	28.6	0.0	14.3	0.0	3.86
	10년~20년 미만	(29)	17.2	13.8	27.6	24.1	6.9	10.3	4.65
	20년 이상	(4)	0.0	0.0	25.0	50.0	0.0	25.0	7.67

② 이혼·별거 사유

이혼·별거 사유(n=42)는 ‘성격 차이’가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문제’ 및 ‘학대와 폭력’(각 14.3%), ‘외도 등의 애정 문제’(9.5%), ‘배우자 가족과 갈등’ 및 ‘배우자의 심각한 심신 장애’(각 7.1%), ‘자녀 문제’(2.4%), ‘문화적 차이’(2.4%) 순으로 나타났다. 읍/면 거주자는 경제적 문제(21.1%)가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동 거주자는 학대와 폭력(21.7%)과 외도 등 애정문제(13.0%)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55 이혼·별거 사유

(단위: N, %)

		사례수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학대와 폭력	외도 등의 애정 문제	배우자 가족과 갈등	배우자의 심각한 심신 장애	자녀 문제	문화적 차이
전체		(42)	42.9	14.3	14.3	9.5	7.1	7.1	2.4	2.4
행정 구역	읍/면	(19)	42.1	21.1	5.3	5.3	5.3	10.5	5.3	5.3
	동	(23)	43.5	8.7	21.7	13.0	8.7	4.3	0.0	0.0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2)	50.0	0.0	0.0	50.0	0.0	0.0	0.0	0.0
	5년~10년 미만	(7)	42.9	0.0	42.9	0.0	14.3	0.0	0.0	0.0
	10년~20년 미만	(29)	44.8	13.8	10.3	10.3	6.9	6.9	3.4	3.4
	20년 이상	(4)	25.0	50.0	0.0	0.0	0.0	25.0	0.0	0.0

③ 이혼·별거 후 자녀양육

이혼·별거 후 자녀양육은 ‘본인’(81.0%)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읍/면 지역 거주자의 89.5%가 본인이 자녀를 직접 양육한다고 응답해, 동 지역 거주자의 비율(73.9%)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Ⅲ-56 이혼·별거 후 자녀양육

(단위: N, %)

		사례수	본인	배우자	자녀 없음
전체		(42)	81.0	11.9	7.1
행정 구역	읍/면	(19)	89.5	10.5	0.0
	동	(23)	73.9	13.0	13.0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2)	50.0	50.0	0.0
	5년~10년 미만	(7)	85.7	14.3	0.0
	10년~20년 미만	(29)	79.3	10.3	10.3
	20년 이상	(4)	100.0	0.0	0.0

④ 양육비 이행(양육자)

이혼·별거 후 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응답자(n=34)에게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수령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8%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최근에 받기 시작하거나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는 17.6%로 나타나 양육비 이행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57 양육비 이행

(단위: N, %)

		사례수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이전에 받았으나 최근에는 받지 못했다	이전에 받지 않았으나 최근에 받기 시작했다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전체		(34)	61.8	20.6	8.8	8.8
행정 구역	읍/면	(17)	58.8	17.6	11.8	11.8
	동	(17)	64.7	23.5	5.9	5.9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1)	100.0	0.0	0.0	0.0
	5년~10년 미만	(6)	50.0	33.3	16.7	0.0
	10년~20년 미만	(23)	60.9	17.4	8.7	13.0
	20년 이상	(4)	75.0	25.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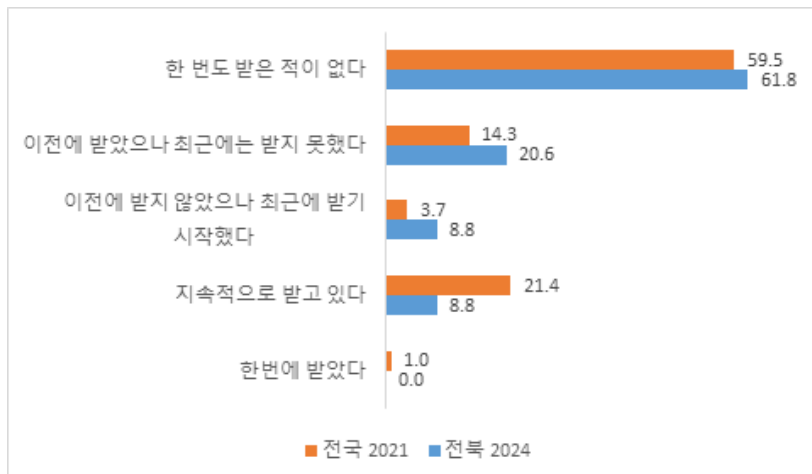


그림 Ⅲ-8 양육비 수령여부 비교

⑤ 면접교섭(비양육자)

이혼·별거 후 자녀 양육을 담당하지 않는 응답자(n=5) 중 80.0%가 자녀를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응답하여, 면접교섭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Ⅰ 표 III-58 Ⅰ 면접교섭

(단위: N, %)

	사례수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만난다
전체	(5)	80.0	20.0

(3) 자녀 양육

가. 양육효능감

만 24세 미만 자녀가 있는 응답자(n=508)에게 양육효능감(5점척도)을 조사한 결과 평균 3.61점(5점 척도)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알고 있음’(3.68점), ‘자녀와의 관계문제를 잘 해결함’(3.63점), ‘좋은 부모가 되는 지식과 방법을 알고 있음’(3.52점) 순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은 남원시가 평균 3.9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 김제시는 3.3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3.68점)이 여성(3.61점)보다 양육효능감 점수가 높았으며, 거주 지역별로는 동 지역(3.64점)이 읍·면 지역(3.60점)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보였다.

Ⅰ 표 III-59 Ⅰ 양육효능감

(단위: N, 5점척도 평균)

		사례수	자녀와의 관계문제를 잘 해결함	좋은 부모가 되는 지식과 방법을 알고있음	자녀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알고있음	전체 평균
전체		(508)	3.63	3.52	3.68	3.61
성별	여성	(477)	3.63	3.51	3.68	3.61
	남성	(31)	3.65	3.77	3.61	3.68
거주 시군	전주시	(63)	3.71	3.62	3.76	3.70
	익산시	(51)	3.65	3.63	3.80	3.69
	군산시	(36)	3.47	3.42	3.39	3.43
	정읍시	(41)	3.54	3.76	3.76	3.68
	김제시	(37)	3.32	3.27	3.32	3.31

		사례수	자녀와의 관계문제를 잘 해결함	좋은 부모가 되는 지식과 방법을 알고있음	자녀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알고있음	전체 평균
	남원시	(34)	3.91	3.88	4.03	3.94
	완주군	(37)	3.65	3.59	3.57	3.60
	고창군	(35)	3.49	3.17	3.46	3.37
	부안군	(33)	3.85	3.64	3.88	3.79
	임실군	(29)	3.86	3.55	3.79	3.74
	순창군	(31)	3.52	3.32	3.58	3.47
	진안군	(27)	3.52	3.15	3.56	3.41
	무주군	(26)	3.62	3.42	3.77	3.60
	장수군	(28)	3.75	3.68	3.79	3.74
행정 구역	읍/면	(318)	3.65	3.47	3.67	3.60
	동	(190)	3.60	3.62	3.69	3.64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50)	3.72	3.50	3.72	3.65
	5년~10년 미만	(134)	3.67	3.58	3.78	3.68
	10년~20년 미만	(266)	3.58	3.48	3.63	3.56
	20년 이상	(58)	3.71	3.60	3.66	3.66

나. 영유아 자녀 양육

① 양육 자녀 양육 어려움

영유아 자녀가 있는 응답자(n=178)에게 영유아 양육의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자녀에게 한국어를 직접 가르치기 어려움’이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 양육에 대한 배우자나 가족과의 의견 차이’(25.3%), ‘내가 바쁘거나 아플 때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 어려움’(16.9%), ‘(한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대해 잘 모름’ (5.1%), ‘자녀 양육에 대한 내 의견을 주위 사람들이 무시함’(1.7%) 순으로 나타났다.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자는 12.9%로 나타났다.

전북 거주 기간에 따라 자녀 양육에서 겪는 어려움이 다르게 나타났다.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에게 한국어를 직접 가르치기 어려움’(45.7%)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내가 바쁘거나 아플 때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 어려움’(66.7%)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주 기간에 따라 자녀 양육에서 직면하는 문제의 유형이 변화함을 보여준다.

Ⅲ 표 Ⅲ-60 영유아 자녀 양육 어려움

(단위: N, %)

		사례수	자녀에게 한국어를 직접 가르치기 어려움	자녀 양육에 대한 배우자나 가족과의 의견 차이	내가 바쁘거나 아플 때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을 찾기 어려움	(한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대해 잘 모름	자녀 양육에 대한 내 의견을 주위 사람들이 무시함	어려움 없음
	전체	(178)	38.2	25.3	16.9	5.1	1.7	12.9
성별	여성	(161)	37.3	26.7	15.5	5.0	1.9	13.7
	남성	(17)	47.1	11.8	29.4	5.9	0.0	5.9
거주 시군	전주시	(26)	38.5	26.9	11.5	11.5	3.8	7.7
	익산시	(19)	21.1	21.1	15.8	10.5	10.5	21.1
	군산시	(16)	31.3	12.5	37.5	0.0	0.0	18.8
	정읍시	(11)	45.5	18.2	9.1	0.0	0.0	27.3
	김제시	(9)	88.9	0.0	0.0	0.0	0.0	11.1
	남원시	(10)	30.0	40.0	10.0	10.0	0.0	10.0
	완주군	(12)	33.3	33.3	16.7	0.0	0.0	16.7
	고창군	(13)	30.8	38.5	23.1	0.0	0.0	7.7
	부안군	(12)	33.3	25.0	8.3	16.7	0.0	16.7
	임실군	(14)	42.9	21.4	28.6	0.0	0.0	7.1
	순창군	(8)	50.0	25.0	12.5	0.0	0.0	12.5
	진안군	(10)	40.0	10.0	40.0	0.0	0.0	10.0
	무주군	(8)	50.0	50.0	0.0	0.0	0.0	0.0
	장수군	(10)	30.0	40.0	10.0	10.0	0.0	10.0
행정 구역	읍/면	(114)	36.0	28.9	18.4	3.5	0.9	12.3
	동	(64)	42.2	18.8	14.1	7.8	3.1	14.1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35)	45.7	20.0	17.1	8.6	2.9	5.7
	5년~10년 미만	(89)	40.4	30.3	10.1	5.6	2.2	11.2
	10년~20년 미만	(51)	29.4	21.6	25.5	2.0	0.0	21.6
	20년 이상	(3)	33.3	0.0	66.7	0.0	0.0	0.0

② 영유아 자녀 돌봄 분담

영유아 자녀 돌봄 분담(n=178) 조사에서 의식주 관련 돌봄은 ‘항상 내가’와 ‘대체로 내가’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2.0%로 가장 높았다. 반면, 놀이에서는 ‘부부가 똑같이’ 한다는 응답이 40.4%로 가장 많았으며, 훈육에서도 ‘부부가 똑같이’ 한다는 응답이 5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은 놀이와 훈육 모두에서 본인이 주로 부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반면, 남성은 ‘부부가 똑같이’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놀이의 경우, 여성은 ‘항상 내가’와 ‘대체로 내가’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9.7%였으나, 남성은 76.5%가 ‘부부가 똑같이’ 한다고 응답했다. 훈육에서도 여성은 ‘항상 내가’와 ‘대체로 내가’ 한다는 응답이 38.5%였으나, 남성은 82.4%가 ‘부부가 똑같이’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돌봄 역할에 대한 성별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하며, 여성의 돌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을 보여준다.

Ⅰ 표 Ⅲ-61 Ⅰ 영유아 자녀 돌봄 분담

(단위: N, %)

		사례수	항상 내가	대체로 내가	부부가 똑같이	대체로 배우자가	항상 배우자가	가족 중 다른 사람	모름/무응답
의식주	전체	(178)	32.0	32.0	27.5	3.4	1.1	1.1	2.8
	여성	(161)	35.4	34.2	23.6	1.9	0.6	1.2	3.1
	남성	(17)	0.0	11.8	64.7	17.6	5.9	0.0	0.0
놀이	전체	(178)	16.3	28.7	40.4	9.0	2.2	0.6	2.8
	여성	(161)	18.0	31.7	36.6	8.1	1.9	0.6	3.1
	남성	(17)	0.0	0.0	76.5	17.6	5.9	0.0	0.0
훈육	전체	(178)	13.5	21.3	52.2	7.9	2.2	0.0	2.8
	여성	(161)	14.9	23.6	49.1	7.5	1.9	0.0	3.1
	남성	(17)	0.0	0.0	82.4	11.8	5.9	0.0	0.0

다. 초등 자녀 양육

① 초등 자녀 양육 어려움

초등 자녀가 있는 응답자(n=255)에게, 초등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학습지도 및 관리의 어려움’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정보 부족’(17.3%), ‘교육비용 부담’(16.5%), ‘게임,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 갈등’(11.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12.2%로 나타났다. ‘학습지도 및 관리의 어려움’은 동 지역이 읍/면 지역보다 높은 반면 ‘게임,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 갈등’은 읍면 지역이 동 지역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Ⅲ-62 | 초등 자녀 양육 어려움

(단위: N, %)

		사례수	학습 지도 및 관리의 어려움	교육 정보 부족	교육 비용 부담	게임,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 갈등	대화 부족 및 의사 소통 어려움	학부모 활동 참여의 어려움	학교 생활 부적응	어려움 없음
전체		(255)	33.3	17.3	16.5	11.4	5.5	3.5	0.4	12.2
성별	여성	(240)	32.1	17.9	16.7	12.1	4.6	3.3	0.4	12.9
	남성	(15)	53.3	6.7	13.3	0.0	20.0	6.7	0.0	0.0
거주 시군	전주시	(30)	40.0	16.7	16.7	3.3	10.0	3.3	0.0	10.0
	익산시	(27)	37.0	22.2	18.5	11.1	0.0	0.0	0.0	11.1
	군산시	(18)	44.4	0.0	11.1	5.6	11.1	5.6	0.0	22.2
	정읍시	(26)	38.5	15.4	15.4	3.8	7.7	0.0	0.0	19.2
	김제시	(13)	15.4	23.1	7.7	15.4	0.0	0.0	0.0	38.5
	남원시	(20)	45.0	10.0	10.0	15.0	5.0	10.0	0.0	5.0
	완주군	(18)	27.8	22.2	22.2	5.6	0.0	22.2	0.0	0.0
	고창군	(24)	25.0	25.0	29.2	12.5	0.0	0.0	0.0	8.3
	부안군	(18)	44.4	27.8	5.6	11.1	11.1	0.0	0.0	0.0
	임실군	(14)	21.4	21.4	14.3	14.3	14.3	7.1	0.0	7.1
	순창군	(16)	31.3	18.8	18.8	6.3	6.3	0.0	0.0	18.8
	진안군	(12)	8.3	8.3	8.3	50.0	0.0	0.0	0.0	25.0
	무주군	(8)	37.5	25.0	0.0	25.0	0.0	0.0	12.5	0.0
	장수군	(11)	27.3	0.0	45.5	9.1	9.1	0.0	0.0	9.1
행정 구역	읍/면	(160)	30.0	18.8	16.3	13.1	5.6	3.1	0.6	12.5
	동	(95)	38.9	14.7	16.8	8.4	5.3	4.2	0.0	11.6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13)	38.5	0.0	30.8	0.0	0.0	0.0	0.0	30.8
	5년~10년 미만	(59)	40.7	16.9	11.9	8.5	3.4	6.8	0.0	11.9
	10년~20년 미만	(171)	29.2	19.3	16.4	13.5	6.4	2.9	0.6	11.7
	20년 이상	(12)	50.0	8.3	25.0	8.3	8.3	0.0	0.0	0.0

② 초등 자녀 학교 적응

초등 자녀의 학교 적응도(5점척도)는 전체 평균 4.19점으로 나타났으며 여성(4.18점) 보다는 남성(4.40점)이 자녀의 학교 적응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거주 시·군별로 보면 적응도가 가장 높은 곳은 김제시(4.62점)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가장 낮은 곳은 무주군(3.63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지역(4.21점)이 읍/면 지역(4.18점)보다 초등자녀의 학교 적응 점수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Ⅲ-63 초등 자녀 학교 적응

(단위: N, %, 5점평균 척도)

		사례수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척도)
전체		(255)	1.6	3.5	22.4	19.6	52.9	4.19
성별	여성	(240)	1.7	3.8	22.5	19.6	52.5	4.18
	남성	(15)	0.0	0.0	20.0	20.0	60.0	4.40
거주 시군	전주시	(30)	0.0	0.0	30.0	16.7	53.3	4.23
	익산시	(27)	3.7	0.0	37.0	11.1	48.1	4.00
	군산시	(18)	0.0	5.6	27.8	11.1	55.6	4.17
	정읍시	(26)	0.0	0.0	19.2	19.2	61.5	4.42
	김제시	(13)	0.0	0.0	15.4	7.7	76.9	4.62
	남원시	(20)	0.0	5.0	10.0	35.0	50.0	4.30
	완주군	(18)	0.0	5.6	11.1	27.8	55.6	4.33
	고창군	(24)	0.0	8.3	16.7	25.0	50.0	4.17
	부안군	(18)	0.0	16.7	16.7	16.7	50.0	4.00
	임실군	(14)	0.0	0.0	21.4	21.4	57.1	4.36
	순창군	(16)	6.3	6.3	25.0	18.8	43.8	3.88
	진안군	(12)	8.3	0.0	25.0	8.3	58.3	4.08
	무주군	(8)	12.5	0.0	25.0	37.5	25.0	3.63
	장수군	(11)	0.0	0.0	27.3	27.3	45.5	4.18
행정 구역	읍/면	(160)	2.5	4.4	19.4	20.6	53.1	4.18
	동	(95)	0.0	2.1	27.4	17.9	52.6	4.21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13)	0.0	7.7	23.1	7.7	61.5	4.23
	5년~10년 미만	(59)	0.0	3.4	23.7	27.1	45.8	4.15
	10년~20년 미만	(171)	2.3	3.5	21.1	18.1	55.0	4.20
	20년 이상	(12)	0.0	0.0	33.3	16.7	50.0	4.17

③ 초등 자녀와 하루평균 대화시간

초등 자녀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은 '30분 이상-1시간 미만'이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시간 이상'(30.6%), '1시간 이상-2시간 미만'(22.0%), '30분 미만'(11.8%)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20.0%)은 여성(11.3%)보다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30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동 지역은 읍/면 지역보다 30분 미만과 2시간 이상 대화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 표 III-64 】 초등 자녀와 하루평균 대화시간

(단위: N, %)

		사례수	30분 미만	30분 이상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전체		(255)	11.8	35.7	22.0	30.6
성별	여성	(240)	11.3	35.0	22.9	30.8
	남성	(15)	20.0	46.7	6.7	26.7
거주 시군	전주시	(30)	20.0	23.3	16.7	40.0
	익산시	(27)	11.1	48.1	22.2	18.5
	군산시	(18)	22.2	27.8	16.7	33.3
	정읍시	(26)	7.7	23.1	30.8	38.5
	김제시	(13)	15.4	38.5	7.7	38.5
	남원시	(20)	10.0	25.0	25.0	40.0
	완주군	(18)	5.6	50.0	16.7	27.8
	고창군	(24)	12.5	33.3	37.5	16.7
	부안군	(18)	0.0	38.9	33.3	27.8
	임실군	(14)	14.3	35.7	7.1	42.9
	순창군	(16)	12.5	56.3	12.5	18.8
	진안군	(12)	16.7	41.7	8.3	33.3
	무주군	(8)	0.0	37.5	25.0	37.5
	장수군	(11)	9.1	36.4	36.4	18.2
행정 구역	읍/면	(160)	10.0	38.1	22.5	29.4
	동	(95)	14.7	31.6	21.1	32.6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13)	0.0	38.5	23.1	38.5
	5년~10년 미만	(59)	10.2	30.5	18.6	40.7
	10년~20년 미만	(171)	13.5	35.1	24.0	27.5
	20년 이상	(12)	8.3	66.7	8.3	16.7

④ 초등 자녀와 의사소통 어려움

초등 자녀와의 의사소통 어려움은 ‘약간 느낀다’(52.5%)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거의 느끼지 못한다’(36.5%), ‘매우 많이 느낀다’ (11.0%)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보다 남성 응답자가 초등학교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지역 거주자의 16.8%가 초등학교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대해 “매우 많이 느낀다”고 응답해 읍/면 지역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III-65 초등 자녀와 의사소통 어려움

(단위: N, %)

		사례수	거의 느끼지 못한다	약간 느낀다	매우 많이 느낀다
전체		(255)	36.5	52.5	11.0
성별	여성	(240)	36.3	53.8	10.0
	남성	(15)	40.0	33.3	26.7
거주 시군	전주시	(30)	26.7	50.0	23.3
	익산시	(27)	37.0	40.7	22.2
	군산시	(18)	33.3	55.6	11.1
	정읍시	(26)	42.3	50.0	7.7
	김제시	(13)	30.8	61.5	7.7
	남원시	(20)	40.0	55.0	5.0
	완주군	(18)	27.8	61.1	11.1
	고창군	(24)	54.2	41.7	4.2
	부안군	(18)	33.3	44.4	22.2
	임실군	(14)	64.3	35.7	0.0
	순창군	(16)	31.3	56.3	12.5
	진안군	(12)	33.3	66.7	0.0
	무주군	(8)	12.5	87.5	0.0
	장수군	(11)	27.3	72.7	0.0
행정 구역	읍/면	(160)	38.1	54.4	7.5
	동	(95)	33.7	49.5	16.8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13)	53.8	30.8	15.4
	5년~10년 미만	(59)	28.8	57.6	13.6
	10년~20년 미만	(171)	36.8	52.6	10.5
	20년 이상	(12)	50.0	50.0	0.0

⑤ 초등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시간(한달평균)

초등 자녀와의 활동 시간은 '4시간 이상'이 5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시간 이상-4시간 미만'(18.8%), '1시간 이상-2시간 미만'(13.7%), '1시간 미만'(8.6%), '전혀 하지 않는다'(0.4%) 순으로 나타났다. 4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동 지역(65.3%)이 읍/면 지역(54.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4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Ⅲ-66 초등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시간(한달평균)

(단위: N, %)

		사례수	전혀 하지 않는다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전체		(255)	0.4	8.6	13.7	18.8	58.4
성별	여성	(240)	0.0	9.2	13.8	19.2	57.9
	남성	(15)	6.7	0.0	13.3	13.3	66.7
거주 시군	전주시	(30)	0.0	10.0	6.7	13.3	70.0
	익산시	(27)	0.0	7.4	7.4	18.5	66.7
	군산시	(18)	0.0	5.6	0.0	33.3	61.1
	정읍시	(26)	3.8	11.5	11.5	15.4	57.7
	김제시	(13)	0.0	0.0	23.1	7.7	69.2
	남원시	(20)	0.0	15.0	5.0	15.0	65.0
	완주군	(18)	0.0	5.6	27.8	16.7	50.0
	고창군	(24)	0.0	12.5	29.2	8.3	50.0
	부안군	(18)	0.0	0.0	16.7	27.8	55.6
	임실군	(14)	0.0	0.0	28.6	21.4	50.0
	순창군	(16)	0.0	18.8	12.5	43.8	25.0
	진안군	(12)	0.0	16.7	8.3	16.7	58.3
	무주군	(8)	0.0	12.5	25.0	12.5	50.0
	장수군	(11)	0.0	0.0	0.0	18.2	81.8
행정 구역	읍/면	(160)	0.0	9.4	17.5	18.8	54.4
	동	(95)	1.1	7.4	7.4	18.9	65.3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13)	7.7	0.0	7.7	15.4	69.2
	5년~10년 미만	(59)	0.0	8.5	8.5	18.6	64.4
	10년~20년 미만	(171)	0.0	9.4	14.6	18.7	57.3
	20년 이상	(12)	0.0	8.3	33.3	25.0	33.3

⑥ 초등 자녀 학부모 참여 활동

초등 자녀 학부모 참여활동 조사 결과, ‘학교 설명회 및 담임교사 면담’이 6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운동회나 학교행사’(45.5%), ‘참관수업’(43.5%), ‘학부모 모임’(26.7%), ‘등하굣길 안전지도’(23.9%)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학부모들이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활동에 전혀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5.7%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67 초등 자녀 학부모 참여 활동

(단위: N, 중복응답 %)

		사례수	학교 설명회 및 담임교사 면담	운동회나 학교행사	참관수업	학부모 모임	등하굣길 안전지도	활동한 적 없음
전체		(255)	62.4	45.5	43.5	26.7	23.9	15.7
성별	여성	(240)	61.7	45.4	45.4	25.8	24.2	15.8
	남성	(15)	73.3	46.7	13.3	40.0	20.0	13.3
거주 시군	전주시	(30)	50.0	43.3	36.7	30.0	20.0	20.0
	익산시	(27)	85.2	51.9	55.6	29.6	48.1	0.0
	군산시	(18)	33.3	33.3	44.4	5.6	16.7	33.3
	정읍시	(26)	61.5	46.2	65.4	30.8	11.5	11.5
	김제시	(13)	15.4	15.4	0.0	0.0	0.0	84.6
	남원시	(20)	70.0	30.0	25.0	25.0	40.0	10.0
	완주군	(18)	66.7	55.6	38.9	44.4	33.3	11.1
	고창군	(24)	66.7	41.7	54.2	25.0	8.3	16.7
	부안군	(18)	77.8	61.1	44.4	16.7	11.1	0.0
	임실군	(14)	71.4	57.1	50.0	35.7	28.6	7.1
	순창군	(16)	62.5	68.8	37.5	25.0	43.8	6.3
	진안군	(12)	75.0	33.3	33.3	8.3	8.3	16.7
	무주군	(8)	62.5	50.0	50.0	62.5	12.5	12.5
	장수군	(11)	63.6	45.5	54.5	45.5	45.5	9.1
행정 구역	읍/면	(160)	68.8	49.4	45.6	30.0	23.8	11.9
	동	(95)	51.6	38.9	40.0	21.1	24.2	22.1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13)	46.2	15.4	15.4	7.7	15.4	46.2
	5년~10년 미만	(59)	62.7	45.8	42.4	22.0	23.7	13.6
	10년~20년 미만	(171)	63.2	48.0	45.6	29.2	23.4	14.0
	20년 이상	(12)	66.7	41.7	50.0	33.3	41.7	16.7

⑦ 초등 자녀 한국어 실력

초등 자녀의 한국어 실력(5점 척도)은 평균 4.60점으로 나타났으며 거주 시·군별로 보면 초등학교생 자녀의 한국어 실력이 가장 높은 곳은 고창군(4.83점)인 반면 가장 낮은 곳은 무주군(4.13점)으로 나타났다. 초등 자녀의 한국어 실력은 읍/면 지역(4.62점)이 동 지역(4.58점)보다 평균 점수가 약간 높았으며 전북거주기간이 증가할수록 초등 자녀의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Ⅲ-68 초등 자녀 한국어 실력

(단위: N, %, 5점평균 척도)

		사례수	전혀 못한다	별로 못한다	보통이다	약간 잘한다	매우 잘한다	평균 (5점척도)
전체		(255)	0.0	2.4	10.6	11.4	75.7	4.60
성별	여성	(240)	0.0	2.5	10.4	10.8	76.3	4.61
	남성	(15)	0.0	0.0	13.3	20.0	66.7	4.53
거주 시·군	전주시	(30)	0.0	3.3	13.3	10.0	73.3	4.53
	익산시	(27)	0.0	0.0	7.4	11.1	81.5	4.74
	군산시	(18)	0.0	0.0	22.2	5.6	72.2	4.50
	정읍시	(26)	0.0	0.0	3.8	11.5	84.6	4.81
	김제시	(13)	0.0	0.0	15.4	7.7	76.9	4.62
	남원시	(20)	0.0	5.0	0.0	30.0	65.0	4.55
	완주군	(18)	0.0	0.0	22.2	11.1	66.7	4.44
	고창군	(24)	0.0	0.0	0.0	16.7	83.3	4.83
	부안군	(18)	0.0	5.6	11.1	11.1	72.2	4.50
	임실군	(14)	0.0	0.0	14.3	0.0	85.7	4.71
	순창군	(16)	0.0	0.0	12.5	18.8	68.8	4.56
	진안군	(12)	0.0	16.7	0.0	0.0	83.3	4.50
	무주군	(8)	0.0	12.5	25.0	0.0	62.5	4.13
	장수군	(11)	0.0	0.0	18.2	9.1	72.7	4.55
행정 구역	읍/면	(160)	0.0	2.5	10.6	9.4	77.5	4.62
	동	(95)	0.0	2.1	10.5	14.7	72.6	4.58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13)	0.0	15.4	23.1	0.0	61.5	4.08
	5년~10년 미만	(59)	0.0	1.7	15.3	16.9	66.1	4.47
	10년~20년 미만	(171)	0.0	1.8	8.8	10.5	78.9	4.67
	20년 이상	(12)	0.0	0.0	0.0	8.3	91.7	4.92

⑧ 초등 자녀 외국어 실력

초등 자녀의 외국어 실력(5점 척도)은 평균 2.46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무주군이 2.8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고창군이 1.96점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읍/면 지역(2.34점)이 동 지역(2.66점)보다 초등 자녀의 외국어 실력이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외국어 실력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69 초등 자녀 외국어 실력

(단위: N, %, 5점평균 척도)

		사례수	전혀 못한다	별로 못한다	보통이다	약간 잘한다	매우 잘한다	평균 (5점척도)
전체		(255)	19.6	43.9	16.9	10.2	9.4	2.46
성별	여성	(240)	20.4	45.4	17.1	9.2	7.9	2.39
	남성	(15)	6.7	20.0	13.3	26.7	33.3	3.60
거주 시군	전주시	(30)	16.7	43.3	20.0	6.7	13.3	2.57
	익산시	(27)	7.4	55.6	11.1	18.5	7.4	2.63
	군산시	(18)	27.8	33.3	11.1	11.1	16.7	2.56
	정읍시	(26)	15.4	46.2	23.1	7.7	7.7	2.46
	김제시	(13)	38.5	23.1	7.7	7.7	23.1	2.54
	남원시	(20)	5.0	55.0	15.0	15.0	10.0	2.70
	완주군	(18)	22.2	27.8	27.8	16.7	5.6	2.56
	고창군	(24)	41.7	37.5	12.5	0.0	8.3	1.96
	부안군	(18)	16.7	61.1	5.6	11.1	5.6	2.28
	임실군	(14)	21.4	35.7	28.6	7.1	7.1	2.43
	순창군	(16)	31.3	37.5	25.0	6.3	0.0	2.06
	진안군	(12)	8.3	58.3	0.0	25.0	8.3	2.67
	무주군	(8)	12.5	25.0	37.5	12.5	12.5	2.88
	장수군	(11)	9.1	63.6	18.2	0.0	9.1	2.36
행정 구역	읍/면	(160)	21.3	45.6	18.1	8.1	6.9	2.34
	동	(95)	16.8	41.1	14.7	13.7	13.7	2.66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13)	0.0	30.8	0.0	38.5	30.8	3.69
	5년~10년 미만	(59)	23.7	44.1	15.3	10.2	6.8	2.32
	10년~20년 미만	(171)	19.9	45.6	18.1	7.6	8.8	2.40
	20년 이상	(12)	16.7	33.3	25.0	16.7	8.3	2.67

라. 중고등 자녀 양육

① 중고등 자녀 양육 어려움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응답자(n=190)에게, 중고등학생 양육의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교육 정보 부족’이 2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비용 부담’(23.2%), ‘학습 지도 및 관리의 어려움’(18.9%), ‘게임,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 갈등’(11.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읍·면 지역(26.8%)에서는 ‘교육정보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난 반면, 동 지역(26.9%)에서는 ‘교육비 부담’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거주 기간이 길수록 ‘교육정보 부족’을 어려움으로 꼽은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Ⅲ-70 | 중고등 자녀 양육 어려움

(단위: N, %)

		사례수	교육 정보 부족	교육 비용 부담	학습 지도 및 관리의 어려움	게임,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 갈등	대화 부족 및 의사 소통 어려움	학교 생활 부적응	정체성 혼란	어려움 없음
전체		(190)	24.2	23.2	18.9	11.1	6.3	1.1	0.5	14.7
성별	여성	(182)	24.2	23.6	18.1	11.0	6.6	1.1	0.5	14.8
	남성	(8)	25.0	12.5	37.5	12.5	0.0	0.0	0.0	12.5
거주 시군	전주시	(18)	27.8	22.2	22.2	5.6	0.0	0.0	0.0	22.2
	익산시	(19)	31.6	15.8	15.8	15.8	0.0	0.0	0.0	21.1
	군산시	(10)	10.0	10.0	10.0	20.0	0.0	0.0	10.0	40.0
	정읍시	(15)	20.0	40.0	6.7	6.7	13.3	0.0	0.0	13.3
	김제시	(19)	31.6	21.1	26.3	0.0	10.5	0.0	0.0	10.5
	남원시	(12)	16.7	33.3	8.3	33.3	8.3	0.0	0.0	0.0
	완주군	(17)	35.3	11.8	17.6	23.5	5.9	0.0	0.0	5.9
	고창군	(14)	28.6	21.4	35.7	7.1	7.1	0.0	0.0	0.0
	부안군	(13)	30.8	15.4	15.4	7.7	0.0	0.0	0.0	30.8
	임실군	(10)	40.0	10.0	10.0	10.0	20.0	0.0	0.0	10.0
	순창군	(16)	6.3	37.5	31.3	0.0	12.5	6.3	0.0	6.3
	진안군	(9)	22.2	11.1	11.1	22.2	11.1	0.0	0.0	22.2
	무주군	(8)	25.0	12.5	25.0	12.5	0.0	0.0	0.0	25.0
	장수군	(10)	0.0	60.0	20.0	0.0	0.0	10.0	0.0	10.0
행정 구역	읍/면	(123)	26.8	21.1	19.5	9.8	7.3	1.6	0.0	13.8
	동	(67)	19.4	26.9	17.9	13.4	4.5	0.0	1.5	16.4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7)	14.3	0.0	42.9	0.0	0.0	0.0	0.0	42.9
	5년~10년 미만	(11)	18.2	18.2	27.3	18.2	0.0	0.0	0.0	18.2
	10년~20년 미만	(143)	23.8	24.5	17.5	13.3	7.0	1.4	0.7	11.9
	20년 이상	(29)	31.0	24.1	17.2	0.0	6.9	0.0	0.0	20.7

② 중·고등 자녀 학교 적응

중·고등 자녀의 학교 적응도(5점척도)는 전체 평균 4.12점으로 나타났으며 여성(4.10점)보다는 남성(4.63점)이 자녀의 학교 적응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거주 시·군별로 보면 적응도가 가장 높은 곳은 전주시(4.67점)로 나타난 반면 가장 낮은 곳은 순창군(3.38점)으로 나타났다. 읍/면 지역(4.02점)보다는 동 지역(4.32점)에 거주하는 중·고등 자녀의 학교 적응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71 중·고등 자녀 학교 적응

(단위: N, %, 5점평균 척도)

		사례수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평균 (5점 척도)
전체		(190)	3.2	1.6	22.6	20.5	46.8	5.3	4.12
성별	여성	(182)	3.3	1.6	23.1	20.9	45.6	5.5	4.10
	남성	(8)	0.0	0.0	12.5	12.5	75.0	0.0	4.63
거주 시·군	전주시	(18)	0.0	0.0	5.6	22.2	72.2	0.0	4.67
	익산시	(19)	0.0	0.0	26.3	31.6	31.6	10.5	4.06
	군산시	(10)	0.0	0.0	20.0	10.0	30.0	40.0	4.17
	정읍시	(15)	0.0	0.0	13.3	26.7	60.0	0.0	4.47
	김제시	(19)	5.3	5.3	5.3	5.3	78.9	0.0	4.47
	남원시	(12)	8.3	0.0	25.0	25.0	41.7	0.0	3.92
	완주군	(17)	0.0	0.0	35.3	17.6	47.1	0.0	4.12
	고창군	(14)	0.0	0.0	21.4	21.4	57.1	0.0	4.36
	부안군	(13)	0.0	7.7	15.4	30.8	23.1	23.1	3.90
	임실군	(10)	0.0	0.0	30.0	20.0	50.0	0.0	4.20
	순창군	(16)	12.5	6.3	37.5	18.8	25.0	0.0	3.38
	진안군	(9)	0.0	0.0	55.6	22.2	22.2	0.0	3.67
	무주군	(8)	12.5	0.0	0.0	25.0	62.5	0.0	4.25
	장수군	(10)	10.0	0.0	40.0	10.0	30.0	10.0	3.56
행정 구역	읍/면	(123)	3.3	1.6	26.8	22.8	41.5	4.1	4.02
	동	(67)	3.0	1.5	14.9	16.4	56.7	7.5	4.32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7)	0.0	0.0	0.0	42.9	42.9	14.3	4.50
	5년~10년 미만	(11)	0.0	0.0	9.1	36.4	54.5	0.0	4.45
	10년~20년 미만	(143)	4.2	1.4	25.2	18.9	46.2	4.2	4.06
	20년 이상	(29)	0.0	3.4	20.7	17.2	48.3	10.3	4.23

③ 중·고생 자녀와 하루평균 대화시간

중고등 자녀와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을 분석한 결과 ‘30분 이상-1시간 미만’이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분 미만’ (30.0%),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17.9%), ‘2시간 이상’ (10.5%), ‘전혀 하지 않는다’(2.1%)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 기간별로 살펴보면,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대화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5년~20년 미만은 ‘30분 이상-1시간 미만’이, 20년 이상은 ‘30분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Ⅲ-72 중·고등생 자녀와 하루평균 대화시간

(단위: N, %)

		사례수	전혀하지 않는다	30분 미만	30분 이상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모름/ 무응답
전체		(190)	2.1	30.0	33.2	17.9	10.5	6.3
성별	여성	(182)	2.2	29.7	33.0	18.7	9.9	6.6
	남성	(8)	0.0	37.5	37.5	0.0	25.0	0.0
거주 시군	전주시	(18)	0.0	16.7	27.8	16.7	33.3	5.6
	익산시	(19)	5.3	26.3	31.6	15.8	10.5	10.5
	군산시	(10)	0.0	30.0	20.0	10.0	0.0	40.0
	정읍시	(15)	0.0	26.7	53.3	13.3	6.7	0.0
	김제시	(19)	0.0	31.6	26.3	42.1	0.0	0.0
	남원시	(12)	0.0	25.0	33.3	25.0	16.7	0.0
	완주군	(17)	0.0	41.2	47.1	5.9	5.9	0.0
	고창군	(14)	0.0	57.1	28.6	7.1	7.1	0.0
	부안군	(13)	0.0	7.7	23.1	23.1	23.1	23.1
	임실군	(10)	10.0	20.0	30.0	10.0	30.0	0.0
	순창군	(16)	6.3	43.8	25.0	18.8	0.0	6.3
	진안군	(9)	0.0	22.2	66.7	11.1	0.0	0.0
	무주군	(8)	0.0	50.0	25.0	25.0	0.0	0.0
	장수군	(10)	10.0	20.0	30.0	20.0	10.0	10.0
행정 구역	읍/면	(123)	3.3	33.3	34.1	17.1	7.3	4.9
	동	(67)	0.0	23.9	31.3	19.4	16.4	9.0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7)	0.0	14.3	0.0	28.6	42.9	14.3
	5년~10년 미만	(11)	0.0	9.1	54.5	27.3	9.1	0.0
	10년~20년 미만	(143)	2.1	31.5	34.3	18.2	9.1	4.9
	20년 이상	(29)	3.4	34.5	27.6	10.3	10.3	13.8

④ 중·고생 자녀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중고등 자녀가 있는 응답자(n=190)중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4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약간 느낀다’(41.6%), ‘매우 많이 느낀다’ (5.3%)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 기간이 길수록 중·고등 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Ⅲ-73 중·고등 자녀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단위: N, %)

		사례수	거의 느끼지 못한다	약간 느낀다	매우 많이 느낀다	모름/ 무응답
전체		(190)	46.8	41.6	5.3	6.3
성별	여성	(182)	47.8	41.8	3.8	6.6
	남성	(8)	25.0	37.5	37.5	0.0
거주 시군	전주시	(18)	55.6	22.2	16.7	5.6
	익산시	(19)	47.4	42.1	0.0	10.5
	군산시	(10)	40.0	20.0	0.0	40.0
	정읍시	(15)	46.7	40.0	13.3	0.0
	김제시	(19)	31.6	63.2	5.3	0.0
	남원시	(12)	58.3	41.7	0.0	0.0
	완주군	(17)	35.3	64.7	0.0	0.0
	고창군	(14)	57.1	42.9	0.0	0.0
	부안군	(13)	38.5	38.5	0.0	23.1
	임실군	(10)	80.0	20.0	0.0	0.0
	순창군	(16)	31.3	56.3	12.5	0.0
	진안군	(9)	77.8	22.2	0.0	0.0
	무주군	(8)	37.5	50.0	0.0	12.5
	장수군	(10)	40.0	30.0	20.0	10.0
행정 구역	읍/면	(123)	47.2	43.9	4.1	4.9
	동	(67)	46.3	37.3	7.5	9.0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7)	42.9	28.6	14.3	14.3
	5년~10년 미만	(11)	45.5	45.5	9.1	0.0
	10년~20년 미만	(143)	43.4	45.5	5.6	5.6
	20년 이상	(29)	65.5	24.1	0.0	10.3

⑤ 중·고등 자녀 한국어 실력

중고등 자녀의 한국어 실력(5점 척도)은 평균 4.67점으로 나타났다. 중고등 자녀의 한국어 실력이 가장 높은 곳은 임실군(4.90점)이며, 반대로 가장 낮은 곳은 장수군(4.00점)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이 길수록 중·고등 자녀의 한국어 실력 평균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Ⅲ-74 중·고등 자녀 한국어 실력

(단위: N, %, 5점평균 척도)

		사례수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평균 (5점 척도)
전체		(190)	1.1	2.1	5.3	10.5	75.8	5.3	4.67
성별	여성	(182)	1.1	2.2	4.9	10.4	75.8	5.5	4.67
	남성	(8)	0.0	0.0	12.5	12.5	75.0	0.0	4.63
거주 시군	전주시	(18)	0.0	5.6	0.0	11.1	83.3	0.0	4.72
	익산시	(19)	0.0	0.0	10.5	10.5	68.4	10.5	4.65
	군산시	(10)	0.0	0.0	0.0	20.0	40.0	40.0	4.67
	정읍시	(15)	0.0	0.0	6.7	13.3	80.0	0.0	4.73
	김제시	(19)	0.0	5.3	0.0	0.0	94.7	0.0	4.84
	남원시	(12)	0.0	0.0	8.3	25.0	66.7	0.0	4.58
	완주군	(17)	0.0	0.0	17.6	0.0	82.4	0.0	4.65
	고창군	(14)	0.0	0.0	7.1	7.1	85.7	0.0	4.79
	부안군	(13)	0.0	0.0	7.7	7.7	61.5	23.1	4.70
	임실군	(10)	0.0	0.0	0.0	10.0	90.0	0.0	4.90
	순창군	(16)	6.3	0.0	0.0	0.0	93.8	0.0	4.75
	진안군	(9)	0.0	11.1	0.0	22.2	66.7	0.0	4.44
	무주군	(8)	0.0	0.0	12.5	25.0	62.5	0.0	4.50
	장수군	(10)	10.0	10.0	0.0	20.0	50.0	10.0	4.00
행정 구역	읍/면	(123)	1.6	1.6	4.9	8.9	78.9	4.1	4.69
	동	(67)	0.0	3.0	6.0	13.4	70.1	7.5	4.63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7)	0.0	14.3	0.0	42.9	28.6	14.3	4.00
	5년~10년 미만	(11)	0.0	0.0	9.1	27.3	63.6	0.0	4.55
	10년~20년 미만	(143)	1.4	2.1	5.6	9.1	77.6	4.2	4.66
	20년 이상	(29)	0.0	0.0	3.4	3.4	82.8	10.3	4.88

⑥ 중·고생 자녀 외국어 실력

중·고등 자녀의 외국어 실력(5점 척도)은 평균 2.26점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어 실력이 가장 높은 곳은 순창군(2.57점)인 반면 가장 낮은 곳은 군산시(1.80점)로 나타났다. 동 지역(2.33점)이 읍/면 지역(2.22점)보다 중·고생 자녀의 외국어 실력 평균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평균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5】 중·고등 자녀 외국어 실력

(단위: N, %, 5점평균 척도)

		사례수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평균 (5점 척도)
	전체	(190)	22.1	41.6	14.7	5.3	6.8	9.5	2.26
성별	여성	(182)	22.5	42.9	14.3	4.9	6.0	9.3	2.22
	남성	(8)	12.5	12.5	25.0	12.5	25.0	12.5	3.29
거주 시군	전주시	(18)	27.8	50.0	0.0	5.6	11.1	5.6	2.18
	익산시	(19)	10.5	42.1	26.3	0.0	10.5	10.5	2.53
	군산시	(10)	10.0	40.0	0.0	0.0	0.0	50.0	1.80
	정읍시	(15)	26.7	46.7	6.7	13.3	6.7	0.0	2.27
	김제시	(19)	31.6	42.1	21.1	5.3	0.0	0.0	2.00
	남원시	(12)	16.7	50.0	25.0	0.0	8.3	0.0	2.33
	완주군	(17)	23.5	47.1	17.6	11.8	0.0	0.0	2.18
	고창군	(14)	21.4	42.9	14.3	0.0	14.3	7.1	2.38
	부안군	(13)	15.4	38.5	15.4	0.0	7.7	23.1	2.30
	임실군	(10)	30.0	50.0	10.0	10.0	0.0	0.0	2.00
	순창군	(16)	18.8	37.5	12.5	0.0	18.8	12.5	2.57
	진안군	(9)	11.1	55.6	0.0	0.0	11.1	22.2	2.29
	무주군	(8)	25.0	12.5	50.0	12.5	0.0	0.0	2.50
	장수군	(10)	40.0	10.0	10.0	20.0	0.0	20.0	2.13
행정 구역	읍/면	(123)	23.6	40.7	15.4	5.7	5.7	8.9	2.22
	동	(67)	19.4	43.3	13.4	4.5	9.0	10.4	2.33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7)	0.0	28.6	28.6	14.3	14.3	14.3	3.17
	5년~10년 미만	(11)	18.2	45.5	18.2	18.2	0.0	0.0	2.36
	10년~20년 미만	(143)	23.1	44.1	16.1	2.1	5.6	9.1	2.15
	20년 이상	(29)	24.1	31.0	3.4	13.8	13.8	13.8	2.56

마. 성인 자녀 양육

① 성인 자녀 양육 어려움

만19세~23세 성인 자녀가 있는 응답자(n=60)에게 성인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교육비용 부담’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정보 부족’(11.7%), ‘대화 부족 및 의사소통 어려움’(10.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자는 16.7%로 나타났다.

Ⅲ 표 Ⅲ-76 Ⅲ 성인 자녀(만19~23세) 양육 어려움

(단위: N, %)

		사례수	교육 비용 부담	교육 정보 부족	대화 부족 및 의사소통 어려움	게임, 스마트폰, 사용 갈등	학습 지도 및 관리의 어려움	어려움 없음
전체		(60)	50.0	11.7	10.0	8.3	3.3	16.7
성별	여성	(59)	50.8	11.9	10.2	8.5	3.4	15.3
	남성	(1)	0.0	0.0	0.0	0.0	0.0	100.0
행정 구역	읍/면	(41)	56.1	12.2	9.8	7.3	2.4	12.2
	동	(19)	36.8	10.5	10.5	10.5	5.3	26.3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3)	33.3	0.0	0.0	0.0	0.0	66.7
	5년~10년 미만	(3)	33.3	33.3	0.0	33.3	0.0	0.0
	10년~20년 미만	(12)	66.7	8.3	8.3	8.3	8.3	0.0
	·20년 이상	(42)	47.6	11.9	11.9	7.1	2.4	19.0

② 성인 자녀 학교/사회 적응

성인 자녀의 학교 및 사회 적응도(5점 척도)는 평균 4.20점으로, 성인 자녀가 학교와 사회에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동 지역의 평균 점수는 4.32점으로, 읍/면 지역의 평균 4.15점보다 성인 자녀의 적응도가 더 높게 평가되었다.

표 Ⅲ-77 성인 자녀(만19~23세)의 학교/사회 적응

(단위: N, %, 5점평균 척도)

		사례수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척도)
전체		(60)	0.0	0.0	30.0	20.0	50.0	4.20
성별	여성	(59)	0.0	0.0	30.5	20.3	49.2	4.19
	남성	(1)	0.0	0.0	0.0	0.0	100.0	5.00
행정 구역	읍/면	(41)	0.0	0.0	31.7	22.0	46.3	4.15
	동	(19)	0.0	0.0	26.3	15.8	57.9	4.32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3)	0.0	0.0	33.3	0.0	66.7	4.33
	5년~10년 미만	(3)	0.0	0.0	33.3	33.3	33.3	4.00
	10년~20년 미만	(12)	0.0	0.0	25.0	25.0	50.0	4.25
	20년 이상	(42)	0.0	0.0	31.0	19.0	50.0	4.19

③ 성인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

성인 자녀를 위해 필요한 지원/서비스는 ‘학업 관련 지원’이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 준비를 위한 기술훈련과 심화직무 교육’(38.3%), ‘사회 공동체에서 요구되는 소양교육’(6.7%), ‘가족, 친구, 이성교제 등 관계 개선 관련 상담’(1.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78】 성인자녀(만19~23세)에게 필요한 지원

(단위: N, %)

		사례수	학업 관련 지원	직업 준비를 위한 기술 훈련과 심화 직무 교육	사회 공동체에서 요구되는 소양교육	가족, 친구, 이성교제 등 관계 개선 관련 상담
전체		(60)	53.3	38.3	6.7	1.7
성별	여성	(59)	52.5	39.0	6.8	1.7
	남성	(1)	100.0	0.0	0.0	0.0
행정 구역	읍/면	(41)	48.8	41.5	7.3	2.4
	동	(19)	63.2	31.6	5.3	0.0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3)	33.3	33.3	0.0	33.3
	5년~10년 미만	(3)	33.3	0.0	66.7	0.0
	10년~20년 미만	(12)	50.0	41.7	8.3	0.0
	20년 이상	(42)	57.1	40.5	2.4	0.0

④ 성인 자녀와 하루평균 대화시간

성인 자녀와의 하루평균 대화는 '30분 미만'이 5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분 이상-1시간 미만'(30.0%), '1시간 이상-2시간 미만'(10.0%), '2시간 이상'(3.3%)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79 성인자녀(만19~23세)와 하루평균 대화시간

(단위: N, %)

		사례수	30분 미만	30분 이상-1시간 미만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전체		(60)	56.7	30.0	10.0	3.3
성별	여성	(59)	55.9	30.5	10.2	3.4
	남성	(1)	100.0	0.0	0.0	0.0
행정 구역	읍/면	(41)	56.1	31.7	12.2	0.0
	동	(19)	57.9	26.3	5.3	10.5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3)	100.0	0.0	0.0	0.0
	5년~10년 미만	(3)	33.3	66.7	0.0	0.0
	10년~20년 미만	(12)	58.3	25.0	8.3	8.3
	20년 이상	(42)	54.8	31.0	11.9	2.4

⑤ 성인자녀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성인 자녀와의 의사소통 어려움에 대한 분석 결과, '거의 느끼지 못한다'(65.0%), '약간 느낀다'(33.3%), '매우 많이 느낀다' (1.7%) 순으로 나타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전반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80 성인자녀(만19~23세)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단위: N, %)

		사례수	거의 느끼지 못한다	약간 느낀다	매우 많이 느낀다
전체		(60)	65.0	33.3	1.7
성별	여성	(59)	64.4	33.9	1.7
	남성	(1)	100.0	0.0	0.0
행정 구역	읍/면	(41)	65.9	31.7	2.4
	동	(19)	63.2	36.8	0.0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3)	66.7	33.3	0.0
	5년~10년 미만	(3)	100.0	0.0	0.0
	10년~20년 미만	(12)	75.0	16.7	8.3
	20년 이상	(42)	59.5	40.5	0.0

(4) 지역사회관계

가. 사회활동 및 지역만족

① 지역사회 참여활동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모임을 살펴보면 ‘이주민 모임’이 4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 및 취미 활동’(24.3%), ‘자녀교육활동’(22.1%), ‘종교활동’ (17.7%), ‘자원봉사’(14.0%), ‘지역사회활동’(13.7%) 순으로 나타났다. 활동 중인 모임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4.1%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여성(23.0%)보다 남성(37.8%)이, 지역 별로는 읍/면 지역(19.1%)보다 동 지역(31.7%)이 참여 중인 모임이 없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Ⅲ-81 지역사회 참여활동

(단위: N, 중복응답 %)

		사례수	이주민 모임	문화 및 취미 활동	자녀교육 활동	종교 활동	자원 봉사	지역사회 활동	없음
전체		(605)	49.9	24.3	22.1	17.7	14.0	13.7	24.1
성별	여성	(560)	51.4	25.0	22.3	18.4	14.6	14.5	23.0
	남성	(45)	31.1	15.6	20.0	8.9	6.7	4.4	37.8
거주 시군	전주시	(81)	44.4	18.5	23.5	16.0	17.3	8.6	23.5
	익산시	(60)	43.3	25.0	18.3	20.0	10.0	6.7	26.7
	군산시	(58)	51.7	20.7	5.2	3.4	6.9	3.4	31.0
	정읍시	(43)	65.1	32.6	30.2	23.3	23.3	20.9	16.3
	김제시	(42)	14.3	7.1	2.4	9.5	4.8	4.8	73.8
	남원시	(40)	47.5	22.5	20.0	30.0	20.0	25.0	25.0
	완주군	(42)	50.0	19.0	26.2	16.7	7.1	7.1	23.8
	고창군	(37)	40.5	18.9	24.3	18.9	10.8	16.2	35.1
	부안군	(35)	57.1	17.1	22.9	8.6	28.6	25.7	17.1
	임실군	(33)	45.5	45.5	42.4	24.2	15.2	27.3	6.1
	순창군	(34)	64.7	23.5	20.6	14.7	11.8	5.9	11.8
	진안군	(33)	66.7	27.3	21.2	27.3	6.1	18.2	9.1
	무주군	(31)	71.0	38.7	22.6	16.1	29.0	22.6	9.7
	장수군	(36)	55.6	38.9	44.4	27.8	11.1	19.4	11.1
행정 구역	읍/면	(362)	53.0	27.1	26.2	19.6	14.1	18.2	19.1
	동	(243)	45.3	20.2	16.0	14.8	14.0	7.0	31.7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53.4	20.5	19.3	8.0	8.0	10.2	27.3
	5년~10년 미만	(149)	49.7	22.8	28.2	14.1	10.1	8.1	21.5
	10년~20년 미만	(289)	49.5	23.9	21.1	18.0	15.6	14.9	27.0
	20년 이상	(79)	48.1	32.9	17.7	34.2	22.8	24.1	15.2

② 한국 선거 참여 경험

한국에서의 선거 참여 경험을 조사한 결과 선거권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한 경우가 54.4%로 나타났으며, 선거권이 없는 경우도 36.0%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선거권을 가지고 있고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남성은 과반 이상의 응답자(68.9%)가 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 지역은 과반 이상의 응답자가 선거권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동 지역은 선거권이 없는 응답자의 비율(45.7%)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선거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82 한국 선거 참여 경험

(단위: N, %)

		사례수	선거권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함	선거권이 있으나 참여하지 않음	선거권이 없음	모름/ 무응답
전체		(605)	54.4	7.6	36.0	2.0
성별	여성	(560)	56.8	7.9	33.4	2.0
	남성	(45)	24.4	4.4	68.9	2.2
거주 시군	전주시	(81)	37.0	8.6	51.9	2.5
	익산시	(60)	51.7	8.3	38.3	1.7
	군산시	(58)	34.5	8.6	51.7	5.2
	정읍시	(43)	55.8	0.0	44.2	0.0
	김제시	(42)	57.1	21.4	21.4	0.0
	남원시	(40)	60.0	2.5	35.0	2.5
	완주군	(42)	64.3	2.4	26.2	7.1
	고창군	(37)	64.9	8.1	27.0	0.0
	부안군	(35)	68.6	8.6	22.9	0.0
	임실군	(33)	69.7	3.0	27.3	0.0
	순창군	(34)	76.5	8.8	14.7	0.0
	진안군	(33)	48.5	12.1	39.4	0.0
	무주군	(31)	61.3	6.5	32.3	0.0
	장수군	(36)	47.2	5.6	41.7	5.6
행정 구역	읍/면	(362)	62.4	6.6	29.6	1.4
	동	(243)	42.4	9.1	45.7	2.9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13.6	4.5	75.0	6.8
	5년~10년 미만	(149)	40.3	10.1	48.3	1.3
	10년~20년 미만	(289)	66.1	7.6	25.6	0.7
	20년 이상	(79)	83.5	6.3	7.6	2.5

③ 전북 거주 만족

전북 거주 만족(5점척도)은 평균 4.05점(5점척도)으로 나타났으며 여성(4.03점)보다 남성(4.38점)의 거주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시·군별로 보면 거주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김제시(4.43점)이며, 반대로 가장 낮은 곳은 정읍시(3.51점)로 나타났다.

Ⅰ 표 Ⅲ-83 Ⅰ 전북 거주 만족

(단위: N, %, 5점척도 평균)

		사례수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약간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모름/ 무응답	평균 (5점 척도)
전체		(605)	3.0	4.6	23.6	21.5	46.9	0.3	4.05
성별	여성	(560)	3.2	4.6	24.3	21.8	45.7	0.4	4.03
	남성	(45)	0.0	4.4	15.6	17.8	62.2	0.0	4.38
거주 시군	전주시	(81)	7.4	4.9	22.2	21.0	44.4	0.0	3.90
	익산시	(60)	3.3	3.3	23.3	20.0	50.0	0.0	4.10
	군산시	(58)	0.0	5.2	34.5	24.1	36.2	0.0	3.91
	정읍시	(43)	7.0	16.3	18.6	34.9	23.3	0.0	3.51
	김제시	(42)	0.0	2.4	14.3	21.4	61.9	0.0	4.43
	남원시	(40)	0.0	2.5	17.5	25.0	55.0	0.0	4.33
	완주군	(42)	4.8	7.1	26.2	0.0	59.5	2.4	4.05
	고창군	(37)	2.7	5.4	27.0	18.9	45.9	0.0	4.00
	부안군	(35)	0.0	0.0	22.9	14.3	62.9	0.0	4.40
	임실군	(33)	3.0	3.0	9.1	21.2	63.6	0.0	4.39
	순창군	(34)	2.9	0.0	23.5	26.5	47.1	0.0	4.15
	진안군	(33)	3.0	6.1	42.4	24.2	24.2	0.0	3.61
	무주군	(31)	3.2	6.5	9.7	22.6	58.1	0.0	4.26
	장수군	(36)	0.0	0.0	36.1	27.8	33.3	2.8	3.97
행정 구역	읍/면	(362)	3.0	3.9	24.6	19.1	48.9	0.6	4.08
	동	(243)	2.9	5.8	22.2	25.1	44.0	0.0	4.02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1.1	4.5	33.0	19.3	40.9	1.1	3.95
	5년~10년 미만	(149)	5.4	6.0	24.2	18.8	45.6	0.0	3.93
	10년~20년 미만	(289)	2.4	3.8	21.1	22.1	50.2	0.3	4.14
	20년 이상	(79)	2.5	5.1	21.5	26.6	44.3	0.0	4.05

④ 전북 거주 불만족 이유

전북 거주에 만족하지 않는 응답자(n=46)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가 45.7%로 가장 높았으며 ‘문화 및 여가시설이 부족하다’(26.1%), ‘교통이 불편하다’(13.0%), ‘이주민에게 적대적이다’ 및 ‘교육여건이 좋지않다’(각 6.5%) 순으로 나타났다.

■ 표 III-84 ■ 전북 거주 불만족 이유

(단위: N, %)

		사례수	일자리 구하는 것이 어렵다	문화 및 여가 시설이 부족하다	교통이 불편하다	이주민에게 적대적이다	교육 여건이 좋지않다	기타
전체		(46)	45.7	26.1	13.0	6.5	6.5	2.2
성별	여성	(44)	43.2	27.3	13.6	6.8	6.8	2.3
	남성	(2)	100.0	0.0	0.0	0.0	0.0	0.0
거주 시군	전주시	(10)	30.0	30.0	40.0	0.0	0.0	0.0
	익산시	(4)	50.0	50.0	0.0	0.0	0.0	0.0
	군산시	(3)	66.7	33.3	0.0	0.0	0.0	0.0
	정읍시	(10)	40.0	20.0	0.0	20.0	10.0	10.0
	김제시	(1)	100.0	0.0	0.0	0.0	0.0	0.0
	남원시	(1)	0.0	0.0	0.0	100.0	0.0	0.0
	완주군	(5)	80.0	0.0	0.0	0.0	20.0	0.0
	고창군	(3)	66.7	33.3	0.0	0.0	0.0	0.0
	부안군	(0)	-	-	-	-	-	-
	임실군	(2)	50.0	0.0	0.0	0.0	50.0	0.0
	순창군	(1)	0.0	0.0	100.0	0.0	0.0	0.0
	진안군	(3)	33.3	66.7	0.0	0.0	0.0	0.0
	무주군	(3)	33.3	33.3	33.3	0.0	0.0	0.0
	장수군	(0)	-	-	-	-	-	-
행정 구역	읍/면	(25)	48.0	20.0	8.0	8.0	12.0	4.0
	동	(21)	42.9	33.3	19.0	4.8	0.0	0.0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5)	80.0	20.0	0.0	0.0	0.0	0.0
	5년~10년 미만	(17)	41.2	23.5	11.8	5.9	11.8	5.9
	10년~20년 미만	(18)	44.4	33.3	11.1	11.1	0.0	0.0
	20년 이상	(6)	33.3	16.7	33.3	0.0	16.7	0.0

⑤ 전북 거주 의향

향후 전북에서의 거주 의향(5점척도)은 평균 4.13점으로 나타났으며 거주 의향 정도가 가장 높은 곳은 임실군(4.41점)이며, 반대로 가장 낮은 곳은 정읍시(3.56점)로 나타났다. 또한 읍·면 거주자의 전북 거주 의향 평균 점수는 4.17점으로, 동 지역 거주자의 평균 점수인 4.06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III-85 전북 거주 의향

(단위: N, %, 5점척도 평균)

		사례수	전혀 살고싶지 않음	대체로 살고싶지 않음	보통 이다	약간 살고 싶음	매우 살고 싶음	모름/ 무응답	평균 (5점 척도)
전체		(605)	0.8	3.1	26.6	19.2	47.9	2.3	4.13
성별	여성	(560)	0.9	3.2	27.9	18.9	47.3	1.8	4.11
	남성	(45)	0.0	2.2	11.1	22.2	55.6	8.9	4.44
거주 시군	전주시	(81)	0.0	3.7	19.8	22.2	50.6	3.7	4.24
	익산시	(60)	1.7	3.3	26.7	20.0	48.3	0.0	4.10
	군산시	(58)	1.7	5.2	39.7	8.6	41.4	3.4	3.86
	정읍시	(43)	7.0	11.6	30.2	14.0	32.6	4.7	3.56
	김제시	(42)	0.0	2.4	19.0	19.0	57.1	2.4	4.34
	남원시	(40)	0.0	0.0	20.0	20.0	60.0	0.0	4.40
	완주군	(42)	0.0	0.0	21.4	16.7	54.8	7.1	4.36
	고창군	(37)	0.0	0.0	40.5	24.3	35.1	0.0	3.95
	부안군	(35)	0.0	0.0	17.1	28.6	54.3	0.0	4.37
	임실군	(33)	0.0	3.0	21.2	6.1	66.7	3.0	4.41
	순창군	(34)	0.0	2.9	26.5	17.6	50.0	2.9	4.18
	진안군	(33)	0.0	3.0	39.4	21.2	36.4	0.0	3.91
	무주군	(31)	0.0	0.0	22.6	22.6	54.8	0.0	4.32
	장수군	(36)	0.0	5.6	30.6	30.6	30.6	2.8	3.89
행정 구역	읍/면	(362)	0.8	1.7	26.8	19.1	49.4	2.2	4.17
	동	(243)	0.8	5.3	26.3	19.3	45.7	2.5	4.06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0.0	4.5	31.8	13.6	46.6	3.4	4.06
	5년~10년 미만	(149)	0.7	2.0	26.2	22.1	46.3	2.7	4.14
	10년~20년 미만	(289)	0.7	3.5	24.9	18.0	50.5	2.4	4.17
	20년 이상	(79)	2.5	2.5	27.8	24.1	43.0	0.0	4.03

나. 사회생활 어려움

① 한국 생활 어려움

한국생활의 어려운 점은 ‘언어’가 2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 양육 및 교육’(18.7%), ‘경제적 어려움’(14.2%), ‘외로움’(10.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2.2%로 나타났으며 여성(26.1%)보다는 남성(40.0%)이 언어에 대한 어려움을 높게 평가하였다. 동 지역(14.8%)이 읍·면 지역(10.5%)보다 한국 생활에서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기간이 길수록 한국 생활에서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86 한국 생활 어려움

(단위: N, %)

		사례수	언어	자녀 양육 및 교육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부부 갈등	문화 차이	배우자 외 가족 갈등	편견 차별	공공 기관 등 이용	친구 이웃 사귀기	기타	어려움 없음
전체		(605)	27.1	18.7	14.2	10.9	5.8	4.1	3.3	2.0	1.0	0.5	0.2	12.2
성별	여성	(560)	26.1	18.9	14.3	11.4	6.1	4.5	3.6	1.8	0.9	0.4	0.0	12.1
	남성	(45)	40.0	15.6	13.3	4.4	2.2	0.0	0.0	4.4	2.2	2.2	2.2	13.3
거주 시군	전주시	(81)	37.0	13.6	12.3	8.6	2.5	2.5	1.2	2.5	1.2	0.0	0.0	18.5
	익산시	(60)	16.7	25.0	8.3	6.7	6.7	6.7	1.7	3.3	1.7	1.7	1.7	20.0
	군산시	(58)	31.0	12.1	17.2	15.5	1.7	6.9	1.7	0.0	3.4	1.7	0.0	8.6
	정읍시	(43)	16.3	23.3	16.3	11.6	16.3	7.0	0.0	4.7	0.0	0.0	0.0	4.7
	김제시	(42)	16.7	14.3	11.9	21.4	2.4	4.8	7.1	2.4	0.0	0.0	0.0	19.0
	남원시	(40)	25.0	20.0	17.5	7.5	2.5	2.5	7.5	5.0	0.0	0.0	0.0	12.5
	완주군	(42)	31.0	16.7	14.3	7.1	7.1	0.0	4.8	4.8	0.0	0.0	0.0	14.3
	고창군	(37)	32.4	16.2	16.2	18.9	8.1	0.0	5.4	0.0	0.0	0.0	0.0	2.7
	부안군	(35)	14.3	20.0	11.4	8.6	5.7	17.1	5.7	2.9	0.0	2.9	0.0	11.4
	임실군	(33)	30.3	30.3	6.1	9.1	9.1	3.0	3.0	0.0	3.0	0.0	0.0	6.1
	순창군	(34)	38.2	26.5	11.8	0.0	2.9	0.0	0.0	0.0	2.9	0.0	0.0	17.6
	진안군	(33)	15.2	18.2	18.2	21.2	9.1	0.0	3.0	0.0	0.0	0.0	0.0	15.2
	무주군	(31)	48.4	6.5	16.1	6.5	9.7	3.2	3.2	0.0	0.0	0.0	0.0	6.5
	장수군	(36)	25.0	25.0	25.0	11.1	2.8	2.8	5.6	0.0	0.0	0.0	0.0	2.8
행정 구역	읍/면	(362)	27.6	21.0	14.1	9.7	6.6	3.3	4.4	1.7	0.6	0.6	0.0	10.5
	동	(243)	26.3	15.2	14.4	12.8	4.5	5.3	1.6	2.5	1.6	0.4	0.4	14.8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43.2	12.5	18.2	8.0	5.7	2.3	0.0	0.0	2.3	1.1	0.0	6.8
	5년~10년 미만	(149)	33.6	17.4	8.7	10.1	4.7	4.7	2.7	4.7	0.7	0.7	0.0	12.1
	10년~20년 미만	(289)	22.8	20.4	14.9	11.4	6.2	4.2	3.8	1.4	1.0	0.3	0.0	13.5
	20년 이상	(79)	12.7	21.5	17.7	13.9	6.3	5.1	6.3	1.3	0.0	0.0	1.3	13.9

② 차별 경험

전체 응답자의 22.3%가 전북에서 차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여성(22.7%)이 남성(17.8%)보다 차별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차별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정읍시(37.2%)인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진안군(9.1%)으로 나타났다. 거주 기간별로 살펴보면,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의 차별 경험이 15.2%로, 다른 거주 기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87 차별 경험

(단위: N, %)

		사례수	차별경험 있음	차별경험 없음
전체		(605)	22.3	77.7
성별	여성	(560)	22.7	77.3
	남성	(45)	17.8	82.2
거주 시군	전주시	(81)	21.0	79.0
	익산시	(60)	36.7	63.3
	군산시	(58)	17.2	82.8
	정읍시	(43)	37.2	62.8
	김제시	(42)	9.5	90.5
	남원시	(40)	15.0	85.0
	완주군	(42)	16.7	83.3
	고창군	(37)	24.3	75.7
	부안군	(35)	28.6	71.4
	임실군	(33)	33.3	66.7
	순창군	(34)	20.6	79.4
	진안군	(33)	9.1	90.9
	무주군	(31)	25.8	74.2
	장수군	(36)	13.9	86.1
행정 구역	읍/면	(362)	22.4	77.6
	동	(243)	22.2	77.8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22.7	77.3
	5년~10년 미만	(149)	21.5	78.5
	10년~20년 미만	(289)	24.6	75.4
	20년 이상	(79)	15.2	84.8

③ 차별받은 장소

전북에서 차별 경험이 있는 응답자(n=135)를 대상으로 차별 경험을 받은 장소를 조사한 결과, ‘일반 상업시설’이 4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직장’(39.3%), ‘거리나 동네’(22.2%), ‘공공기관’(15.6%), ‘학교·보육시설’(12.6%), ‘집안 내’(7.4%)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 읍·면 지역에서는 일반 상업시설(49.4%)에서의 차별 경험이 가장 많았고, 동 지역에서는 직장(46.3%)에서의 차별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Ⅲ-88 차별받은 장소

(단위: N, 중복응답 %)

		사례수	일반상업 시설	직장	거리나 동네	공공 기관	학교 보육시설	집안 내	기타
전체		(135)	45.2	39.3	22.2	15.6	12.6	7.4	2.2
성별	여성	(127)	44.9	40.2	22.8	15.0	12.6	7.9	2.4
	남성	(8)	50.0	25.0	12.5	25.0	12.5	0.0	0.0
거주 시군	전주시	(17)	47.1	47.1	11.8	0.0	0.0	11.8	5.9
	익산시	(22)	27.3	31.8	9.1	27.3	13.6	9.1	4.5
	군산시	(10)	70.0	50.0	30.0	10.0	10.0	10.0	0.0
	정읍시	(16)	43.8	37.5	25.0	25.0	18.8	6.3	0.0
	김제시	(4)	50.0	50.0	0.0	0.0	0.0	25.0	0.0
	남원시	(6)	66.7	16.7	0.0	16.7	16.7	0.0	0.0
	완주군	(7)	57.1	14.3	57.1	42.9	28.6	0.0	0.0
	고창군	(9)	77.8	22.2	22.2	11.1	22.2	0.0	0.0
	부안군	(10)	40.0	40.0	30.0	10.0	10.0	10.0	0.0
	임실군	(11)	18.2	72.7	9.1	9.1	9.1	0.0	0.0
	순창군	(7)	28.6	42.9	42.9	14.3	0.0	0.0	14.3
	진안군	(3)	66.7	33.3	33.3	0.0	0.0	0.0	0.0
	무주군	(8)	37.5	50.0	25.0	12.5	12.5	0.0	0.0
	장수군	(5)	60.0	20.0	60.0	20.0	40.0	40.0	0.0
행정 구역	읍·면	(81)	49.4	34.6	25.9	18.5	13.6	4.9	1.2
	동	(54)	38.9	46.3	16.7	11.1	11.1	11.1	3.7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20)	65.0	30.0	15.0	10.0	15.0	5.0	0.0
	5년~10년 미만	(32)	40.6	43.8	28.1	15.6	9.4	12.5	3.1
	10년~20년 미만	(71)	39.4	39.4	22.5	14.1	14.1	7.0	2.8
	20년 이상	(12)	58.3	41.7	16.7	33.3	8.3	0.0	0.0

④ 차별시 대처방안

차별시 대처방안은 ‘참았다’가 7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 친구와 상의하였다’(30.4%), ‘상담기관, 센터 등에 문의하였다’(8.9%),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다’(5.9%) 등 순으로 나타났다. 대처 방안별 응답 비율을 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 ‘참았다’는 동 지역(75.9%)에서 읍·면 지역(66.7%)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반대로 ‘가족, 친구와 상의하였다’는 읍·면 지역(34.6%)이 동 지역(24.1%)보다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III-89 차별시 대처방안

(단위: N, 중복응답 %)

		사례수	참았다	가족, 친구와 상의하였다	상담기관, 센터 등에 문의하였다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다	인터넷 게시판 카페, SNS 등에 글을 올렸다	차별시정 관련 기관에 신고하였다
	전체	(135)	70.4	30.4	8.9	5.9	3.7	1.5
성별	여성	(127)	69.3	30.7	9.4	6.3	3.9	1.6
	남성	(8)	87.5	25.0	0.0	0.0	0.0	0.0
거주 시군	전주시	(17)	76.5	23.5	5.9	11.8	0.0	0.0
	익산시	(22)	72.7	13.6	9.1	4.5	0.0	0.0
	군산시	(10)	80.0	20.0	10.0	0.0	0.0	0.0
	정읍시	(16)	56.3	37.5	6.3	18.8	0.0	6.3
	김제시	(4)	75.0	50.0	25.0	0.0	0.0	0.0
	남원시	(6)	66.7	33.3	16.7	0.0	0.0	0.0
	완주군	(7)	57.1	57.1	0.0	14.3	14.3	0.0
	고창군	(9)	77.8	33.3	0.0	0.0	11.1	0.0
	부안군	(10)	80.0	40.0	10.0	10.0	0.0	0.0
	임실군	(11)	81.8	18.2	0.0	0.0	9.1	0.0
	순창군	(7)	100.0	28.6	0.0	0.0	0.0	0.0
	진안군	(3)	66.7	66.7	0.0	0.0	0.0	0.0
행정 구역	읍/면	(81)	66.7	34.6	9.9	4.9	6.2	1.2
	동	(54)	75.9	24.1	7.4	7.4	0.0	1.9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20)	60.0	35.0	10.0	5.0	10.0	0.0
	5년~10년 미만	(32)	78.1	34.4	6.3	3.1	3.1	0.0
	10년~20년 미만	(71)	67.6	29.6	9.9	7.0	2.8	1.4
	20년 이상	(12)	83.3	16.7	8.3	8.3	0.0	8.3

⑤ 자원서비스 인식 및 필요도

가) 센터교육

전체 응답자의 100.0%가 ‘센터 교육’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 중 39.2%는 최근 1년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해당 서비스의 필요도는 5점척도 기준 평균 4.32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최근 1년간 이용 경험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주시(63.0%)였으며, 서비스 필요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장수군(4.61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필요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군산시로, 평균 3.9점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90】자원서비스 인식 및 필요도: 센터 교육

(단위: N, %, 5점척도 평균)

		사례수	모른다	안다			필요도 (5점척도)
				한 번도 이용한적 없음	이용한 적 있지만 최근에는 없음	최근1년간 이용한 적 있음	
전체		(605)	0.0	19.2	41.7	39.2	4.32
성별	여성	(560)	0.0	17.3	43.0	39.6	4.33
	남성	(45)	0.0	42.2	24.4	33.3	4.18
거주 시군	전주시	(81)	0.0	12.3	24.7	63.0	4.49
	익산시	(60)	0.0	15.0	55.0	30.0	4.17
	군산시	(58)	0.0	50.0	15.5	34.5	3.90
	정읍시	(43)	0.0	20.9	39.5	39.5	4.56
	김제시	(42)	0.0	31.0	50.0	19.0	4.36
	남원시	(40)	0.0	15.0	55.0	30.0	4.40
	완주군	(42)	0.0	26.2	47.6	26.2	4.21
	고창군	(37)	0.0	8.1	64.9	27.0	4.49
	부안군	(35)	0.0	14.3	54.3	31.4	4.34
	임실군	(33)	0.0	12.1	42.4	45.5	4.21
	순창군	(34)	0.0	14.7	50.0	35.3	4.03
	진안군	(33)	0.0	12.1	48.5	39.4	4.33
	무주군	(31)	0.0	12.9	32.3	54.8	4.48
	장수군	(36)	0.0	11.1	27.8	61.1	4.61
행정 구역	읍/면	(362)	0.0	14.6	47.0	38.4	4.36
	동	(243)	0.0	25.9	33.7	40.3	4.26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0.0	15.9	20.5	63.6	4.43
	5년~10년 미만	(149)	0.0	13.4	30.9	55.7	4.49
	10년~20년 미만	(289)	0.0	18.7	51.2	30.1	4.34
	20년 이상	(79)	0.0	35.4	50.6	13.9	3.81

나) 가정방문교육

전체 응답자의 90.6%가 '가정방문 교육'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그 중 19.8%는 최근 1년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해당 서비스의 필요도(5점척도)는 평균 4.14점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이용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고창군(43.2%)이며, 필요도가 가장 높은 곳은 장수군(4.47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읍/면 지역에서는 최근 1년간 이용한 비율이 24.6%로 더 높았으며, 서비스 필요도 역시 읍/면 지역(4.25점)에서 동 지역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Ⅲ-91 | 자원서비스 인식 및 필요도: 가정 방문 교육

(단위: N, %, 5점척도 평균)

		사례수	모른다	안다			필요도 (5점척도)
				한 번도 이용한적 없음	이용한 적 있지만 최근에는 없음	최근1년간 이용한 적 있음	
전체		(605)	9.4	29.9	40.8	19.8	4.14
성별	여성	(560)	7.7	29.1	42.7	20.5	4.16
	남성	(45)	31.1	40.0	17.8	11.1	3.93
거주 시군	전주시	(81)	9.9	45.7	27.2	17.3	4.10
	익산시	(60)	6.7	35.0	46.7	11.7	3.93
	군산시	(58)	31.0	50.0	10.3	8.6	3.71
	정읍시	(43)	7.0	32.6	46.5	14.0	4.37
	김제시	(42)	2.4	23.8	50.0	23.8	4.31
	남원시	(40)	7.5	30.0	45.0	17.5	4.40
	완주군	(42)	9.5	28.6	52.4	9.5	3.95
	고창군	(37)	2.7	10.8	43.2	43.2	4.43
	부안군	(35)	17.1	17.1	51.4	14.3	4.26
	임실군	(33)	3.0	24.2	51.5	21.2	4.09
	순창군	(34)	11.8	11.8	41.2	35.3	4.00
	진안군	(33)	3.0	27.3	54.5	15.2	4.06
	무주군	(31)	3.2	12.9	48.4	35.5	4.29
	장수군	(36)	5.6	30.6	33.3	30.6	4.47
행정 구역	읍/면	(362)	6.4	22.4	46.7	24.6	4.25
	동	(243)	14.0	41.2	32.1	12.8	3.99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14.8	46.6	19.3	19.3	4.08
	5년~10년 미만	(149)	10.1	24.8	34.2	30.9	4.24
	10년~20년 미만	(289)	9.0	22.1	51.2	17.6	4.22
	20년 이상	(79)	3.8	49.4	39.2	7.6	3.75

다) 통·번역 지원

전체 응답자의 89.6%가 ‘통·번역 지원’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그 중 24.8%는 최근 1년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해당 서비스의 필요도(5점척도)는 평균 4.09점으로 나타났으며 여성(25.5%)이 남성(15.6%)에 비해 최근 1년간 이용한 경험이 높고, 필요도 또한 여성(4.11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이용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장수군(58.3%)이며, 필요도가 가장 높은 곳은 남원시(4.43점)로 나타났다.

【표 III-92】지원서비스 인식 및 필요도: 통·번역 지원

(단위: N, %, 5점척도 평균)

		사례수	모른다	안다			필요도 (5점척도)
				한 번도 이용한적 없음	이용한 적 있지만 최근에는 없음	최근1년간 이용한 적 있음	
전체		(605)	10.4	38.0	26.8	24.8	4.09
성별	여성	(560)	9.1	37.7	27.7	25.5	4.11
	남성	(45)	26.7	42.2	15.6	15.6	3.91
거주 시군	전주시	(81)	11.1	40.7	19.8	28.4	4.20
	익산시	(60)	6.7	40.0	38.3	15.0	3.95
	군산시	(58)	25.9	43.1	10.3	20.7	3.67
	정읍시	(43)	7.0	46.5	18.6	27.9	4.26
	김제시	(42)	14.3	45.2	33.3	7.1	4.10
	남원시	(40)	7.5	25.0	30.0	37.5	4.43
	완주군	(42)	14.3	57.1	11.9	16.7	3.98
	고창군	(37)	2.7	40.5	40.5	16.2	4.32
	부안군	(35)	20.0	11.4	45.7	22.9	4.23
	임실군	(33)	6.1	39.4	27.3	27.3	4.00
	순창군	(34)	11.8	44.1	23.5	20.6	3.91
	진안군	(33)	3.0	33.3	36.4	27.3	3.91
	무주군	(31)	3.2	25.8	41.9	29.0	4.16
	장수군	(36)	2.8	25.0	13.9	58.3	4.31
행정 구역	읍/면	(362)	8.8	35.1	29.0	27.1	4.12
	동	(243)	12.8	42.4	23.5	21.4	4.05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15.9	35.2	17.0	31.8	4.08
	5년~10년 미만	(149)	10.7	37.6	24.2	27.5	4.13
	10년~20년 미만	(289)	9.7	34.6	32.9	22.8	4.16
	20년 이상	(79)	6.3	54.4	20.3	19.0	3.80

라) 가족상담

전체 응답자의 85.3%가 '가족 상담'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그중 15.2%는 최근 1년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해당 서비스의 필요도(5점척도)는 평균 4.00점으로 나타났으며 여성(16.1%)이 남성(4.4%)에 비해 최근 1년간 이용한 경험이 높으며, 필요도 또한 여성(4.01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이용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무주군(45.2%)이며, 필요도가 가장 높은 곳은 남원시(4.35점)로 나타났다.

표 Ⅲ-93 자원서비스 인식 및 필요도: 가족 상담

(단위: N, %, 5점척도 평균)

		사례수	모른다	안다			필요도 (5점척도)
				한 번도 이용한적 없음	이용한 적 있지만 최근에는 없음	최근1년간 이용한 적 있음	
전체		(605)	14.7	45.0	25.1	15.2	4.00
성별	여성	(560)	13.2	45.0	25.7	16.1	4.01
	남성	(45)	33.3	44.4	17.8	4.4	3.87
거주 시군	전주시	(81)	18.5	51.9	23.5	6.2	3.95
	익산시	(60)	5.0	61.7	23.3	10.0	3.83
	군산시	(58)	34.5	50.0	6.9	8.6	3.52
	정읍시	(43)	11.6	48.8	20.9	18.6	4.12
	김제시	(42)	16.7	45.2	31.0	7.1	4.33
	남원시	(40)	7.5	40.0	30.0	22.5	4.35
	완주군	(42)	14.3	59.5	21.4	4.8	3.74
	고창군	(37)	8.1	45.9	35.1	10.8	4.24
	부안군	(35)	22.9	22.9	40.0	14.3	4.00
	임실군	(33)	12.1	51.5	21.2	15.2	4.15
	순창군	(34)	17.6	29.4	26.5	26.5	3.97
	진안군	(33)	15.2	30.3	21.2	33.3	3.79
	무주군	(31)	0.0	25.8	29.0	45.2	4.06
	장수군	(36)	11.1	36.1	36.1	16.7	4.31
행정 구역	읍/면	(362)	12.7	40.1	27.6	19.6	4.07
	동	(243)	17.7	52.3	21.4	8.6	3.89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27.3	46.6	10.2	15.9	3.93
	5년~10년 미만	(149)	14.1	46.3	18.8	20.8	4.09
	10년~20년 미만	(289)	13.1	39.4	33.2	14.2	4.03
	20년 이상	(79)	7.6	60.8	24.1	7.6	3.77

마) 위기 사례 지원

전체 응답자의 80.0%가 ‘위기 사례 지원’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그중 8.9%는 최근 1년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해당 서비스의 필요도(5점척도)는 평균 4.00점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년간 이용한 적이 있다는 비율이 높은 곳은 순창군(26.5%)으로 나타났다. 필요도가 높은 지역은 김제시(4.33점)와 남원시(4.33점)였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군산시(3.57점)로 나타났다.

표 Ⅲ-94 Ⅰ 지원서비스 인식 및 필요도: 위기 사례 지원

(단위: N, %, 5점척도 평균)

		사례수	모른다	안다			필요도 (5점척도)
				한 번도 이용한적 없음	이용한 적 있지만 최근에는 없음	최근1년간 이용한 적 있음	
전체		(605)	20.0	53.9	17.2	8.9	4.00
성별	여성	(560)	18.8	54.6	17.5	9.1	4.00
	남성	(45)	35.6	44.4	13.3	6.7	3.91
거주 시군	전주시	(81)	18.5	60.5	12.3	8.6	3.93
	익산시	(60)	16.7	58.3	20.0	5.0	3.88
	군산시	(58)	39.7	51.7	3.4	5.2	3.57
	정읍시	(43)	20.9	51.2	16.3	11.6	4.14
	김제시	(42)	16.7	42.9	31.0	9.5	4.33
	남원시	(40)	22.5	50.0	17.5	10.0	4.33
	완주군	(42)	16.7	66.7	14.3	2.4	3.88
	고창군	(37)	16.2	70.3	2.7	10.8	4.14
	부안군	(35)	20.0	48.6	20.0	11.4	4.03
	임실군	(33)	21.2	51.5	21.2	6.1	4.15
	순창군	(34)	23.5	41.2	8.8	26.5	3.94
	진안군	(33)	6.1	48.5	36.4	9.1	3.94
	무주군	(31)	3.2	67.7	19.4	9.7	3.87
	장수군	(36)	27.8	36.1	30.6	5.6	4.14
행정 구역	읍/면	(362)	18.5	53.3	18.0	10.2	4.05
	동	(243)	22.2	54.7	16.0	7.0	3.91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28.4	52.3	10.2	9.1	3.85
	5년~10년 미만	(149)	21.5	59.1	10.1	9.4	4.06
	10년~20년 미만	(289)	19.4	48.1	23.5	9.0	4.09
	20년 이상	(79)	10.1	67.1	15.2	7.6	3.70

바) 사회 활동 지원

전체 응답자의 83.8%가 '사회 활동 지원'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그중 20.0%는 최근 1년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해당 서비스의 필요도는 5점척도 기준 평균 3.94점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이용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임실군 (39.4%)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전주시(7.1%)로 조사되었다. 필요도는 읍/면 지역이 평균 4.01점으로 동 지역의 3.84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Ⅲ-95 Ⅰ 지원서비스 인식 및 필요도: 사회 활동 지원

(단위: N, %, 5점척도 평균)

		사례수	모른다	안다			필요도 (5점척도)
				한 번도 이용한적 없음	이용한 적 있지만 최근에는 없음	최근1년간 이용한 적 있음	
전체		(605)	16.2	39.7	24.1	20.0	3.94
성별	여성	(560)	15.0	39.5	24.6	20.9	3.96
	남성	(45)	31.1	42.2	17.8	8.9	3.76
거주 시군	전주시	(81)	19.8	45.7	24.7	9.9	3.80
	익산시	(60)	5.0	43.3	36.7	15.0	3.82
	군산시	(58)	31.0	41.4	8.6	19.0	3.50
	정읍시	(43)	20.9	41.9	25.6	11.6	3.88
	김제시	(42)	16.7	47.6	28.6	7.1	4.31
	남원시	(40)	12.5	37.5	20.0	30.0	4.35
	완주군	(42)	16.7	52.4	19.0	11.9	3.95
	고창군	(37)	5.4	45.9	27.0	21.6	4.08
	부안군	(35)	20.0	20.0	40.0	20.0	4.14
	임실군	(33)	9.1	39.4	12.1	39.4	4.00
	순창군	(34)	20.6	26.5	14.7	38.2	3.88
	진안군	(33)	12.1	33.3	30.3	24.2	3.88
	무주군	(31)	9.7	29.0	32.3	29.0	3.97
	장수군	(36)	19.4	33.3	19.4	27.8	4.03
행정 구역	읍/면	(362)	14.9	36.7	25.1	23.2	4.01
	동	(243)	18.1	44.0	22.6	15.2	3.84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22.7	42.0	12.5	22.7	3.83
	5년~10년 미만	(149)	18.1	45.0	18.1	18.8	3.95
	10년~20년 미만	(289)	14.9	34.6	31.1	19.4	4.03
	20년 이상	(79)	10.1	45.6	22.8	21.5	3.72

사) 아이 돌봄 지원

전체 응답자의 80.2%가 ‘아이 돌봄 지원’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그중 최근 1년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8.1%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서비스의 필요도(5점척도)는 평균 3.94점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년간 이용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순창군(29.4%)이고, 필요도가 가장 높은 곳은 김제시(4.26점)로 나타났다. 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 보면 최근 1년간 이용한 응답자 비율은 읍/면 지역(10.2%)이 동 지역보다 더 높으며, 서비스 필요도 또한 읍/면 지역(4.01점)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Ⅲ-96 | 자원서비스 인식 및 필요도: 아이 돌봄 지원

(단위: N, %, 5점척도 평균)

		사례수	모른다	안다			필요도 (5점척도)
				한 번도 이용한적 없음	이용한 적 있지만 최근에는 없음	최근1년간 이용한 적 있음	
전체		(605)	19.8	55.0	17.0	8.1	3.94
성별	여성	(560)	18.6	56.1	17.1	8.2	3.94
	남성	(45)	35.6	42.2	15.6	6.7	3.91
거주 시군	전주시	(81)	21.0	51.9	19.8	7.4	3.80
	익산시	(60)	15.0	65.0	16.7	3.3	3.87
	군산시	(58)	32.8	56.9	1.7	8.6	3.47
	정읍시	(43)	30.2	46.5	18.6	4.7	4.02
	김제시	(42)	23.8	50.0	19.0	7.1	4.26
	남원시	(40)	15.0	62.5	15.0	7.5	4.23
	완주군	(42)	16.7	69.0	11.9	2.4	3.88
	고창군	(37)	16.2	62.2	16.2	5.4	3.97
	부안군	(35)	25.7	48.6	14.3	11.4	4.00
	임실군	(33)	15.2	63.6	9.1	12.1	4.00
	순창군	(34)	14.7	38.2	17.6	29.4	4.00
	진안군	(33)	18.2	42.4	39.4	0.0	3.94
	무주군	(31)	6.5	54.8	35.5	3.2	3.81
	장수군	(36)	16.7	52.8	13.9	16.7	4.25
행정 구역	읍/면	(362)	17.7	54.1	18.0	10.2	4.01
	동	(243)	23.0	56.4	15.6	4.9	3.82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28.4	53.4	10.2	8.0	3.91
	5년~10년 미만	(149)	18.8	57.7	12.1	11.4	4.01
	10년~20년 미만	(289)	18.7	52.6	22.1	6.6	4.01
	20년 이상	(79)	16.5	60.8	15.2	7.6	3.57

아) 주거 지원

전체 응답자의 68.9%가 ‘주거 지원’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그중 6.0%는 최근 1년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알지만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는 55.0%로 나타났으며 해당 서비스의 필요도(5점척도)는 평균 3.95점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순창군(20.6%)이며 필요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김제시(4.38점)로 나타났다.

【표 III-97】 자원서비스 인식 및 필요도: 주거 지원

(단위: N, %, 5점척도 평균)

		사례수	모른다	안다			필요도 (5점척도)
				한 번도 이용한적 없음	이용한 적 있지만 최근에는 없음	최근1년간 이용한 적 있음	
전체		(605)	31.1	55.0	7.9	6.0	3.95
성별	여성	(560)	30.2	56.4	7.7	5.7	3.96
	남성	(45)	42.2	37.8	11.1	8.9	3.89
거주 시군	전주시	(81)	33.3	48.1	11.1	7.4	3.95
	익산시	(60)	20.0	63.3	15.0	1.7	3.90
	군산시	(58)	41.4	51.7	1.7	5.2	3.55
	정읍시	(43)	27.9	53.5	2.3	16.3	4.19
	김제시	(42)	31.0	47.6	14.3	7.1	4.38
	남원시	(40)	27.5	62.5	7.5	2.5	4.20
	완주군	(42)	23.8	71.4	4.8	0.0	3.86
	고창군	(37)	24.3	67.6	5.4	2.7	3.92
	부안군	(35)	28.6	54.3	5.7	11.4	4.14
	임실군	(33)	39.4	48.5	3.0	9.1	3.67
	순창군	(34)	32.4	44.1	2.9	20.6	4.21
	진안군	(33)	45.5	45.5	9.1	0.0	3.88
	무주군	(31)	25.8	67.7	6.5	0.0	3.52
	장수군	(36)	36.1	47.2	16.7	0.0	4.06
행정 구역	읍/면	(362)	31.5	56.4	6.6	5.5	3.98
	동	(243)	30.5	53.1	9.9	6.6	3.91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37.5	50.0	5.7	6.8	3.93
	5년~10년 미만	(149)	28.9	63.1	2.7	5.4	3.93
	10년~20년 미만	(289)	31.1	51.2	11.8	5.9	4.03
	20년 이상	(79)	27.8	59.5	6.3	6.3	3.71

자) 다문화 인식 개선

전체 응답자의 83.5%가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특히 고창군은 100%가 해당 사업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25.3%는 최근 1년간 이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해당 서비스의 필요도(5점척도)는 평균 4.06점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이용 경험이 가장 높은 지역은 진안군(51.5%)이었으며, 필요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남원시(4.40점)로 나타났다.

■ 표 Ⅲ-98 ■ 자원서비스 인식 및 필요도: 다문화 인식 개선

(단위: N, %, 5점척도 평균)

		사례수	모른다	안다			필요도 (5점척도)
				한 번도 이용한적 없음	이용한 적 있지만 최근에는 없음	최근1년간 이용한 적 있음	
전체		(605)	16.5	27.4	30.7	25.3	4.06
성별	여성	(560)	15.2	27.1	32.1	25.5	4.08
	남성	(45)	33.3	31.1	13.3	22.2	3.82
거주 시군	전주시	(81)	19.8	37.0	23.5	19.8	4.10
	익산시	(60)	10.0	35.0	36.7	18.3	3.93
	군산시	(58)	37.9	34.5	10.3	17.2	3.50
	정읍시	(43)	16.3	16.3	44.2	23.3	4.26
	김제시	(42)	14.3	38.1	42.9	4.8	4.29
	남원시	(40)	17.5	32.5	30.0	20.0	4.40
	완주군	(42)	16.7	38.1	28.6	16.7	4.07
	고창군	(37)	0.0	18.9	35.1	45.9	4.30
	부안군	(35)	28.6	22.9	34.3	14.3	3.97
	임실군	(33)	15.2	33.3	24.2	27.3	3.76
	순창군	(34)	17.6	14.7	20.6	47.1	4.06
	진안군	(33)	9.1	18.2	21.2	51.5	4.09
	무주군	(31)	6.5	6.5	51.6	35.5	4.16
	장수군	(36)	8.3	11.1	41.7	38.9	4.17
행정 구역	읍/면	(362)	14.1	21.8	32.3	31.8	4.11
	동	(243)	20.2	35.8	28.4	15.6	3.98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23.9	38.6	8.0	29.5	3.97
	5년~10년 미만	(149)	20.1	29.5	22.1	28.2	4.13
	10년~20년 미만	(289)	14.5	21.1	40.5	23.9	4.10
	20년 이상	(79)	8.9	34.2	36.7	20.3	3.86

차) 자립지원

전체 응답자의 76.2%가 ‘자립지원’ 서비스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 중 8.1%는 최근 1년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는 응답자는 53.7%로 나타났다. 서비스 필요도(5점척도)는 평균 4.05점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년간 이용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순창군 (20.6%)이었다. 필요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남원시로, 평균 4.45점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99】자원서비스 인식 및 필요도: 자립 지원

(단위: N, %, 5점척도 평균)

		사례수	모른다	안다			필요도 (5점척도)
				한 번도 이용한적 없음	이용한 적 있지만 최근에는 없음	최근1년간 이용한 적 있음	
전체		(605)	23.8	53.7	14.4	8.1	4.05
성별	여성	(560)	22.3	55.0	14.8	7.9	4.07
	남성	(45)	42.2	37.8	8.9	11.1	3.84
거주 시군	전주시	(81)	25.9	59.3	8.6	6.2	4.11
	익산시	(60)	15.0	53.3	23.3	8.3	4.00
	군산시	(58)	41.4	51.7	3.4	3.4	3.50
	정읍시	(43)	25.6	51.2	14.0	9.3	4.19
	김제시	(42)	16.7	57.1	19.0	7.1	4.31
	남원시	(40)	20.0	57.5	12.5	10.0	4.45
	완주군	(42)	19.0	59.5	9.5	11.9	4.00
	고창군	(37)	16.2	56.8	10.8	16.2	4.03
	부안군	(35)	34.3	40.0	22.9	2.9	4.11
	임실군	(33)	21.2	54.5	18.2	6.1	4.00
	순창군	(34)	26.5	41.2	11.8	20.6	3.91
	진안군	(33)	30.3	48.5	18.2	3.0	4.12
	무주군	(31)	12.9	61.3	19.4	6.5	3.94
	장수군	(36)	22.2	52.8	19.4	5.6	4.19
행정 구역	읍/면	(362)	22.4	51.9	15.5	10.2	4.06
	동	(243)	25.9	56.4	12.8	4.9	4.03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33.0	56.8	5.7	4.5	3.88
	5년~10년 미만	(149)	26.2	61.7	4.7	7.4	3.99
	10년~20년 미만	(289)	22.5	46.7	20.8	10.0	4.20
	20년 이상	(79)	13.9	60.8	19.0	6.3	3.81

카) 국적 취득 비용 지원

전체 응답자의 76.4%가 ‘국적취득 비용 지원’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그중 6.3%는 최근 1년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해당 서비스의 필요도(5점척도)는 평균 4.06점으로 나타났으며 여성(4.08점)이 남성(3.87점)보다 필요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이용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순창군(17.6%)이며, 필요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정읍시(4.49점)로 나타났다.

표 Ⅲ-100 | 지원서비스 인식 및 필요도: 국적취득 비용 지원

(단위: N, %, 5점척도 평균)

		사례수	모른다	안다			필요도 (5점척도)
				한 번도 이용한적 없음	이용한 적 있지만 최근에는 없음	최근1년간 이용한 적 있음	
전체		(605)	23.6	58.8	11.2	6.3	4.06
성별	여성	(560)	22.5	60.0	11.1	6.4	4.08
	남성	(45)	37.8	44.4	13.3	4.4	3.87
거주 시군	전주시	(81)	22.2	63.0	9.9	4.9	4.10
	익산시	(60)	20.0	56.7	16.7	6.7	4.08
	군산시	(58)	39.7	56.9	0.0	3.4	3.50
	정읍시	(43)	27.9	55.8	11.6	4.7	4.49
	김제시	(42)	19.0	57.1	16.7	7.1	4.12
	남원시	(40)	12.5	65.0	12.5	10.0	4.35
	완주군	(42)	26.2	59.5	9.5	4.8	3.93
	고창군	(37)	21.6	64.9	5.4	8.1	4.03
	부안군	(35)	31.4	57.1	5.7	5.7	4.06
	임실군	(33)	18.2	60.6	12.1	9.1	3.88
	순창군	(34)	23.5	47.1	11.8	17.6	3.97
	진안군	(33)	39.4	45.5	15.2	0.0	4.03
	무주군	(31)	12.9	61.3	16.1	9.7	4.13
	장수군	(36)	11.1	69.4	19.4	0.0	4.33
행정 구역	읍/면	(362)	22.9	59.1	10.2	7.7	4.09
	동	(243)	24.7	58.4	12.8	4.1	4.01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31.8	53.4	8.0	6.8	4.03
	5년~10년 미만	(149)	20.8	59.1	10.1	10.1	4.28
	10년~20년 미만	(289)	24.6	57.4	13.5	4.5	4.06
	20년 이상	(79)	16.5	69.6	8.9	5.1	3.67

타) 고향방문 지원

전체 응답자의 85.1%가 ‘고향방문 지원’ 서비스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 중 13.4%는 최근 1년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서비스 필요도는 5점척도 기준 평균 4.32점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최근 1년간 이용한 경험(14.1%)이 남성(4.4%)보다 높았으며, 서비스 필요도 역시 여성(4.35점)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순창군에서 최근 1년간 이용한 응답자 비율이 38.2%로 가장 높았고, 필요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장수군으로 평균 4.72점이었다.

표 Ⅲ-101 자원서비스 인식 및 필요도: 고향방문 지원

(단위: N, %, 5점척도 평균)

		사례수	모른다	안다			필요도 (5점척도)
				한 번도 이용한적 없음	이용한 적 있지만 최근에는 없음	최근1년간 이용한 적 있음	
전체		(605)	14.9	51.1	20.7	13.4	4.32
성별	여성	(560)	13.4	50.9	21.6	14.1	4.35
	남성	(45)	33.3	53.3	8.9	4.4	3.93
거주 시군	전주시	(81)	17.3	64.2	16.0	2.5	4.33
	익산시	(60)	13.3	50.0	23.3	13.3	4.17
	군산시	(58)	39.7	51.7	5.2	3.4	3.66
	정읍시	(43)	11.6	53.5	16.3	18.6	4.44
	김제시	(42)	16.7	57.1	21.4	4.8	4.29
	남원시	(40)	2.5	62.5	15.0	20.0	4.58
	완주군	(42)	19.0	59.5	21.4	0.0	4.21
	고창군	(37)	8.1	83.8	5.4	2.7	4.22
	부안군	(35)	22.9	37.1	25.7	14.3	4.37
	임실군	(33)	6.1	45.5	21.2	27.3	4.36
	순창군	(34)	17.6	20.6	23.5	38.2	4.47
	진안군	(33)	6.1	36.4	51.5	6.1	4.58
	무주군	(31)	6.5	38.7	22.6	32.3	4.55
	장수군	(36)	2.8	27.8	38.9	30.6	4.72
행정 구역	읍/면	(362)	12.2	45.9	23.8	18.2	4.40
	동	(243)	18.9	58.8	16.0	6.2	4.19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27.3	62.5	4.5	5.7	4.05
	5년~10년 미만	(149)	13.4	59.7	10.1	16.8	4.40
	10년~20년 미만	(289)	13.8	43.9	28.7	13.5	4.40
	20년 이상	(79)	7.6	48.1	29.1	15.2	4.15

파) 이중언어 학습지원

전체 응답자의 82.6%가 ‘이중언어 학습 지원’ 서비스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 중 17.4%는 최근 1년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서비스 필요도(5점척도)는 4.11점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이용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순창군(35.3%)이었으며, 필요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남원시(4.48점)로 나타났다. 행정 구역별로 보면, 읍·면 지역에서 최근 1년간 이용한 응답자 비율이 21.0%로 더 높았고, 서비스 필요도 역시 읍·면 지역이 4.15점으로 동 지역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Ⅲ-102 | 지원서비스 인식 및 필요도: 이중언어 학습 지원

(단위: N, %, 5점척도 평균)

		사례수	모른다	안다			필요도 (5점척도)
				한 번도 이용한적 없음	이용한 적 있지만 최근에는 없음	최근1년간 이용한 적 있음	
전체		(605)	17.4	45.5	19.8	17.4	4.11
성별	여성	(560)	15.7	46.6	20.2	17.5	4.13
	남성	(45)	37.8	31.1	15.6	15.6	3.87
거주 시군	전주시	(81)	16.0	50.6	17.3	16.0	4.20
	익산시	(60)	15.0	41.7	31.7	11.7	4.05
	군산시	(58)	36.2	48.3	6.9	8.6	3.45
	정읍시	(43)	16.3	51.2	18.6	14.0	4.28
	김제시	(42)	19.0	50.0	21.4	9.5	4.14
	남원시	(40)	7.5	67.5	10.0	15.0	4.48
	완주군	(42)	21.4	50.0	14.3	14.3	4.14
	고창군	(37)	10.8	51.4	29.7	8.1	4.08
	부안군	(35)	20.0	25.7	28.6	25.7	4.11
	임실군	(33)	9.1	42.4	18.2	30.3	4.33
	순창군	(34)	20.6	29.4	14.7	35.3	4.03
	진안군	(33)	21.2	36.4	18.2	24.2	4.30
	무주군	(31)	16.1	32.3	35.5	16.1	3.90
	장수군	(36)	5.6	44.4	19.4	30.6	4.25
행정 구역	읍/면	(362)	16.3	41.2	21.5	21.0	4.15
	동	(243)	18.9	51.9	17.3	11.9	4.04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25.0	44.3	12.5	18.2	3.92
	5년~10년 미만	(149)	16.8	47.7	14.8	20.8	4.21
	10년~20년 미만	(289)	15.9	41.2	24.2	18.7	4.22
	20년 이상	(79)	15.2	58.2	21.5	5.1	3.71

하) 자녀 언어발달 지원

전체 응답자의 83.2%가 ‘자녀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 중 15.7%는 최근 1년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서비스 필요도는 5점척도 기준 평균 4.17점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이용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순창군(41.2%)이었으며, 필요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남원시로 평균 4.48점이었다.

■ 표 Ⅲ-103 ■ 지원서비스 인식 및 필요도: 자녀 언어발달 지원

(단위: N, %, 5점척도 평균)

		사례수	모른다	안다			필요도 (5점척도)
				한 번도 이용한적 없음	이용한 적 있지만 최근에는 없음	최근1년간 이용한 적 있음	
전체		(605)	16.8	48.8	18.7	15.7	4.17
성별	여성	(560)	15.4	49.8	19.1	15.7	4.18
	남성	(45)	35.6	35.6	13.3	15.6	4.00
거주 시군	전주시	(81)	17.3	50.6	12.3	19.8	4.19
	익산시	(60)	13.3	55.0	26.7	5.0	3.97
	군산시	(58)	34.5	53.4	5.2	6.9	3.60
	정읍시	(43)	16.3	48.8	23.3	11.6	4.42
	김제시	(42)	19.0	42.9	31.0	7.1	4.31
	남원시	(40)	10.0	65.0	12.5	12.5	4.48
	완주군	(42)	19.0	52.4	16.7	11.9	4.07
	고창군	(37)	5.4	51.4	24.3	18.9	4.41
	부안군	(35)	17.1	42.9	20.0	20.0	4.09
	임실군	(33)	15.2	51.5	21.2	12.1	4.33
	순창군	(34)	20.6	26.5	11.8	41.2	4.15
	진안군	(33)	15.2	42.4	24.2	18.2	4.33
	무주군	(31)	16.1	38.7	22.6	22.6	4.10
	장수군	(36)	8.3	47.2	19.4	25.0	4.31
행정 구역	읍/면	(362)	14.6	46.7	20.7	18.0	4.26
	동	(243)	20.2	51.9	15.6	12.3	4.03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26.1	53.4	9.1	11.4	4.01
	5년~10년 미만	(149)	16.1	47.7	10.7	25.5	4.30
	10년~20년 미만	(289)	15.2	43.3	27.3	14.2	4.25
	20년 이상	(79)	13.9	65.8	12.7	7.6	3.80

거)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전체 응답자의 70.9%가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5.0%는 최근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서비스의 필요도는 5점척도 기준 평균 3.94점으로 평가되었다. 최근 1년간 이용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안군(17.1%)으로 나타났으며, 필요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남원시(4.38점)로 나타났다.

【 표 III-104 】 자원서비스 인식 및 필요도: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단위: N, %, 5점척도 평균)

		사례수	모른다	안다			필요도 (5점척도)
				한 번도 이용한적 없음	이용한 적 있지만 최근에는 없음	최근1년간 이용한 적 있음	
전체		(605)	29.1	57.7	8.3	5.0	3.94
성별	여성	(560)	27.7	59.8	7.7	4.8	3.94
	남성	(45)	46.7	31.1	15.6	6.7	3.96
거주 시군	전주시	(81)	25.9	64.2	3.7	6.2	3.94
	익산시	(60)	30.0	55.0	11.7	3.3	3.72
	군산시	(58)	37.9	60.3	0.0	1.7	3.43
	정읍시	(43)	25.6	55.8	11.6	7.0	4.12
	김제시	(42)	21.4	54.8	16.7	7.1	4.21
	남원시	(40)	25.0	67.5	5.0	2.5	4.38
	완주군	(42)	23.8	64.3	11.9	0.0	3.93
	고창군	(37)	21.6	67.6	5.4	5.4	4.00
	부안군	(35)	34.3	42.9	5.7	17.1	4.00
	임실군	(33)	21.2	66.7	9.1	3.0	4.09
	순창군	(34)	41.2	50.0	2.9	5.9	3.91
	진안군	(33)	42.4	45.5	9.1	3.0	3.79
	무주군	(31)	29.0	54.8	9.7	6.5	3.68
	장수군	(36)	30.6	47.2	19.4	2.8	4.28
행정 구역	읍/면	(362)	29.8	55.8	9.1	5.2	3.98
	동	(243)	28.0	60.5	7.0	4.5	3.88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36.4	51.1	5.7	6.8	3.83
	5년~10년 미만	(149)	30.9	63.8	2.7	2.7	4.01
	10년~20년 미만	(289)	28.4	54.3	11.1	6.2	4.00
	20년 이상	(79)	20.3	65.8	11.4	2.5	3.72

(5) 경제활동

가. 근로

① 현재 근로 여부

전체 응답자의 58.7%가 현재 근로 중이며 여성(59.1%)이 남성(53.3%)보다 근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거주 시·군별로 보면 순창군(82.4%)의 근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가장 낮은 곳은 군산시(36.2%)로 나타났다. 또한 읍/면 지역(63.3%)이 동 지역(51.9%)보다 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북에서의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응답자의 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105 현재 근로 여부

(단위: N, %)

		사례수	근로 하지 않음	근로 중
전체		(605)	41.3	58.7
성별	여성	(560)	40.9	59.1
	남성	(45)	46.7	53.3
거주 시·군	전주시	(81)	58.0	42.0
	익산시	(60)	31.7	68.3
	군산시	(58)	63.8	36.2
	정읍시	(43)	41.9	58.1
	김제시	(42)	26.2	73.8
	남원시	(40)	40.0	60.0
	완주군	(42)	33.3	66.7
	고창군	(37)	35.1	64.9
	부안군	(35)	48.6	51.4
	임실군	(33)	24.2	75.8
	순창군	(34)	17.6	82.4
	진안군	(33)	39.4	60.6
	무주군	(31)	38.7	61.3
	장수군	(36)	52.8	47.2
행정 구역	읍/면	(362)	36.7	63.3
	동	(243)	48.1	51.9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70.5	29.5
	5년~10년 미만	(149)	49.7	50.3
	10년~20년 미만	(289)	30.8	69.2
	20년 이상	(79)	31.6	68.4

② 근로 이유

근로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자녀 교육비 충당’이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비 마련’(38.3%), ‘자기 발전을 위해’(10.4%), ‘미래(노후) 대비’(9.0%), ‘본국 가족에게 송금하기 위해’(2.5%)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41.7%)과 읍/면 지역(41.9%)에서는 ‘생활비 마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여성(39.9%)과 동 지역(39.7%)은 ‘자녀 교육비 충당’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Ⅲ-106 근로 이유

(단위: N, %)

		사례수	자녀 교육비 충당	생활비 마련	자기 발전을 위해	미래(노후) 대비	본국 가족에게 송금하기 위해
전체		(355)	39.7	38.3	10.4	9.0	2.5
성별	여성	(331)	39.9	38.1	10.9	8.8	2.4
	남성	(24)	37.5	41.7	4.2	12.5	4.2
거주 시군	전주시	(34)	41.2	20.6	20.6	14.7	2.9
	익산시	(41)	51.2	22.0	14.6	12.2	0.0
	군산시	(21)	9.5	38.1	9.5	28.6	14.3
	정읍시	(25)	48.0	40.0	12.0	0.0	0.0
	김제시	(31)	38.7	54.8	0.0	6.5	0.0
	남원시	(24)	37.5	37.5	20.8	4.2	0.0
	완주군	(28)	57.1	32.1	7.1	3.6	0.0
	고창군	(24)	33.3	45.8	4.2	16.7	0.0
	부안군	(18)	55.6	22.2	16.7	0.0	5.6
	임실군	(25)	24.0	48.0	12.0	12.0	4.0
	순창군	(28)	39.3	50.0	3.6	7.1	0.0
	진안군	(20)	45.0	40.0	10.0	0.0	5.0
	무주군	(19)	31.6	47.4	10.5	10.5	0.0
	장수군	(17)	29.4	52.9	0.0	5.9	11.8
행정 구역	읍/면	(229)	39.7	41.9	8.3	7.9	2.2
	동	(126)	39.7	31.7	14.3	11.1	3.2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26)	42.3	26.9	11.5	11.5	7.7
	5년~10년 미만	(75)	41.3	26.7	13.3	13.3	5.3
	10년~20년 미만	(200)	43.5	38.0	10.0	7.0	1.5
	20년 이상	(54)	22.2	61.1	7.4	9.3	0.0

③ 근로 어려움

근로시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 및 집안일과 병행’(23.7%)이었으며 ‘한국말로 대화하기 어려움’(22.0%), ‘임금이 낮음’(13.5%),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음’(7.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한국말로 대화하기 어려움’(37.5%)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양육 및 집안일 병행 어려움’(25.1%)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Ⅲ-107 근로 어려움

(단위: N, %)

		사례수	양육 및 집안 일과 병행 어려움	한국 말로 대화 하기 어려움	임금이 낮음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음	일이 힘들고 위험	직장 상사나 동료와 문제	외국 사람에 대한 차별	별로 어려움 없음
전체		(355)	23.7	22.0	13.5	7.9	5.9	4.5	2.5	20.0
성별	여성	(331)	25.1	20.8	14.2	8.2	5.4	4.2	2.7	19.3
	남성	(24)	4.2	37.5	4.2	4.2	12.5	8.3	0.0	29.2
거주 시군	전주시	(34)	20.6	29.4	8.8	5.9	2.9	0.0	5.9	26.5
	익산시	(41)	29.3	14.6	12.2	7.3	7.3	9.8	2.4	17.1
	군산시	(21)	14.3	23.8	28.6	9.5	4.8	4.8	0.0	14.3
	정읍시	(25)	20.0	20.0	8.0	12.0	12.0	8.0	4.0	16.0
	김제시	(31)	22.6	45.2	0.0	9.7	3.2	3.2	0.0	16.1
	남원시	(24)	20.8	12.5	16.7	16.7	4.2	4.2	0.0	25.0
	완주군	(28)	35.7	10.7	7.1	3.6	7.1	7.1	0.0	28.6
	고창군	(24)	12.5	29.2	20.8	12.5	8.3	4.2	0.0	12.5
	부안군	(18)	16.7	16.7	11.1	0.0	0.0	5.6	11.1	38.9
	임실군	(25)	28.0	12.0	12.0	12.0	4.0	4.0	4.0	24.0
	순창군	(28)	21.4	21.4	21.4	7.1	7.1	3.6	0.0	17.9
	진안군	(20)	30.0	25.0	20.0	0.0	10.0	0.0	5.0	10.0
행정 구역	읍/면	(229)	24.9	20.1	14.0	6.6	6.1	3.9	3.1	21.4
	동	(126)	21.4	25.4	12.7	10.3	5.6	5.6	1.6	17.5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26)	19.2	42.3	3.8	3.8	3.8	3.8	0.0	23.1
	5년~10년 미만	(75)	22.7	32.0	12.0	5.3	6.7	4.0	1.3	16.0
	10년~20년 미만	(200)	26.0	20.5	14.0	9.5	5.0	4.5	3.5	17.0
	20년 이상	(54)	18.5	3.7	18.5	7.4	9.3	5.6	1.9	35.2

④ 주 평균 근로시간

주 평균 근로시간은 38.0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여성(37.2시간)보다 남성(48.7시간)의 근로 시간이 높게 나타났다. 거주 시·군별로 보면 근로시간이 가장 높은 곳은 무주군(41.8시간)이며, 반대로 가장 낮은 곳은 부안군(30.7시간)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 동 지역의 주 평균 근로 시간(40.3시간)이 읍/면 지역(36.7시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 기간이 5년 미만(45.9%)일 경우 평균 근로 시간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Ⅲ-108 주 평균 근로시간

(단위: N, %, 시간)

		사례수	20시간 미만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40시간	40시간 초과 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평균 (시간)
전체		(355)	10.1	22.0	40.0	21.4	6.5	38.0
성별	여성	(331)	10.3	23.3	41.1	19.6	5.7	37.2
	남성	(24)	8.3	4.2	25.0	45.8	16.7	48.7
거주 시·군	전주시	(34)	2.9	50.0	23.5	8.8	14.7	37.7
	익산시	(41)	9.8	14.6	48.8	17.1	9.8	39.7
	군산시	(21)	14.3	14.3	14.3	42.9	14.3	41.3
	정읍시	(25)	20.0	0.0	60.0	12.0	8.0	38.4
	김제시	(31)	0.0	29.0	35.5	25.8	9.7	41.1
	남원시	(24)	8.3	20.8	33.3	37.5	0.0	38.8
	완주군	(28)	10.7	10.7	32.1	42.9	3.6	40.8
	고창군	(24)	16.7	25.0	45.8	12.5	0.0	32.1
	부안군	(18)	33.3	11.1	27.8	22.2	5.6	30.7
	임실군	(25)	0.0	36.0	44.0	20.0	0.0	38.1
	순창군	(28)	21.4	28.6	32.1	14.3	3.6	31.0
	진안군	(20)	0.0	20.0	65.0	15.0	0.0	39.2
	무주군	(19)	0.0	21.1	63.2	5.3	10.5	41.8
	장수군	(17)	11.8	11.8	41.2	29.4	5.9	39.6
행정 구역	읍/면	(229)	11.4	21.0	42.8	21.4	3.5	36.7
	동	(126)	7.9	23.8	34.9	21.4	11.9	40.3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26)	7.7	26.9	15.4	19.2	30.8	45.9
	5년~10년 미만	(75)	9.3	28.0	36.0	21.3	5.3	37.7
	10년~20년 미만	(200)	9.5	19.0	44.5	22.5	4.5	37.8
	20년 이상	(54)	14.8	22.2	40.7	18.5	3.7	35.1

⑤ 고용형태

고용 형태는 ‘상용근로자’가 50.7%로 가장 높으며 ‘임시 근로자’(26.2%),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8.5%), ‘일용 근로자’(7.0%),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2.3%), ‘무급가족 종사자’(2.0%)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52.3%)이 남성(29.2%)보다 상용 근로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전북 거주 기간이 길수록 상용 근로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Ⅰ 표 Ⅲ-109 Ⅰ 고용 형태

(단위: N, %)

		사례수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모름/ 무응답
전체		(355)	50.7	26.2	7.0	8.5	2.3	2.0	3.4
성별	여성	(331)	52.3	26.6	6.3	7.6	2.4	2.1	2.7
	남성	(24)	29.2	20.8	16.7	20.8	0.0	0.0	12.5
거주 시군	전주시	(34)	52.9	14.7	5.9	14.7	2.9	8.8	0.0
	익산시	(41)	39.0	31.7	4.9	17.1	2.4	0.0	4.9
	군산시	(21)	42.9	19.0	23.8	0.0	9.5	0.0	4.8
	정읍시	(25)	68.0	24.0	4.0	4.0	0.0	0.0	0.0
	김제시	(31)	45.2	16.1	9.7	22.6	3.2	0.0	3.2
	남원시	(24)	41.7	41.7	8.3	4.2	0.0	0.0	4.2
	완주군	(28)	60.7	17.9	3.6	10.7	0.0	0.0	7.1
	고창군	(24)	62.5	25.0	4.2	0.0	4.2	4.2	0.0
	부안군	(18)	44.4	27.8	11.1	0.0	0.0	5.6	11.1
	임실군	(25)	64.0	28.0	0.0	0.0	4.0	0.0	4.0
	순창군	(28)	46.4	42.9	7.1	0.0	0.0	0.0	3.6
	진안군	(20)	50.0	30.0	5.0	15.0	0.0	0.0	0.0
	무주군	(19)	63.2	21.1	10.5	0.0	0.0	5.3	0.0
	장수군	(17)	29.4	29.4	5.9	17.6	5.9	5.9	5.9
행정 구역	읍/면	(229)	52.0	28.4	6.6	6.6	1.3	1.7	3.5
	동	(126)	48.4	22.2	7.9	11.9	4.0	2.4	3.2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26)	38.5	26.9	15.4	7.7	0.0	3.8	7.7
	5년~10년 미만	(75)	44.0	30.7	8.0	6.7	5.3	1.3	4.0
	10년~20년 미만	(200)	54.5	26.5	5.5	8.5	1.5	1.0	2.5
	20년 이상	(54)	51.9	18.5	7.4	11.1	1.9	5.6	3.7

⑥ 직업군

직업군을 보면, ‘서비스 종사자’가 3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기타 단순 노동자’(19.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4.6%), ‘판매 종사자’(7.3%), ‘농림어업 종사자’(4.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서비스 종사자’(32.3%)가, 남성은 ‘기타 단순 노동자’ (37.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이주민 여성의 직업군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 ‘서비스 종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율은 2021년 전국 평균 및 2020년 전북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기타 단순노동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II-110】여성 근로 직업군(2020-2024)

(단위: N, %)

	서비스 종사자	기타 단순 노동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종사자	기능 종사자	사무 종사자	기계 조작및 조립 종사자	가사 관련 육체 노동자	임직원 및 행정가	기타
2024년 전북	32.3	18.1	15.7	6.9	5.1	3.3	3.9	2.1	2.4	0.3	9.7
2021년 전국	20.7	34.4	9.0	7.7	4.3	6.0	4.6	12.8	-	0.4	-
2020년 전북	26.4	18.2	10.0	8.8	5.0	5.0	2.6	1.8	4.5	1.0	16.8

【표 III-111】근로 직업군

(단위: N, %)

		사례수	서비스 종사자	기타 단순 노동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종사자	기능 종사자	사무 종사자	기계 조작및 조립 종사자	가사 관련 육체 노동자	임직원 및 행정가	기타
전체		(355)	32.1	19.4	14.6	7.3	4.8	3.7	3.7	2.5	2.5	0.3	9.0
성별	여성	(331)	32.3	18.1	15.7	6.9	5.1	3.3	3.9	2.1	2.4	0.3	9.7
	남성	(24)	29.2	37.5	0.0	12.5	0.0	8.3	0.0	8.3	4.2	0.0	0.0
거주 시군	전주시	(34)	38.2	11.8	11.8	5.9	2.9	2.9	5.9	0.0	8.8	0.0	11.8
	익산시	(41)	26.8	14.6	24.4	12.2	0.0	0.0	4.9	4.9	2.4	0.0	9.8
	군산시	(21)	23.8	19.0	14.3	9.5	0.0	0.0	0.0	14.3	9.5	0.0	9.5

		사례수	서비스 종사자	기타 단순 노동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종사자	기능 종사자	사무 종사자	기계 조작및 조립 종사자	가사 관련 육체 노동자	임직원 및 행정가	기타
	정읍시	(25)	32.0	24.0	12.0	0.0	0.0	8.0	12.0	0.0	0.0	0.0	12.0
	김제시	(31)	32.3	25.8	6.5	19.4	3.2	6.5	0.0	6.5	0.0	0.0	0.0
	남원시	(24)	50.0	12.5	20.8	4.2	8.3	4.2	0.0	0.0	0.0	0.0	0.0
	완주군	(28)	14.3	21.4	14.3	3.6	10.7	17.9	3.6	3.6	3.6	0.0	7.1
	고창군	(24)	33.3	29.2	8.3	4.2	4.2	0.0	0.0	4.2	4.2	0.0	12.5
	부안군	(18)	38.9	16.7	22.2	5.6	0.0	0.0	0.0	0.0	0.0	0.0	16.7
	임실군	(25)	44.0	20.0	8.0	4.0	0.0	8.0	8.0	0.0	0.0	0.0	8.0
	순창군	(28)	39.3	32.1	14.3	3.6	3.6	0.0	0.0	0.0	0.0	0.0	7.1
	진안군	(20)	20.0	30.0	25.0	0.0	15.0	0.0	5.0	0.0	0.0	0.0	5.0
	무주군	(19)	31.6	5.3	15.8	5.3	10.5	0.0	5.3	0.0	0.0	5.3	21.1
	장수군	(17)	23.5	5.9	5.9	23.5	17.6	0.0	5.9	0.0	5.9	0.0	11.8
행정 구역	읍/면	(229)	29.7	22.3	14.0	5.7	7.0	3.9	3.9	1.7	1.3	0.4	10.0
	동	(126)	36.5	14.3	15.9	10.3	0.8	3.2	3.2	4.0	4.8	0.0	7.1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26)	46.2	15.4	3.8	3.8	3.8	3.8	0.0	3.8	11.5	0.0	7.7
	5년~10 년 미만	(75)	33.3	20.0	9.3	10.7	2.7	2.7	1.3	2.7	4.0	0.0	13.3
	10년~20 년 미만	(200)	32.0	21.5	13.5	6.0	4.5	4.0	5.0	3.0	1.0	0.5	9.0
	20년 이상	(54)	24.1	13.0	31.5	9.3	9.3	3.7	3.7	0.0	1.9	0.0	3.7

⑦ 월평균 수입

월평균 수입은 ‘100만~200만원 미만’이 4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만~300만원 미만’(25.6%), ‘100만원 미만’(16.3%), ‘300만~400만원 미만’(4.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과반 이상의 응답자가 ‘100만~200만원 미만’(51.4%)의 임금을 받는 반면, 남성은 ‘200만~300만원 미만’(37.5%), ‘300만~400만원 미만’(20.8%) 순으로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라 임금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Ⅲ-112 월평균 수입(2015~2024)

(단위: N, %)

	임금 (보수) 없음	100만원 미만	100만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 이상~ 400만원 미만	400만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2024년 전북	2.3	16.3	49.0	25.6	4.2	0.8	1.7
2021년 전국	5.3	12.7	42.5	28.0	6.7	2.4	2.4
2018년 전국	6.6	15.8	47.6	20.0	5.4	2.2	2.3
2015년 전국	5.9	24.6	50.0	13.1	3.5	1.4	1.6

표 Ⅲ-113 월평균 수입

(단위: N, %)

		사례수	임금 (보수) 없음	100만원 미만	100만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 이상~ 400만원 미만	400만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전체		(355)	2.3	16.3	49.0	25.6	4.2	0.8	1.7
성별	여성	(331)	2.4	17.2	51.4	24.8	3.0	0.0	1.2
	남성	(24)	0.0	4.2	16.7	37.5	20.8	12.5	8.3
거주 시군	전주시	(34)	8.8	20.6	47.1	17.6	0.0	0.0	5.9
	익산시	(41)	0.0	4.9	51.2	36.6	4.9	2.4	0.0
	군산시	(21)	0.0	4.8	52.4	28.6	14.3	0.0	0.0
	정읍시	(25)	0.0	20.0	32.0	40.0	4.0	4.0	0.0
	김제시	(31)	0.0	16.1	45.2	19.4	12.9	3.2	3.2
	남원시	(24)	0.0	12.5	62.5	25.0	0.0	0.0	0.0
	완주군	(28)	0.0	17.9	39.3	32.1	3.6	0.0	7.1
	고창군	(24)	4.2	25.0	41.7	25.0	4.2	0.0	0.0
	부안군	(18)	5.6	22.2	44.4	22.2	0.0	0.0	5.6
	임실군	(25)	0.0	16.0	56.0	24.0	4.0	0.0	0.0
	순창군	(28)	0.0	21.4	75.0	3.6	0.0	0.0	0.0
	진안군	(20)	0.0	15.0	40.0	40.0	5.0	0.0	0.0
	무주군	(19)	5.3	5.3	73.7	15.8	0.0	0.0	0.0
	장수군	(17)	11.8	35.3	17.6	29.4	5.9	0.0	0.0
행정 구역	읍/면	(229)	2.2	18.3	50.7	24.0	3.1	0.4	1.3
	동	(126)	2.4	12.7	46.0	28.6	6.3	1.6	2.4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26)	3.8	19.2	42.3	19.2	3.8	7.7	3.8
	5년~10년 미만	(75)	1.3	13.3	57.3	24.0	2.7	0.0	1.3
	10년~20년 미만	(200)	1.0	14.0	51.5	27.0	4.5	0.5	1.5
	20년 이상	(54)	7.4	27.8	31.5	25.9	5.6	0.0	1.9

⑧ 근로 만족도

근로 만족도(5점척도)를 보면 평균 3.20점이 나타났으며 ‘근로 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4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일의 강도’(3.21점), ‘수입’(3.11점), ‘복리후생’ (3.00점)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무주군(3.57점)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고창군(2.98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3.30점) 근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Ⅲ-114 | 근로 만족도

(단위: N, 5점척도 평균)

		사례수	근로 시간	수입	일의 강도	복리후생	평균
전체		(355)	3.49	3.11	3.21	3.00	3.20
성별	여성	(331)	3.50	3.10	3.22	3.00	3.21
	남성	(24)	3.38	3.29	3.17	3.04	3.22
거주 시군	전주시	(34)	3.29	3.00	3.32	2.82	3.11
	익산시	(41)	3.63	3.17	3.27	2.95	3.26
	군산시	(21)	3.43	3.00	3.05	3.24	3.18
	정읍시	(25)	3.40	3.04	3.20	3.00	3.16
	김제시	(31)	3.52	3.16	3.13	3.10	3.23
	남원시	(24)	3.46	3.13	3.21	2.92	3.18
	완주군	(28)	3.32	3.18	3.32	3.11	3.23
	고창군	(24)	3.38	2.79	3.04	2.71	2.98
	부안군	(18)	3.44	3.00	3.39	3.00	3.21
	임실군	(25)	3.72	3.20	3.20	3.08	3.30
	순창군	(28)	3.43	3.25	3.14	3.04	3.22
	진안군	(20)	3.45	3.05	3.25	2.75	3.13
	무주군	(19)	3.95	3.42	3.42	3.47	3.57
	장수군	(17)	3.53	3.12	3.00	2.94	3.15
행정 구역	읍/면	(229)	3.55	3.11	3.21	3.00	3.22
	동	(126)	3.38	3.11	3.23	3.01	3.18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26)	3.50	3.38	3.35	2.96	3.30
	5년~10년 미만	(75)	3.43	3.03	3.13	2.89	3.12
	10년~20년 미만	(200)	3.51	3.13	3.21	3.03	3.22
	20년 이상	(54)	3.50	3.04	3.28	3.06	3.22

나. 구직경험과 이유

① 구직경험

현재 근로 중이지 않은 응답자(n=250)의 37.2%가 구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36.7%)보다 남성(42.9%)의 구직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거주 시·군별로 보면 구직 경험이 가장 높은 곳은 순창군(66.7%)이며, 반대로 가장 낮은 곳은 임실군(12.5%)으로 나타났다. 전북 거주기간이 길수록 구직 경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Ⅰ 표 Ⅲ-115 Ⅰ 구직 경험

(단위: N, %)

		사례수	구직 경험 없음	구직 경험 있음
전체		(250)	62.8	37.2
성별	여성	(229)	63.3	36.7
	남성	(21)	57.1	42.9
거주 시·군	전주시	(47)	59.6	40.4
	익산시	(19)	57.9	42.1
	군산시	(37)	67.6	32.4
	정읍시	(18)	44.4	55.6
	김제시	(11)	81.8	18.2
	남원시	(16)	81.3	18.8
	완주군	(14)	57.1	42.9
	고창군	(13)	76.9	23.1
	부안군	(17)	35.3	64.7
	임실군	(8)	87.5	12.5
	순창군	(6)	33.3	66.7
	진안군	(13)	61.5	38.5
	무주군	(12)	66.7	33.3
	장수군	(19)	73.7	26.3
행정 구역	읍/면	(133)	63.2	36.8
	동	(117)	62.4	37.6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62)	75.8	24.2
	5년~10년 미만	(74)	62.2	37.8
	10년~20년 미만	(89)	55.1	44.9
	20년 이상	(25)	60.0	40.0

② 구직시 어려움

구직경험이 있는 응답자(n=93) 중 전북에서의 구직이 어려운 이유는 ‘한국 말을 잘못함’(40.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에게 맞는 일자리 찾지 못함’(17.2%), ‘한국에서의 경력이 부족함’, ‘출신국에서의 학력·자격을 인정받지 못함’, ‘일자리 관련 정보 부족’(각각 7.5%), ‘외국인 차별’(4.3%), ‘임신출산 중의 어려움’(2.2%)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한국어 실력 부족보다는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함’(30.0%) 또는 ‘출신국에서의 학력 및 자격을 인정받지 못함’(30.0%)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III-116 구직 시 어려움

(단위: N, %)

		사례수	한국 말을 잘못함	나에게 맞는 일자리 찾지 못함	한국에서의 경력이 부족함	출신국에서의 학력·자격을 인정받지 못함	일자리 관련 정보 부족	외국인 차별	임신출산 중의 어려움	어려움 없음
전체		(93)	40.9	17.2	7.5	7.5	7.5	4.3	2.2	12.9
성별	여성	(84)	41.7	19.0	8.3	7.1	7.1	3.6	2.4	10.7
	남성	(9)	33.3	0.0	0.0	11.1	11.1	11.1	0.0	33.3
거주 시군	전주시	(19)	47.4	15.8	0.0	5.3	15.8	0.0	5.3	10.5
	익산시	(8)	12.5	12.5	12.5	12.5	0.0	12.5	0.0	37.5
	군산시	(12)	41.7	8.3	0.0	0.0	8.3	8.3	0.0	33.3
	정읍시	(10)	30.0	30.0	20.0	10.0	0.0	0.0	0.0	10.0
	김제시	(2)	50.0	0.0	0.0	50.0	0.0	0.0	0.0	0.0
	남원시	(3)	66.7	0.0	33.3	0.0	0.0	0.0	0.0	0.0
	완주군	(6)	50.0	0.0	16.7	0.0	16.7	16.7	0.0	0.0
	고창군	(3)	0.0	33.3	33.3	0.0	0.0	33.3	0.0	0.0
	부안군	(11)	45.5	18.2	0.0	9.1	0.0	0.0	9.1	18.2
	임실군	(1)	0.0	0.0	0.0	100.0	0.0	0.0	0.0	0.0
	순창군	(4)	50.0	0.0	25.0	0.0	25.0	0.0	0.0	0.0
	진안군	(5)	40.0	20.0	0.0	20.0	20.0	0.0	0.0	0.0
행정 구역	읍/면	(49)	40.8	20.4	10.2	6.1	6.1	6.1	2.0	8.2
	동	(44)	40.9	13.6	4.5	9.1	9.1	2.3	2.3	18.2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15)	66.7	0.0	0.0	0.0	13.3	6.7	6.7	6.7
	5년~10년 미만	(28)	46.4	21.4	7.1	10.7	0.0	0.0	3.6	10.7
	10년~20년 미만	(40)	35.0	17.5	10.0	2.5	10.0	7.5	0.0	17.5
	20년 이상	(10)	10.0	30.0	10.0	30.0	10.0	0.0	0.0	10.0

다. 직업교육훈련

① 직업교육훈련 참여

전체 응답자 중 55.9%가 직업교육훈련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56.8%)이 남성(44.4%)보다 참여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참여 의향이 가장 높은 곳은 장수군(75.0%)이며, 반대로 가장 낮은 곳은 김제시(16.7%)로 나타났다. 전북에서의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려는 의향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표 III-117 직업교육훈련 참여 의향

(단위: N, %)

		사례수	참여 의향 있음	참여 의향 없음
전체		(605)	55.9	44.1
성별	여성	(560)	56.8	43.2
	남성	(45)	44.4	55.6
거주 시군	전주시	(81)	71.6	28.4
	익산시	(60)	56.7	43.3
	군산시	(58)	37.9	62.1
	정읍시	(43)	58.1	41.9
	김제시	(42)	16.7	83.3
	남원시	(40)	60.0	40.0
	완주군	(42)	61.9	38.1
	고창군	(37)	48.6	51.4
	부안군	(35)	65.7	34.3
	임실군	(33)	66.7	33.3
	순창군	(34)	35.3	64.7
	진안군	(33)	69.7	30.3
	무주군	(31)	54.8	45.2
	장수군	(36)	75.0	25.0
행정 구역	읍/면	(362)	56.9	43.1
	동	(243)	54.3	45.7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68.2	31.8
	5년~10년 미만	(149)	58.4	41.6
	10년~20년 미만	(289)	54.3	45.7
	20년 이상	(79)	43.0	57.0

② 선호 직업교육훈련

선호하는 직업교육훈련 종류에서 1순위에서는 ‘식품가공 관련분야’(21.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분야’(14.2%), ‘회계·사무 분야’(13.6%), ‘교육 및 연구분야’(10.7%), ‘사회복지 분야’(10.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식품가공 관련분야’(21.4%)를 가장 선호하는 반면 남성은 ‘장비·건설·전기·전자 분야’(30.0%)를 가장 선호하였다.

【 표 III-118 】 선호 직업교육훈련: 1순위

(단위: N, %)

		사례수	식품 가공 관련 분야	미용 숙박 여행 스포츠 분야	회계 사무 분야	교육 및 연구 분야	사회 복지 분야	보건 의료 분야	영업 및 판매 서비스 분야	장비 건설 전기 전자 분야	섬유 및 의복 분야	농림 어업 임업 분야	공예 분야	기타
전체		(338)	21.3	14.2	13.6	10.7	10.1	9.8	7.7	3.3	2.7	2.7	2.1	2.1
성별	여성	(318)	21.4	14.5	14.5	11.3	10.4	9.7	7.5	1.6	2.8	2.2	2.2	1.9
	남성	(20)	20.0	10.0	0.0	0.0	5.0	10.0	10.0	30.0	0.0	10.0	0.0	5.0
거주 시군	전주시	(58)	24.1	10.3	19.0	17.2	1.7	6.9	10.3	3.4	5.2	1.7	0.0	0.0
	익산시	(34)	26.5	0.0	8.8	14.7	5.9	14.7	8.8	2.9	2.9	5.9	0.0	8.8
	군산시	(22)	27.3	18.2	22.7	9.1	4.5	4.5	4.5	0.0	0.0	4.5	0.0	4.5
	정읍시	(25)	12.0	8.0	24.0	8.0	12.0	16.0	8.0	0.0	4.0	8.0	0.0	0.0
	김제시	(7)	14.3	28.6	14.3	0.0	0.0	14.3	0.0	14.3	0.0	0.0	14.3	0.0
	남원시	(24)	25.0	20.8	12.5	16.7	8.3	4.2	4.2	8.3	0.0	0.0	0.0	0.0
	완주군	(26)	23.1	15.4	3.8	11.5	7.7	7.7	11.5	3.8	3.8	0.0	3.8	7.7
	고창군	(18)	16.7	27.8	0.0	11.1	11.1	22.2	5.6	0.0	0.0	0.0	0.0	5.6
	부안군	(23)	17.4	21.7	13.0	4.3	21.7	8.7	8.7	4.3	0.0	0.0	0.0	0.0
	임실군	(22)	36.4	9.1	13.6	4.5	13.6	13.6	4.5	0.0	0.0	4.5	0.0	0.0
	순창군	(12)	8.3	0.0	8.3	16.7	25.0	16.7	0.0	16.7	0.0	0.0	8.3	0.0
	진안군	(23)	0.0	26.1	13.0	4.3	17.4	13.0	8.7	0.0	4.3	4.3	8.7	0.0
	무주군	(17)	29.4	11.8	5.9	0.0	29.4	0.0	11.8	0.0	5.9	0.0	5.9	0.0
	장수군	(27)	22.2	18.5	18.5	11.1	3.7	3.7	7.4	3.7	3.7	3.7	3.7	0.0
행정 구역	읍/면	(206)	18.4	16.5	12.6	7.3	13.6	10.7	7.8	3.4	1.9	2.9	2.9	1.9
	동	(132)	25.8	10.6	15.2	15.9	4.5	8.3	7.6	3.0	3.8	2.3	0.8	2.3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60)	25.0	13.3	16.7	10.0	3.3	5.0	10.0	3.3	6.7	1.7	1.7	3.3
	5년~10년 미만	(87)	21.8	16.1	16.1	10.3	8.0	6.9	8.0	4.6	2.3	2.3	1.1	2.3
	10년~20년 미만	(157)	19.7	15.9	10.8	7.6	14.0	12.1	7.6	3.2	1.9	3.2	2.5	1.3
	20년 이상	(34)	20.6	2.9	14.7	26.5	8.8	14.7	2.9	0.0	0.0	2.9	2.9	2.9

1, 2순위를 합산한 결과를 보면 ‘식품가공 관련분야’가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분야’(26.3%), ‘사회복지 분야’(20.1%), ‘회계·사무 분야’(17.8%), ‘보건의료 분야’(16.9%), ‘교육 및 연구분야’(16.0%), ‘영업 및 판매 서비스 분야’(13.0%) 등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19 선호 직업교육훈련: 1+2순위

(단위: N, 중복응답 %)

		사례수	식품 가공 관련 분야	미용 숙박 여행· 스포츠 분야	사회 복지 분야	회계 사무 분야	보건 의료 분야	교육 및 연구 분야	영업 및 판매 서비스 분야	공예 분야	섬유 및 의복 분야	농림 어업 임업 분야	장비 건설 전기 전자 분야	기타
전체		(338)	35.5	26.3	20.1	17.8	16.9	16.0	13.0	7.7	6.5	5.3	5.0	3.3
성별	여성	(318)	36.5	26.7	20.4	18.9	17.3	16.7	12.3	7.9	6.6	4.4	2.8	2.8
	남성	(20)	20.0	20.0	15.0	0.0	10.0	5.0	25.0	5.0	5.0	20.0	40.0	10.0
거주 시군	전주시	(58)	34.5	15.5	10.3	24.1	10.3	20.7	22.4	3.4	10.3	5.2	5.2	0.0
	익산시	(34)	44.1	5.9	26.5	8.8	14.7	20.6	11.8	5.9	2.9	5.9	2.9	8.8
	군산시	(22)	50.0	22.7	9.1	22.7	9.1	9.1	4.5	0.0	4.5	4.5	4.5	4.5
	정읍시	(25)	24.0	28.0	24.0	28.0	32.0	16.0	8.0	8.0	12.0	12.0	0.0	4.0
	김제시	(7)	71.4	57.1	0.0	14.3	14.3	0.0	0.0	14.3	0.0	0.0	14.3	0.0
	남원시	(24)	33.3	29.2	20.8	20.8	12.5	20.8	20.8	8.3	8.3	0.0	16.7	0.0
	완주군	(26)	30.8	26.9	15.4	3.8	11.5	19.2	11.5	11.5	7.7	0.0	3.8	11.5
	고창군	(18)	16.7	44.4	27.8	0.0	44.4	16.7	5.6	5.6	0.0	0.0	0.0	5.6
	부안군	(23)	34.8	26.1	26.1	17.4	21.7	13.0	13.0	0.0	4.3	8.7	4.3	0.0
	임실군	(22)	50.0	27.3	31.8	18.2	18.2	9.1	4.5	13.6	4.5	4.5	4.5	0.0
	순창군	(12)	25.0	25.0	33.3	16.7	16.7	16.7	0.0	16.7	0.0	8.3	16.7	8.3
	진안군	(23)	17.4	43.5	26.1	21.7	21.7	13.0	17.4	13.0	4.3	4.3	0.0	0.0
	무주군	(17)	47.1	35.3	29.4	17.6	11.8	5.9	17.6	5.9	5.9	5.9	0.0	0.0
	장수군	(27)	37.0	33.3	11.1	22.2	11.1	18.5	14.8	14.8	11.1	11.1	7.4	3.7
행정 구역	읍/면	(206)	32.5	32.0	21.4	17.0	18.4	15.0	10.7	9.2	4.9	6.3	5.3	3.9
	동	(132)	40.2	17.4	18.2	18.9	14.4	17.4	16.7	5.3	9.1	3.8	4.5	2.3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60)	31.7	23.3	10.0	18.3	15.0	11.7	21.7	6.7	10.0	6.7	6.7	3.3
	5년~10년 미만	(87)	41.4	26.4	17.2	18.4	16.1	14.9	11.5	4.6	8.0	4.6	8.0	3.4
	10년~20년 미만	(157)	35.7	29.9	21.0	16.6	15.9	15.3	12.1	10.8	5.1	4.5	3.2	2.5
	20년 이상	(34)	26.5	14.7	41.2	20.6	26.5	29.4	5.9	2.9	2.9	8.8	2.9	5.9

③ 취/창업 지원정책 요구도

선호하는 취/창업 지원정책은 1순위 기준 ‘취업관련 한국어 교육’이 2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관련 기초교육 제공’(20.4%), ‘취업관련 동행서비스 지원’(14.2%), ‘정부지원 일자리 확대’(11.8%), ‘전문취업지원기관 연계 및 일자리 소개’(10.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 관련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 정책 요구도는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Ⅰ 표 Ⅲ-120 Ⅰ 선호 취/창업 지원정책: 1순위

(단위: N, 중복응답 %)

		사례수	취업 관련 한국어 교육	취업 관련 기초 교육 제공	취업 관련 동행 서비스 지원	정부 지원 일자리 확대	전문 취업 지원 기관 연계및 일자리 소개	취창업 관련 교육	외국인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	이주민 취업 박람회 개최	지속 적인 모니 터링 및 지원	모름/ 무응답
	전체	(338)	24.0	20.4	14.2	11.8	10.9	8.0	5.6	1.5	1.2	2.4
성별	여성	(318)	24.2	19.8	14.2	12.3	10.4	8.2	6.0	1.6	0.9	2.5
	남성	(20)	20.0	30.0	15.0	5.0	20.0	5.0	0.0	0.0	5.0	0.0
거주 시군	전주시	(58)	24.1	22.4	19.0	10.3	3.4	8.6	8.6	0.0	0.0	3.4
	익산시	(34)	20.6	17.6	11.8	14.7	11.8	5.9	8.8	2.9	2.9	2.9
	군산시	(22)	27.3	18.2	13.6	18.2	13.6	4.5	4.5	0.0	0.0	0.0
	정읍시	(25)	16.0	20.0	12.0	20.0	16.0	4.0	8.0	0.0	0.0	4.0
	김제시	(7)	14.3	42.9	0.0	14.3	14.3	14.3	0.0	0.0	0.0	0.0
	남원시	(24)	20.8	12.5	16.7	20.8	12.5	8.3	0.0	4.2	4.2	0.0
	완주군	(26)	19.2	30.8	19.2	7.7	11.5	3.8	3.8	0.0	0.0	3.8
	고창군	(18)	5.6	38.9	22.2	5.6	22.2	0.0	5.6	0.0	0.0	0.0
	부안군	(23)	13.0	34.8	17.4	8.7	4.3	17.4	4.3	0.0	0.0	0.0
	임실군	(22)	27.3	9.1	4.5	18.2	13.6	18.2	4.5	0.0	0.0	4.5
	순창군	(12)	25.0	25.0	0.0	25.0	0.0	0.0	16.7	0.0	0.0	8.3
	진안군	(23)	43.5	8.7	17.4	4.3	17.4	8.7	0.0	0.0	0.0	0.0
행정 구역	읍/면	(206)	26.2	21.8	12.6	8.3	12.6	8.7	4.4	1.5	1.5	2.4
	동	(132)	20.5	18.2	16.7	17.4	8.3	6.8	7.6	1.5	0.8	2.3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60)	41.7	13.3	21.7	5.0	8.3	1.7	3.3	1.7	1.7	1.7
	5년~10년 미만	(87)	29.9	25.3	12.6	11.5	4.6	9.2	6.9	0.0	0.0	0.0
	10년~20년 미만	(157)	15.9	21.0	14.0	14.0	15.3	9.6	6.4	0.6	0.6	2.5
	20년 이상	(34)	14.7	17.6	5.9	14.7	11.8	8.8	2.9	8.8	5.9	8.8

1, 2순위를 합산한 결과를 보면, ‘취업관련 한국어 교육’이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관련 기초교육 제공’(27.2%), ‘전문취업지원기관 연계 및 일자리 소개’(24.9%), ‘정부지원 일자리 확대’(23.7%), ‘취업관련 동행서비스 지원’(22.2%), ‘취창업 관련 교육’(17.5%), ‘외국인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13.6%), ‘이주민 취업박람회 개최’(10.4%) 등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21】 선호 취/창업 지원정책: 1+2순위

(단위: N, 중복응답 %)

		사례수	취업 관련 한국어 교육	취업 관련 기초 교육 제공	전문 취업 지원 기관 연계및 일자리 소개	정부 지원 일자리 확대	취업 관련 동행 서비스 지원	취창업 관련 교육	외국인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	이주민 취업 박람회 개최	지속 적인 모니 터링 및 지원	모름/ 무응답
전체		(338)	32.8	27.2	24.9	23.7	22.2	17.5	13.6	10.4	7.1	2.4
성별	여성	(318)	33.0	26.1	24.2	23.9	21.7	17.9	14.5	10.7	7.2	2.5
	남성	(20)	30.0	45.0	35.0	20.0	30.0	10.0	0.0	5.0	5.0	0.0
거주 시군	전주시	(58)	36.2	34.5	15.5	22.4	24.1	10.3	10.3	12.1	13.8	3.4
	익산시	(34)	26.5	23.5	32.4	20.6	14.7	8.8	29.4	5.9	5.9	2.9
	군산시	(22)	36.4	18.2	22.7	18.2	22.7	31.8	18.2	0.0	0.0	0.0
	정읍시	(25)	20.0	32.0	28.0	48.0	24.0	8.0	16.0	12.0	4.0	4.0
	김제시	(7)	28.6	57.1	28.6	42.9	0.0	28.6	0.0	0.0	14.3	0.0
	남원시	(24)	25.0	16.7	33.3	29.2	20.8	16.7	16.7	12.5	8.3	0.0
	완주군	(26)	26.9	34.6	15.4	15.4	34.6	19.2	7.7	3.8	0.0	3.8
	고창군	(18)	11.1	38.9	27.8	27.8	27.8	27.8	5.6	22.2	0.0	0.0
	부안군	(23)	30.4	34.8	30.4	21.7	30.4	21.7	4.3	4.3	4.3	0.0
	임실군	(22)	31.8	9.1	27.3	31.8	18.2	31.8	4.5	13.6	13.6	4.5
	순창군	(12)	33.3	33.3	8.3	33.3	8.3	16.7	25.0	0.0	0.0	8.3
	진안군	(23)	47.8	21.7	43.5	17.4	26.1	17.4	4.3	4.3	4.3	0.0
행정 구역	읍/면	(206)	34.5	28.2	26.2	19.9	22.3	21.4	11.2	10.7	6.3	2.4
	동	(132)	30.3	25.8	22.7	29.5	22.0	11.4	17.4	9.8	8.3	2.3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60)	51.7	20.0	28.3	10.0	23.3	8.3	10.0	15.0	8.3	1.7
	5년~10년 미만	(87)	41.4	29.9	17.2	25.3	24.1	16.1	12.6	10.3	5.7	0.0
	10년~20년 미만	(157)	24.2	29.3	28.0	27.4	22.9	21.0	16.6	5.1	6.4	2.5
	20년 이상	(34)	17.6	23.5	23.5	26.5	11.8	20.6	8.8	26.5	11.8	8.8

라. 노후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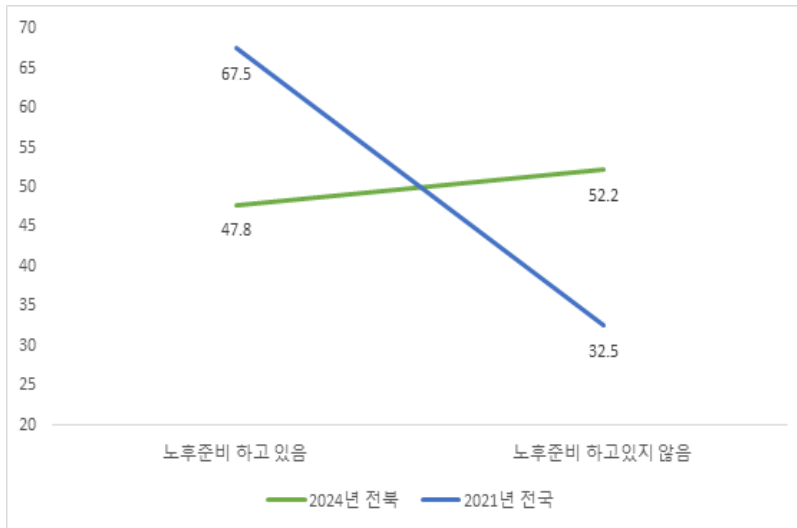
① 노후준비 여부

전체 응답자의 47.8%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노후 준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무주군(77.4%)인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김제시(28.6%)로 나타났다. 또한, 읍/면 지역(50.0%)의 노후 준비율이 동 지역(44.4%)보다 높게 나타났다.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 비교했을 때, 전북 다문화가족의 노후 준비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III-122 노후준비 여부

(단위: N, %)

		사례수	노후준비 하고 있음	노후준비 하고있지 않음
전체		(605)	47.8	52.2
성별	여성	(560)	48.2	51.8
	남성	(45)	42.2	57.8
거주 시군	전주시	(81)	44.4	55.6
	익산시	(60)	51.7	48.3
	군산시	(58)	36.2	63.8
	정읍시	(43)	51.2	48.8
	김제시	(42)	28.6	71.4
	남원시	(40)	60.0	40.0
	완주군	(42)	50.0	50.0
	고창군	(37)	54.1	45.9
	부안군	(35)	51.4	48.6
	임실군	(33)	63.6	36.4
	순창군	(34)	35.3	64.7
	진안군	(33)	30.3	69.7
	무주군	(31)	77.4	22.6
	장수군	(36)	47.2	52.8
행정 구역	읍/면	(362)	50.0	50.0
	동	(243)	44.4	55.6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35.2	64.8
	5년~10년 미만	(149)	50.3	49.7
	10년~20년 미만	(289)	47.4	52.6
	20년 이상	(79)	58.2	41.8



Ⅲ-9 노후 준비(2021, 2024)

② 노후준비 종류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1순위 기준 ‘국민연금’이 4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예금·적금·저축성 보험’(37.4%)과 ‘사적 연금’(7.3%)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경우 읍/면 지역(50.8%)이 동 지역(41.7%)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예금·적금·저축성 보험’은 동 지역(38.9%)이 읍/면 지역(36.5%)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거주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67.4%)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연금’(41.9%)과 ‘예금·적금·저축성 보험’(48.4%)의 비율이 유사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Ⅲ-123 노후준비 종류: 1순위

(단위: N, %)

		사례수	국민 연금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사적 연금	퇴직 급여	주식 채권	기타 공적 연금	부동산 임대 수익	모름/ 무응답
전체		(289)	47.4	37.4	7.3	2.8	1.4	1.0	1.0	1.7
성별	여성	(270)	47.8	39.3	6.3	2.2	1.1	0.7	0.7	1.9
	남성	(19)	42.1	10.5	21.1	10.5	5.3	5.3	5.3	0.0
거주 시군	전주시	(36)	44.4	36.1	11.1	2.8	0.0	2.8	2.8	0.0
	익산시	(31)	35.5	45.2	12.9	0.0	3.2	0.0	0.0	3.2
	군산시	(21)	47.6	28.6	0.0	9.5	4.8	0.0	4.8	4.8
	정읍시	(22)	54.5	31.8	4.5	4.5	4.5	0.0	0.0	0.0
	김제시	(12)	58.3	33.3	0.0	8.3	0.0	0.0	0.0	0.0
	남원시	(24)	29.2	62.5	4.2	0.0	0.0	4.2	0.0	0.0
	완주군	(21)	66.7	14.3	9.5	0.0	0.0	0.0	4.8	4.8
	고창군	(20)	60.0	20.0	10.0	0.0	5.0	5.0	0.0	0.0
	부안군	(18)	50.0	27.8	16.7	0.0	0.0	0.0	0.0	5.6
	임실군	(21)	47.6	47.6	4.8	0.0	0.0	0.0	0.0	0.0
	순창군	(12)	58.3	25.0	8.3	8.3	0.0	0.0	0.0	0.0
	진안군	(10)	50.0	50.0	0.0	0.0	0.0	0.0	0.0	0.0
	무주군	(24)	45.8	41.7	4.2	8.3	0.0	0.0	0.0	0.0
	장수군	(17)	35.3	52.9	5.9	0.0	0.0	0.0	0.0	5.9
행정 구역	읍/면	(181)	50.8	36.5	6.6	2.2	1.1	0.6	0.6	1.7
	동	(108)	41.7	38.9	8.3	3.7	1.9	1.9	1.9	1.9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31)	41.9	48.4	6.5	3.2	0.0	0.0	0.0	0.0
	5년~10년 미만	(75)	29.3	57.3	5.3	2.7	2.7	1.3	0.0	1.3
	10년~20년 미만	(137)	51.8	30.7	8.8	2.9	0.7	1.5	1.5	2.2
	20년 이상	(46)	67.4	17.4	6.5	2.2	2.2	0.0	2.2	2.2

1, 2순위를 합산한 결과를 보면 ‘예금·적금·저축성 보험’이 6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민연금’(54.7%), ‘사적 연금’(18.7%), ‘퇴직 급여’(9.3%), ‘주식·채권’(5.2%)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24 노후준비 종류: 1+2순위

(단위: N, 중복응답 %)

		사례수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국민 연금	사적 연금	퇴직 급여	주식 채권	부동산 임대 수익	기타 공적 연금	모름/ 무응답
전체		(289)	69.6	54.7	18.7	9.3	5.2	1.7	1.0	1.7
성별	여성	(270)	70.0	55.2	18.5	9.3	5.2	1.5	0.7	1.9
	남성	(19)	63.2	47.4	21.1	10.5	5.3	5.3	5.3	0.0
거주 시군	전주시	(36)	63.9	52.8	22.2	5.6	2.8	5.6	2.8	0.0
	익산시	(31)	74.2	35.5	19.4	3.2	12.9	0.0	0.0	3.2
	군산시	(21)	33.3	47.6	0.0	23.8	4.8	4.8	0.0	4.8
	정읍시	(22)	81.8	72.7	9.1	13.6	13.6	0.0	0.0	0.0
	김제시	(12)	91.7	58.3	16.7	16.7	0.0	0.0	0.0	0.0
	남원시	(24)	91.7	41.7	16.7	4.2	4.2	0.0	4.2	0.0
	완주군	(21)	38.1	66.7	23.8	4.8	0.0	4.8	0.0	4.8
	고창군	(20)	70.0	60.0	40.0	5.0	5.0	0.0	5.0	0.0
	부안군	(18)	66.7	55.6	22.2	5.6	5.6	0.0	0.0	5.6
	임실군	(21)	66.7	57.1	33.3	4.8	0.0	0.0	0.0	0.0
	순창군	(12)	58.3	58.3	16.7	33.3	8.3	0.0	0.0	0.0
	진안군	(10)	80.0	70.0	20.0	0.0	10.0	0.0	0.0	0.0
	무주군	(24)	87.5	54.2	12.5	20.8	0.0	0.0	0.0	0.0
	장수군	(17)	76.5	58.8	5.9	0.0	5.9	5.9	0.0	5.9
행정 구역	읍/면	(181)	70.2	58.0	19.9	9.4	5.0	1.1	0.6	1.7
	동	(108)	68.5	49.1	16.7	9.3	5.6	2.8	1.9	1.9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31)	71.0	45.2	19.4	3.2	0.0	3.2	0.0	0.0
	5년~10년 미만	(75)	81.3	40.0	14.7	6.7	6.7	0.0	1.3	1.3
	10년~20년 미만	(137)	65.7	58.4	21.2	11.7	5.8	2.2	1.5	2.2
	20년 이상	(46)	60.9	73.9	17.4	10.9	4.3	2.2	0.0	2.2

③ 노후 걱정

노후걱정 정도(5점척도)는 평균 3.25점으로 나타났으며 여성(3.29점)이 남성(2.69점)보다 노후 걱정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장수군(3.53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반면, 김제시(2.90점)는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읍/면 지역(3.29점)이 동 지역(3.19점)보다 노후 걱정 평균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Ⅲ-125 노후 걱정

(단위: N, %, 5점척도 평균)

		사례수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대체로 걱정된다	매우 걱정된다	평균 (5점척도)
전체		(605)	5.6	15.9	40.3	24.3	13.9	3.25
성별	여성	(560)	4.8	14.8	40.9	25.0	14.5	3.29
	남성	(45)	15.6	28.9	33.3	15.6	6.7	2.69
거주 시군	전주시	(81)	14.8	16.0	33.3	22.2	13.6	3.04
	익산시	(60)	5.0	20.0	38.3	18.3	18.3	3.25
	군산시	(58)	1.7	5.2	58.6	17.2	17.2	3.43
	정읍시	(43)	2.3	9.3	51.2	23.3	14.0	3.37
	김제시	(42)	4.8	38.1	21.4	33.3	2.4	2.90
	남원시	(40)	2.5	27.5	30.0	30.0	10.0	3.18
	완주군	(42)	0.0	9.5	52.4	26.2	11.9	3.40
	고창군	(37)	8.1	10.8	37.8	32.4	10.8	3.27
	부안군	(35)	8.6	14.3	40.0	20.0	17.1	3.23
	임실군	(33)	9.1	15.2	33.3	27.3	15.2	3.24
	순창군	(34)	5.9	20.6	29.4	29.4	14.7	3.26
	진안군	(33)	3.0	6.1	45.5	27.3	18.2	3.52
	무주군	(31)	0.0	25.8	48.4	22.6	3.2	3.03
	장수군	(36)	5.6	5.6	44.4	19.4	25.0	3.53
행정 구역	읍/면	(362)	4.4	14.1	43.1	24.6	13.8	3.29
	동	(243)	7.4	18.5	36.2	23.9	14.0	3.19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10.2	8.0	51.1	15.9	14.8	3.17
	5년~10년 미만	(149)	6.0	14.1	43.0	27.5	9.4	3.20
	10년~20년 미만	(289)	4.2	15.6	38.4	26.6	15.2	3.33
	20년 이상	(79)	5.1	29.1	30.4	19.0	16.5	3.13

(6) 건강 및 삶의 만족

가. 주관적 신체 건강

주관적 신체 건강(5점 척도)은 평균 3.41점으로 나타나, 응답자 대부분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통 이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주시가 3.59점으로 가장 높았고, 완주군이 3.1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거주 기간이 길수록 주관적 신체 건강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표 Ⅲ-126 주관적 신체적 건강

(단위: N, %, 5점척도 평균)

		사례수	매우 나쁜 편	나쁜 편	보통	좋은 편	매우 좋은 편	평균 (5점척도)
전체		(605)	1.7	8.9	47.6	30.4	11.4	3.41
성별	여성	(560)	1.6	8.9	48.0	30.7	10.7	3.40
	남성	(45)	2.2	8.9	42.2	26.7	20.0	3.53
거주 시군	전주시	(81)	1.2	9.9	35.8	34.6	18.5	3.59
	익산시	(60)	0.0	11.7	45.0	33.3	10.0	3.42
	군산시	(58)	3.4	15.5	43.1	20.7	17.2	3.33
	정읍시	(43)	2.3	4.7	55.8	30.2	7.0	3.35
	김제시	(42)	2.4	11.9	38.1	35.7	11.9	3.43
	남원시	(40)	0.0	7.5	57.5	25.0	10.0	3.38
	완주군	(42)	7.1	7.1	57.1	21.4	7.1	3.14
	고창군	(37)	0.0	2.7	48.6	40.5	8.1	3.54
	부안군	(35)	2.9	5.7	45.7	31.4	14.3	3.49
	임실군	(33)	3.0	0.0	45.5	45.5	6.1	3.52
	순창군	(34)	0.0	14.7	50.0	23.5	11.8	3.32
	진안군	(33)	0.0	9.1	63.6	27.3	0.0	3.18
	무주군	(31)	0.0	6.5	61.3	25.8	6.5	3.32
	장수군	(36)	0.0	11.1	38.9	30.6	19.4	3.58
행정 구역	읍/면	(362)	1.4	7.5	48.3	33.4	9.4	3.42
	동	(243)	2.1	11.1	46.5	25.9	14.4	3.40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1.1	5.7	37.5	35.2	20.5	3.68
	5년~10년 미만	(149)	0.0	8.7	41.6	36.2	13.4	3.54
	10년~20년 미만	(289)	2.8	8.3	51.2	29.4	8.3	3.32
	20년 이상	(79)	1.3	15.2	57.0	17.7	8.9	3.18

나. 주관적 정신 건강

주관적 정신 건강 조사 결과, 응답자 중 ‘그런 적 없음’(40.7%)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가끔 느꼈다’(34.7%), ‘조금 느꼈다’(19.2%), ‘매우 자주 느꼈다’(5.5%)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60.2%)은 남성(48.9%)보다 정신적 어려움을 더 자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가끔 느꼈다’ ~ ‘매우 자주 느꼈다’)이 가장 높은 지역은 완주군(73.8%)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김제시(33.3%)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 기간이 길수록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 정도가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I-127 주관적 정신 건강

(단위: N, %)

		사례수	그런 적 없음	가끔 느꼈다	조금 느꼈다	매우 자주 느꼈다
전체		(605)	40.7	34.7	19.2	5.5
성별	여성	(560)	39.8	35.4	19.3	5.5
	남성	(45)	51.1	26.7	17.8	4.4
거주 시군	전주시	(81)	42.0	30.9	18.5	8.6
	익산시	(60)	41.7	40.0	15.0	3.3
	군산시	(58)	31.0	41.4	22.4	5.2
	정읍시	(43)	32.6	32.6	32.6	2.3
	김제시	(42)	66.7	11.9	11.9	9.5
	남원시	(40)	52.5	30.0	7.5	10.0
	완주군	(42)	26.2	47.6	26.2	0.0
	고창군	(37)	48.6	29.7	18.9	2.7
	부안군	(35)	51.4	22.9	17.1	8.6
	임실군	(33)	42.4	39.4	12.1	6.1
	순창군	(34)	35.3	50.0	5.9	8.8
	진안군	(33)	27.3	39.4	30.3	3.0
	무주군	(31)	38.7	35.5	22.6	3.2
	장수군	(36)	33.3	36.1	27.8	2.8
행정 구역	읍/면	(362)	39.5	36.5	19.6	4.4
	동	(243)	42.4	32.1	18.5	7.0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35.2	35.2	23.9	5.7
	5년~10년 미만	(149)	38.3	38.3	17.4	6.0
	10년~20년 미만	(289)	39.8	34.3	20.8	5.2
	20년 이상	(79)	54.4	29.1	11.4	5.1

다. 병원 이용시 어려움

병원 이용 시 어려운 점은 ‘한국어를 잘하지 못함’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료비 부담’(13.2%),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음’(9.8%), ‘방문할 시간이 없음’(9.6%), ‘이용 및 진료 절차가 복잡함’(3.8%)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 구역별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 읍/면 지역에서는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음’(15.5%)이, 동 지역에서는 ‘치료비 부담’(13.2%)이 높게 나타나, 도시와 농촌 간 어려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28】 병원 이용 시 어려움

(단위: N, %)

		사례수	한국어를 잘하지 못함	치료비 부담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음	방문할 시간이 없음	이용 및 진료 절차가 복잡함	기타	어려움 없음
전체		(605)	34.2	13.2	9.8	9.6	3.8	0.7	28.8
성별	여성	(560)	33.4	13.0	10.2	10.0	4.1	0.7	28.6
	남성	(45)	44.4	15.6	4.4	4.4	0.0	0.0	31.1
거주 시군	전주시	(81)	51.9	8.6	1.2	7.4	3.7	0.0	27.2
	익산시	(60)	26.7	11.7	0.0	15.0	6.7	0.0	40.0
	군산시	(58)	48.3	10.3	1.7	15.5	3.4	0.0	20.7
	정읍시	(43)	27.9	16.3	4.7	9.3	7.0	2.3	32.6
	김제시	(42)	23.8	11.9	9.5	9.5	7.1	2.4	35.7
	남원시	(40)	40.0	17.5	12.5	5.0	2.5	0.0	22.5
	완주군	(42)	33.3	14.3	4.8	4.8	2.4	0.0	40.5
	고창군	(37)	29.7	18.9	8.1	13.5	0.0	0.0	29.7
	부안군	(35)	34.3	14.3	11.4	5.7	8.6	0.0	25.7
	임실군	(33)	27.3	12.1	15.2	9.1	0.0	0.0	36.4
	순창군	(34)	11.8	17.6	20.6	8.8	2.9	2.9	35.3
	진안군	(33)	24.2	21.2	21.2	12.1	0.0	3.0	18.2
	무주군	(31)	29.0	6.5	38.7	3.2	6.5	0.0	16.1
	장수군	(36)	44.4	11.1	16.7	11.1	0.0	0.0	16.7
행정 구역	읍/면	(362)	29.8	13.3	15.5	9.1	2.5	1.1	28.7
	동	(243)	40.7	13.2	1.2	10.3	5.8	0.0	28.8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70.5	8.0	8.0	1.1	3.4	1.1	8.0
	5년~10년 미만	(149)	47.7	12.1	8.7	6.0	2.0	0.7	22.8
	10년~20년 미만	(289)	24.2	13.1	9.0	12.5	4.8	0.7	35.6
	20년 이상	(79)	5.1	21.5	16.5	15.2	3.8	0.0	38.0

라. 임신/출산시 어려움

임신/출산시 어려운 점은 ‘의사소통 어려움’이 1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식 산후조리가 힘들’ (10.9%), ‘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 없음’ (10.1%), ‘산·전후 우울증으로 힘들’ (6.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읍/면 지역에서는 ‘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 없었음’ (15.2%)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동 지역에서는 ‘의사소통 어려움’ (18.9%)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Ⅰ 표 Ⅲ-129 Ⅰ 임신/출산시 어려움

(단위: N, %)

		사례수	의사 소통 어려움	한국식 산후 조리가 힘들	가까운 곳에 산부 인과가 없음	산·전후 우울증 으로 힘들	임신과 출산 관련된 정보를 구할 수 없었음	기타	임신 출산시 어려움이 없었음	임신 출산 경험이 없음
전체		(605)	14.7	10.9	10.1	6.9	2.8	0.5	32.2	21.8
성별	여성	(560)	15.9	11.8	10.9	7.5	3.0	0.5	34.8	15.5
	남성	(45)	0.0	0.0	0.0	0.0	0.0	0.0	0.0	100.0
거주 시군	전주시	(81)	14.8	9.9	1.2	6.2	0.0	1.2	34.6	32.1
	익산시	(60)	16.7	11.7	3.3	13.3	5.0	0.0	30.0	20.0
	군산시	(58)	20.7	1.7	1.7	5.2	6.9	0.0	22.4	41.4
	정읍시	(43)	4.7	16.3	7.0	7.0	4.7	0.0	46.5	14.0
	김제시	(42)	40.5	9.5	7.1	4.8	2.4	2.4	21.4	11.9
	남원시	(40)	12.5	20.0	0.0	2.5	5.0	0.0	37.5	22.5
	완주군	(42)	14.3	14.3	2.4	4.8	4.8	0.0	33.3	26.2
	고창군	(37)	8.1	8.1	16.2	5.4	2.7	0.0	51.4	8.1
	부안군	(35)	11.4	8.6	17.1	5.7	0.0	2.9	37.1	17.1
	임실군	(33)	18.2	9.1	21.2	12.1	3.0	0.0	24.2	12.1
	순창군	(34)	11.8	8.8	23.5	5.9	0.0	0.0	29.4	20.6
	진안군	(33)	6.1	9.1	24.2	18.2	0.0	0.0	24.2	18.2
	무주군	(31)	3.2	25.8	22.6	0.0	3.2	0.0	32.3	12.9
	장수군	(36)	13.9	5.6	22.2	5.6	0.0	0.0	27.8	25.0
행정 구역	읍/면	(362)	11.9	12.2	15.2	7.2	1.9	0.3	34.8	16.6
	동	(243)	18.9	9.1	2.5	6.6	4.1	0.8	28.4	29.6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11.4	4.5	6.8	2.3	2.3	0.0	15.9	56.8
	5년~10년 미만	(149)	15.4	11.4	6.7	10.7	1.3	0.0	34.9	19.5
	10년~20년 미만	(289)	15.9	13.5	10.7	8.0	3.1	0.7	33.9	14.2
	20년 이상	(79)	12.7	7.6	17.7	1.3	5.1	1.3	39.2	15.2

마.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5점척도)는 평균 3.62점으로 나타나,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남성(3.80점)이 여성(3.61점)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김제시(3.90점)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진안군(3.18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0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단위: N, %, 5점척도 평균)

		사례수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평균 (5점척도)
전체		(605)	0.5	8.1	41.2	29.4	20.8	3.62
성별	여성	(560)	0.5	8.2	41.6	29.5	20.2	3.61
	남성	(45)	0.0	6.7	35.6	28.9	28.9	3.80
거주 시군	전주시	(81)	1.2	11.1	32.1	27.2	28.4	3.70
	익산시	(60)	0.0	8.3	38.3	30.0	23.3	3.68
	군산시	(58)	1.7	10.3	51.7	20.7	15.5	3.38
	정읍시	(43)	0.0	9.3	58.1	16.3	16.3	3.40
	김제시	(42)	2.4	4.8	23.8	38.1	31.0	3.90
	남원시	(40)	0.0	10.0	35.0	25.0	30.0	3.75
	완주군	(42)	0.0	7.1	42.9	33.3	16.7	3.60
	고창군	(37)	0.0	16.2	35.1	40.5	8.1	3.41
	부안군	(35)	0.0	2.9	45.7	31.4	20.0	3.69
	임실군	(33)	0.0	3.0	33.3	39.4	24.2	3.85
	순창군	(34)	0.0	2.9	38.2	26.5	32.4	3.88
	진안군	(33)	0.0	18.2	51.5	24.2	6.1	3.18
	무주군	(31)	0.0	3.2	45.2	35.5	16.1	3.65
	장수군	(36)	0.0	0.0	52.8	33.3	13.9	3.61
행정 구역	읍/면	(362)	0.0	7.2	42.5	30.9	19.3	3.62
	동	(243)	1.2	9.5	39.1	27.2	23.0	3.61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88)	1.1	9.1	34.1	30.7	25.0	3.69
	5년~10년 미만	(149)	0.7	8.1	44.3	24.8	22.1	3.60
	10년~20년 미만	(289)	0.3	6.9	41.9	31.5	19.4	3.63
	20년 이상	(79)	0.0	11.4	40.5	29.1	19.0	3.56

바. 장기 거주자의 생활 변화

① 경제환경 변화

10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에게 경제환경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금 나아졌다’가 6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나아졌다’가 17.4%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응답자의 77.5%가 처음 입국초기보다 경제적으로 나아졌다고 평가하였다.

표 III-131 경제환경 변화

(단위: N, %)

		사례수	더 나빠졌다	똑같다	조금 나아졌다	매우 나아졌다
전체		(368)	5.7	16.8	60.1	17.4
성별	여성	(346)	4.9	17.1	61.0	17.1
	남성	(22)	18.2	13.6	45.5	22.7
거주 시군	전주시	(35)	5.7	14.3	54.3	25.7
	익산시	(38)	5.3	10.5	63.2	21.1
	군산시	(24)	4.2	41.7	41.7	12.5
	정읍시	(27)	3.7	11.1	74.1	11.1
	김제시	(35)	0.0	5.7	65.7	28.6
	남원시	(25)	12.0	8.0	72.0	8.0
	완주군	(33)	9.1	18.2	48.5	24.2
	고창군	(27)	3.7	18.5	51.9	25.9
	부안군	(22)	4.5	13.6	72.7	9.1
	임실군	(18)	0.0	11.1	66.7	22.2
	순창군	(27)	7.4	29.6	55.6	7.4
	진안군	(19)	5.3	26.3	63.2	5.3
	무주군	(18)	0.0	11.1	66.7	22.2
	장수군	(20)	20.0	25.0	50.0	5.0
행정 구역	읍/면	(236)	5.9	16.1	61.0	16.9
	동	(132)	5.3	18.2	58.3	18.2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0)	-	-	-	-
	5년~10년 미만	(0)	-	-	-	-
	10년~20년 미만	(289)	5.5	15.6	61.2	17.6
	20년 이상	(79)	6.3	21.5	55.7	16.5

② 삶의 만족 변화

10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삶의 만족은 처음보다 ‘조금 나아졌다’가 62.2%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나아졌다’가 17.9%로 나타나 응답자의 80.1%가 입국 초기보다 삶의 만족이 높아졌다.

표 Ⅲ-132 삶의 만족 변화

(단위: N, %)

		사례수	더 나빠졌다	똑같다	조금 나아졌다	매우 나아졌다
전체		(368)	2.4	17.4	62.2	17.9
성별	여성	(346)	2.3	17.3	63.3	17.1
	남성	(22)	4.5	18.2	45.5	31.8
거주 시군	전주시	(35)	5.7	11.4	57.1	25.7
	익산시	(38)	0.0	15.8	63.2	21.1
	군산시	(24)	0.0	37.5	50.0	12.5
	정읍시	(27)	3.7	14.8	63.0	18.5
	김제시	(35)	2.9	2.9	74.3	20.0
	남원시	(25)	0.0	16.0	68.0	16.0
	완주군	(33)	12.1	15.2	60.6	12.1
	고창군	(27)	3.7	22.2	59.3	14.8
	부안군	(22)	0.0	22.7	50.0	27.3
	임실군	(18)	0.0	11.1	72.2	16.7
	순창군	(27)	0.0	25.9	55.6	18.5
	진안군	(19)	0.0	15.8	84.2	0.0
	무주군	(18)	0.0	16.7	55.6	27.8
	장수군	(20)	0.0	25.0	60.0	15.0
행정 구역	읍/면	(236)	2.5	16.9	63.1	17.4
	동	(132)	2.3	18.2	60.6	18.9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0)	-	-	-	-
	5년~10년 미만	(0)	-	-	-	-
	10년~20년 미만	(289)	3.1	16.3	65.7	14.9
	20년 이상	(79)	0.0	21.5	49.4	29.1

③ 한국어 실력 변화

한국어 실력 변화는 ‘조금 잘한다’가 63.6%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잘한다’의 비율도 29.6%로 나타나 응답자의 93.2%가 한국어 실력이 좋아졌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임실군은 매우 잘한다가 61.1%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어 실력이 입국초기보다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33 한국어 실력 변화

(단위: N, %)

		사례수	더 못한다	똑같다	조금 잘한다	매우 잘한다
전체		(368)	0.3	6.5	63.6	29.6
성별	여성	(346)	0.3	6.4	63.3	30.1
	남성	(22)	0.0	9.1	68.2	22.7
거주 시군	전주시	(35)	0.0	2.9	54.3	42.9
	익산시	(38)	0.0	5.3	52.6	42.1
	군산시	(24)	0.0	25.0	41.7	33.3
	정읍시	(27)	0.0	3.7	63.0	33.3
	김제시	(35)	0.0	5.7	85.7	8.6
	남원시	(25)	0.0	8.0	60.0	32.0
	완주군	(33)	0.0	3.0	81.8	15.2
	고창군	(27)	0.0	7.4	70.4	22.2
	부안군	(22)	0.0	4.5	68.2	27.3
	임실군	(18)	0.0	0.0	38.9	61.1
	순창군	(27)	0.0	7.4	51.9	40.7
	진안군	(19)	0.0	10.5	73.7	15.8
	무주군	(18)	0.0	11.1	72.2	16.7
	장수군	(20)	5.0	0.0	70.0	25.0
행정 구역	읍/면	(236)	0.4	5.1	66.9	27.5
	동	(132)	0.0	9.1	57.6	33.3
전북 거주 기간	5년 미만	(0)	-	-	-	-
	5년~10년 미만	(0)	-	-	-	-
	10년~20년 미만	(289)	0.0	5.5	66.4	28.0
	20년 이상	(79)	1.3	10.1	53.2	35.4

2. 면접조사

1) 집단별 다문화가족 면접조사

(1) 조사개요

다문화가족의 생활 실태와 지원정책 욕구를 살펴보기 위하여 거주기간별 결혼이주민 여성과 다문화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또는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실시하였다. 대상선정은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모집하였으며 연구참여에 동의한 16명은 <표 III - 134>와 같다.

연구자는 면접조사 당일 연구목적 및 내용, 인터뷰 녹음 및 비밀보장, 철회요구 및 수집자료 활용 등을 참여자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의사소통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통역사와 함께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시간은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 소요되었다.

조사내용은 다문화 한부모 가족과 다문화 가족을 구분하여 구성하였는데 다문화 한부모 가족은 국제결혼의 시작과 가족변화 기간 및 이유, 가족해체 시 걱정되거나 힘들었던 점, 가족 해체 후 생활, 자녀 관련 질문(양육권, 면접교섭, 자녀돌봄), 필요한 정책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거주기간별 결혼이주민 여성에게는 한국인의 아내, 엄마로서 삶의 이야기, 현재 가장 어려운 점, 취업 및 경제활동, 삶의 질 향상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분석방법은 녹음된 인터뷰 내용을 전사한 녹취록과 현장에서 필사한 노트를 중심으로 정독하면서 유사한 의미와 개념을 추출하고 통합하면서 범주화하였다.

표 III-134 다문화가족 참여자 특성

세부집단 유형	참여자	출생연도	출신국	교육수준	한국거주 기간(년)	혼인 상태	혼인유지 기간	자녀(명)	자녀출생 연도	센터이용서비스	
결혼 이주민 여성	거주기간 5년 이하	A	1996	캄보디아	중졸	5	초혼	2	20, 22	국적취득반, 한국어교육, 언어발달	
		B	1992	태국	고졸	4	재혼	4	2	14, 21	한국어교육, 언어발달
		C	1981	몽골	고졸	5	재혼	2	2	01, 06	이용하지 않음
	거주기간 10년 이상	D	1986	베트남	대학원졸	17	초혼	17	3	18, 19, 12	이용하지 않음
		E	1983	중국	대졸	15	초혼	15	1	10	이용하지 않음
		F	1987	캄보디아	학력없음	14	초혼	14	1	11	검정고시
	거주기간 20년 이상	G	1976	키르기스 스탄	대졸	18	초혼	22	3	03, 05, 11	이용하지 않음
		H	1971	필리핀	대졸	23	초혼	23	2	03, 05	이용하지 않음
		I	1980	필리핀	대졸	20	초혼	20	2	04, 06	이용하지 않음
	한부모 가족	J	1989	베트남	고졸	17	이혼	14	3	08, 14, 17	지역아동센터
		K	1985	베트남	대재	20	이혼	16	2	07, 12	지역아동센터
		L	1982	캄보디아	중졸	15	이혼	11	1	11	봉사단
다문화 한부모 아버지	M	1981	베트남	중졸	18	이혼	9	2	02, 09	지역아동센터	
	N	1964	한국	중졸	-	이혼	7	3	07, 08, 11	이용하지 않음	
	O	1979	한국	고졸	-	이혼	5	2	09, 11	지역아동센터	
	P	1972	한국	고졸	-	이혼	11	1	11	이용하지 않음	

(2) 분석결과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 및 정체성, 가족관계 정책 평가 등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II-135>와 같다.

표 III-135 다문화가족 면접조사 결과

범주	하위범주
한국생활의 어려움	- 문화 및 언어 차이로 인한 갈등 - 다문화가족이라는 낙인감 - 어렵지만 해야만 하는 한국어
부부관계	- 부부의사소통 어려움 - 자녀교육에 대한 차이 - 배우자 참여 부부교육 필요
자녀문제	- 낮은 양육비 이행을 - 자녀돌봄 어려움 - 자녀 언어교육 어려움 - 자녀 진로 및 진학 문제
센터 이용의 어려움	- 센터이용의 낮은 접근성 -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감소 - 홍보 부족

① 한국생활의 어려움

□ 문화 및 언어 차이로 인한 갈등

다문화가족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문화와 언어였으며 특히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가부장 문화는 비교적 평등하게 지내온 결혼이민자에게는 힘든 문제였다. 다문화 부부는 내국인 부부보다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결혼이 이루어지고 결혼동기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므로(김금희 외, 2015) 갈등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만약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혼으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 5년 이하의 다문화가족의 경우에는 분가를 선택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례도 있다.

(처음와서 제일 힘들었던 것) 언어하고 음식, 말 안 통하니까 오해도 많이 있어요(참여자K)

처음 왔을 때 그 동네 어르신들한테 들었는데 한국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고
무조건 남자를 잘 따라 살아야 된다고 들었어요(참여자L)

우리 남편은 ‘외국 사람이라 다 몰라~’ 이렇게 생각해요(참여자M)

한국 처음 왔었을 때 아예 한국어 못했어요. 그냥 시골에서만 일하고 그냥 시댁에서만
있고 어디 돌아다니지 못 해요. (중략)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2년 반
정도 살다가 지금은 나왔어요(참여자A)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 딸 어린이집 갔어요. 어린이집에 다녀오면 사탕 아들만
줬어요. 여러~ 번 제가 한국말도 모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파서 그다음에
남편한테도 부탁했어요. 어머니한테 좀 말해주세요. 근데 말 안 한 것 같아요(참여자G)

□ 다문화가족이라는 낙인감

연구결과, 현재 다문화가족은 2000년대의 다문화가족보다 경제적 수준 및 삶의
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다문화가족을 취약계층으로 인식하는
관점이 있어 차별과 편견을 경험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학교에서 내국인
자녀와 다르게 지원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다문화가족이라는 낙인감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의 낙인감 경험은 저급함, 부담스러운 시선,
비주류, 자기낙인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험을 한 참여자는 타인의 불편한 시선을
감당하고 사회적 정체성에 혼란을 경험하여 스스로를 가치절하하기도 하였다(김수미·
정경은, 2013).

이제 다문화가족은 어느 정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그만큼 또 한국에서 또 자기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고(참여자C)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구분 없이 그냥 동등하게 좀 지원했으면 좋겠고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이라고 해서 주는 장학금도 제가 거절 했어요. 왜냐면, 만약에 아이가 공부가 잘하면
장학금 받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로지 그냥 다문화 학생이라고 해서 주는
것은 아이도 받고 싶지 않아요. 아이가 나는 다문화구나. 라는 그런 뭐라 자격지심
줄 수 있기 때문에(참여자D)

앞으로는 우리 한국에서도 다문화국가이다 보니까, 그 다문화가 이미 유럽 쪽에서는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좀 구분없이 그냥 똑같은 정책으로 지원하잖아요. 우리 한국도 똑같이 해야 되지 않은가(참여자E)

□ 어렵지만 해야만 하는 한국어

결혼이주민 여성에게 한국어는 가장 필요한 도구이며 꼭 넘어야 되는 산과 같다.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결혼이주민 여성 모두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현재 가족센터에서는 수준별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국어 습득하는데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먼저 대부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일 낮시간 수업 참석이 어려웠으며 자녀가 어릴때에는 양육과 한국어 공부를 병행해야 하므로 수업참여가 더욱 힘들었다. 또한 한국어 수업 참여자 수가 적다 보니 합반을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수준별 수업진행이 잘 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장기간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민 여성은 한국어를 잘 구사하지만 여전히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욕구가 나타났다. 20년 전에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지원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한국어 교육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으며 고급수준의 한국어는 잘 모른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자녀가 한국어가 잘 되지 않는 엄마를 불편해하거나 역으로 자녀가 모에게 한국어를 알려주는 사례도 있어 장기 거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중급반 학생이 없으니까 이제 고급반으로 넘어가요. 그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중급반은 해야 되는데 학생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고급반으로 올라가라고(참여자A)

한국어도 공부하고 싶은데 같이 하기 어려워요. 공부하고 아이 보육하는 거(참여자B)

그때는 교회에서 배우고 YWCA에서 가르쳐주고 그랬지요. 20년 이상 살았어도 (한국말) 아직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참여자H)

제가 아까운 것은 제가 처음부터 못 배워서 아까웠어요. 처음 배우다가 그만두고 배우다가 그만두니까 꾸준히 다녀야 되는데 또 집 멀고 하고 또 버스 별로 없고 그래서 또 임신하면 힘들고 하니까 꾸준히 다녀야 조금 글씨 같은 거 좀 알아야 되는데 말은 잘 하는데 글씨가 좀 많이 부족해요.(참여자F)

엄마가 그냥 간단한 문제인데 엄마가 못 알아들었으니까,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죠.
아이들이 엄마가 외국인이라서 창피하는 거죠(참여자J)

엄마가 이제 언어나 이런 게 좀 잘 안 될 때는 엄마한테 불만이 많지. 이혼전에는 내가
해줬는데 이제 안되니까 아빠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해 이런식으로 하지(참여자P)

② 부부문제

□ 부부 의사소통 어려움

언어의 한계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움도 있지만 효과적인 대화방법을 습득하지 못해
갈등상황에서 해결이 어려울 때도 있다. 특히 이혼 경험이 있는 경우, 대화를 잘하지
못한 아쉬움이나 갈등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참기만 했던 점 등 소통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다문화 부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부부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사소통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언어 교육과 함께 갈등 관리 및 대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부부 간의 의사소통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갈등 발생) 참아 참아 여러 가지 많이 쌓아놔야해요. 그러면 언제나 커져요. 그때
그때 해요. 그때 둘이 많이 싸울 때면 집 나가라. 내 집이다. 한 번만 아니라 여러 번
했으니까 좀 서운하죠(눈물). 말이 안통하죠(참여자K)

중요한 건 대화요. 대화가 안되도 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 싫다는 표현을 하면 안돼요.
먹고살기 바쁘다고 무슨 질문하면 짜증만 났어요. 그게 후회가 되죠(참여자O)

□ 자녀교육에 대한 차이

문화 차이로 인한 자녀교육의 차이는 갈등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결혼이주민의 시각으로
보면 한국의 자녀교육은 매우 허용적이며 부모가 과도하게 도와주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부모 역할에 대한 기대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부 결혼이주민 여성은 자녀를 출신국에 계신 친정에 맡기면서 일을 하기도 하였으며 자녀돌봄을 위해 친정 부모를 초대하지만 손자녀 돌봄을 하지 않고 근로를 통해 경제적 수익을 얻는 경우도 있다.

애기 한국 교육이랑 베트남 애기 교육이랑 달랐기 때문에 좀 많이 싸웠어요. 베트남 애들 교육하면 뭐가 오냐 오냐 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모든 걸 엄마가 해줘요. 만약에 애기가 조금 한 살, 두 살이나 세 살 뭐가 아기가 그걸 할 수 있는데 베트남은 애기 해라. 할 수 있도록. 근데 한국에서는 안 그래요(참여자K)

아이 엄마는 돈이 중요한 사람이니깐, 이제 아기가 돌 때 (베트남으로) 갔다가 학교 갈 때 왔기 때문에 처가에서 키워줬죠. (중략) 아이가 지금 와서는 뭐라고 하나면 내가 고아였다. 그 이야기를 지금도 해. 서운하게 해주면 지금도 베트남 보낼 거야? 그래요 (참여자P)

□ 배우자(남성) 참여 부부교육 필요

부부교육의 필요성은 모두 알고 있지만 배우자 참여가 저조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교육에 참여하는 배우자는 이미 가정에서 비교적 역할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언급하였다. 모든 결혼생활에서 부부관계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특히 타국에서 온 결혼이주민 여성에게 부부 지지체계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부부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배우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긍정적 동기 부여도 고려해 볼 만하다.

항상 부부 갈등이 많아요. 의사소통 때문이기도 하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로 싸운 거 많이 있어서, 부부프로그램이 중요하죠(참여자A)

부부프로그램 있는데 신량이 안가요(참여자J)

부부교육 받기 싫어하는 남편이 많이 있더라고요(참여자L)

가족센터에서 남편들 부족하면 우리 신랑 좀 나와달라고 사진도 찍고 결과보고도 해야 하잖아요. 사람 없으면 바로 집 옆에 (센터가) 있으니까 나와달라고 하고. 근데 이미

나와 있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따로 교육 안해도 돼요(참여자 D)

③ 자녀문제

□ 낮은 양육비 이행률

다문화 한부모 가족 참여자 모두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 면접교섭은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22)에 의하면 양육비 이행률(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은 1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이주민 여성이 한부모인 경우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접근성이 낮아 법률적 대응이 어려우며 언어 및 문화 차이로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혼 힘들어요. 2년 걸렸어요. 남편은 변호사 불러, 저는 다문화니깐, 나는 조용히,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 아이키우고 싶고 남편도 키우고 싶으니까 소송했어요 (참여자M)

돈 보내주면 애기 안주고 너가 다 먹는다고, 엄마가 다 쓸까봐 안줘요. (중략) 저 생활 강해요. 안받고 말아요. (면접교섭은?) 주말마다 아이들 보내줬어요(참여자J)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랑 생각은 달라요. 안주면 말고,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냥 그렇게 우리 우리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참여자K)

이제 나중에 (아이 엄마가) 직장을 다니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라. 니가 버는 돈은 10원도 손 안 댈 테니까(양육비 받지 않을테니) 네가 벌어서 그쪽(친정)으로 다 보내주든지 마음대로 해라(참여자N)

□ 자녀돌봄 어려움

다문화 한부모 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돌봄이었다. 참여자 모두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센터보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였다. 다문화 한부모 가족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습지도, 저녁식사, 여행까지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18시 이후에는 자녀돌봄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한 사례도 있다.

이제 학교 끝나면 거기(지역아동센터)에서 저녁밥까지 먹어서 보내니까요(참여자N)

지역아동센터 따뜻해요. 아이 밥줘, 엄마 돈 없잖아 아기는 치킨 해줘 하고 그러면 따뜻하게 대해줘. 아이들 매일 가. 그리고 애들한테 보고 정보도 줘. 반찬 지원도 해줘. 애들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 줘(참여자M)

만약에 우리 일 때문에 그 애기 방학이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애기 컸지만 여자니까 좀 걱정하거든요. 일을 하면서도 센터는 어떻게 6시까지만 하니까(참여자K)

□ 자녀의 언어교육 어려움

결혼초기에는 결혼이주민 여성의 한국어 실력이 낮기 때문에 자녀의 언어발달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일부는 친정엄마가 한국으로 와서 함께 양육을 하게 되면서 자녀가 어머니의 모국어를 습득하게 되어 한국어 발달이 늦어지는 사례도 있으며 미디어 노출로 인해 언어발달이 늦은 사례도 있다.

이중언어는 인지능력, 사고력, 어휘력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업, 직업선택 등의 사회적으로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한국어를 다수 언어로 사용하고 어머니의 모국어를 소수언어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중언어 환경 조성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황상십, 2018). 이러한 환경에서는 부모의 노력이 매우 중요한데 대부분 아버지는 자녀교육을 어머니의 역할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이중언어 지원에 소극적인 편이다.

또한 결혼이주민 여성은 자녀가 학교에 입학 후 한국어가 서툴러 왕따나 차별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한국어만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결정은 자녀의 한국 생활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자녀가 성장한 후에는 이중언어 교육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기도 하였다.

큰 애기가 아이패드 보고, 아이패드 게임이나 그런 거 보고 있어. 동생이 혼자 tv 틀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기 때문에 저는 공부 해~ 그러면서 시간 지나가고 아기가 두 살인데 말을 안 해. 말은 안 나와. 지금이 지금 문제야 애기가 말을 안해 (참여자B)

사실은요. 처음에는요. 애들이 낳고 우리 어머니가 저도 영어 수업하다 보니, 우리 어머니가 저는 영어로 대화하고 우리는(남편과 시모) 한국말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저는 언니가 먼저 왔잖아요. 조카가 학교 먼저 들어갔는데 조카들이 영어 잘하는데 한국말이 좀 못했죠. 그래서 애들이 학교 갔더니 왕따 시킨 거죠. 그때 (15년 전) 다문화는 좀 그렇게 많이 차별이 있긴 했어요(참여자)

제가 후회 제일 후회하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내가 모국어를 가르치면 아이들이 이제 한국어도 안 되고 엄마 모국어도 안 될까 봐 좀 헛갈릴까 봐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제가 자꾸 모국어를 하면 한국어 놓칠까 봐 그런 부분도 두려워서, 계속 한국어만 집중해서 배웠어요(참여자D)

□ 자녀 진로 및 진학 문제

결혼이주민 여성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대학입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입시 및 학교 정보 공유는 주로 어머니 모임에서 이루어지는데 결혼이주민 여성은 한국 어머니 모임보다는 같은 출신국 어머니와 모임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어 입시 정보가 취약한 편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먼 단위에는 다문화가족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입시를 위한 학원이나 학습 지원이 부족해 학업지도에 어려움이 있다.

교육시스템이 국가간 다르기 때문에 진로 및 진학에 어려움을 경험한 사례도 있으며 그러한 차이를 알지 못한 것들이 후회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입시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한국 청소년과 부모가 안쓰럽기도 하였다.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크게 늘어났으며 자녀가 잘 모르는 학교 공부를 지도하기가 어려운 사례도 있다.

엄마들은 이제 만나면 맨날 아이들 교육, 중고등학교 학부모 모임 있잖아요. 학부모 모임. 그런 걸 이제 같이 만나면 어느 학교 가면 좋고 어디 학교 가면 어떤 그런 정보 있고 서로 공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쪽으로 많이 가려고 해요. 제가 엄마랑 같이 어울리면서 일반 엄마 얻는 정보가 많으니까. 근데 같은 나라 엄마들은 이렇게 만나면 그냥 뭐 일상생활의 어떤 대화 대화만 하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언어가 되니까 괜찮지만, 언어가 안 되는 엄마들은 학교 가는 자체만 해도 거북한데 다른 학부모하고 대화하는 건 더 안 하죠(참여자D)

이제 시골에는 다문화가족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차별 이런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원이 없어요. 아이가 공부하고 싶은 학원이. 그래서 버스타고 나가요(참여자E)

아기가 공부 못한 거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알아도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참여자J)

우리 한국은 그냥 기다리면 공부시키지 않고, 어렸을 때 교육습관이 안 돼 있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 못 따라가요. 제가 그때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랑 한국 나라 교육이 너무 달라서, 그냥 냅 두면 안되는구나. 제가 그때 내비뒀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 결과가 좀 안 됐어요(참여자G)

몇 년 전에 큰아들 그때 수능할때 그 이슈도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수능 떨어져 가지고 부모가 맨날 너는 왜 왜 공부 안했어? 그래서 떨어졌어. 그때 자살 아이들 많이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이고~ 생각해 봐야지. 부모들도 생각해 봐야지. 아이들 건강. 아이들 인생. 나도 그때 많이 슬퍼서 학생들이 맨날 그런 이야기 부모들 그런 이야기 하니까 그래서 나는 아이들한테 공부 프레스는 안 하고 싶어요(참여자H)

학원비 한 명당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70만 원 나가요. 이제 두 과목만 해도 70만 원이고, 저희 아기 3명은 다 다니잖아요. 이제 한 명 월급이 나가는 거죠. 굉장히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고, 굳이 우리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공부해서 과연 내가 원하는 대학교 갈 수 있을까? 서울대 나와도 제대로 취업을 할 수 있을까(참여자D)

④ 센터 이용의 어려움

□ 센터 이용의 낮은 접근성

면 단위에 거주하는 결혼이주민 여성은 교통이 불편하여 센터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방문 서비스를 통한 한국어 수업을 참여하고 있지만 그 외 부모교육 및 부부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가 쉽지 않았다. 또한 지역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사례도 있었다. 예를 들어 완주군은 지역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어 완주군 가족센터와 반대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전주 등 다른 지역 센터 이용이 더 용이한 경우도 있지만 지역사람은 지역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시골에 살다 보니까 다문화센터를 자주 못 갔죠. 교통편도 불편하니까(참여자D)

그게 좀 서운한 거는 가족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뜨잖아요. 저는 ○○군 사람이라, 아무래도 신청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잘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군청까지 가면 좀 멀고(참여자 F)

□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감소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가족센터 이용 횟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의 초기정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장기간 결혼생활을 유지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편이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전입시 가족센터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가족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이제 (아이들) 커서 센터에 행사 있다고 해도 아이들이 가지 않아요(참여자 E)

○○시로 이사왔는데 아무 연락도 없었고 지역아동센터만 이용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도움 많이 주니까요(참여자 K)

□ 홍보 부족

2000년대에 입국한 결혼이주민은 교회, 복지관, 면사무소 등을 통해 한국어 지원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입국 초기에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홍보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낯설고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은 결혼이주민 여성은 대부분 기억하지 못했다. 또한 가족센터 외 아이돌봄, 주거지원, 취업계층 지원 등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 받을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해보인다.

(아이돌봄) 그냥 대충 들었는데 그냥 정확하게 정보 같은 거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몰랐어요(참여자 B)

저는 이런 센터 있는지 몰랐고 남편이 신청해줘서 방문교육 받았어요. 그 전에는 이런거 몰랐어요(참여자 A)

센터 이용 안하고 잘 몰라요. 몽골은 전체 단톡이 있어요. 거기에 정보 올라와요(참여자 C)

2) 기관종사자 및 현장 전문가 면접조사

(1) 조사개요

다문화가족 지원 경험, 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관종사자 및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실시하였다. 다양한 관점을 살펴보고자 한국인 기관종사자와 결혼이주민 기관종사자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대상선정은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모집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6명은 <표 III- 136>과 같다.

연구자는 면접조사 당일 연구목적 및 면접조사내용, 인터뷰 녹음 및 익명성보장, 철회요구 및 수집자료 활용 등을 참여자에게 구두로 설명한 후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시간은 7월 10일과 8월 2일에 진행하였으며 시간은 약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조사내용은 다문화가족을 바라보는 관점, 다문화가족의 서비스 참여 수준 및 평가, 다문화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과 그렇지 못한 사업, 사업 지원시 어려운 점, 향후 꼭 필요한 사업 등으로 구성하였다. 분석방법은 녹음된 인터뷰 내용을 전사한 축어록과 현장에서 필사한 노트를 중심으로 정독하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사한 의미와 개념을 추출하고 통합하면서 범주화하였다.

■ 표 III-136 ■ 기관종사자 및 현장전문가 FGI 참여자 특성

구분	참여자	직위	총 경력
기관종사자 및 현장전문가	Q	팀장	12
	R	팀장	2
	S	팀장	10
	T	팀장	15
	U	선임대리	8
	V	통번역사	4

(2) 분석결과

기관종사자 및 현장전문가의 다문화가족 지원 경험, 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주요결과는 <표 III-137>과 같다.

■ 표 III-137 ■ 기관종사자 및 현장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범주	하위범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방향	•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점 변화 •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한계	• 모집 어려움 • 효과성이 낮은 사업 운영 어려움 • 중복사업 • 다문화가족만을 위한 지원 사업 한계 • 평가체계의 한계 • 외국인 가족 지원 한계

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방향

□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점 변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체류외국인 비율이 5%가 넘으면 ‘다인종 다문화국가’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 전체 인구 중 5.07%가 외국인으로 집계되어 아시아 최초로 다인종, 다문화국가가 되었다(김소연, 2024). 실제 현장에서도 다문화 가족의 비율은 과거보다 증가하였으며 이제는 더 이상 취약계층이 아닌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 수급자는 과거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례도 많다고 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족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보다 안정된 위치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즘에 다문화라고 해서 무조건 또 다 취약은 또 아니에요. 오히려 잘 사는 분들이 훨씬 많고. 실제적으로 현황을 보면 기초수급자가 별로 없어요(참여자T)

이제 계속 다문화 가정을 취약위기가 이렇게 계속 몰아가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더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다양한 가족의 발현인 거지, 1인 가구,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에서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 가족 공동체가 불안하다 이제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냥 진짜 다양한 가족의 발현이다. 이렇게 접근을 해서 좀 더 가족의 긍정적인 측면을 좀 부각시키고 그거를 좀 더 다양하게 교육 사업으로 좀 연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참여자S)

□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부족함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때로는 과도하게 지원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 중심 사업은 축소하고 비다문화가족과의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생애주기별 사업, 1인가구 등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지원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다문화가족에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재혼가족 등 복합적인 가족의 형태가 있으므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이 필요하다.

사실은 여가부 사업에는 부족한 게 없어요. 부부 교육 있지, 가족 교육 있지, 인식 개선, 초기 적응, 부모 역할, 성교육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항상 저희가 모집할 때 보면 나오는 사람만 나와요(참여자T)

저는 너무 과지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중략) 시비로 하는 경우는 다문화사업보다는 일반가정이나 저희는 1인 가구에 좀 많이 집중해서 여기 인구 너무 줄고 있어서 인구 정책 이런 거에 많이 집중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오히려 다문화는 적게 하는 것 같아요. (중략) 저희가 좀 현타가 왔을 때는 캠프를 하는데 이제 너무 받는 게 익숙하시니까 이런 것들 다 놓고 필요 없다고 이런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서비스 방향이 맞나(참여자R)

②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한계

□ 모집 어려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모집이다. 모집이 어려운 이유는 거주기간이 증가할수록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참여율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한국어 실력이 좋아지고 자녀가 유치원 및 학교에 가면 센터 이용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대부분 한국어가 잘 되지 않아도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

이 외에도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체험 및 현금성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반면, 교육 및 상담 관련 지원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교육 및 상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결국 동일한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이 된다.

또한, 사업 담당자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전화해 부탁하거나 사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사업 운영 과정에서 소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 명당 기본 세 번은 전화를 해야 해요. 300가구니까 저희가 1천 통 넘게 전화를 하죠. 어떤 사람은 이제 전화를 안 받으면 이제 10번도 넘게 계속 해야 되고 한 사람당 일주일 전부터 계속 매일 전화하고 요즘 이제 카톡 있으니까 카톡으로 꼭 와줘 이러면서 거의 빌다시피(참여자S)

케이크 만들기 아니면 돈 주거나(취약계층 자녀학습비 지원) 자녀 학습 이런거는 금방 차요. 부부 교육 오라, 시어머니 교육 오라, 안와요. 이거 교육 담당자는 진짜 올상 이에요. 해마다(참여자 U)

저는 이제 12년에 같이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예전에 저랑 이제 같이 했던 이주 여성분들이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초등학교이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굳이 센터에 오실 필요를 못 느끼시고 그리고 10년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어느 정도 정착을 했고 본인의 또 일이 있으세요(참여자Q)

□ 효과성이 낮은 사업 운영 어려움

현실과 괴리감이 있거나 효과성이 낮은 사업운영은 지원하는 담당자와 이용자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 특히 직업 훈련 교육과 검정고시 사업은 결혼이민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현실적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직업교육훈련을 살펴보면 직업교육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어 프로그램을 개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참여하는 수는 저조한 편이며 교육과 실제 취업률이 연결되는 경우가 적은 편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한국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용어가 나오는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다. 네일아트, 한식조리사, 요양보호사 등 한국에서는 비교적

쉬운 자격증이라고 생각되지만 결혼이주민 여성에게는 한국어라는 큰 벽이 있다.

둘째는 보수 문제이다. 결혼이주민 여성이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전문적인 일은 통번역 일인데 통번역 수당은 공장에서 받는 야간수당보다 적기 때문에 출신국에서 고학력을 취득했더라도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선택한 사례도 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 결혼이주민 여성은 경제활동을 선호한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을 받으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자격증 취득도 쉽지 않으므로 한국어가 잘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식당에서 설거지하기 등 신체노동)을 선택하기도 한다.

신규 입국자가 없으면 이제 기존에 있던 회원들이 이제 우리가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5년 이상만 지나면 거의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그 부분도 이해가 돼요. 애들이 크니까 학원비도 많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일을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아닌 거예요. 다 그냥 식당 알바 이런 거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직업 훈련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너무 직업 훈련이라고 하기에 조금 그냥 수박 겉핥기 처럼 그냥 빨리 그냥 사업비 소진하는 그런 느낌이에요(참여자J)

저희가 손재주가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작년에 네일아트 열었거든요. 시험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진짜 선생님이 본인보다도 기술이 너무 좋다고 너무 잘한다고 막 이렇게 칭찬까지 하는데 시험에는 떨어지죠. 전문 용어 같은 거라서 다 외워야 하니까요 (참여자S)

공장에 가면 이제 야근 수당도 있고 하면 사실은 번역 수당보다는 세요. 이미 이제 맛을 들인 분들은 여기에서 니가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한국에 와서 한국어까지 졸업했는데 왜 공장에 가 있냐? 하면은 선생님 그 수당 갖고는 남편이 지금 아파서 자기는 생활 못한다고요.(참여자T)

장기간 운영된 검정고시 지원 사업은 최근 결혼이주민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입국하는 결혼이주민 여성은 고등학교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정고시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다. 특히 많은 수의 과목을 모두 공부하는 것은 자녀양육이나 일과 병행하면서 하기 어려워, 대부분은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검정고시 대신 학교를 다니게 하는데 그 수도 1년에 2~3명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보통은 다 고등 졸업하고 오기 때문에 요즘 시대는 고등까지는 졸업 안 한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검정고시 하면 안 가. 초등반에서 합격해야 중등이 올라가고 고등으로 가는데. 학원을 보내려고 해도 초중부터는 없어요(참여자V)

□ 중복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기관간의 중복사업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나타났다. 기관 간의 중복 사업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이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운영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전북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학생 맞춤형 한국어 교육지원과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이중언어 지원사업은 중복된다. 또한, 지역 아동센터, 돌봄교실, 늘봄교실, 공동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특정 지역에는 아동이 적어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외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자녀 학습 지원, 시니어클럽의 학습 지원 및 방문 교육 등의 프로그램도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중복 지원은 양적으로는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질적인 관리는 부족하며, 이용자들이 여러 사업을 비교하면서 불평이나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제 저희 가족센터 있고 드림스타트 있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이렇게 아이들 특히 아이들 봤을 때 근데 여기서 서비스 받는 애가 드림스타트에 또 거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드림스타트에서 또 같은 서비스를 받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이제 여기는 이제 밥까지 주니까 전화를 해서 또 그쪽으로 많이 거가서 또 서비스가 또 엄청 많이 되고 있어요. 기관끼리의 중복이 돼요. 한 아이한테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정말 한 4개 5개 센터에서 이 선생님 들어가고 그러니까 좀 어떤 기관에서 좀 장기적으로 이 아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조금 들어가고 이 센터에서 조금 들어가고 이렇게 지원 아이도 이제 오히려 혼란스러워하고 좀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참여자S)

최근에 뭘 알았냐면 시니어 클럽에서 어르신들이 집에 가서 학습 지도를 하더라고요. 집에 선생님이 토요일 날에 간대요. 근데 그게 다문화 가정인 대상이에요. 그럼 차라리 일반 가정을 했으면 저희는 괜찮은데 그럼 한 가정에 선생님이 두 분이 가면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중략) 그런 게 참 조심스럽고 같은 방문 사업에서도 이 선생님을 연계했다가 이 선생님을 연계하면 비교가 되거든요. 이 선생님은 이런 이런 수업을 해주는데 왜 이 선생님은 왜 안 해주고(참여자T)

□ 다문화가족만을 위한 지원사업 한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대상이 다문화가족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다문화 아동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학교내 다문화 아동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농촌의 경우에는 비다문화 아동보다 다문화 아동이 더 많은 경우도 있다. 특히 먼 단위에는 학원이 없기 때문에 다문화 자녀만 혜택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비다문화아동의 부모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지원 사업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지원 사업이 특정 대상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보다 균형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민원 하나 받은 것 중 지금 ○○면이라는 곳에 4명 아이가 있는데 3명이 다문화 가정 아이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이 3명이 다 지금 방문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방문 선생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셔서 애들이 다음날 오면 나는 뭐 했다 자랑을 하니 한 아이만 소외되는 거죠. (중략) 왜 먼 단위에 학원도 없고 아이가 가고 싶어한다. 나도 보내고 싶다. 우리 아이도 가르치고 싶다. 근데 왜 안 해주냐고 막 그러면서 민원을 넣으신 거예요.(참여자S)

왜 다문화만 지원이 되고 같은 반 아이들인데 여기만 지원이 되냐며. 오히려 지금 보면은 진짜 반 이상이 다문화라고, 큰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대요. 어차피 이제는 (가족센터로)통합이 됐잖아요. 통합이 됐으면 공평하게(참여자T)

□ 평가체계의 한계

사업에 참여하는 다문화가족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평가체계는 전년대비 달성율을 평가하는 정량 평가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사업 지원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모집이 어려운 사업인 경우 참여수를 부풀리거나 결혼이주민 여성 기관종사자가 동원되기도 하였다. 정량평가 이외의 정성평가, 과정평가 등의 평가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지금 등록돼 있는 결혼 이주 여성이나 다문화는 이만큼이고 새로 들어온 인원은 이만큼 인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뭔가 실적을 이 정도의 목표치를 잡는다든지 해야되는데 전년 대비 상승해야 되니깐.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너무 이거 하느라 어떻게 그니깐 가라로 채워넣기도 하고(참여자R)

직원이면 프로그램에 참석은 못하고, 만약에 사람 없어서 참석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면 그러면 우리가 가게 되고(참여자V)

□ 외국인 가족 지원 한계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은 다문화가족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가족 또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각 시·군에 외국인 지원센터가 부재하여,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은 가족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이에 기관종사자는 외국인 가족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였으며 특히 외국인 가족 중 어른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면 자녀에 대한 지원만이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저희는 산단이라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데 외국인 센터 역할을 하는 데가 아예 없고 그래도 이제 외국 분들은 저희 센터를 오시기는 하시죠.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오셔갖고 아이를 먼저 데리고 오는데 근데 그런 경우는 지원해 줄 게 없더라고요.(참여자 R)

저희도 외국이 많이 늘어나서 가족 단위로 오셨는데 외국인이 가족 아이들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어떤 분은 어린이집을 50만 원 내고 그런대요.(참여자S)

3. 소결

1) 다문화가족 설문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일반사항 및 가구특성

결혼이민자의 성별은 여성이 92.6%, 남성이 7.4%로 나타났으며 전주시(13.4%)가 가장 많은 응답자가 분포하였다. 결혼이민자의 60.8%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79.7%는 결혼이민(F-6), 국민의 배우자(F-2-1)로 나타났다. 전북 거주기간은 평균 12.1년이며 전북 거주계기는 결혼(86.0%)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결혼이민자의 평균연령은 40.3세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38.3%)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한국어 수준은 평균 3.16점으로 나타났다.

가구 월 평균 소득은 200만원~300만원 미만(31.1%)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주관적 경제적 지위는 결혼이민자의 48.4%가 '중하'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비율은 10.1%로 나타났으며 거주기간이 증가할수록 월평균 소득이 낮아지고 수급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다문화 가족과 20년 이상인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가구유형은 부부와 자녀가 6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부모, 부부, 자녀가 17.0%, 부부만 사는 경우가 10.2%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와 비교해보면 전북 다문화가족은 상대적으로 전통적 가족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연령은 50대(47.9%)가 가장 많으며 교육수준은 고등졸업(52.8%)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자녀수는 평균 1.9명으로, 2021년 전국(1.5명)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자녀연령은 초등학생이 47.2%, 중고등학생이 35.2%로 나타났으며 중도입국한 자녀가 있는 경우는 12.6%, 장애가 있는 경우는 3.1%로 나타났다.

(2) 결혼생활

배우자와의 만남 경로는 여성은 주로 결혼중개업체(30.6%), 가족 또는 친척의 소개로(28.4%)가, 남성은 스스로(52.3%)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결혼이민자 성별에 따라 만남의 경로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결혼이민자의 혼인상태는 대부분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가 있다(88.3%)고 응답하였으며 혼인 유지 기간은 평균 12.1년으로 나타나 장기 결혼을 유지한 다문화부부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 부부의 과반 이상(54.4%)이 하루 평균 대화시간이 1시간 미만이었으며 2시간 이상 대화를 하는 경우는 5년 미만 다문화부부(39.8%)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입국 초기인 결혼이주민 여성의 한국어 실력은 낮지만 신혼기에 애정을 기반으로 서로 소통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어 입국 초기의 다문화 부부의 의사소통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정관리 문항을 보면 가사노동과 자녀돌봄에서 여성은 ‘내가 한다’는 비율이 높은 반면 남성은 ‘내가 한다’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 여전히 여성이 가사노동과 자녀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산관리 및 기타관리는 부부가 같이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 부부의 갈등 경험에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73.4%이며 부부 갈등 이유는 배우자의 성격 가치관(44.9%), 자녀양육 교육(22.2%)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갈등해결 방법으로는 배우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37.0%), 그냥 참는다(23.5%) 혼자서 해결한다(18.1%) 순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중 6.4%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문화가족의 부부 관계 개선 프로그램 및 부부갈등 해결 상담 등이 필요해 보이며 특히 신혼기부터 장기간 결혼생활을 유지한 다문화부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혼·별거 경과 기간은 평균 4.7년으로 나타났으며 성격차이(42.9%)가 이혼·별거의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이혼·별거 후 자녀는 본인(81.0%)이 양육한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양육비 수령은 응답자의 61.8%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59.5%)보다 높은 수치로 다문화가족의 이혼 후 양육비 이행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해보인다.

(3) 자녀양육

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은 평균 3.6점(5점척도)으로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자녀양육 실태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영유아 자녀의 양육 어려움은 자녀에게 한국을 직접 가르치기가 어렵다(38.2%), 자녀양육에 대한 의견차이(25.3%)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자녀 돌봄 분담에서 결혼이주민 여성은 배우자보다 많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 배우자의 공평한 자녀돌봄 역할과 자녀양육에 대한 문화차이 이해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가족은 입국 초기인 경우가 많으므로 자녀의 언어발달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초등자녀의 양육 어려움은 학습지도 및 관리(33.3%)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교육정보부족(17.3%), 교육비용 부담(16.5%), 게임, 스마트폰, 인터넷 갈등(11.4%)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자녀의 학교적응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반이상(52.5%)이 초등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약간 느낀다고 응답하여 자녀와의 의사소통 훈련 및 관계 개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초등자녀의 한국어 실력은 높은 편이나 외국어 실력은 낮은 편으로 나타나 이중언어 환경 조성 및 지원에 대한 방향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고등자녀 양육의 주된 어려움은 교육 정보 부족(24.2%)과 교육비 부담(23.2%)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는 대학입시와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일반가정과 마찬가지로 교육비 부담이 많으며 교육 및 진로 정보에 대한 지지체계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보통 교육 정보는 학교 등을 통해 공적으로 전달되지만 입시 정보 및 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으며 실제 중요한 정보들은 엄마들의 사적 모임에서 수집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만의 자조모임으로는 교육 및 진로 정보 공유에 한계가 있다.

또한 중·고생 자녀와의 하루평균 대화시간은 1시간 미만(65.3%)이 가장 많았으며 자녀와의 대화에서 약간의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도 41.6%로 나타났다. 이는 중·고생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법 및 관계 개선 상담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성인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과반 이상이 교육 비용 부담(50.0%)이라고 하였으며 학업 관련 지원(53.3%)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비다문화가정과 마찬가지로 초기 성인기의 취업을 위한 학업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4) 지역사회관계

지역사회 참여활동 연구결과를 보면 과반 정도(49.9%)가 이주민 모임을 하고 있으며 읍/면 지역(80.9%)이 동 지역(68.3%)보다 지역사회 참여활동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 생활의 어려운 점으로는 언어(27.1%)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응답자 중 22.3%가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서비스 인식 및 필요도는 <표 III-138>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가족센터 및 관련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 표 III-138 ■ 자원서비스 인식 및 필요도

자원서비스	모른다	안다	필요도(5점만점)
센터교육	0.0	100.0	4.32
가정방문교육	9.4	90.6	4.14
통번역지원	10.4	89.6	4.09
가족상담	14.7	85.3	4.00
위기사례지원	20.0	80.0	4.00
사회활동지원	16.2	83.8	3.94
아이돌봄 지원	19.8	80.2	3.94
주거지원	31.1	68.9	3.95
다문화인식 개선	16.5	83.5	4.06
자립지원	23.8	76.2	4.05
국적취득비용	23.6	76.4	4.06
고향방문 지원	14.9	85.1	4.32
이중언어 학습지원	17.4	82.6	4.11
자녀 언어발달 지원	16.8	83.2	4.17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29.1	70.9	3.94

(5) 경제활동

결혼이민자의 58.7%는 현재 근로 중으로 나타났으며 근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 교육비 충당(39.7%)과 생활비 마련(38.3%)으로 나타났다. 근로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 및 집안일과의 병행(23.7%)이었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은 한국어 소통(37.5%)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25.1%) 비율이 가장 높았다. 결혼이민자의 직업군은 서비스 종사자(32.1%)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월평균 수입은 100만~200만원 미만(49.0%)이 가장 많았다.

현재 근로 중이지 않는 응답자의 37.2%는 구직경험이 있으며 구직시 가장 어려운 점은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것(40.9%)이었다. 직업교육 훈련은 55.9%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선호하는 직업교육훈련은 식품가공 관련분야(21.3%)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취·창업 지원 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어 교육(24.0%)으로 나타나 결혼이민자의 구직 및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노후준비는 47.8%가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와 비교해보면 적은 수치이다. 또한 노후에 대한 걱정은 3.25점(5점척도)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족의 노후준비 정보 제공 및 교육이 필요해보인다.

(6) 건강 및 삶의 만족

주관적 신체 건강은 3.41점(5점척도)으로 보통 이상의 건강상태로 인식하고 있으며 주관적 정신 건강의 어려움은 ‘가끔 느꼈다’부터 ‘매우 자주 느꼈다’까지로 응답한 경우가 59.3%로 나타났다. 병원 이용시 가장 큰 어려움은 한국어를 잘하지 못함(34.2%)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년 이상 장기 거주자는 한국어 소통보다 치료비 부담(21.5%)과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음(16.5%)이 더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다. 임신/출산시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의사소통(14.7%)이었으나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 없다(15.2%)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를 대상으로 생활 변화를 살펴본 결과 경제환경, 삶의 만족, 한국어 실력 모두 과거보다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 장기 거주자의 전반적인 생활의 질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다문화가족 면접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집단별 다문화가족 면접조사

집단별 다문화가족 면접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결혼이주민 여성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문화와 언어로 나타났으며 갈등을 이해하고 대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한국어 습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낙인감은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다.

둘째, 다문화가족 부부문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의사소통과 자녀교육으로 나타났다. 언어의 한계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도 있지만 갈등해결을 위한 의사소통방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양육에 대한 문화차이가 갈등으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결혼이주민 여성은 부부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으며 이는 배우자 참여의 부부교육 및 상담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자녀문제는 결혼이민자의 집단별, 가구유형별 차이가 나타났다. 조사 결과 다문화 한부모 가족 중 양육비를 지급받는 사례는 전무했으며, 특히 결혼이민자는 언어와 문화의 한계로 인해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또한 다문화 한부모 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돌봄으로, 대부분은 가족센터보다는 지역아동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이는 다문화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아동센터 등과 같이 다문화가족의 이용이 많은 타 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영유아기에는 언어발달이, 청소년기에는 진로 및 학업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또한 자녀의 한국어 발달과 이중언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으므로 지원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 불편으로 센터 접근성이 낮아지고 자녀 연령이 증가하고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가족센터 이용 횟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가족센터 외 아이돌봄, 주거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한국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기관종사자 및 현장전문가 면접조사

기관종사자 및 현장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다문화 가족은 더 이상 취약계층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 가족만을 위한 사업보다는 1인가구,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재고하고 효율적인 지원 서비스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참여 대상자를 모집하는 일이다. 현금성이나 체험형 프로그램은 모집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다문화가족에게 꼭 필요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은 모집이 매우 어려웠다. 또한 효과성이 낮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지원정책, 사업대상과 지원내용이 유사한 중복사업, 평가체계의 한계, 외국인 가족 지원 부족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평가하여 개선안을 마련해야 하며 다문화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 사업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전북 다문화가족 정책 개선방안

1. 정책 추진 방향
2. 주요 추진 과제

IV

전북 다문화가족 정책 개선방안

1. 정책 추진 방향

본 연구는 전북 다문화가족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다문화가족 실태를 살펴보았다. 또한 집단별 다문화가족과 기관종사자 및 현장전문가의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평가 및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지금까지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북 다문화가족 정책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북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 전북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수준 및 삶의 만족은 과거보다 향상되었으며 현재 다문화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은 취약계층에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의 특수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예산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되었음에도 예산이 통합되지 못해 다문화가족지원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이다(김소영 외, 2023).

다문화가족 대상 사업은 때로 다문화가족에게 ‘다문화’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비다문화가족과의 통합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내의 다문화 자녀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농촌지역은 오히려 다문화 자녀가 많은 상황이므로 비다문화 자녀가 포함된 보편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므로 다문화가족 대상 프로그램과 비다문화가족과의 통합운영 프로

그럼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된다.

이러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광역가족센터의 역할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다문화가족 사업 운영을 평가하고 환류하는 장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각 시·군 가족센터와 소통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북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중앙과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 지역 특색에 맞게 다문화가족 정책을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체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유의 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 공유 및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각 시·군 사업을 공유하고 평가하여 우수사례 선정하고, 타 시도 벤치마킹을 통해 보다 나은 방향을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결혼이민자는 단순히 수혜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취업 지원과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결혼 이민자의 국내 거주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중·노년기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은 증가하고 있으나 가족센터 참여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으므로 다문화가족 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거주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체류하는 결혼이민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취업 또는 구직 욕구 역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취업과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취업지원이 필요하다.

나아가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한국어 실력은 적응 속도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과 학습 욕구는 입국 초기부터 정착 과정까지 각기 다르게 나타나므로, 맞춤형 교육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다문화 가족 관계를 개선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문화가족의 관계를 향상

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가족 교육 및 상담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다문화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장점인 글로벌 인재 양성은 세계화된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다문화 자녀 연령별 지원과 더불어 이중언어의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가족 내에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으므로 다문화가족 유형별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다문화 한부모 가족, 다문화 조손가족, 다문화 재혼가족, 외국인 가족 등 여러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마다 다른 문제와 요구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한부모 가족과 외국인 가족의 어려움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맞는 지원 정책과 사업이 제공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족센터 홍보 강화 및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 특히 시·군에 다문화가족이 전입되었을 때 가족센터에 대한 홍보 및 연계가 중요하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문화가족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주요 추진 과제

1) 가족사업 통합운영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자는 관점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다문화가족은 취약 계층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가족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만 하는 사업 중에서 비다문화가족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 대상 사업 중 가족캠프, 중노년기 부부교육, 노후준비 프로그램 등은 비다문화가족과 통합 운영할 수 있고 개인 및 가족의 생애주기별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으므로 비다문화가족을 포함하는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 외 자조모임을 비롯하여 여가 문화 활동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통합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형성 및 다문화 다양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족사업 통합운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족사업 예산을 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북 각 시·군 가족센터 예산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사업별 예산 편성 비중을 고려해야 한다.

〈참고사례: 통합자조모임(다문화포함)_경기 광명시 가족센터〉

- 사업대상: 자조모임 참여를 희망하는 광명가족 3~4가구
- 사업내용: 정보공유 및 지역사회 긍정적인 네트워크 형성 도모
- 활동혜택: 연 활동지원금 65만원 지원

2)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 강화 및 확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주로 결혼이주민 여성의 적응, 자녀 지원 등에 한정되어 있어 국내 장기 거주한 결혼이주민 여성의 가족센터 이용률은 저조한 편이다. 국내 거주기간이 긴 결혼이민자는 대부분 대한민국 국적으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민 여성이 한국인으로서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입국초기 받았던 지원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주민들과 교류하여 다문화가족이라는 꼬리표보다는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에서는 돌봄영역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여성농업인으로서의 리더십 발현, 지역봉사활동, 이중언어 지도, 멘토사업 등 지역사회 발전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기회는 결혼이민자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증진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에게는 다문화가족과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결혼이민자 365 언니 멘토단을 운영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가 신규 입국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을 돕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선주민과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고사례: 노.다.지 사업_대구달서구 가족센터〉

- 사업명: 노(노인)다(다문화)지(지역)돌봄 공동체 사업
- 사업내용: 선주민과 결혼이민자가 파트너가 되어 지역어르신댁 방문, 문화체험활동, 나눔봉사 등 돌봄공동체 형성

〈참고사례: 결혼이민여성 리더경진대회_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명: 여성농업인의 날
- 사업내용: 결혼이민여성 우수농업인 리더 공로상 수상 및 홍보 책자

3)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강화

전북 결혼이민자의 57.7%가 현재 근로 중이며 근로하지 않는 결혼이민자 중 37.2%는 구직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면접조사에서도 직업교육 및 취업에 대한 욕구는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 자격증 시험이나 구직으로는 연결되는 사례는 드물었다. 특히 경제활동의 주된 이유가 자녀교육비 충당(39.7%)과 생활비 마련(38.3%)으로 나타나,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월 평균 소득은 100만~200만원 미만(49.0%)인 경우가 가장 많아, 여전히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결혼이민자는 내국인에 비해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과 취업 관련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취업과정에서 높은 진입장벽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관리, 동행면접 서비스, 구인-구직 연계, 취업상담창구 운영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은 현재 각 시·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하여 취업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서울시는 다문화가족 취업중점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영등포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24년에는 서울시가족센터가 결혼이민자 취업중점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참고사례: 직장적응 프로그램_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인턴대상: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 여성(저소득,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 지원내용: 인턴 참여 기업체 발굴 및 새일(결혼이민)여성 인턴 선정 및 알선
- 지원금액: 1인 총액 380만원 한도(1개월 이상 9개월 이하 지원)

〈참고사례: 서울시 다문화가족취업중점기관_서울시 가족센터〉

- 사업대상: 결혼이민자
- 사업내용: 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축, 결혼이민자 수요 및 특성 반영한 맞춤형 취업상담, AI모의면접, 취업컨설팅 등 지원
- * 중·단기 과정으로 의료코디네이터, 사법통역, 급식관리사 교육, IT자격과정 등 개설

4) 한국어 교육의 지원 다양화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 실력은 한국생활의 적응 및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한국어 지원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필수사업이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수준과 욕구를 반영하고 지역 사투리까지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지원이 필요하며 교육의 방식을 다양하게 접근해야 한다.

조사결과,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실력은 남성이 여성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며 조사에 참여한 결혼이주민 남성은 근로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한국어 의사소통 (37.5%)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결혼이주민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한국어 교육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 거주 이민자의 한국어 실력은 입국 초기보다 향상되었지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례가 많아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나아가 한국어 교육 지원의 접근을 다양화해야 한다. 경제활동을 하는 결혼이민자가 증가하고 일과 교육을 병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비대면 수업을 강화하거나 주말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말 수업인 경우 자녀 돌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공부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개선방안_결혼이민자 한국어 지원〉

- 개선내용
 - ① 결혼이주민 남성의 한국어 교육 강화
 - ② 장기 거주 이민자를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 지원
 - ③ 한국어 교육 지원 방식 다양화
 - 찾아가는 한국어 수업 확대
 - 비대면 수업 확대
 - 주말 수업 운영 확대(자녀돌봄 운영 필수)

5) 한국인 배우자 자녀 양육 참여 지원 강화

다문화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결혼이주민 여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가정관리에 대한 조사결과, 자녀돌봄은 주로 결혼이주민 여성이 담당(58.2%)하고 있으며 영유아 자녀 돌봄 분담에서도 결혼이주민 여성은 대체로 본인이 부담한다는 비율이 높아, 배우자의 양육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중언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린시절부터 어머니의 모국어와 아버지의 한국어를 동시에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결과, 초등자녀의 한국어 실력(4.60점/5점척도)은 높은 반면 외국어 실력(2.46점/5점척도)은 상대적으로 낮아 이중언어를 잘 수행하고 있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 양육 참여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아버지 모임,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아버지 모임 등을 형성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함으로써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자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아버지 모임은 아버지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여 가족내 역할 분담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참고사례: 이중언어방학캠프_포항시 가족센터〉

- 사업명: 이중언어 방학캠프
- 사업내용: 이중언어 직접교육에 참여 중인 23가정 1박 2일 가족캠프
 - 이중언어 환경조성의 중요성과 어머니 나라 언어 코칭 등

〈참고사례: 완주 다문화가족 배우자 자조모임_완주군 가족센터〉

- 사업명: 완주백년손님
- 사업내용: 다문화가족 남편들의 모임을 통한 상호지지 체계 마련
 - 아내와의 언어 및 문화차이의 어려움, 자녀교육, 지역사회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문화 프로그램 의견수렴 등

6) 다문화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전북 다문화 한부모 가족이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양육비 이행률은 8.8%로 나타났으며 이는 21년 전국의 다문화 한부모 가족 양육비 이행률(21.4%)보다 낮은 수치이다. 양육비 이행률 제고를 위해 정부는 24년 9월 27일 양육비이행법 개정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조직에서 별도 독립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 전문상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청구 소송 법률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홍보하고 연계를 강화하여 전북 다문화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연계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

- 사업대상: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 사업내용:
 - 양육비 이행상담
 - 양육비 심판청구 등 법률지원 및 추심지원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 양육비 선지급제 전담 수행(25년 7월 도입)
- 신청방법: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서 및 관련서류 필수제출(등기우편, 방문)
- 양육비 관련 상담방법: 전화/방문상담, 온라인 상담

또한 다문화 한부모가족은 이혼/사별 후 원망, 분노, 슬픔 등의 심리적 상처와 불안정을 경험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지체계는 약한 편이다. 이에 따라 다문화 한부모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또는 자조모임을 강화하고 개인상담, 가족상담, 집단상담 등을 활용한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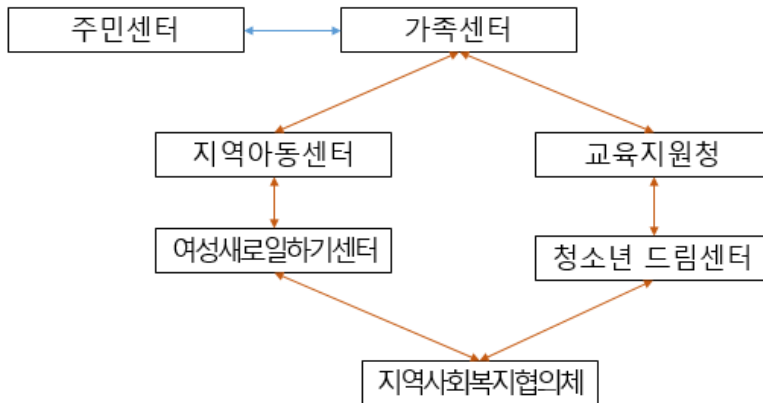
7) 시·군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각 시·군 가족센터는 지역의 유관기관과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 관련 기관 간의 중복사업으로 프로그램 모집 및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며 타 기관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관 간 협력과 사업 홍보에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기관의 역할과 사업 내용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입국 초기 또는 이사 시 전입 신고할 때 주민센터와 가족센터를 연계하여 가족센터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의 출발점을 마련하고 다문화가족이 초기 정착에 필요한 정보 및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후 가족센터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돕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는 지역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환류하는 장이 되어 중복사업을 예방하고 지역간의 한계도 극복할 것이다.

〈예시모델_시·군 유관기관 협의체〉



8) 외국인 가족 추가 지원

현재 시·군에는 외국인(가족)지원 전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지역 가족센터에 외국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외국인(가족)지원 조례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별개이기 때문에 가족센터에서 외국인(가족)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전북 지역의 인구 감소와 농촌 일손 부족을 외국인이 대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외국인(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판단된다.

시·군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보면 익산시를 비롯하여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 지원처럼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다문화가족 사업 중 일부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7조를 보면 1.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한국어 및 기초 생활 적응 교육 2. 외국인주민의 고충·생활·법률 및 취업 등의 상담 3. 외국인주민 생활 편의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가정의 보육·교육 등 6.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7. 외국인주민의 권익·인권 보호 및 고충 해결을 위한 쉼터 운영 등의 지원 범위가 있다.

이러한 지원은 현재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범위 및 내용과 유사하며 가족센터는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도록 돕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족) 지원에 대한 별도의 전달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센터가 외국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관계기관합동 (2023).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2023~2027)
- 관계부처합동 (2006.4.2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확정 [보도자료]
- 국무총리실, 관계부처합동 (2010).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 김금희, 민기연, 이영선 (2015).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 및 관계 증진 프로그램 개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1), 202-214.
- 김소연 (2024). [편집장 레터] 아시아 최초 ‘다인종·다문화 국가’ 한국. 매경이코노미, 8-8.
- 김소영, 최인희, 문희영, 구혜령, 이인선, 권소영 (2023). 가족변화 관점에서 가족센터사업 현황 분석 및 개편 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수미, 정경은 (2013). 다문화청소년의 낙인경험에 관한연구. 청소년 문화포럼. No 34. 27-49
- 김영혜, 이나련, 김희주 (2023). 2023년 경기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경기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김정혜, 황정임, 주재선, 정수연, 송란희 (2022). 2022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김혜정, 박혜림 (2020). 부산지역 외국인주민 생활 실태조사. 부산광역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7). "다문화가족 '정착' 넘어 '역량 강화'." 地方行政 66(768), 8-9.
- 박민정, 김도원, 박성일, 윤인진, 조영희 (2022). 서울시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연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박신규, 이동기, 조아영 (2013).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해체 실태 및 지원방안. 전라북도: 전북발전연구원.
- 박신규, 조경옥, 조아영 (2014).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실태분석을 통한 정착 지원방안 연구. 전라북도: 전북발전연구원.
- 설동훈, 김철효, 고재훈, 이충훈, 이지훈 (2020). 다문화가족 복지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대책 연구. 전라북도: 전라북도.
- 설동훈, 박신규, 이순미, 박순영 (2015). 전북형 다문화가족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발행처: 전라북도
- 송진영, 김길운, 백별아, 송원일 (2023). 평택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재)평택복지재단
- 여성가족부 (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2018~2022)
- 여성가족부 (2022).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관계부처합동 (201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이주연, 이동기, 최지훈 (2019).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 사회통합 증진을 중심으로. 전라북도: 전북연구원.

이해응, 김이선, 염미경, 손태주, 김미정, 김다은 (2022). 제4차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제주광역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인경, 선봉규, 좌현숙, 이선미 (2022).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광주광역시: 광주복지연구원.

정해숙, 김이선, 이택면, 마경희, 최윤정, 박건표, 동제연, 황정미, 이은아 (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행처: 여성가족부.

최영미, 김영혜, 김기영 (2022). 화성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발행처: 화성시 여성가족과

최윤정, 김이선, 선보영, 동제연, 정해숙, 양계민, 이은아, 황정미 (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행처: 여성가족부.

최윤정, 전기택, 김이선, 선보영, 동제연, 양계민, 최영미, 황정미 (2022).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행처: 여성가족부.

최정호, 김봉희, 박미숙 (2022). 인천광역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발전방안. 인천광역시: 인천여성가족재단.

통계청 (2019). 통계작성 단계별 가이드라인: 통계대행 및 컨설팅 수요기관용

통계청 (2022). 인구총조사.

통계청 (2024). 2023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통계청 (2024). 2023년 혼인·이혼 통계.

통계청 (2024). 인구총조사.

행정안전부 (2023). 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호남지방통계청 (2023). 더불어 사는 사회, 통계로 본 다문화 현황.

황상심 (2018). 다문화가정의 이중언어 사용에 관한 질적 탐색. 언어치료연구, 27(1), 99-113.

[부록]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여성가족재단
JEONBUK WOMEN & FAMILY FOUNDATION

ID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는 결혼이민자 또는 한국국적취득자를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실태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험과 의견은 정책 개선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9조(벌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귀하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7~8월

■ 연구담당자: 전북여성가족재단

■ 조사원 :

이선영 연구위원(063-254-9489)

SQ1	귀하는 배우자가 있습니까? (사실혼 포함)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SQ2	귀하가 거주 중인 시군은 어디입니까?	☐ ① 전주시 ☐ ⑤ 김제시 ☐ ⑨ 부안군 ☐ ⑬ 무주군	☐ ② 익산시 ☐ ⑥ 남원시 ☐ ⑩ 임실군 ☐ ⑭ 장수군
SQ3	귀하가 거주 중인 지역의 행정구역은 어떻게 됩니까?	☐ ① 읍 지역	☐ ② 면 지역
		☐ ③ 동 지역	

PART A. 일반사항 및 가구 특성

A0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여성 ☐ ② 남성

A02. 귀하의 출생연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	--	--	--

 년 출생

A03. (SQ1=1만 응답) 배우자의 출생연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	--	--	--

 년 출생

A04.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학력 없음(미취학 포함) ☐ ② 초등학교 졸업 ☐ ③ 중학교 졸업

☐ ④ 고등학교 졸업 ☐ ⑤ 대학 졸업 ☐ ⑥ 대학원 졸업(석사 이상)

A05. (SQ1=1만 응답) 귀하의 배우자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학력 없음(미취학 포함) ☐ ② 초등학교 졸업 ☐ ③ 중학교 졸업

☐ ④ 고등학교 졸업 ☐ ⑤ 대학 졸업 ☐ ⑥ 대학원 졸업(석사 이상)

A06. 귀하의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한국어 실력	거의 못한다	조금 못한다	보통이다	잘한다	매우 잘한다
1) 말하기	☐ ①	☐ ②	☐ ③	☐ ④	☐ ⑤
2) 듣기	☐ ①	☐ ②	☐ ③	☐ ④	☐ ⑤
3) 읽기	☐ ①	☐ ②	☐ ③	☐ ④	☐ ⑤
4) 쓰기	☐ ①	☐ ②	☐ ③	☐ ④	☐ ⑤

A07. 귀하의 출생 시 국적은 어디입니까?

☐ ① 중국	☐ ② 중국(한국계)	☐ ③ 대만	☐ ④ 일본	☐ ⑤ 몽골
☐ ⑥ 베트남	☐ ⑦ 필리핀	☐ ⑧ 태국	☐ ⑨ 캄보디아	☐ ⑩ 우즈베키스탄
☐ ⑪ 러시아	☐ ⑫ 네팔	☐ ⑬ 미국	☐ ⑭ 캐나다	☐ ⑮ 기타

A08. 귀하의 현재 국적은 어디십니까?

☐ ① 한국 **A09번으로** ☐ ② 외국 **A08-1번으로**

A08-1. 외국 국적이신 경우 귀하의 현재 체류 자격은 무엇입니까?

☐ ① 영주(F-5) ☐ ② 결혼이민(F-6), 국민의 배우자(F-2-1) ☐ ③ 거주(F-2), 방문동거(F-1)

☐ ④ 외국국적동포(F-4) ☐ ⑤ 전문직 취업(E-1~E-7) ☐ ⑥ 비전문 취업(E-9)

☐ ⑦ 방문취업(H-2) ☐ ⑧ 기타()

A09. 귀하께서 처음 한국에 입국 시기는 언제입니까?

--	--	--	--

 년

A10. 귀하께서는 언제부터 전북에 거주하십니까? 년부터 지금까지

A11. 귀하께서 전복에 거주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 ① 결혼 ☐ ② 본인 직장 이동 ☐ ③ 배우자 직장 이동
☐ ④ 자녀 교육 ☐ ⑤ 기타 ()

A12. 귀하의 가구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부부만 ☐ ② 부부+자녀 ☐ ③ 한부모가구(한부모+자녀+그외 가족 포함)
☐ ④ 부모님+부부+자녀 ☐ ⑤ 1인 가구 ☐ ⑥ 기타 ()

A13. 현재 함께 사는 가구원 수는 몇 명입니까? 본인 포함 총 () 명

A14. 귀하께서는 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총 몇 명입니까?

- ☐ ① 자녀 있음 총 () 명 ☐ ② 자녀 없음 **A16번으로**

A15. 자녀 분의 출생연도, 중도입국 여부, 장애 여부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오.

자녀	출생연도	중도입국 여부		장애 여부
첫째 자녀	()년	☐ ① 한국출생	☐ ② 해외출생 후 입국	☐ ① 없음 ☐ ② 있음
둘째 자녀	()년	☐ ① 한국출생	☐ ② 해외출생 후 입국	☐ ① 없음 ☐ ② 있음
셋째 자녀	()년	☐ ① 한국출생	☐ ② 해외출생 후 입국	☐ ① 없음 ☐ ② 있음
넷째 자녀	()년	☐ ① 한국출생	☐ ② 해외출생 후 입국	☐ ① 없음 ☐ ② 있음
다섯째 자녀	()년	☐ ① 한국출생	☐ ② 해외출생 후 입국	☐ ① 없음 ☐ ② 있음

A16. 현재 거주중인 주택 유형은 무엇입니까?

- ☐ ① 단독주택 ☐ ② 아파트 ☐ ③ 연립주택(맨션)
☐ ④ 다세대주택(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 ☐ ⑤ 기타()

A17. 현재 거주중인 주택의 소유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본인 명의 소유 ☐ ② 배우자 명의 소유 ☐ ③ (배우자) 부모 소유 ☐ ④ 월세
☐ ⑤ 전세 ☐ ⑥ 무상 ☐ ⑦ 기타 ()

A18. 귀하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본인과 배우자의 모든 월소득의 합계)

- ☐ ① 100만 원 미만 ☐ ② 100~200만 원 미만 ☐ ③ 200~300만 원 미만
☐ ④ 300~400만 원 미만 ☐ ⑤ 400~500만 원 미만 ☐ ⑥ 500만 원 이상

A19.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한국에서의 경제적 지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 숫자가 높을수록 높은 계층입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하하(下下)	하상(下上)	중하(中下)	중상(中上)	상하(上下)	상상(上上)

A20. 귀하께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십니까?

- ☐ ① 예 **A20-1번으로** ☐ ② 아니오 **B01번으로**

A20-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 유형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생계급여 ☐ ② 의료급여 ☐ ③ 주거급여 ☐ ④ 교육급여

PART B. 부부관계

B01. 귀하의 현재 구체적인 혼인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 B03번으로**
☐ ② 이혼·별거 **☞ B02-1번으로**
☐ ③ 사별 **☞ PART C로**
☐ ④ 비혼(미혼) **☞ PART D로**

B02-1. 귀하는 몇 년도부터 이혼·별거하셨습니다? ()년부터

B02-2. 이혼·별거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 ① 외도 등의 애정문제 ☐ ② 성격 차이 ☐ ③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 ④ 경제적 문제 ☐ ⑤ 학대와 폭력 ☐ ⑥ 음주 및 도박
☐ ⑦ 배우자의 심각한 심신장애 ☐ ⑧ 배우자의 가출 ☐ ⑨ 자녀 문제
☐ ⑩ 문화적 차이 ☐ ⑪ 기타()

B02-3. 배우자와 이혼·별거한 경우, 자녀는 주로 누가 돌보고 있습니까?

- ☐ ① 본인 **☞ B02-4번으로**
☐ ② 배우자 **☞ B02-5번으로**
☐ ③ 기타 ()
 ☐ ④ 자녀가 없다

B02-4. (양육자) 귀하는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습니까?

- ☐ ①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 ② 이전에 받았으나 최근에는 받지 못했다
☐ ③ 이전에 받지 않았으나 최근에 받기 시작했다 ☐ ④ 양육비 일체를 한꺼번에 받았다
☐ ⑤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B02-5. (비양육자) 귀하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자녀 연락을 합니까?

- ☐ ① 소식을 모르고 만나지 않는다 ☐ ② 직접 연락을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식을 듣는다
☐ ③ 만나지 않고 전화나 메일을 통해 연락한다 ☐ ④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만난다
☐ ⑤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 응답 후 PART C로 이동

B03. 귀하는 배우자와 언제부터 함께 살았습니까? ※ 결혼식이나 혼인신고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실제로 함께 살기 시작한 연도

--	--	--	--

년부터 함께 거주

B04-1. 본인의 결혼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초혼 ☐ ② 재혼

B04-2. 배우자의 결혼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초혼 ☐ ② 재혼

B05. 배우자를 어떤 경로를 통해 만나셨습니까?

- ☐ ① 가족 또는 친척의 소개로 ☐ ② 친구 또는 동료의 소개로 ☐ ③ 종교 기관을 통해
☐ ④ 결혼 중개업체(또는 중개업자)를 통해서 ☐ ⑤ 스스로 ☐ ⑥ 기타 ()

B06. 귀하는 가족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해당 없음
1) 나와 배우자 사이의 관계	☐ ①	☐ ②	☐ ③	☐ ④	☐ ⑤	
2) 나와 자녀 사이의 관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3) 나와 배우자 부모 사이의 관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4) 배우자와 나의 부모 사이의 관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B07. 귀하는 배우자와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얼마나 됩니까? (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일 등 모든 의사소통 포함)

- ☐ ① 전혀하지 않는다 ☐ ② 30분 미만 ☐ ③ 30분 이상-1시간 미만
☐ ④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 ⑤ 2시간 이상

B08. 귀하의 가정에서는 다음의 활동을 주로 누가 합니까?

구분	항상 내가	대체로 내가	부부가 똑같이	대체로 배우자가	항상 배우자가	가족 중 다른 사람	해당 없음
1) 집안일·가사노동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2) 자녀 돌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⑨
3) 저축, 대출 등 재산 관리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4) 그 외 다른 활동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B09. 귀하는 배우자와 다툼 적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B09-1번으로** ☐ ② 없다 **B10번으로**

B09-1. 가장 많이 다툼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	-----	--

- ①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 가치관 ② 자녀 양육·교육 문제 ③ 생활비 등 경제 문제
- ④ 언어 소통의 어려움 ⑤ 문화, 종교 차이 ⑥ 배우자의 생활 습관(음주, 늦은 귀가 등)
- ⑦ 배우자 가족과 관련된 문제 ⑧ 본인 가족과 관련된 문제 ⑨ 배우자와의 성생활
- ⑩ 배우자의 폭언 폭력 ⑪ 기타 ()

B09-2. 귀하는 배우자와 문제가 생길 때 주로 어떻게 합니까?

1순위	2순위
-----	-----

- ① 그냥 참는다 ② 혼자서 해결 방법을 찾아 본다
③ 다른 일을 하면서 잊으려고 한다(쇼핑, 운동, 음주, 종교 활동 등) ④ 배우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⑤ 주위 사람(친구, 친지 등)에게 이야기 한다 ⑥ 전문가와 상담 한다
⑦ 기타 ()

B10. 귀하는 한국에서 가정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 ① 예 B10-1번으로 ☐ ② 아니오 PART C로

B10-1. 귀하가 가정에서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 어떤 폭력이었는지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복수 응답]

- ☐ ① 경제적 폭력 (생활비 주지 않기, 지출 의심, 낭비, 돈 요구하기 등)
- ☐ ② 성적 폭력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 강요하기, 동의 없이 촬영하여 유포하기 등)
- ☐ ③ 정서적 폭력 (죄책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기, 만나는 사람 통제하기, 공포감 조성하기, 모든 결정 혼자하기 등)
- ☐ ④ 신체적 폭력 (밀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 구타하기, 흉기로 협박 등)

B10-2.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복수 응답]

- ☐ ① 배우자 ☐ ② 배우자 부모 ☐ ③ 배우자 가족 및 친척 ☐ ④ 본인 부모
☐ ⑤ 본인 가족 및 친척 ☐ ⑥ 자녀 ☐ ⑦ 기타 ()

B10-3. 귀하는 폭력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복수 응답]

- ☐ ① 그냥 참았다 ☐ ②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피했다
☐ ③ 대항하여 함께 폭력을 행사했다 ☐ ④ 친인척 등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 ⑤ 이주민센터 등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 ⑥ 폭력상담소, 경찰서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 ⑦ 기타 ()

B10-4. 다음은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기관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복수 응답]

- ☐ ① 가정폭력상담소 ☐ ② 가정폭력피해 여성 쉼터 ☐ ③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④ 1366 여성긴급전화 ☐ ⑤ 경찰서(112) ☐ ⑥ 모두 모른다

PART C. 자녀 양육

※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신 분들은 PART D로 이동합니다.

C01. 귀하의 자녀가 해당되는 연령대를 모두 골라주십시오. [복수 응답]

- ☐ ① 미취학 자녀(만5세 이하) ☐ ② 초등학생(만6~12세) ☐ ③ 중고등학생(만13~18세)
☐ ④ 만19세~23세 성인자녀 ☐ ⑤ 만 24세 이상 ☒ 만24세 이상의 자녀만 있다면 PART D로 이동

C02. 귀하는 부모로서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잘 해결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2)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3) 나는 자녀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다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C03~C04는 미취학 자녀(만5세 이하) 설문 내용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시면 다음 문항으로 이동합니다.

C03. 만 5세 미만 아이를 양육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을 선택해주시시오.

1순위	2순위
-----	-----

- ① 자녀 양육에 대한 배우자나 가족과의 의견 차이 ② 내가 바쁘거나 아플 때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을 찾기 어려움
 ③ 자녀에게 한국어를 직접 가르치기 어려움 ④ (한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대해 잘 모름
 ⑤ 자녀 양육에 대한 내 의견을 주위 사람들이 무시함 ⑥ 기타 ()
 ⑦ 어려움 없음

C04. 귀하의 가정에서는 만 5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 돌봄 활동을 어떻게 분담하십니까?

구분	항상 내가	대체로 내가	부부가 똑같이	대체로 배우자가	항상 배우자가	가족 중 다른 사람	배우자 없음
1) 의식주활동 (밥먹이기, 옷입히기, 재우기, 씻기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2) 놀이활동 (책읽기, 놀아주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3) 훈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C13~C18는 중고등학생 자녀(만13~18세) 설문 내용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시면 다음 문항으로 이동합니다.

C13. 중고등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을 선택해주시시오.

1순위

2순위

- | | |
|---------------------------|----------------------------------|
| ① 교육비, 용돈 등 자녀에게 드는 비용 부담 | ② 자녀의 학업, 진학, 진로 등에 대한 정보 부족 |
| ③ 자녀의 학습지도, 학업 관리의 어려움 | ④ 자녀와의 대화 부족, 의사소통 어려움 |
| ⑤ 부모의 국제결혼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 | ⑥ 게임,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 등에 대한 자녀와의 갈등 |
| ⑦ 학교생활부적응(등교거부, 따돌림 등) | ⑧ 기타() |
| ⑨ 어려움 없음 | |

C14. 귀하의 자녀는 학교(사회)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까?

- | | | |
|--------------------------------------|---------------------------------------|---------------------------------|
|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 ☐ ③ 보통이다 |
| ☐ ④ 약간 그렇다 | ☐ ⑤ 매우 그렇다 | |

C15. 귀하는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얼마나 됩니까?(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일 등 포함)

- | | | |
|--|-----------------------------------|--|
| ☐ ① 전혀하지 않는다 | ☐ ② 30분 미만 | ☐ ③ 30분 이상-1시간 미만 |
| ☐ ④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 ☐ ⑤ 2시간 이상 | |

C16. 귀하의 자녀의 한국어 실력은 어떠한니까?

- | | | |
|-----------------------------------|-----------------------------------|---------------------------------|
| ☐ ① 전혀 못한다 | ☐ ② 별로 못한다 | ☐ ③ 보통이다 |
| ☐ ④ 약간 잘한다 | ☐ ⑤ 매우 잘한다 | |

C17. 귀하의 자녀의 다른 나라(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 언어 실력은 어떠한니까?

- | | | |
|-----------------------------------|-----------------------------------|---------------------------------|
| ☐ ① 전혀 못한다 | ☐ ② 별로 못한다 | ☐ ③ 보통이다 |
| ☐ ④ 약간 잘한다 | ☐ ⑤ 매우 잘한다 | |

C18. 귀하는 자녀와 이야기할 때 언어의 불편함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 | | | |
|---------------------------------------|-----------------------------------|--------------------------------------|
| ☐ ① 거의 느끼지 못한다 | ☐ ② 약간 느낀다 | ☐ ③ 매우 많이 느낀다 |
|---------------------------------------|-----------------------------------|--------------------------------------|

※ C19~C22는 만19~23세의 성인 자녀에 설문 내용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시면 다음 문항으로 이동합니다.

C19. 성인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을 선택해주시시오.

1순위

2순위

- | | |
|---------------------------|----------------------------------|
| ① 교육비, 용돈 등 자녀에게 드는 비용 부담 | ② 자녀의 진로, 취업 등에 대한 정보 부족 |
| ③ 자녀의 학습지도, 학업 관리의 어려움 | ④ 자녀와의 대화 부족, 의사소통 어려움 |
| ⑤ 부모의 국제결혼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 | ⑥ 게임,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 등에 대한 자녀와의 갈등 |
| ⑦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 부적응(따돌림 등) | ⑧ 기타 () |
| ⑨ 어려움 없음 | |

C20. 귀하의 자녀는 학교(사회)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대체로 그렇지 않는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C20-1번으로

C21번으로

C20-1. 학교(사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 ① 친구(이성) 및 사회관계 문제 | ☐ ② 정서행동상의 어려움(공격성, 산만함, 거짓말 등) |
| ☐ ③ 가족관계 불화 | ☐ ④ 과도한 경쟁 구조 환경(학업, 취업 스트레스 등) |
| ☐ ⑤ 부모의 국제결혼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 | ☐ ⑥ 이주민 차별 |
| ☐ ⑦ 기타 () | |

C21. 귀하의 성인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자원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순위

2순위

- | | |
|---|--|
| ☐ ① 학업 관련 자원(대학(원)진학 상담 등) | ☐ ② 직업 준비를 위한 기술 훈련과 심화 직무 교육 |
| ☐ ③ 가족, 친구, 이성교제 등 관계 개선 관련 상담 | ☐ ④ 사회 공동체에서 요구되는 소양교육(사회적응 교육) |
| ☐ ⑤ 기타 () | |

C22. 귀하는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얼마나 됩니까?(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일 등 포함)

- | | | |
|--|-----------------------------------|--|
| ☐ ① 전혀 하지 않는다 | ☐ ② 30분 미만 | ☐ ③ 30분 이상-1시간 미만 |
| ☐ ④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 ☐ ⑤ 2시간 이상 | |

C23. 귀하는 자녀와 이야기할 때 언어의 불편함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 | | | |
|---------------------------------------|-----------------------------------|--------------------------------------|
| ☐ ① 거의 느끼지 못한다 | ☐ ② 약간 느낀다 | ☐ ③ 매우 많이 느낀다 |
|---------------------------------------|-----------------------------------|--------------------------------------|

PART D. 지역사회 관계

D01.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복수응답]

- | | | |
|---|--------------------------------------|---|
| ☐ ① 이주민 모임(모국인 단체, 자조모임) | ☐ ② 종교활동 | ☐ ③ 지역사회활동(부녀회, 청년회, 마을행사 등) |
| ☐ ④ 자녀교육활동(학부모회 등) | ☐ ⑤ 문화 및 취미활동 | ☐ ⑥ 자원봉사 |
| ☐ ⑦ 기타 () ☐ ⑧ 없음 | | |

D02. 귀하는 한국에서 선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 | | |
|------------------------------------|--|---|
| ☐ ① 선거권이 없다 | ☐ ② 선거권이 있으나 참여하지 않았다 | ☐ ③ 선거권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하였다 |
|------------------------------------|--|---|

D03. 귀하는 전북에서 사는 것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 ②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만족한다 ☐ ⑤ 매우 만족한다

D03-1번으로

D04번으로

D03-1. 전북에 사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 ☐ ① 일자리 구하는 것이 어렵다 | ☐ ② 이주민에게 적대적이다 | ☐ ③ 문화 및 여가 시설이 부족하다 |
| ☐ ④ 교육여건이 좋지 않다 | ☐ ⑤ 교통이 불편하다 | ☐ ⑥ 기타 () |

D04. 귀하는 앞으로도 전북에 살고 싶으십니까?

- ☐ ① 전혀 살고 싶지 않음 ☐ ② 대체로 살고 싶지 않음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살고 싶음 ☐ ⑤ 매우 살고 싶음

D05. 한국생활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

- ① 외로움 ② 부부갈등 ③ 배우자 이외의 가족간의 갈등
 ④ 자녀 양육 및 교육 ⑤ 경제적 어려움 ⑥ 언어
 ⑦ 친구 또는 이웃 사귀기 ⑧ 편견과 차별 ⑨ 공공기관(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 은행 이용
 ⑩ 생활방식 등의 문화차이 ⑪ 기타() ⑫ 어려움 없음

D06.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전북에서 생활하면서 외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었습니까?

- ☐ ① 있다 ☒ D06-1번으로 ☐ ② 없다 ☒ D07번으로

D06-1. 어떤 장소에서 차별을 받았습니까? [복수응답]

- ☐ ① 거리나 동네 ☐ ② 일반상업시설(상점, 음식점, 은행 등)
☐ ③ 공공기관(주민센터,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 ④ 직장
☐ ⑤ 자녀의 학교나 보육시설 ☐ ⑥ 집(가족관계, 친척 등)
☐ ⑦ 기타()

D06-2. 차별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 ☐ ①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다 ☐ ② 차별 시정 관련 기관에 신고하였다
☐ ③ 상담 기관, 센터 등에 문의하였다 ☐ ④ 가족, 친구와 상의하였다
☐ ⑤ 인터넷 게시판 카페, SNS 등에 글을 올렸다 ☐ ⑥ 참았다
☐ ⑦ 기타()

D07.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지원서비스를 알고 계십니까?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구분	모른다	안다		
		한 번도 이용한적 없음	이용한 적 있지만 최근에는 없음	최근 1년간 이용한 적 있음
1) 센터에서의 한국어 교육, 한국생활교육	☐ ①	☐ ②	☐ ③	☐ ④
2) 가정방문교육서비스(한국어, 자녀양육 등)	☐ ①	☐ ②	☐ ③	☐ ④
3) 통·번역 서비스 지원	☐ ①	☐ ②	☐ ③	☐ ④
4) 부부, 자녀, 가족 교육 및 상담	☐ ①	☐ ②	☐ ③	☐ ④
5) 다문화가족 위기사례 지원	☐ ①	☐ ②	☐ ③	☐ ④
6) 사회 활동 지원(자조모임, 봉사 활동 등)	☐ ①	☐ ②	☐ ③	☐ ④
7) 아이돌봄 서비스	☐ ①	☐ ②	☐ ③	☐ ④
8) 임대주택 및 주거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③	☐ ④
9) 다문화인식 개선(다문화 어울림 축제 등)	☐ ①	☐ ②	☐ ③	☐ ④
10) 자립지원서비스(검정고시, 도내 대학 학비 지원 등)	☐ ①	☐ ②	☐ ③	☐ ④
11) 국적취득비용지원	☐ ①	☐ ②	☐ ③	☐ ④
12) 결혼이민자 고향 방문 지원	☐ ①	☐ ②	☐ ③	☐ ④
13) 이중언어 학습지원	☐ ①	☐ ②	☐ ③	☐ ④
14)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 ①	☐ ②	☐ ③	☐ ④
15)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 ①	☐ ②	☐ ③	☐ ④

D08.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지원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구분	전혀 필요 없다	별로 필요 없다	보통이다	대체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센터에서의 한국어 교육, 한국생활교육	☐ ①	☐ ②	☐ ③	☐ ④	☐ ⑤
2) 가정방문교육서비스(한국어, 자녀양육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3) 통·번역 서비스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4) 부부, 자녀, 가족 교육 및 상담	☐ ①	☐ ②	☐ ③	☐ ④	☐ ⑤
5) 다문화가족 위기사례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6) 사회 활동 지원 (자조모임, 봉사 활동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7) 아이돌봄 서비스	☐ ①	☐ ②	☐ ③	☐ ④	☐ ⑤
8) 임대주택 및 주거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③	☐ ④	☐ ⑤
9) 다문화인식 개선(다문화 어울림 축제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10) 자립지원서비스(감정고시, 도내 대학 학비 지원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11) 국적취득비용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12) 결혼이민자 고향 방문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13) 이중언어 학습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14)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15)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16)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작성하여주십시오.	기타 필요 서비스()				

PART E. 경제 활동

E01. 귀하는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 ① 하고있지 않다 ⇨ E01-1번으로

☐ ② 일하고 있다 ⇨ E01-3번으로

E01-1. 귀하는 일자리를 구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구한적 없음 ⇨ E07번으로

☐ ② 구한적 있음 ⇨ E01-2번으로

E01-2. 귀하는 전복에서 일자리를 찾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 | |
|-------------------------------|----------------------------|
| ① 한국말을 잘 못해서 | ② 한국에서의 경력이 부족해서 |
| ③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 ④ 출신국에서의 학력과 자격증을 인정받지 못해서 |
| ⑤ 출신국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 ⑥ 취업을 도와줄 가족이나 친구가 없어서 |
| ⑦ 외국인에 대한 차별 때문에 | ⑧ 임신, 출산 중이어서 |
| ⑨ 일자리 관련 정보가 부족하거나 취업 방법을 몰라서 | ⑩ 기타() |
| ⑪ 어려움 없음 | |

⇨ 응답 후 E07번으로

E01-3. 귀하가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 | | |
|-------------|-------------|-------------------|
| ① 자녀 교육비 충당 | ② 생활비 마련 | ③ 본국 가족에게 송금하기 위해 |
| ④ 자기발전을 위해 | ⑤ 미래(노후) 대비 | ⑥ 기타() |

E01-4. 귀하는 일을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일이 힘들고 위험하다 ②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③ 한국말로 대화하기 어려움
④ 직장 상사나 동료와의 문제 ⑤ 외국 사람에 대한 차별 ⑥ 임금이 낮음
⑦ 자녀 양육, 집안일과 병행하기 어려움 ⑧ 기타() ⑨ 별로 어려움 없음

E02. 귀하의 평균근로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주 시간

E03. 귀하의 현재 직업군은 어떻게 됩니까?

- ☐ ① 서비스종사자(식당운영, 음식점 종업원, 간병인 등) ☐ ② 판매종사자(가게운영, 세일즈맨, 보험설계사 등)
☐ ③ 농림어업 종사자 ☐ ④ 기능종사자(기능, 숙련공)
☐ ⑤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⑥ 가사관련 육체노동자(가사도우미, 보육사 등)
☐ ⑦ 기타 단순노동자(저숙련 공장, 건설 노동자 등) ☐ ⑧ 사무종사자(서기, 비서 등)
☐ ⑨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사, 간호사, 교사, 강사, 통번역사 등) ☐ ⑩ 임직원 및 행정가(기업가, 고급공무원, 기업 임원 등)
☐ ⑪ 기타()

E04. 귀하가 하고 있는 일의 고용 형태는 어떠합니까?

- ☐ ①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정규직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근로자
☐ ②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
☐ ③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 ④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 연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람
☐ ⑤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연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인 혼자 또는 무급 가족 종사자와 함께 일하는 사람
☐ ⑥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의 가족, 친인척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에서 정규 근무 시간의 1/3 이상 종사하는 사람

E05. 현재 귀하의 월평균 수입(세금 포함)은 어느 정도입니까?

- ☐ ① 임금(보수) 없음 ☐ ② 100만 원 미만 ☐ ③ 100만 이상~200만 원 미만
☐ ④ 200만 이상~300만 원 미만 ☐ ⑤ 300만 이상~400만 원 미만 ☐ ⑥ 400만 이상~500만 원 미만
☐ ⑦ 500만 원 이상

E06. 귀하는 지금의 일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근로시간	☐ ①	☐ ②	☐ ③	☐ ④	☐ ⑤
2) 수입(돈)	☐ ①	☐ ②	☐ ③	☐ ④	☐ ⑤
3) 일의 강도(고된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4) 복리후생(경조사비, 건강진단비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E07. 귀하는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생각이 있습니까?

- ☐ ① 있음 ☐ E07-1번으로 ☐ ② 없음 ☐ E08번으로

E07-1. 귀하는 어떤 분야(직종)의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1순위

2순위

- ① 회계·사무 분야 (회계 및 경리, 컴퓨터 활용능력 등)
- ② 교육 및 연구 분야 (방과후 아동지도, 방과후 독서, 강사 양성과정 등)
- ③ 보건, 의료 분야 (노인치매건강관리사, 간호조무사, 산후도우미 등)
- ④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
- ⑤ 식품가공 관련 분야 (바리스타, 베이킹, 요리 및 조리사 과정 등)
- ⑥ 영업 및 판매 서비스 분야 (온라인 마케팅, 룸메이드, 가사도우미, 식당 종업원 등)
- ⑦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분야 (이미용사, 네일아트, 레크리에이션 강사과정 등)
- ⑧ 섬유 및 의복 분야 (의류 제작자, 의류 수선, 홈패션 등)
- ⑨ 장비·건설, 전기·전자 분야 (기계가공·조립, 운전, 토목, 건축, 전기공사 등)
- ⑩ 공예 분야 (인테리어 소품, 귀금속·금속 공예, 가구·목공예·도자기공예 등)
- ⑪ 농림, 어업, 임업 분야
- ⑫ 기타 ()

E07-2. 귀하의 성공적인 취업과 창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정책은 어떤 것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취업을 위한 기초교육 제공(진로상담, 이력서 쓰기, 면접 준비, 1:1 이력서 작성 등)
- ② 취업을 위한 동행 서비스 지원(면접, 신체검사, 근로계약서 작성 시 동행 및 컨설팅)
- ③ 취업을 위한 한국어교육
- ④ 전문취업지원기관 연계 및 일자리 소개
- ⑤ 정부 지원 일자리 확대(공공근로 일자리,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 ⑥ 외국인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
- ⑦ 취업 관련 교육
- ⑧ 창업 등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지원
- ⑨ 이주민 취업박람회 개최
- ⑩ 기타 ()

E08. 귀하는 현재 노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① 있음 E08-1번으로

☐ ② 없음 E09번으로

E08-1. 준비를 하고 있다면 주된 것과 부수적인 것을 적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국민연금
- ② 기타 공적 연금(공무원, 군인, 교원)
- ③ 사적 연금(은행, 보험회사를 통한 개인연금)
- ④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 ⑤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 ⑥ 부동산 임대 수익
- ⑦ 주식, 채권 등
- ⑧ 기타()

E09. 귀하는 노후와 관련하여 걱정이나 불안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 ① 전혀 느끼지 않는다

☐ ② 별로 느끼지 않는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느낀다

☐ ⑤ 매우 느낀다

PART F. 건강 및 삶의 만족

F01. 귀하는 현재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②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만족한다

☐ ⑤ 매우 만족한다

F02. 귀하의 신체적인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 ☐ ① 매우 나쁜 편 ☐ ② 나쁜 편 ☐ ③ 보통
☐ ④ 좋은 편 ☐ ⑤ 매우 좋은 편

F03.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적이 있습니까?

- ☐ ① 그런적 없음 ☐ ② 가끔 느꼈다 ☐ ③ 조금 느꼈다 ☐ ④ 매우 자주 느꼈다

F04. 병원을 이용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 ①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 ② 치료비가 부담스러워서 ☐ ③ 이용 및 진료 절차가 복잡해서
☐ ④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 ☐ ⑤ 시간이 없어서 ☐ ⑥ 기타()
☐ ⑦ 어려움 없다

F05. 귀하는 임신과 출산시 또는 준비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 ☐ ① 임신과 출산의 경험을 있지만 어려움이 없었다 ☐ ② 한국식 산후조리가 힘들었다
- ☐ ③ 가까운곳에 산부인과가 없어 다니기 어려웠다 ☐ ④ 산-전후 우울증으로 힘들었다
- ☐ ⑤ 임신과 출산 관련된 정보를 구할 수 없었다 ☐ ⑥ 병원에서 의사소통 하는게 어려웠다
- ☐ ⑦ 기타() ☐ ⑧ 임신과 출산의 경험이 없다

F06. 귀하는 한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하셨습니까?

- ☐ ① 그렇다 **정답** F07번으로 ☐ ② 아니다 **정답** 설문종료

F07. 처음 한국에 왔을때보다 경제적으로 나아졌습니까?

- ☐ ① 더 나빠졌다 ☐ ② 똑같다 ☐ ③ 조금 나아졌다 ☐ ④ 매우 나아졌다

F08. 처음 한국에 왔을때보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이 높아졌습니까?

- ☐ ① 더 나빠졌다 ☐ ② 똑같다 ☐ ③ 조금 높아졌다 ☐ ④ 매우 높아졌다

F09. 처음 한국에 왔을때보다 한국어를 잘합니까?

- ☐
- ① 더 못한다
- ☐
- ② 똑같다
- ☐
- ③ 조금 잘한다
- ☐
- ④ 매우 잘한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본인 외에 확인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설문조사 완료시 감사의 마음으로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답례품을 받으실 연락처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신 휴대폰 번호는 답례품 발송만을 위한 것이며

답례품 발송 후 바로 폐기할 예정입니다.

연락처: 010 - _____ - _____

2024 기본연구 - 01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실태 및 정책 개선방안

발행인 최병관
연구자 이선영, 김민철
발행일 2024년 12월
인쇄처 전라북도장애인미술협회 인쇄사업단
발행처 전북여성가족재단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로38
전 화 1577-3813(代)
ISBN 979-11-987835-6-1

이 책의 저작권은 전북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